

KOTRA COUNTRY REPORT
KOTRA 국가정보

독일

목차

※ 목차 클릭 시, 해당 내용으로 이동

I. 일반

1. 국가개요	4
2. 한국과의 관계	5
3. 경제현황	14
4. 정치	18
5. 주요산업	22

II. 무역

1. 수출입	24
2. 한국과의 수출입	35
3. 수출 유망항목	39
4. 무역협정	42
5. 수입규제 및 관세	48
6. 통관 · 물류	64

III. 투자

1. 투자환경	72
2. 외국인직접투자	81
3. 한국기업 투자	85
4. 투자진출방식	106
5. 외환	116
6. 노무	117
7. 세무	120
8. 지식재산권	123
9. 청산 및 철수	124

IV. 참고정보

1. 시장특성	127
2. 비즈니스 에티켓	129
3. 주요 전자 상거래 플랫폼	132
4. 현지 진출 성공사례	132

5.출입국 안내	135
6.유관기관	138
7.물가정보	141
8.출장정보	145
9.생활정보	147
10.KOTRA 무역관 안내	181
11.전시회 정보	197
	199

I. 일반

1. 국가개요

가. 국가개황

국가/지역	독일연방공화국(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면적	357,595 km ² (자료원 : 독일 연방통계청, 2022. 12. 31. 기준)
수도	베를린(Berlin)
인구	84,482,267 명 (자료원 : 독일 연방통계청, 2023. 6. 30. 기준)
민족(인종)	게르만족
언어	독일어
종교	가톨릭(25%), 개신교(23%), 이슬람교(4%), 무교(44%), 기타(4%) (자료원 : Fowid, 2022. 12. 31. 기준)
기후	온대성
국가원수	대통령 :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Frank-Walter Steinmeier) 수상 : 올라프 솔츠(Olaf Scholz)

2. 한국과의 관계

가. 한국과의 국교 수립 및 교민 수

국교 수립일

1883-11-26 (자료원 : 독일 외무부)

협정 발효 현황

협정명	발효일자	발효내용	비고
조독수호통상조약(朝獨修好通商條約)	1883-11-26	고종 20년에 체결된 조선과 독일 사이의 통상, 우호, 항해 조약	
민첼훈 공사, 신임장 제정	1901-08-31	민첼훈 주독 전권 공사가 처음으로 부임, 영국, 독일, 오스트리아 3국 겸임	
외교관계 재개	1955-12-01	1949년 11월 동독과 북한 간, 1955년 12월 서독과 남한 간 외교관계 수립	
주독 대사관 설치	1958-08-01	1958년 8월 1일 공사관을 대사관으로 승격	
경제 및 기술원조에 관한 의정서	1961-12-13	상공부장관 정내혁(丁來赫)이 독일을 방문, 한국 경제 및 기술협조에 관한 협정서에 조인, 1억 5000만 마르크의 장기 재정차관 수령	
한독 투자보장 협정	1964-02-04	국가 간 투자를 촉진, 보호하기 위하여 외국 기업에 자유로운 사업 활동이나 이익의 국외송금을 보장하고 해외투자 리스크 등을 회피하는 내용을 정부 간 상호 보장하는 협정으로 현재 한국은 독일을 비롯해 총 68개국과 투자보장협정 체결	

한독 재정원조에 관한 협정	1964-12-07	한국 국가 원수로서는 최초로 유럽을 방문한 박정희 전 대통령과 독일 에르하르트 수상 간 양국 정상회담에서 한독 양국 간에 우호와 협조를 증진시키고, 국토가 분단된 공동운명체로서의 유대 의식을 재확인, 공동목표의 성취를 위해 동일보조를 취한다는 데 합의, 1억 5,900만 마르크 규모의 차관을 공여받음	
한독 무역협정 서명	1965-04-08	양국 간의 교역을 위한 국제법상의 기초 마련, 양국은 최혜국 대우와 최소한 1년에 1회 현실적인 경제문제를 논의할 정부 차원의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합의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1966-09-28	이 협정은 양국 간의 모든 기술협력 사업을 진행하는데 근거로 작용, 독일과의 기술협력은 이 협정을 근거로 독일이 기술원조를 하는 형태로 추진됨.	1967-02-13 발효
한독 문화 협정	1970-05-16	1970년 5월 독일의 외무장관 쉘이 한국을 방문, 한독문화협정과 부산직업학교 설립에 관한 약정서에 서명	
한독 사증면제 협정	1972-11-17	대 독일 무비자 입국 및 90일 간의 체류 가능	
한독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를 위한 협정(1978-05-04 발효)	1976-12-14	양국의 합의 하에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를 위한 협정 체결	1978-05-04 협정 발효
한독 정부 간 재정협력에 관한 협정	1982-09-22	독일연방공화국과 대한민국 간의 기존우호 관계의 정신에 입각하여, 동업자 정신에 따른 재정협력을 통한 우호 관계 확대강화	
한독 과학기술협력 협정	1986-04-11	이를 계기로 양국 간 협력은 기관 간 공동연구사업, 과학기술자 교류, 공동세미나 개최 등을 통한 대등한 호혜협력 관계로 전환	

한독 원자력협력 협정	1986-04-11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	
한독 항공운수 협정	1998-07-19	국제 민간 항공운수에 대한 양자 간 항공협정 체결, 한·독 양국 정부 간 항공노선 확대, 항공 운수 확대 합의	
한독 이중과세방지 협정 발효	2002-10-31	이중과세방지협정은 동일소득이 거주지국(투자진출국)과 소득원천지국(투자유치국)에서 이중으로 과세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국가 간 자본과 투자의 이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협정, 1976년 체결된 이중과세 회피를 위한 협정 이후 양국의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새로운 협정 체결, 구 협정 대체	
한독 사회보장 협정 발효	2003-01-01	현지 자회사 및 계열사에 파견된 근로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면제 등 주요 쟁점 사항 해소, 독일 장기체류자가 귀국할 경우 한독 양국의 연금가입 기간의 합산을 통해 양국 연금을 지급	
입국 및 체류에 관한 양해 각서	2005-01-01	독일 장기체류 비자 취득 절차 대폭 간소화 등 선진국에 준하는 최혜국 대우, 상호주의에 따라 독일 국민에게도 동일한 조치 적용	

한국교민 수

48,115 명 (자료원 : 한국 외교부 (2022년 12월 31일 발표))

나. 최근 양국간 현안이슈

정치

- 2022년 9월 21일 한·독 정상회담 개최

2022년 9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은 제77차 유엔 총회 참석을 계기로 솔츠(Olaf Scholz) 독일 총리와 취임 후 첫 번째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관계 발전 방안, 경제안보 이슈, 한반도 및 주요 국제정세 등을 논의했다.

양 정상은 한독 양국이 자유, 인권, 법치와 같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핵심 우방국으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오랜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

시켜 왔음을 평가했다. 특히 내년 한·독 교류 140주년을 맞이하여 정상급을 포함한 각급에서의 다양한 교류를 통해 양국 관계가 한층 더 심화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최근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같은 경제안보 문제에 있어서도 양국 간 협력의 잠재력이 크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관련 분야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 정상은 한·독 양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국제정세 변화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으며,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 독일 슈타인마이어 대통령 2022년 11월 3일~5일 방한 및 11월 4일 한·독 정상회담 개최

지난 2022년 2월 재선에 성공한 독일 슈타인마이어(Frank-Walter Steinmeier) 대통령은 11월 3일 일본을 거쳐 2박 3일 일정으로 공식 방한했다. 독일 대통령의 방한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식 이후 4년 만이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우리 새 정부 출범 후 처음 방한한 유럽 국가 정상이다.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11월 4일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대한상공회의소와 한독상공회의소(KGCC) 공동 주최로 열린 ‘한·독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 “독일과 한국은 서로에 있어 강한 파트너이고, 수출 파트너이자, 산업 분야에 중점을 둔 수출국가라는 공통점을 가진 국가”라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혁신의 국가이고 혁신기업들이 많고, 자동차, 선박, 전기 및 반도체 이런 부분에 있어 혁신이 많으며, 특히 반도체 부문에서 매우 유명한 기업인 삼성 관계자도 이 자리에 함께한 걸로 알고 있다”며 한국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다. 또한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한국과 독일의 경제구조상 연관성을 언급하며 에너지와 디지털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고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 내용을 언급하며 “전기(에너지)와 디지털화에 대한 대화를 나눴고, 특히 에너지 경제에 있어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면서 “특히 탄소중립을 위한 공동의 노력, 그 중에서도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협력을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2022년 11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은 독일 슈타인마이어(Frank-Walter Steinmeier) 대통령과 한·독 정상회담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회담 시작 직전 “글로벌 도전 요인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협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를 언급하며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과 독일은 전쟁의 폐허를 딛고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이룬 성공의 경험과 또 분단의 아픔을 함께 공유하면서 특별한 유대 관계를 이어왔었다”고 전하고, “독일이 유럽연합과 나토의 주요 멤버이고 주요 7개국(G7) 의장국으로서 글로벌 문제 해결에 주도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며 우리 역시 자유, 인권, 법치라는 가치를 추구하는 국가로서 독일과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과의 연대를 더욱 강화해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안보, 경제, 과학 기술, 문화 이런 여러 분야의 양국, 양자 차원의 협력을 심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그와 아울러 기후변화, 보건문제 등에 대해 양국이 직면하고 있는 글로벌 도전 요인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안에 대해서 협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정상회담은 “내년 한·독 교류 140주년을 앞두고 다양한 분야에서 한·독 교류 협력을 한층 확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은 회담 직후 공동언론발표를 갖고 안정적 글로벌 공급망 구축과 에너지 안보 증진을 위한 협력 강화, 북한 도발 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이끌어 내기 위해 긴밀히 공조, 우크라이나 국민의 평화와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 노력 지속,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파트너십 강화 등 국제사회가 직면한 위협에 대응하여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 2023년 4월 15일 한·독 외교장관 전략 대화 개최

2023년 4월 15일 방한한 독일 베어보크(Annalena Baerbock) 외무부 장관은 한·독 외교장관 전략 대화를 갖고 우크라이나 사태와 한반도 문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베어보크 장관은 “이번 방문 기회를 빌려 한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취한 분명한 입장을 다시 높이 평가하고 싶다”고 전하고 “유럽에 있어 이번 전쟁은 지난 수십 년간 가장 어려운 시기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양측은 우크라이나의 인도적·경제적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데 우려를 표명했고, 국제사회의 연대와 지원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것에 공감했다”며 “관련 외교적, 경제적 조치를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베어보크 장관은 이어 “인도-태평양 지역은 21세기 국제질서 여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좀 더 중점을 둔 지역이며 이 (인태)전략을 좀 더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한국과 협력 강화 희망을 밝혔으며, “한일관계가 가까워진 점을 높이 평가하고 싶다”며 “안정적인 미래 기틀을 다지고 인태 지역의 안정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도 언급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한·독 외교장관은 올해 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양국간 고위인사 교류 강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으며, 양국이 세계경제 불확실성 또 공급망 위기, 기후변화, 디지털 격차 등의 어려움에 직면하여 긴밀히 협력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경제안보, 인공지능(AI), 퀀텀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도 긴밀한 대화와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양측은 이번 전략 대화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차기 전략대화는 베를린에서 양측이 편리한 시기에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 2023년 5월 21일 독일 솔츠(Olaf Scholz) 총리 방한 및 한·독 정상회담 개최

독일 쉘츠 총리는 일본 히로시마 G7 정상회의(2023년 5월 19일~21일)에 이어 총리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이는 지난 2010년 메르켈(Angela Merkel) 전 독일 총리의 방한 이후 13년 만이며, 양자 차원의 공식 방한은 1993년 콜(Helmut Kohl) 총리 이후 30년 만이다.

양국 정상은 이번 방한을 계기로 한·독 관계를 더욱 돈독히 발전시키고, 수소, 반도체, 바이오, 청정에너지 등 첨단 산업 분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은 모두 대외 무역 의존도가 높은 제조업 강국이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며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과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되고 글로벌 공급망이 급속히 재편되는 과정 속에 한·독 양국이 공급망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하고, 쉘츠 총리가 주도하는 ‘기후클럽(Climate Club)’에도 참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국 정상은 북한 비핵화 공조방안과 관련해서도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고, 한·독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의 조속한 체결을 통한 방위산업 공급망 협력, 우크라이나에 대한 연대와 지지 지속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함께 했다고 전했다. 특히 올해는 양국 수교 140주년이자 우리 근로자의 파독 60주년이 되는 해로 현재의 글로벌 복합적 위기 속 양국의 연대와 협력을 재확인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 2023년 9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G20 정상회의 계기로 독일 쉘츠(Olaf Scholz) 총리와 정상회담 개최

2023년 9월 10일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인도 뉴델리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독일 쉘츠(Olaf Scholz) 총리와 세 번째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번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2030 부산 엑스포 유치에 대한 독일의 지지를 요청하는 한편, 양국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양국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 밝혔다. 양 정상은 양국 교류 140주년을 맞는 올해가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데 공감하고, 양국 국민 간 상호 이해와 교류의 폭이 보다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향후에도 정상 간 소통을 지속하기로 하면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 2023년 10월 19일 독일 연방하원, 한·독 수교 140주년 기념 결의안 채택

2023년 10월 19일 독일 연방하원은 한·독 수교 140주년을 맞아 한·독 가치 파트너십 강화 및 발전 방향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는 사민당(SPD), 녹색당(Bündnis 90/Die Grünen), 자민당(FDP) 등 신호등 연정의 공동 명의로 본회의에 상정돼 토의를 거쳐 과반수로 채택되었다.

* 주독일대사관에 따르면, 독일 연방하원의 한국 관련 결의안 채택은 △2000년(남북정상회담) △ 2003년(수교 120주년) △ 2008년(수교 125주년) △ 2013년(수교 130주년)에 이어 다섯 번째라고 한다.

이번 결의안은 한·독 양국이 민주주의 국가이자 ‘가치 파트너’로서 평화, 안보, 인권에 대한 존중,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함께 지지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독일 연방정부에게 외교·안보, 경제·통상, 첨단산업, 지역·글로벌 협력, 인적·문화적 교류 등 제 분야에 걸쳐 한국과의 가치 파트너십을 심화·확대해 나갈 것을 주문하였다. 이에 결의안은 독일 연방정부에 △ 한·독 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한·독관계 강화, △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으로 포기하도록 만들기 위한 한국의 노력 지원, △ 공급망 문제와 첨단 산업분야(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독 투자교역관계 확대, △ 에너지 및 기후변화 대응 정책 관련 협력 심화, △ 인태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공동 노력 지속 등을 촉구했다.

주독일한국대사관은 이번 결의안에 대해 “한국과 독일이 공유하는 민주주의 질서와 보편적 가치를 바탕으로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수호해나갈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독일 의회 차원에서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관련한 분명하고도 강력한 지지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금년 우리 파독 광부 60주년을 맞아 독일 입법부가 독일 내의 파독 근로자들과 후속 세대들의 독일에 대한 공헌을 평가하고 이를 계속 존중해나갈 것을 촉구했다는 점도 평가할 만한 부분”이라고 전했다. 주독일한국대사관은 더 나아가 “독일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를 대상으로 여러 주요 현안 관련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제

○ 2021년 4월 한·독 스마트제조 워킹그룹 발족

한국 중소벤처기업부는 한국 중소기업이 스마트제조 혁신으로 제조경쟁력 강화를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할 수 있도록 독일과 본격적으로 협업 사업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2021년 4월 29일 한·독 스마트제조 워킹그룹을 발족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 한·독 워킹그룹은 양국 전문가들로 구성해 스마트제조 표준이나 보안기술 분야 등에서 실제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중소기업에 유용한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고자 하며, 협력이 시급한 주요 현안인 국제표준 개발, 가가아엑스(GAIA-X, 데이터 공유 활용을 위해 필요한 규칙과 범위를 정의하는 규정), 사이버 보안 등 3개 분과로 운영된다. 이는 차후 5G, 인공지능, 전문인력 양성 등의 분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한다. 한·독 워킹그룹 발족은 국제표준에 기반한 스마트공장 고도화, 제조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추진 등을 위한 한·독 간 협력이 본격화됐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또한 양국 간 협력으로 한국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역량이 향상되고 기업 간 협업모델 개발과 표준화 참여를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한국재료연구원, 2022년 한독간을 비롯한 미래 소재 기술 토론의 장 마련

2022년 2월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재료연구원은 ‘2022 머티리얼스 코리아 포럼(Materials Korea Forum, MK포럼)’을 개최했다. 이는 한국재료연구원이 2019년부터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개최하고 있는 행사로 해당 분야의 저명 연사를 초청해 미래기술과 산업을 조망하고자 하는 포럼이다. 지난 3년 동안 총 31명의 연사가 참석해 3D프린팅, 트라이볼로지 기술, 전력반도체, 수소에너지, PAV(Personal Air Vehicle), 미세플라스틱, 5G/6G 등에 대해 강연을 했다. 올해의 경우 연말까지 총 11명의 연사가 참석해 탄소중립, 인공지능(AI), 국방연구개발, 기후위기, 수소경제, 빅데이터 등 소재 기술에 관한 다양한 주제로 강연과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2월에는 첫 행사로 김연상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교수가 ‘문제 중심의 융합연구와 나노 계면 소재 연구’란 주제로 강연을 했다. 4월에는 방윤혁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원장이 ‘탄소산업으로 탄소중립을 해결한다’를, 7월에는 이정모 국립과천과학관 관장이 ‘기후 위기와 인류의 미래’를, 9월에는 독일 프라운호퍼 세라믹연구소 알렉산더 미하일리스 소장이 ‘프라운호퍼 연구소 소개 및 한-독 협력방안’을 주제로 하는 강연이 예정돼 있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 팬데믹, 기후 위기 등 다양한 위기 속 한독간 미래 소재 원천기술에 관한 상호간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작용할 전망이다.

○ 2022년 2월 제2차 한-독 통상협력대화 개최

2022년 2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BMWi)와 제2차 한-독 통상협력대화를 개최하였다. 양측의 협력대화는 지난 2019년 12월 성윤모 전 산업부 장관 독일방문 시 논의한 한-독 간 포괄적 협력 증진을 위한 한독 고위급 대화 개설과 3개 실무그룹(산업, 에너지, 통상) 운영*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에너지, 통상 부문의 실무회의가 개최되고 있으며, 이번 회의 역시 코로나19 여건 속에서 화상으로 개최되었다. 1차 실무회의는 에너지(2020년 5월), 통상(2020년 9월), 산업(2021년 9월, 2022년 9월) 분야로 개최된 바 있다.

이번 협력대화에서 한독 양측은 공급망, 디지털 통상,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주요 통상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이슈로 부각된 공급망 협력 강화를 위해 민간 협력 증진을 위한 정부 간 협력 방안에 대한 지속 논의를 약속하였다. 디지털 통상과 관련해서는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정책적 노력과 더불어 디지털 통상협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EU가 추진 중인 CBAM과 관련해서는 최근 논의 동향을 공유하고, 국내·외 차별적 조치를 금지하는 WTO 규정에 합치하고, 불필요한 무역 장벽화를 방지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2022년 9월 한-독 제2차 산업협력대화 개최

2022년 9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독일 연방경제기후보호부(BMWK)와 제2차 한-독 산업협력대화를 개최하였다. 양측의 협력대화는 지난 2019년 12월 성윤모 전 산업부 장관 독일방문 시 논의한 한독 고위급 대화 개설과 3개 부문 실무그룹 운영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2021년도 코로나19 여건 속에서 비대면으로 진행된 이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면 회의로 개최되었다.

한독 양측은 양국 산업계 주요 현안인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 공급망 위기, 산업 탈탄소화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였다. 양국 정부는 최근 3high(고물가·고금리·고환율) 복합위기 상황에서, 높은 제조업 비중과 에너지 대외의존도를 가진 양국이 유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주요 현안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공동의 대응전략을 통해 이를 해소할 방법에 대해 모색하였다. 특히 주요 자동차 생산국이자 대미 수출의존도가 높은 양국의 자동차 업계의 어려움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공동의 대응방안을 모색하였으며, 미래차 전환과 관련해서도 폭넓은 대화를 가졌다. 또한 공급망 위기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한독 기술협력센터, 국제공동기술개발 등을 중심으로 기술 협력 강화가 필요함을 설명하였다. 아울러 산업의 탈탄소화 과제와 관련해서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술혁신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방안을 협의하는 등 한독 산업협력 공조체계를 강화하였다.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현재 한국과 독일의 경제가 직면한 글로벌 복합위기는 어느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나, 양국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대응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전하고, “한독 양국 정부의 논의가 양국 기업간의 의미있는 협력으로까지 발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2022년 11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 독일 경제사절단과 면담

산업통상자원부는 슈타인마이어(Frank-Walter Steinmeier) 독일 대통령과 함께 방한한 10명 규모의 독일 경제사절단과 면담했다. 사절단은 독일 연방경제기후보호부 헤페르레(Dr. Sabine Hepperle) 총국장(단장)과 한국 사업에 관심을 가진 7개 독일 기업으로 구성됐다. 윤창현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은 면담에서 “독일은 한국의 유럽 내 최대 교역국으로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을 기반으로 교역이 확대되고 있다”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불확실성이 확산하는 가운데 공급망, 탄소 중립 등의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국장은 IRA에 대한 양국의 대응 현황과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독일

은 IRA가 거대한 관세 전쟁을 초래할 수 있다며 미국에 맞서고 있다.

이외에도 정부는 EU에서 발표한 원자재법(RMA) 제정 계획이 국제 규범에 합치되고 외국 기업에 차별적인 요소 없이 설계될 수 있도록 독일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RMA는 전략적 핵심 원자재를 선정해 관련 가치사슬(밸류체인)을 강화하고, 공급망 조기 경보 시스템과 공급망 개발 기금을 조성해 위기 대응 역량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지난 2022년 9월 RMA 도입 계획을 발표한 EU는 계획대로 2023년 3월 16일 핵심원자재법 법안 초안을 발표하고 관련 EU 차원 목표 설정과 더불어 전략핵심 원자재 지정, 규제환경 개선, 공급망 감사 실시, 재활용 의무 부여 등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2023년 9월 21일 기획재정부, 제2차 한-독 거시경제대화 개최

2023년 9월 21일 한국 기재부는 독일 베를린에서 독일 연방재무부와 제2차 한-독 거시경제대화를 개최하였다. 2019년에 이어 두 번째 열린 국장급 경제대화에서는 우리 측 인사로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 함께 참여하였으며, △ 거시경제 동향 및 경제·재정정책 방향 △ 주요 20개국(G20) 쟁점 이슈 △ 공급망 등 경제안보 정책과 관련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독일 재무부는 한국의 재정준칙 도입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도전 요인을 고려할 때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지지 의사를 표명했고, 또 양국은 한국이 공동의장국을 수임 중인 주요 20개국(G20) 국제금융체제 실무회의(IFA WG)에서 다루고 있는 핵심 의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취약국 부채조정, 다자개발은행(MDB) 개혁 등에 대해 공조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현재 세계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높은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공급망 다변화 등 서로가 취하고 있는 경제안보전략을 소개하고,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모색하였으며, 독일측은 한국의 공급망 관리 체계에 대한 높은 관심을 표명했다. 더 나아가 우리측은 독일과 내년에도 경제대화를 지속하기로 하면서, 2030 세계박람회 유치와 관련하여 한국의 부산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도 당부하였다.

○ 2023년 10월 31일 제4회 한-독 '수소 컨퍼런스' 개최를 통해 한-독 청정수소 부문 협력 강화

2023년 10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에서 한국의 수소융합얼라이언스외국인협회와 독일의 프라운호퍼 연구소 공동 주관으로 개최된 '한-독 수소 컨퍼런스'에서 양국 간 수소 정책을 교류하고 산업·기술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행사에는 △ 강경성 산업부 2차관 △ 필립(Udo Philipp) 독일 연방경제기후행동부 사무차관 △ 브란덴부르크(Jens Brandenburg) 연방교육연구부 정부차관을 비롯해 한-독 양국 정부, 수소 관련 기업, 학계 등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했다. 컨퍼런스에서는 양국의 수소 정책 및 수소 생산, 유통, 활용 등 수소 생태계 전반에 걸친 산업과 기술 현황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방안이 논의됐다. 강경성 2차관은 "한-독 양국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와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높은 유사점이 있어 탄소중립 이행과 에너지 안보를 위한 대안으로 청정수소의 중요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수소차·연료 전지 등 수소의 활용 분야에 강점이 있는 우리나라와 수전해·액화기술 등 수소의 생산·저장 분야에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독일과 협력을 확대하고, 청정수소의 글로벌 교역 확대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덧붙였다.

문화

○ 독일 김나지움(인문계 중고등학교) 내 최초로 의무 선택과목으로 한국어 채택

독일 메클렌부르크-포어폼머른주 노이슈트렐리츠(Neustrelitz) 카롤리눔(Carolinum) 김나지움(인문계 중고등학교)에서는 2021/2022년 겨울학기부터 한국어를 처음으로 10학년 의무 선택과목으로 채택해 주목을 끌고 있다. 10학년생은 한국어를 의무선택과목으로 선택하면 주당 2시간 수업을 듣게 되며, 제1외국어인 영어와 제2외국어인 스페인어, 러시아어, 라틴어, 제3외국어인 스페인어, 고대 그리스어 외 한국어가 정규 과목으로 포함되는 것이다. 2013년 헤센주 비스바덴의 빌헬름 로이쉬너 종합학교(Wilhelm-Leuschner-Schule)에서 5~6학년을 대상으로 한국어가 정규과목으로 채택된 적은 있으나, 독일 고등학교에서 한국어가 정규과목으로 채택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학교는 이미 2016년 11월 전북외고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2017년부터 방과 후 한국어 수업을 하면서 한국과의 인연을 쌓은 바 있다. 주 독일 한국교육원은 9월 9일 카롤리눔 김나지움과 업무 협약을 맺고 한국어 수업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케이팝 등 우리 대중문화의 인기를 바탕으로 독일 내에서도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을 방증하며, 보다 문화에 대한 학생들의 열린 사고방식을 향상시키는 기회이자, 한-독 간의 문화 교류 증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2022년 5월 KPOP.FLEX 페스티벌 개최

2022년 5월 14일과 15일 양일에 걸쳐 유럽에서는 최초로 KPOP.FLEX 페스티벌이 개최되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도이치은행 파크(Deutsche Bank Park) 스타디움에서 개최된 이 페스티벌은 현재까지 유럽에서 가장 큰 규모로, 주최측에 따르면, 주말 동안 86개국의 7만여 명의 한류 팬들이 한국의 음악과 문화를 체험하기 위해 행사장을 찾았다고 한다. 프랑크푸르트에 소재하는 헤센샤우(Hessenschau) 방송국은 이제 한국은 세계 제7대 음악시장으로 발전했으며, K-Pop은 수백만 명의 팬에게 다가가며 새로운 트렌드로 확

산되고 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하였다. 주최측인 PK-Events의 담당이사는 K-Pop은 음악시장에서 큰 인기를 누리는 하나의 현상으로, 유럽의 한류 팬들은 자신의 아이돌을 라이브로 경험하길 원한다고 전했다. 헤센샤우는 팬들은 더 이상 단지 흥겨운 노래와 댄스 안무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좋아하는 그룹이나 아티스트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한국 언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싶어한다고 보도했다.

또한 콘서트와 연계해 프랑크푸르트 영사관이 마련한 한국 문화 체험관을 통해 팬들은 한국의 전통 의상을 입어보고, 길거리 음식을 접하거나, 팬용품 구매하기도 했으며, 더불어 개최된 댄스 경연대회, 패션쇼를 위시해 넷플릭스 시리즈를 통해 큰 인기를 모은 드라마 오징어게임에서 소개된 달고나 뽑기, 제기차기, 딱지 치기 등의 다양한 문화 체험의 기회도 함께 제공되었다. 유럽 내 K-Pop 인기로 힙입어 KPOP.FLEX 페스티벌은 애초 2023년 10월 13일과 14일 개최 예정이었으나, 다소 지연되어 2024년 7월 12일과 13일 프랑크푸르트의 같은 장소에서 KPOP LUX라는 이름의 페스티벌로 다시 개최될 예정이다.

◦ 2023년 8월 프랑크푸르트 박물관 강변축제(Museumsuferfest) 개최

1988년 이래 8월 말 독일 프랑크푸르트 마인강변에서는 매년 박물관 강변축제(Museumsuferfest)가 개최된다. 2020년과 2021년 코로나19로 취소되었던 강변축제가 3년만에 2022년 8월 개최된 이후 2023년에도 25일(금)~8월 27일(일) 3일간 개최되었다. 이번 축제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 200만 명의 방문객에는 못 미치는 약 120만 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으나, 전년보다는 더욱 활기를 띠었으며 토요일 하루만 해도 약 50만 명이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의 축제 기간 동안 총 32개의 박물관이 연장 개관을 했으며, 1,000여 개의 판촉 부스가 설치되었고, 라이브 음악이 있는 21개의 무대에서 300여 개의 문화 프로그램과 이벤트가 개최되며 마인 강변을 축제의 장으로 변모시켰다.

독일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은 2011년 이래 매년 한국관을 구성해 한식과 한국 농식품을 홍보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는데 올해는 한국관광공사 프랑크푸르트 지사, 전라남도 유럽사무소와 협업 하에 다양한 한류 문화 공연을 위시해 남도 김치 만들기, 국악공연단 공연, 전통 혼례, K-뮤직의 밤 등 새로운 한국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특히 올해 한국은 한독 수교 140주년을 맞아 주민국 지정되었는데,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은 독일 내 한류 확산 및 한독 수교 140주년의 시의성을 활용해 화장품, 식품, 의류 등 총 30개 K-Goods 및 콘텐츠 품목을 선보이며, 홍보 및 판촉 행사를 펼쳤다. 또한 처음으로 웹툰 콘텐츠를 소개하는 자리를 가지며 B2C 중심의 웹툰에 대한 인지도 증가와 판매를 촉진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매번 색다른 제품을 소개하고 있는 한국 상품관은 한국 제품에 대한 현지 소비자의 반응을 즉각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마케팅 효용도가 높다. 온 오프라인 채널 활용한 판촉전 및 수출상담 병행을 통해, 특히 국내 중소 중견 기업의 신규 비즈니스 기회로 이어지는 성과를 도출해 내고 있으며, 축제를 방문하는 방문객에게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더 나아가 행사 때마다 특색 있는 한류 문화 콘텐츠와 우리 기업 상품을 소개하며, 지역문화 축제 속 한류를 소개하는 좋은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2024년 프랑크푸르트 박물관 강변축제(Museumsuferfest)는 8월 23일~25일 개최될 예정이다.

◦ 제12회 프랑크푸르트 한국영화제 개최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2012년 이래 매년 개최되는 한국 영화제는 해를 거듭하며 독일에서 개최되는 최대의 한국 영화행사로 자리잡고 있다. 지난 11년 동안 총 200편 이상의 영화 작품이 상영되었다.

2023년 제12회 프랑크푸르트 한국 영화제는 10월 25일~10월 29일까지 개최되었다. 프랑크푸르트 최대 멀티플렉스인 시네스타 메트로폴리스(CineStar Metropolis)와 프랑크푸르트에서 가장 오래된 영화관인 엘도라도(Eldorado) 등 2개의 영화관에서 한국 영화 최신작과 인기 고전 작품이 소개되었다. 이번 페스티벌은 총 20편의 장편 영화와 10편의 애니메이션 영화를 선보였다. 특히 올해 한독 수교 140주년을 맞아 이번 축제는 '만남과 관계(Begegnungen und Beziehungen)'라는 모토 아래 양국의 우호적 관계를 부각시킬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

이번 축제에서는 이러한 주제에 초점을 맞춰 한류에 이정표적인 역할을 한 개봉 20주년을 맞은 박찬욱 작가의 올드보이를 소개하는 등 다양한 한국영화와의 흥미로운 만남과 더불어 다양한 현장 프로그램도 개최되었다. 부대행사는 전통문화와 현대적 영향을 접목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는데, 예년과 같이 전통 의상을 체험할 수 있는 한복 부스나 'KOREAN FIRE NOODLE CHALLENGE'를 통해 매운맛에 대한 인내심의 한계를 테스트하는 행사, 한국 전통 놀이를 통해 한국 문화를 탐구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됐다. 이번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방문객들이 자신의 이름을 한국어로 써볼 수 있는 캘리그래피 스탠드(CALLIGRAPHY STAND)였으며, 이 외에도 영화 퀴즈를 통해 한국 영화에 대한 지식을 테스트하고 상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되었고, 한국 식품 기업 비비고(BIBIGO)도 자체 부스를 마련하였으며, 한국관광센터는 한국에 대한 종합적인 여행정보도 제공하였다. 또한 독일 내 댄스 앙상블 샵강(SHAPGANG)이 주최한 K-Pop 댄스 콘테스트가 개최되었으며, 한국 전통 판소리도 선보였다.

이 축제를 주관하는 프로젝트 K는 2012년 프랑크푸르트에서 한국영화제를 창설한 이후 다양한 차원에서 한국영화를 홍보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왔다. 지난해부터 특히 젊은 감독들에 대한 지원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들은 자신의 영화를 대형 스크린과 관객 앞에서 선

보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다. 2024년 10월에는 제13회 한국영화제가 개최될 예정이다.

3. 경제현황

가. 주요 경제지표

경제지표	2019	2020	2021	2022	2023
경제성장률 (%)	1.1	-4.6	2.8	2.1	
명목GDP (십억\$)	3,888.8	3,843.3	4,225.9	4,256.5	
1인당 GDP (PPP, \$)	56,523.4	54,551.1	58,377.6	63,271.1	
1인당 명목 GDP (\$)	46,800.2	46,215.6	50,794.9	51,104	
정부부채 (% of GDP)	58.9	68.7	70.2	70.9	
물가상승률 (%)	1.4	0.4	3.2	5.5	
실업률 (%)	3.2	3.8	3.5	3.2	
수출액 (백만\$)	1,489,411	1,382,534	1,636,741		
수입액 (백만\$)	1,233,978	1,171,782	1,421,512		
무역수지 (백만\$)	255,433	210,752	215,229	-	-
외환 보유고 (백만\$)	223,887.7	268,890.3	296,046.4	294,902.1	
이자율 (%)	0	0	0	2.5	
환율 (자국통화, 대미환율)	1.12	1.14	1.18	1.05	

<자료원 : IMF(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유럽중앙은행(ECB)>

나. 경제 동향

2022년 독일 경제는 러-우 사태에 따른 에너지 수급 위기, 글로벌 공급 병목현상, 높은 인플레이션 등의 영향 속에서도 기존의 전망치 (+1.4%)를 소폭 상회하는 +1.8%의 경제 성장을 기록하였다. 에너지 가격 급상승, 물가상승률 지속에 따른 가계 실질소득 감소 등 불확실성 증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에너지 지원책과 더불어 하반기 기업 환경 및 소비 지수가 상승세를 나타내며, 코로나19 위기 이후 처음으로 위기 이전 수준을 상회하는 성장세(2019년 대비 +0.7%)를 보였다. 2022년 연간 수출입은 글로벌 경기가 냉각되고, 금리상승, 자재 병목현상 지속에 따른 여파에도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3%, +6.6%(독일 경제·기후보호부, 최신 2023년 10월 11일 발표 기준)로

대체로 양호한 증가세를 기록하였다. 또한, 독일 고용시장도 경기 악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2022년 연 평균 실업률이 5.3%로 매우 안정적인 흐름을 나타냈다. 독일 연방노동청(BA)은 2022년 한 해 연평균 실업자 수가 전년 대비 19만5,000명 감소했으며, 실업률도 전년 대비 0.4%p 하락한 5.3%를 기록했다고 전하고, 날레스(Andrea Nahles) 회장은 가격 인상, 불확실성, 난민 이주 등 우크라이나 사태의 결과가 고용시장에 뚜렷한 흔적을 남겼다고 설명했으나, 실업률은 감소했다고 전했다.

2023년 들어 4월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종료 이후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공급병목 현상 완화와 더불어 예상됐던 경기 침체가 다소 완만하게 진행되며,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하였다. 이에 따라 독일 정부는 2023년 4월 26일 공식 봄 전망에서 2023년 독일 경제가 +0.4%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2022년 정부의 공식 가을 전망(-0.4%) 및 2023년 1월 연간 전망(+0.2%) 대비 소폭 상향 조정한 수치였다. 독일 하베크(Robert Habeck) 경제기후보호부 장관은 "이는 경제가 적응력과 회복력을 보여주었기 때문이기도 하나, 정부의 안정화 조치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기 때문"으로 평가하였다. 아울러 중국의 코로나 제로 정책 종료에 따라 대외 무역에 크게 의존하는 독일 경제가 상당한 상승세로 인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독일 정부는 2024년의 경우 2023년 연초 전망(+1.8%) 대비 소폭 하향 조정된 +1.6%의 성장을 전망하였다.

그러나 2023년 상반기 지정학적 불확실성,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을 통한 보호무역주의 기조, 부진한 세계 경제, 중간재 부족, 물가상승, 금리 인상 등이 지속되며 경기 회복을 지연시켰다. 이에 따라 2023년 초 정부의 낙관적인 기대와는 달리, 독일 경제는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며, 하반기 경기침체 우려가 확산되었다.

* 2022년 4분기 독일 GDP는 전분기 대비 -0.5%, 전년 동기 대비 +0.2를 기록하였으며, 2023년 1분기 역시 전분기 대비 -0.3%, 전년 동기 대비 -0.2%로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였다. (독일 연방통계청, 2023년 5월 25일 발표 기준)

* GDP가 2분기 연속 감소하면 경제전문가들은 '기술적 경기침체'로 판단한다. (자료: 2023년 7월 3일 n-TV, Handelsblatt)

더 나아가 2023년 7월 25일 국제통화기금(IMF)이 주요 선진국들 가운데 2023년 유일하게 독일의 역성장(-0.3%)을 전망하며 독일 위기를 불러 일으켰다.

* 美 +1.8% 中 +5.2%, 日 +1.4, 佛 +0.8%, 英 +0.4% (자료: 2023년 8월 6일, Handelsblatt)

이에 독일 경제일간지 Handelsblatt는 "2023년 여름의 독일은 1999년 여름 당시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독일을 '유로존의 병자'로 언급한 기사를 연상시키며, '독일 경제는 현재 서유럽에서 가장 약하다'는 당시의 조사 결과가 이제 다시 유효하다"라고 전하며, 수년간 경제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관료주의, 에너지 가격 급등, 높은 세금 부담, 계속 증가하는 숙련된 전문인력 부족 등)를 지적하기도 했다. 또 Ifo 경제연구소의 푸스트(Clemens Fuest) 회장 역시 독일의 열악한 장기 경제 전망, 산업 정책적 오류(특히 독일 난방법 논쟁 및 조속 시행을 위한 논란), 기후 정책의 잘못된 계산 등으로 앞으로 몇 년간 성장 약세 국면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2023년 3분기 독일 경제는 전 분기 대비 -0.1%, 전년 동기 대비 -0.8% 감소(최신 수정 발표 기준)*하며 예상보다 적은 폭의 감소세를 기록했다. 아울러 독일 연방통계청이 기존의 상반기 마이너스 성장 통계를 상향 조정 발표하며, 독일은 최종적으로 기술적 침체에 빠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지난 2023년 10월 독일 연방통계청은 3분기 실적 발표 시 기존의 분기 실적을 상향 조정 발표하였다. 이로 인해 전 분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실질 통계 기준) 독일 GDP는 2022년 4분기 -0.4%/ 0.2% → 2023년 1분기 0.0%/ 0.2% → 2023년 2분기 0.1%/ -0.4%로 나타났다.

2023년 하반기에 접어들며 겨울 시즌을 맞아 러-우 사태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수급에 대한 우려가 다시 불거지고 있고, 에너지 가격에 이어 식품 가격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가계 소비를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독일의 경기 회복은 여전히 지연되고 있다.

* 주: 2023년 10월 독일 정부는 최근 러-우 사태에 따른 에너지 수급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도입한 가스 및 전기 가격 상한제를 2024년 4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또 최근 불거진 하마스 사태는 러-우사태 장기화와 더불어 지정학적 불확실성을 지속시키고 있고, 중국의 경기 회복 지연에 따른 우려와 더불어 2%대의 인플레이션을 목표로 하는 유럽중앙은행(ECB)의 연속 10차례에 이르는 금리인상* 역시 높은 에너지 가격과 더불어 수요를 압박하며, 경기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 주: 2023년 9월 14일 유럽중앙은행(ECB)은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기준 금리를 2022년 7월 이래 열 차례 연속 인상하였다. 이로써 현재 기준금리 4.5%, 한계대출금리 4.75%, 수신금리 4.0%가 시행되고 있으며, 수신 금리는 1999년 통화동맹 출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다. (자료: 유럽중앙은행(ECB))

또 지난 위기 동안 경기에 버팀목으로 작용했던 수출입이 모두 지난 2023년 5월 이래 감소세(계절 조정 통계 기준)를 나타내고 있고, 시장조사기업 GfK의 소비자동향지수가 10월 -26.7p에 이어 11월 -28.1p를 기록하며 소비자 심리가 지속 악화 조짐을 보이며, 올해 소비자 심리 회복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2022년 연 평균 6.7%(수정 발표 기준)를 기록한 소비자 물가의 경우 2023년 9월 러우 사태 이래 +4.5%로 최저로 하락한 데 이어, 10월 +3.8%로 2021년 8월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며, 경기 상승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 2023년 10월 독일 하베크(Robert Habeck) 경제·기후보호부 장관은 “인플레이션이 크게 감소하고 실질 소득이 다시 증가하는 것이 국내 경제 회복의 기초”라고 말한 바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위시해 연간 많은 수의 난민이 유입*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독일 고용시장은 비교적 견조한 편이나, 10월 실업률이 전월과 동일한 5.7%를 기록하며, 예년의 가을 고용 회복세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독일 연방노동청의 날레스(Andrea Nahles) 회장은 “경제지표를 볼 때 상대적으로 좋은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평가하였다.

* 2022년 독일 내 난민 신청건수는 24만 건, 2023년 9월 누계 기준으로는 25만 건에 이른다.

현재 독일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고 독일 정부를 위시한 대부분의 경제전문가가 2023년 독일 경제 감소세를 전망하고 있으나, 고용 안정과 더불어 최근 인플레이션 상승폭이 연이어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 산업 수주가 다시 증가*하며, 임금 인상에 따른 민간소비 회복과 더불어 하반기 경기 회복 국면으로의 전환에 대한 기대감도 부상하고 있다. 9월 산업 수주는 8월 증가세에 비해 비교적 낮은 0.2%의 증가세에 그쳤으나, 2개월 연속 증가하며, 수주 하향 추세가 일단락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2023년 11월 6일 독일 경제일간지 한델스블라트(Handelsblatt)는 “위기에 빠진 독일 산업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 독일 연방통계청은 지난 8월 산업 수주가 8월 예상(+1.8%)을 상회하는 +3.9%의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밝혔으나, 최근 이를 이례적으로 +1.9%로 수정 발표하였다. 이는 컴퓨터, 전자·광학제품 생산에서 데이터가 잘못 보고된 데 따른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 독일 연방통계청, 2023년 11월 6일 Handelsblatt)

(자료: 독일정부, 독일 경제기후보호부, 독일 연방통계청, 독일 연방노동청(BA), EU 집행위, 유럽중앙은행(ECB), 주요 경제연구소, Handelsblatt, n-TV)

다. 경제 전망

현재 주요국의 갈등이 심화되며 대외환경이 자국 우선주의 확산 및 경제안보 중심의 공급망이 재편되는 추세가 심화되고 있다. EU 차원의 고금리 영향 속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고,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을 통한 보호무역주의 기조 및 미·중 갈등 지속, 중국 경제 회복도 지연되는 등 하방 리스크가 여전히 큰 상황이다.

이에 독일 정부는 2023년 10월 11일 가을 공식 전망에서 GDP 성장 전망을 2023년 기준 +0.4% → -0.4%, 2024년 +1.6% → +1.3%로 하향 조정 발표했다. 주요인으로는 높은 에너지 가격을 중심으로 한 高 인플레이션과 이에 따른 개인 소비 감소, 글로벌 무역 시장의 지속적인 약화에 따른 해외 수주감소 및 금리 인상에 따른 기업 상황 악화 등이 지목되고 있다. 독일 정부는 실질 기준으로 민간 소비가 2023년 +6.1%, 2024년 +2.4%로 증가할 것으로 예견하고 있고, 설비 투자도 2023년 +3.8%, 2024년 +2.9%로 상승세를 전망하며 독일 경제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2023년과 2024년 수출입의 경우 각각 -1.1%, +1.8% 및 -1.5%, +2.4% 등으로 2023년 감소세 이후 2024년 완만한 성장세가 본격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독일 정부는 2023년 경제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2023년 하반기 에너지 가격이 높은 수준이나 안정세에 진입하였고, 임금 상승 및 탄탄한 노동시장이 경기를 뒷받침할 것이라는 전망 하에 2024년에는 1.3%의 경제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견조한 고용시장과 민간 소비 회복, 산업 수주 증가세 등에 힘입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다시 경기회복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 독일 연방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독일 산업 수주가 8월 예상(+1.8%)을 상회하는 +1.9%에 이어 9월 +0.2%로 연속 증가하며 경기 개선의 첫 징후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변동성이 덜한 3개월간 평균으로는 6월~8월까지의 수주가 이전 3개월보다 +4.9% 더 높게 나타났다. 다만, 10월말 독일 연방통계청이 애초 발표한 8월 산업 수주 통계를 하향 조정(+3.9% → +1.9%)하며 추세 반전 예측은 아직은 역부족인 상황이다.

2023년 10월 초 코메르츠 은행(Commerzbank)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크래머(Jrg Krmer)는 하반기에도 금리 인상과 에너지 가격상승으로 독일 경제가 계속 위축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11월 초 독일 경제는 “봄까지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다가 이제 안정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VP Bank의 수석 경제전문가 깃첼(Thomas Gitzel)도 현재 독일 제조업 환경은 양호한 상황은 아니나 적어도 확실한 안정화 추세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하였다. DIW 경제연구소의 뵤케(Timm Boenke) 회장은 올 중반경 “물가 상승 둔화, 실질 소득 증가, 소비 지출 증가 등 세 요소가 독일 경제회복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자료: 독일정부, 독일 경제기후보호부, EU 집행위, Handelsblatt, Tagesschau)

4. 정치

가. 정치체제

독일의 정치체제는 연방공화국, 연방정부, 연방의회 등 주요 정치 개념에 기반하여 설명된다.

○ 연방공화국(Frderale Republik)

독일은 연방제 국가(Bundesstaat)이다. 연방정부(Bund)와 16개 주 정부(16 Lnder)는 개별 자치권을 행사한다. 각 주는 주별 법령과 더불어 연방 정부의 법령까지 집행하는 한편, 주 정부는 연방위원회(Bundesrat)을 통하여 입법 절차에도 직접 관여하기도 한다.

독일의 이러한 연방제도(Federalismus)는 단순한 행정 시스템을 넘어 독일의 문화, 경제 구조를 반영하며 오랜 전통에 근거하고 있다. 관련 법적 근거는 1949년 헌법에 명기되어 있다. 16개 주 중 5개 주는 1990년 통일 이후 구 동독에 소재하는 주들로서 나중에 추가되었다. 또한 도시 단위의 연방주인 베를린(Berlin), 브레멘(Bremen), 함부르크(Hamburg) 등 3개 연방주가 있다.

○ 연방정부(Bundesregierung)

연방총리(Bundeskanzler)와 연방장관(Bundesminister)가 내각(Kabinett)을 구성한다. 총리가 선거를 통하여 당선되면 장관을 임명하고 관련 부처와 그 기능을 결정한다. 이러한 정치 시스템은 영국의 수상제를 본뜬 것이지만 독일의 총리 권한은 영국의 수상에는 훨씬 못 미친다. 영국의 내각제에서는 단독 정당이 집권 가능한 반면, 독일 의회(Bundestag)에서는 보통 연합 정당(Koalition)이 결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총리 선거에 앞서 연정을 희망하는 정단 간 협상이 타결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부처 장관직을 어떤 정당이 가져가고, 어떤 부처를 기존대로 유지하거나 다른 부처로 교체할지 또는 신설할지 등 협상 안건은 구체적이며, 그 결과는 연정 계약(Koalitionsvertrag)에 명시가 된다.

○ 연방의회(Bundestag)

연방의회 하원(Bundestag)을 독일 국민의 투표 결과로 당선된다. 이론적으로 의원 598명 중 절반은 각각 정당투표와 인물투표로 당선된다. 정당별 의석수는 투표 결과에 비례하여 반영되기 때문에 실제 의석은 598명을 초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때 극소수 정당의 의석 배정으로 정국이 불안하지 않도록 전체 당선 의원 중 최소 5% 이상을 배출하는 정당에게만 의석을 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Sperrklausel).

연방의회는 독일의 국회로서 대통령과 총리를 선출하고, 정부에서 제안되는 법안을 통과하고 정부의 활동을 관리감독하는 것이 주된 역할이다.

나. 최신동향

○ 집권 연방정부

2021년 말부터 독일에서 솔츠(Olaf Scholz)를 총리로 사민당(SPD), 녹색당(Bündnis90/Die Grünen), 자유민주당(FDP) 연정이 여당으로 집권하고 있다. 기존의 집권당은 메르켈(Angela Merkel) 총리로 기독교민주/사회연합(CDU/CSU), 사민당(SPD) 연정이었으며 차기 연방의회 선거는 2025년에 개최될 예정이다.

○ 집권 연방의회

연방의회는 2021년 12월 8일 독일의 아홉 번째 총리 솔츠(Olaf Scholz, 사민당)를 총리로 임명했다. 전임자인 메르켈 총리는 16년의, 재임 기간을 끝으로 총리직을 내려놓게 된 것이다. 부총리겸 경제기후보호부 장관은 하베크(Robert Habeck, 녹색당), 외무부 장관은 베어보크(Annalena Baerbock, 녹색당), 재무부장관은 린드너(Christian Lindner, 자유민주당)이다. 현재 내각은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당은 2021년 9월 26일 이후 연방의회 선거 결과로 전체 736석 중 416석을 차지하고 있다. 여당이 3개 정당으로 구성된 것은 독일로서 이례적인 사건으로 그 전까지는 2개 정당으로 연정을 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연정계약상 주요 안건은 자유, 평등, 지속가능성이다.

독일 연방정부는 산업, 경제 전반에 걸쳐 2045년까지 기후 중립(klimaneutral)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솔츠 총리는 첫 번째 정부정책 설명회에서 100년 이래 최대 규모의 산업, 경제 전환을 언급하였다. 구체적인 과제로 2030년까지 독일 전력 생산의 80%를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부터 충당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독일 정부는 에너지 효율과 지속 가능성 향상을 위해 전기요금 상한제, 가스 수입 지원, 산업용 전기요금 감가 정책을 추진하고, 2,000억 유로 규모의 경제 안정화 기금(WSF) 배정 및 전기세 인하로 기업 운용 비용 절감 등 유리한 사업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 대외관계 및 사회적 특징

○ 대외관계

독일 통일 이후 대외 정책상 제약요소가 사라짐에 따라 국제 사회에서 독일의 지위와 영향력이 크게 향상됐다. 경제에 이어 정치안보 분야에서도 유럽의 핵심 국가로 부상했으며, 유럽 통합 추진과 방위 및 對동유럽 정책 수행에 있어서도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독일은 유럽 연합(European Union)과 NATO(North Atlantic Treaty Organisation)를 중심으로 한 대서양 연안 협력 체제 강화 및 UN-OECD 등 국

제기구의 위상 제고를 추진하고, 인권존중 정신에 따라 평화 및 화해를 위한 역할 구축 및 문화 이해 도모에 힘쓰고 있다. 독일은 미국과의 관계를 매우 중시하며, 대서양 협조체제 강화와 더불어 구동구권 군소 국가들과의 긴밀한 접촉 및 적절한 지원 등에 힘쓰는 동서 양면 정책을 취하고 있다.

최근 들어 독일은 지정학적 리스크 헤징(Hedging)을 위한 경제-정치적 파트너십 다각화에 방점을 두고, EU 중심 강화 및 정치적 파트너십 다변화(Diversifizierung)를 강조한다. 즉, 외교노선은 EU와 NATO를 축으로 하고 있으나, 동유럽 국가 및 아태 지역과의 협력 강화에도 관심을 기울이며, 세계 정치적 위기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국제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다.

독일은 특히 지난 2021년에 막을 내린 16년에 걸친 메르켈 정부 하 경제력을 기반으로 EU 내 선도적인 위치를 확보하였다. 2022년 12월 8일 새로 출범한 솔츠(Olaf Scholz) 정부는 2021년 1월 이행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된 브렉시트(Brexit)라는 초유의 사태로 구심점을 잃은 EU를 강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독일은 특히 지난 2021년 2월 발발한 러-우 사태를 둘러싼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EU 내 선도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반도 일부를 합병한 후 악화된 독일과 러시아 관계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음에 따라 지속적인 대러 제재 연장으로 이어져 왔다. 러-우 사태를 기점으로 독일은 EU 차원의 대러 정책 및 대러 제재 강화와 더불어 막강한 독일의 방산 기술을 토대로 대 우크라이나 무기 공급에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 있다.

전임 메르켈 총리는 중국을 독일의 가장 중요한 경제 파트너 중 하나로 여기고 중국과 생산적인 경제 협력을 중시했다. 그러나 솔츠가 이끄는 현 정부는 코로나 팬데믹과 더불어 부각된 공급망 위기에 대응해 이전 정부와 다른 중국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2022년 11월 17일 독일 정부는 대중 전략 초안을 발표한 데 이어 2023년 7월 13일 '중국 전략(Strategie on China)'을 공식 선언하며, '중국과의 관계 재정립, 독일과 EU 역량 강화, 경제 및 정치적 파트너십의 다각화'를 중심으로 한 디리스크(Derisking) 전략 차원의 새로운 대중국 관계를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또한 대중국 의존도 감축 노력과 더불어 독일 솔츠 총리는 지난 2022년 11월 개최된 아세안 정상회의(싱가포르) 및 G20(발리)에 참석해 아태 지역과 긴밀한 협력 증진을 제안한 바 있으며, 특히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등을 중심으로 한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고자 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또한, 북아프리카 및 중동 지역에서의 민주화 운동에 대해 군사적 개입은 자제하나, 난민 구조 지원에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지정학적, 인구학적, 경제적 격변과 위기에 직면해 있는 아프리카의 개발 지원과 더불어 글로벌 도전을 극복하는 핵심 파트너로서의 아프리카와의 관계 증진을 위해 '아프리카 전략'을 통한 아프리카와의 기후 및 환경친화적 개발 파트너십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추세이다.

○ 사회적 특징

독일의 사회 구조는 발전된 사회 보장, 탄탄한 교육 인프라 및 점점 다양해지는 인구에 따른 다양성의 존중 등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독일은 기본법상 독일 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다문화주의와 종교적 다양성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독일에서는 모든 시민의 동등한 권리가 사회의 여러 수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독일은 인구 구조적 변화에 따른 고령화 추세와 더불어 특히 이민과 통합을 통한 다양성을 중시한다. 독일에는 총 2,230만 명에 이르는 이민자들이 살고 있고, 총 1,259만 명이 해외 국적 소지자이며, 매년 10만 명 이상이 귀화하고 있다. 독일은 국제적으로 난민 보호에 앞장서고 있으며, 2023년 9월 누계 독일 내 난민 신청건수는 전년도 24만 건을 이미 상회한 25만 건에 이른다. 예를 들어 시리아나 이라크 등 지에서의 사태로 인한 난민 증가로 2015년 약 200만 명의 외국인이 이주한 것으로 집계된 바 있고, 러-우 사태에 따른 우크라이나 난민의 수도 110만 명(자료: 외국인 중앙 등록부(AZR) 2023년 9월 30일 기준)으로 집계되고 있다. 독일은 이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고, 사회 통합의 과제 하에 지속적인 거주권을 마련하기도 해 현재에도 유럽 내 이민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국가 중 하나로 손꼽힌다. 이러한 배경 속에 독일은 이민자의 통합을 통해 인구 변화와 전문 인력 부족에 대응해 나가고 있기도 하다.

또한 독일에서는 시대에 따른 변화 속에 성 평등과 성 공정성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으며, 직업과 가족 간의 균형 및 다양한 가족 모델은 독일 사회에서 중요한 이슈이다. 또한 독일 정부는 양성 평등 외에도 LSBTIQ(레즈비언, 동성애자, 바이섹슈얼, 트랜스섹슈얼, 인터섹슈얼, 성소수자(queer))의 권익을 보호하고, 차별 철폐를 지지하며, 성-젠더 다양성을 수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한편, 무엇보다 세계 최초로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해 현대적인 사회 보장의 기틀을 마련한 독일의 사회 제도는 복지 국가의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고 국민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다양한 사회 보장 메커니즘을 포함한다. 국가 차원의 연금보험을 위시해 건강보험, 간병보험, 실업보험, 28~30일에 이르는 휴가제도, 병가제도 등이 정착돼 있다. 구직자의 기초 생활보장을 비롯해 실업자 및 저소득층의 생계를 지원하며, 자녀 및 부모 수당, 저소득 가정에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사회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다. 특히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제도가 일반화되어 있어, 근로자는 육아 휴직 직전 및 육아 휴직 기간 중에 하고 보호의 혜택을 누리는 등 시민을 위한 안정적인 보장 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2022년 독일은 총 GDP의 32%에 해당하는 1조 1,800억 유로를 사회 복지를 위해 지출했다.

독일의 교육 시스템은 균형 잡힌 교육의 기회와 폭넓은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유아 교육부터 대학 교육까지 국가와 주 정부가 지원하고 있으며, 기술 교육 및 직업 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이론과 실습을 겸한 '듀얼 시스템(Duales System)'이라는 이원화 직업교육(Duale Ausbildung)의 정착으로 대변된다.

또한 독일은 강력한 노동 시장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소규모 및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미텔슈탄트(Mittelstand)'가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다. 아울러 노조의 영향 역시 간과할 수 없다. 독일 노동조합연맹(DGB)은 1949년 10월 발족된 독일 주요 8개 노조 협회 연합(노총)으로 구성된 최상위기관으로 베를린에 소재하며, 일례로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소재하는 독일 및 세계 최대의 단일 노조인 독일금속노조(IG Metall)는 총 가입자 수가 215만 명(2022년)에 이를 정도로 큰 규모로 근로자의 권리, 근로조건 등 근로자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사회적 특성은 독일 사회의 다양성을 형성하며, 특히 인구 구조의 변화, 이민자의 통합 등 미래의 도전과 함께 독일은 포용력 있는 사회를 위한 끊임없는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라. 정책 · 법령

독일은 일찍이 신 혁신 기술 개발 지원에 중점을 두고 ‘하이테크 전략(Hightech-Strategy)’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는 2006년 처음 도입된 독일의 범정부 차원의 전략으로 독일 정부의 미래 산업 육성정책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최초 시행 이후 후속조치로 2010년 7월 ‘하이테크 전략 2020’에 이어 2014년 9월 3일 신 하이테크 전략(New Hightech-Strategy)이 도입되었으며, 2018년 9월 이후부터는 ‘하이테크 전략 2025(Hightech-Strategy 2025)’이 시행되고 있다. 이 정책의 핵심은 독일의 미래 능력 강화, 미래의 가이드로서 독일의 번영과 지속가능한 개발 및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를 연구와 혁신과 연계하는 데 있으며, 독일의 번영, 성장, 삶의 질을 높이고 국제적으로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최고의 혁신을 통한 미래의 도전과 글로벌 경쟁에 대한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독일 정부는 동 전략을 통해 독일의 RnD 투자를 2018년 GDP의 약 3% → 2025년까지 3.5%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추진 중이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된 ‘4차 산업혁명’을 추진해 나가는 데 중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독일의 ‘인더스트리(Industry) 4.0 전략’ 역시 하이테크 전략 차원의 미래 프로젝트로 출범하면서 2012년 10월 최초로 정책화되었다. 인더스트리 4.0 전략은 제조업과 ICT 융합을 통한 독일 제조업의 생산성 증진,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목적으로 하며 기업·연구프로젝트·국가간 협력 등 전방위 영역의 Industry 4.0 추진 속도를 가속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당시 독일경제에너지부는 향후 10년간 이를 통해 총 2,500억 유로의 부가가치 창출을 추산한 바 있으며, 독일연방산업협회(BDI)와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Fraunhofer IAO)는 +30%에 이르는 생산성 향상 효과와 더불어 연간 100억 유로 규모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전망하기도 했다. 2023년 4월 25일 기준 독일 내 총 403개 기업이 Industry 4.0 설비를 도입해 운영 중이며, 단독 또는 산학연이 참여하는 연구프로젝트(Testcenter)의 수는 81개로 집계되었다. 이 외에도 독일은 2019년 2월 ‘국가 산업전략 2030’을 발표하며 독일의 기술경쟁력 및 주요 산업의 리더십 보존을 위한 미래 핵심기술 지원·보호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한편, 독일은 기후정책의 선도국으로서 환경과 자연보호는 이미 수십 년 전 이래 높은 우선 순위를 갖고 있다. 독일은 1994년 이래 환경 보호를 기본법에 국가적 목표로 명시하고 있으며, 세계기후회의나 양자협정을 통해 독일은 기후보호를 위해 국제적 연대를 강조하고 있다. 현재 독일 기후보호정책의 최상위 목표는 파리기후변화협약에 의거해 지구 온난화를 1.5°로 제한하는 데 있다. 이에 따라 지속 가능성과 환경 보호는 독일 정치 및 사회에서 높은 우선 순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독일은 지속 가능한 발전 및 환경 보호 정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독일 정부는 ‘신재생 에너지 수급 안정, 가격 안정, 친환경성 강조’를 에너지 정책의 3대 정책 기조로 삼고, 2011년 6월 이래 ‘에너지 전환(Energiewende, Energy Change Policy)’을 위시해 탄소 배출을 줄이고 재생 에너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 나가고 있다.

이러한 에너지 전환과 더불어 독일은 정책적으로 기후중립과 지속가능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탈석탄, 탈원전 등을 중심으로 한 탈탄소 정책은 독일 정부의 중점 정책 과제에 속한다. 독일 정부는 2019년 9월 ‘기후보호 프로그램 2030’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총 500억 유로를 투자해 1990년 대비 CO₂를 55% 감축해 나간다는 목표를 공표한 데 이어, 2021년 5월 5일 기후중립 달성 목표를 기존 2050년 → 2045년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2030년까지의 CO₂ 감축 목표 역시 기존의 55% → 65%(1990년 대비)로 상향 조정하며 강력한 친환경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이러한 연장 선상에서 독일은 日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 사용을 2022년까지 점진적으로 중단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재생에너지를 대대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2023년 1월 1일 개정된 재생에너지법 2023을 통해 독일은 2030년까지 총 전력 소비에서의 재생에너지 비중을 기존의 65%(2019년 9월 발표 기준) → 80%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 재생에너지법(EEG)은 2000년 처음 되었으며, 2022년 총 에너지 소비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46.2%에 달한다.

독일은 러·우 사태로 야기된 에너지 위기에도 불구하고 2023년 4월 15일 잔여 원전 3기 가동을 영구 중단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탈원전 목표를 이뤘다. 아울러 러·우 사태로 촉발된 에너지 공급 위기에 따른 에너지 상승에 대한 가계 및 기업 부담을 덜기 위해 1차, 2차에 이은 3차 에너지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패키지(Entlastungspaket, 650억 유로(약 88조원) 규모)를 시행해 나가며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을 기한 바 있다. 또한 독일 정부는 現 독일 경기 부진과 기업환경 약화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8월 ‘성장기회법(Growth Opportunities Act)’을 포함한 10대 경제 활성화 패키지(Entlastungspaket, 부담 경감 패키지) 도입에 합의하고, 2028년까지 연간 70억 3,500만 유로(한화 약 10조 원) 규모의 조세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성장기회법은 10대 계획의 핵심으로 특히 중소기업과 기후 친화적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이 외, EU에 발맞춰 탈플라스틱 기조를 추진하기 위한 독일 정부의 실천 의지도 돋보인다. 독일은 지난 2019년 1월 1일 신 포장재법(Verpackungsgesetz) 도입으로 기업의 포장재 회수 및 재활용 의무를 강화한 데 이어 2021년 7월 포장재법을 개정해 포장 등록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순차적으로 재사용 가능 포장재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온라인 유통업체의 책임도 강화하였다. 아울러 독일은 2023년 1월 1일부로 공급망실사법(LkSG)을 전격 시행해 공급망 내 인권 보호와 환경 보호 강화를 위해서도 선도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독일은 특히 코로나19 위기 후 전반적인 구조적 여건 변화 및 기후중립 및 탈탄소화를 위한 산업 구조 전반의 대대적인 변화 속에 정부 주도의 그린 및 디지털 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특히 지난 2023년 11월 16일 독일은 지속 가능하고 기후 중립적인 對유럽

투자를 위한 EU의 경제회복기금(RRF) 차원에서 배분되는 자금을 기존 총 256억 유로 → 총 280억 유로로 확대 신청하며, 그린 및 디지털 전환을 위한 투자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유럽 의회는 이 RRF 기금을 통해 독일 GDP가 2026년까지 0.4~0.7% 증가하고, 최대 13만 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5. 주요산업

가. 개요

독일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산업 국가 중 하나이다. 유럽 내 최대의 경제 대국이자, 미국, 중국,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경제 규모를 갖고 있다. 독일은 특히 자본재 및 혁신적인 생산 기술 개발 및 제조를 전문으로 하며, 경제력의 원동력은 혁신력이라 할 수 있다. 독일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독일의 총 GDP에서 차지하는 RnD 비중은 3.1%로 그 규모는 총 1,126억 유로에 달한다. 독일은 약 13만 2,000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 유럽 내 특허 최대 보유국이다.

부가가치 창출 기준 독일 산업별 비중은 서비스업이 69.3%로 가장 높고, 이를 이어 제조업 23.5%, 건설업 6%, 농림어업 1.2% 순으로 나타난다. (자료: 독일 연방통계청 2022년 기준)

이 중 제조산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현재 집계 기준 최신 수치인 2020년 기준 독일 제조산업의 총 기업 수는 38,592개, 제조산업의 고용인원 수는 총 646만 명, 제조업 분야 연 매출 규모는 1조 8,850억 유로에 달한다. 주력 산업은 자동차, 기계, 철강, 화학·제약, 전기/전자 산업 등이다.

독일의 경제력은 특히 중소기업업을 중심으로 한 각 산업의 성과와 혁신 능력을 기반으로 한다. 독일 중소기업업의 비중은 99%에 달하며, 독일 기업들은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장인 정신을 발휘해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 'Made in Germany' 제품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독일 기업의 국제경쟁력 유지 핵심 열쇠 4가지를 꼽는다면

- ① 도제 제도에 기반을 둔 직업훈련을 통한 우수 기술인력 양성
- ② 산학연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기술 개발
- ③ 단기 실적에 연연하지 않는 장기적 안목의 기업 경영
- ④ 고객 문제 해결 중심의 글로벌 기업 경영을 들 수 있다.

독일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 중심지는 루르 지역, 뮌헨 및 슈투트가르트(첨단 기술, 자동차 제조), 라인-넵카(화학, IT),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금융), 뉘른베르크(산업, 서비스), 쾰른 및 함부르크(항공, 항공기 제조, 미디어) 등의 대도시 지역이다. 아울러 구 동독 지역인 드레스덴, 예나, 라이프치히, 로이나, 베를린-브란덴부르크 등 독일 동부 지역은 하이테크 기술 중심의 입지로 성장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와 마찬가지로 독일은 산업 및 경제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를 위해 광대역, 5G 이동통신 등의 디지털 인프라 확충을 비롯해 사물 인터넷(IoT)의 기술 발전과 함께 독일 산업계에서는 제조와 IT의 융합으로 대변되는 인더스트리 4.0*을 중심으로 한 변화가 한창이며, 이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아 미래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독일의 해법으로 자리잡고 있다.

* 주: 인더스트리(Industry) 4.0은 글로벌 경쟁 심화에 따른 독일경제의 핵심인 제조업 분야에서의 기술격차 확보 및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주 목적으로 독일이 추진 중인 혁신 전략으로 2011년 하노버 산업전시회에서 최초로 언급된 이래 2012년 10월 이후 정책화되었으며, 제조업과 IT를 접목한 생산시설의 네트워크화와 지능형 생산시스템을 갖춘 스마트공장 실현이 핵심이다.

나. 주요 산업별 현황

□ 자동차

독일 자동차 산업은 독일 총 산업 매출의 약 20% 이상을 차지하는 독일 최대의 제조산업이다. 독일은 중국, 미국, 일본, 인도, 한국에 이어 세계 6위의 자동차 생산국이다. 약 85만 명의 고용인원*을 보유한 자동차 산업은 'Made in Germany'의 주요 분야로 폴크스바겐(Volkswagen), 아우디(Audi), BMW, 메르체데스 벤츠(Mercedes Benz), 포르쉐(Porsche), 오펠(Opel/Stellantis) 등의 대표적인 완성차 기업을 비롯해 세계 최대의 자동차 부품기업인 보쉬(Bosch) 및 콘티넨탈(Continental), ZF 프리드리히스하펜(ZF Friedrichshafen), 말레(Mahle) 등을 보유하고 있다.

* 주: 현재 집계 기준 최신 수치에 따르면, 2021년 독일 총 자동차 산업의 고용인원 수는 78만 6,109명으로 전년 대비 3% 감소했다. (자료: 독일 자동차산업협회(VDA))

현재 현재 독일 자동차 산업은 '메가트렌드'라 할 수 있는 '전동화, 디지털화, 운전자 보조 또는 자율 주행'등을 중심으로 장기적인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다. 독일 자동차 산업에서는 탄소 중립을 지향하며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로의 전환 속에서 전 공급망 가치 사슬에 걸쳐 구조적 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대체 연료 차량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산업 생태계 구축 움직임이 한창이다. 이에 발맞춰 자동차 산업계는 혁신을 위한 미래 지향적인 투자로 산업 생태계 변화를 선도하고 있으며, 2021년도 독일 자동차산업 RnD 총투자규모는 244억 유로로, 코로나19의 영향 속 전년 대비 -13.6% 감소했다.

2019년 이후 글로벌 시장 수요 둔화 및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발발과 2021년 2월 이래 러-우 사태의 영향 속에 반도체를 위시한 특정 중간 제품 및 원자재의 공급 병목 현상이 지속되며 독일 자동차 산업은 2021년과 2022년 생산과 판매에 큰 차질을 겪었다. 잠정 집계 발표에 따르면, 2022년 독일 내 자동차 생산대수는 350만 대로 전년 대비 12%의 감소세를 기록했다. 독일 자동차 생산의 해외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독일 완성차 기업의 자동차 3대 중 2대는 해외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다. 2021년 독일 자동차 산업의 연 매출은 전년 대비 9% 증가한 4,109억 유로를 기록했다. 전체 매출액의 66.7%는 해외에서, 나머지 33.3%는 독일 국내에서 발생했

으며, 매년 해외 생산 비중 증가에 따른 해외 매출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 독일 자동차 시장은 총 판매대수 265만 대로 전년 대비 1.1% 소폭 성장했으나,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한 바 있는 코로나19 위기 이전(2019년 361만 대)의 수준으로 회복하고 있지는 못하다. 반면, 자동차 산업의 전기차 전환 트렌드는 매년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2022년 신규 등록차량 2대 중 1대(49.6%)가 하이브리드(플러그인 포함), 수소, 가스 등을 포함한 대체 연료 차량으로 나타났다. 2020년 이래 매년 높은 성장세를 거듭하고 있는 순수 전기차 시장은 2022년에도 총 신규 등록대수가 약 47만 대로 전년 36만 대 대비 +30.1% 증가하며 시장 점유율도 전년 13.6% → 17.7%로 지속 상승했다. 이러한 추세는 2035년으로 확정된 EU 차원의 내연기관 퇴출(E-Fuels 예외 적용 예정)과 더불어 지속될 전망이다. 독일 자동차산업협회(VDA)는 기준에 2023년 전년 대비 +1.9% 증가한 약 270만 대의 자동차 판매를 전망한 바 있으나, 1분기 코로나 팬데믹 영향의 회복세를 토대로 5월 초 280만 대(+4%)로 전망수치를 상향조정하였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한 2019년(361만 대 판매) 대비 여전히 22% 낮은 수치로 아직은 예년 수준으로의 회복이 역부족일 것으로 예상된다.

□ 기계 설비

독일은 글로벌 기계설비 산업을 선도하는 국가로, 총매출 기준으로 살펴보면 중국과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기계설비 산업국이다. 독일 기계설비산업은 코로나19 팬데믹 위기로 인해 2020년에는 2,035억 유로로 매출이 감소했으나, 2021년에는 다시 반등해 2,213억 유로의 매출을 기록했다. 독일 기계설비 산업은 최근 몇 년간 수출 비율이 75~82%에 달할 정도로 수출 지향적이다. 독일의 기계설비 산업의 주요 수출국으로는 미국, 중국, 프랑스를 들 수 있다. 2021년 독일 기계설비산업의 총수출액은 1,794억 유로이며 총수입액은 792억 유로를 기록했다. 독일 기계설비 산업 종사자 수는 2021년 기준 약 100만 명에 이른다. 독일의 대표적인 기계설비 제조사로는 지멘스(Siemens), 키온(KION), 보쉬(Bosch), 튀센크루프(Thyssen Krupp) 등을 들 수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독일의 기계설비 산업에 대한 투자는 크게 감소했다. 2020년 독일 기계설비 산업계에서는 약 60억 유로의 투자가 이뤄졌으며, 투자의 대부분은 혁신적인 기계설비 솔루션의 발전을 위한 연구 개발에 할당되었다. 슈타티스타(Statista)에 따르면 독일 기계설비 산업의 매출 규모는 2025년까지 약 2,900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속적인 매출 증가에 따라 독일에서 이 분야의 부가가치도 2050년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낙관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일부 전문가들은 글로벌 경제 약화로 인해 기계설비 산업, 특히 DACH(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지역의 기계 설비 산업에 잠재적인 위협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전기/전자/ICT

독일 전기/전자/IT-ICT 산업은 제조업 부문에서 기계 설비 산업 다음으로 고용인원이 많은 중요한 산업 분야이다. 독일 전기 전자 산업 협회(ZVEI)에 따르면, 독일 전기/전자/ICT 산업의 총매출은 2019년 1,920억 유로를 달성한 후, 2020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위기로 매출이 1,820억 유로로 감소했으나 2021년에는 2,000억 유로로 회복되었다. 2021년 독일 전체 제조업 매출 중 전기/전자/ICT 산업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은 약 10.1%에 해당한다. 전기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는 자동화로 전기 드라이브, 스위칭 장치, 스위치 기어 및 산업용 제어뿐만 아니라 측정 기술 및 프로세스 자동화가 여기에 포함된다. 2021년 기준 독일 전기/전자/ICT 산업 부문의 고용인원 수는 전년 대비 0.3% 증가한 약 87만4,100명으로 집계되었다. 독일 전기/전자/ICT 산업의 수출은 2019년 2,148억 유로를 기록한 후, 2020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위기로 2,027억 유로로 감소했으나 2021년에는 2,246억 유로로 회복되었다. 독일 전기/전자/ICT 산업의 주요 수출국은 중국, 미국, 프랑스를 들 수 있다. 수출 증가와 함께 수입도 증가해 2021년 수입은 전년 대비 14.9% 증가한 2,217억 유로를 기록했다. 전기 전자 산업은 연구 개발에 중점을 둔 매우 혁신적인 산업으로, 독일 기업들은 RnD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으며, 2021년 전기 및 전자 산업의 RnD 지출 규모는 200억 유로에 달한다. 이러한 RnD 투자는 독일 기업들이 최첨단 기술과 제품을 개발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독일 특허청에 따르면 전기 기계와 장비, 전기 에너지 분야에서 지난 5년간 연평균 약 7,200건의 특허가 등록되었다. Faz에 따르면, 전쟁, 에너지 위기,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힘든 한 해를 보낸 독일 전기 및 디지털 산업은 2023년에 잠재적인 성장 정체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명목 경제 생산량이 최대 7%까지 성장할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대부분 비용 관련 가격 상승으로 주도될 것이며, 이는 현금 가치의 점진적인 하락으로 인해 상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II. 무역

1. 수출입

가. 개요 및 동향

독일은 중국, 미국에 이은 세계 3위의 수출 강국으로, 'Made in Germany'를 주도하는 글로벌 시장 내 독일 중견 기업의 활약과 비교적 안정된 내수 시장과 견조한 고용시장을 토대로 유럽 경기의 견인차 역할을 해오고 있다.

2019년 독일의 수출 및 수입은 전년 대비 각각 +0.8%, +1.4% 증가한 1조 3,282억 유로, 1조 1,041억 유로로, 무역수지는 -2.1% 감소한 2,240억 유로를 기록하였다.

2020년 독일의 수출 규모는 코로나 19의 여파로 1조 2,069억 유로(전년 대비 -9.1% 감소), 수입 규모 1조 265억 유로(전년 대비 -7%)로 모두 하락세를 보였으며, 무역수지 또한 -19.5% 감소한 1,804억 유로를 기록하였다.

2021년 독일의 수출은 코로나19의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회복세로 전환 및 전년도 기저효과로 인하여 전년 대비 +14.3% 증가한 1조 3,793억 유로를 달성했다. 수입 규모 또한 1조 2,041억 유로로 전년 대비 +17.3% 증가하였으며, 무역수지는 수입액 증가로 인하여 전년 대비 -2.8% 감소한 1,753억 유로를 기록하였다.

2022년 독일의 수출은 1조 5,768억 유로(전년 대비 +14.3%)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및 에너지 가격 급증 등에 따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완만한 증가세를 기록하였다. 2022년 독일의 수입 또한 1조 4,945억 유로로 전년 대비 +24.1% 증가함에 따라, 독일의 2022년 무역수지는 전년 대비 -53.1% 하락하며, 예년 대비 흑자 폭이 크게 감소하였다.

나. 국가별 수출입

- 국가별 수출입 현황

□ 수출 현황

지난 3년(2020년~2022년) 독일의 주요 수출국(10위권)은 약간의 순위 변동만 있을 뿐, 10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는 동일하다.

2020년 미국은 전년 대비 -10.9% 수출액 감소세를 보였으나, 독일의 주요 수출국 1위를 기록하였다. 이를 이어 2위인 중국을 제외한 프랑스(3위), 네덜란드(4위), 영국(5위)는 각각 -13.1%, -4%, -13.4%로 전년 대비 수출이 모두 하락하였으며, 독일의 10대 주요 수출국 중 7개국으로의 수출이 감소세를 보였다.

2021년 독일의 주요 수출국 1위 역시 미국(+21.8%)으로 독일 수출 규모의 점유율 8.8%를 차지하였다. 중국(2위), 프랑스(3위)를 포함하여 2021년 독일의 주요 수출국 10개국은 모두 전년 대비 수출액이 증가하였다.

2022년 대비 수출이 전년 대비 13.7% 증가하며 전년에 이어 미국이 독일의 주요 수출국 1위(점유율 : 9.9%)를 차지하였다. 프랑스(2위), 네덜란드(3위)가 그 뒤를 이었으며, 중국(4위)의 경우, 수출이 전년 대비 감소세(-8.1%)를 보였다. 오스트리아(+5.8%), 벨기에(+6.7%)는 모두 전년 대비 증가세를 보이며, 10위권을 유지하였다.

□ 수입 현황

지난 3년(2020년~2022년) 독일의 주요 수입국(10위권)은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비교적 유사하다.

2020년 독일의 주요 수입국(10위권)은 중국(1위), 폴란드(4위), 스위스(7위)를 제외하고, 모두 수입이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 그 중 프랑스(5위), 네덜란드(2위)는 각각 -13.1%, -9.3% 감소하며 10위권 내 비교적 큰 하락세를 보였다.

2021년 독일의 주요 수입국(10위권)은 모두 전년 대비 증가세를 보였으며, 벨기에(9위), 중국(1위), 이탈리아(5위)는 전년 대비 각각 +47.9%, +25.7%, +25.5%를 보이며 10위권 안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2022년 독일의 주요 수입국 가운데 중국이 전년 대비 수입이 +19.7% 증가하며 1위(점유율 : 12.9%)를 차지하였다. 그 뒤를 이어 네덜란드와 미국이 각각 2위, 3위를 차지하였는데, 이러한 주요 수입 3위국은 지난 3년간 동일하다. 반면 이탈리아의 경우, 전년 대비 수입이 -1.6% 감소하였으나 전년과 마찬가지로 5위를 유지하였다.

자료원 : Global Trade Atlas

*주 : 개요 및 동향의 상세 분석은 통계 분석의 편의상 Germany(Customs) 기준으로 한 발표 자료를 토대로 했으며, 일부 세부 통계 규모 등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수출 상위 10개국

2020년

No	국가명	금액(\$)
1	미국	134,826,688,906
2	프랑스	121,389,784,906
3	중화인민공화국	109,299,416,677
4	네덜란드	94,350,418,015
5	영국	89,326,253,488
6	이탈리아	78,502,289,911
7	폴란드	74,528,053,720
8	오스트리아	71,755,114,473
9	스위스	65,818,409,944
10	벨기에	52,784,159,486

<자료원 : UN Comtrade>

2021년

No	국가명	금액(\$)
1	미국	120,740,019,373
2	중화인민공화국	111,403,725,543
3	프랑스	105,560,460,448
4	네덜란드	90,676,881,740

5	영국	77,061,018,485
6	폴란드	74,864,949,669
7	이탈리아	70,918,653,016
8	오스트리아	68,043,373,685
9	스위스	67,094,196,593
10	벨기에	50,245,804,207

<자료원 : UN Comtrade>

2022년

No	국가명	금액(\$)
1	미국	146,146,107,968
2	중국	124,797,014,670
3	프랑스	124,287,823,504
4	네덜란드	110,472,050,915
5	폴란드	92,842,641,135
6	이탈리아	92,483,135,080
7	오스트리아	84,019,780,217
8	영국	78,737,408,817
9	스위스	75,000,475,398
10	벨기에	61,051,764,579

<자료원 : UN Comtrade>

2023년

No	국가명	금액(\$)
1	미국	167,135,476,683
2	프랑스	121,874,755,266
3	네덜란드	115,891,024,671
4	중국	113,383,309,126
5	폴란드	95,757,367,133
6	이탈리아	91,837,979,836
7	오스트리아	86,726,074,840
8	스위스	80,652,794,099

9	영국	78,799,170,333
10	벨기에	64,361,218,119

<자료원 : UN Comtrade>

- 수입 상위 10개국

2020년

No	국가명	금액(\$)
1	중화인민공화국	124,669,037,832
2	네덜란드	97,975,021,471
3	미국	81,977,057,361
4	프랑스	74,195,987,630
5	폴란드	64,730,744,260
6	이탈리아	64,042,630,000
7	체코	53,613,481,342
8	스위스	52,802,080,868
9	벨기에	48,055,541,346
10	오스트리아	46,430,031,035

<자료원 : UN Comtrade>

2021년

No	국가명	금액(\$)
1	중화인민공화국	133,591,527,876
2	네덜란드	90,969,205,742
3	미국	78,556,498,077
4	폴란드	66,865,968,744
5	프랑스	64,725,901,781
6	이탈리아	61,543,043,183
7	스위스	53,661,906,823
8	체코	49,778,280,415
9	오스트리아	44,069,075,902
10	벨기에	42,711,841,609

<자료원 : UN Comtrade>

2022년

No	국가명	금액(\$)
1	중국	169,249,709,393
2	네덜란드	108,423,381,671
3	미국	86,651,785,942
4	폴란드	81,477,062,996
5	이탈리아	77,614,531,999
6	프랑스	73,781,691,960
7	벨기에	61,103,921,001
8	스위스	60,225,469,851
9	체코	59,367,865,635
10	오스트리아	54,213,841,587

<자료원 : UN Comtrade>

2023년

No	국가명	금액(\$)
1	중국	204,769,860,963
2	네덜란드	120,024,569,079
3	미국	98,321,168,518
4	폴란드	81,746,518,257
5	노르웨이	79,005,698,574
6	이탈리아	76,131,361,793
7	프랑스	73,505,500,727
8	벨기에	61,331,008,554
9	체코	60,894,956,668
10	스위스	60,458,075,652

<자료원 : UN Comtrade>

나. 품목별 수출입

- 품목별 수출입 현황

□ 수출 현황

독일의 지난 3년간(2020년~2022년) 10대 주요 수출품목은 자동차, 자동차 부품, 의약품, 기타 항공기, 인혈 및 치료용·예방용·진단용 동물의 피·면역물품 등으로 나타났다.

2020년 독일의 10대 주요 수출품목 중 인혈 및 치료용·예방용·진단용 동물의 피·면역물품과 의약품이 각각 전년 대비 +14.3%, +6.8% 증가하며 10위권 품목 중 비교적 큰 증가세를 보였다.

2021년 독일의 10대 수출품목 중 대부분이 전년 대비 성장세를 보인 가운데, 인혈 및 치료용·예방용·진단용 동물의 피·면역물품(+48.3%),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광섬유용·광섬유다발용·케이블용 커넥터(+22.8%), 자동차 부품(+18.4%)이 상대적으로 큰 성장을 보였다.

2022년 독일 10대 수출품목 중 7개의 품목 수출이 전년 대비 증가세를 보였는데, 특히 전기에너지와 석유와 역청유(원유 제외)는 각각 전년 대비 +127%, +66.6%로 대폭 성장하였다. 그 뒤를 이어 전자집적회로가 +23.1%로 큰 성장을 기록한 가운데, 인혈 및 치료용·예방용·진단용 동물의 피·면역물품(-7.2%), 자동차 부품(-5.7%)이 다소 하락하였다.

□ 수입 현황

독일의 지난 3년간(2020년~2022년) 10대 주요 수입품목은 자동차, 자동차 부품, 석유와 역청유(원유로 한정 및 원유 제외), 인혈 및 치료용·예방용·진단용 동물의 피·면역물품, 의약품 등이다.

2020년 독일의 10대 수입품목 중 자동차(1위), 자동차 부품(2위)는 각각 전년 대비 -8%, -14.2%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최상위권을 기록하였다. 인혈 및 치료용·예방용·진단용 동물의 피·면역물품(+18.9%), 자동차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13.4%)가 높은 성장세를 보인 반면, 석유 및 역청유(원유 제외)는 전년 대비 -38.3%로 다소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2021년 독일의 10대 수입품목이 모두 전년 대비 수입액 증가세를 보인 가운데, 특히 석유가스와 그 밖의 가스 상태의 탄화수소(+100.9%), 인혈 및 치료용·예방용·진단용 동물의 피·면역물품(+48.2%), 석유와 역청유(원유로 한정/+46.9%), 석유 및 역청유(원유 제외/+46.8%), 전자집적회로(+29.7%) 등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2022년의 경우, 질소 원자만을 함유한 헤테로고리 화합물의 수입 규모가 전년 대비 +176.7% 대폭 증가하였다. 그 뒤를 이어 석유가스와 그 밖의 가스 상태의 탄화수소(+59.9%), 석유 및 역청유(원유 제외/+55%), 석유와 역청유(원유로 한정/+51.7%)가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인 반면, 자동차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의약품, 인혈 및 치료용·예방용·진단용 동물의 피·면역물품이 전년 대비 각각 -12.6%, -0.7%, -0.4%로 다소 하락하였다.

자료원 : Global Trade Atlas

*주 : 개요 및 동향의 상세 분석은 통계 분석의 편의상 Germany(Customs) 기준으로 한 발표 자료를 토대로 했으며, 일부 세부 통계 규모 등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상위 10개 수출품목

2019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	---------	-----	--------

1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인 것	59,390,768,023
2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57,585,765,286
3	300490	기타	45,781,333,289
4	880240	자체 중량이 15,0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비행기와 그 밖의 항공기	30,885,561,699
5	870332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2,500시시 이하인 것	30,341,558,119
6	300215	면역물품(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에 한정한다)	20,063,066,610
7	271121	천연가스	16,552,745,787
8	870840	기어박스과 그 부분품	16,146,107,572
9	870322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 초과 1,500시시 이하인 것	14,473,929,315
10	853710	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	12,916,992,942

<자료원 : UN Comtrade>

2020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59,844,603,408
2	300490	기타	49,110,964,552
3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인 것	41,924,282,956
4	300215	면역물품(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에 한정한다)	22,253,698,629
5	870332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2,500시시 이하인 것	21,273,693,904
6	880240	자체 중량이 15,0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비행기와 그 밖의 항공기	19,346,254,293
7	870840	기어박스과 그 부분품	14,925,498,497
8	870322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 초과 1,500시시 이하인 것	12,314,946,667
9	853710	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	11,633,070,592
10	271121	천연가스	10,619,448,724

<자료원 : UN Comtrade>

2021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63,816,978,770
2	300490	기타	52,281,681,696
3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cc 초과 3,000cc 이하인 것	39,227,789,148
4	300215	면역물품(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에 한정한다)	26,247,601,825
5	870340	그 밖의 차량(불꽃점화식 왕복 피스톤 내연기관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으로서, 외부 전원에 플러그를 꽂아 충전할 수 있는 방식의 것은 제외한다)	19,968,091,184
6	880240	자체 중량이 15,0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비행기와 그 밖의 항공기	19,684,070,757
7	870332	실린더용량이 1,500cc 초과 2,500cc 이하인 것	17,665,196,073
8	870840	기어박스과 그 부분품	17,080,795,055
9	870380	그 밖의 차량(추진용 전동기만을 갖춘 것)	15,582,156,260
10	853710	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	12,572,833,024

<자료원 : UN Comtrade>

2022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300490	기타	63,207,123,376
2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58,786,757,329
3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cc 초과 3,000cc 이하인 것	40,962,542,449
4	300215	면역물품(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에 한정한다)	27,259,284,858
5	870380	그 밖의 차량(추진용 전동기만을 갖춘 것)	26,262,306,332
6	870340	그 밖의 차량(불꽃점화식 왕복 피스톤 내연기관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으로서, 외부 전원에 플러그를 꽂아 충전할 수 있는 방식의 것은 제외한다)	21,963,379,032
7	880240	자체 중량이 15,0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비행기와 그 밖의 항공기	20,040,129,568
8	271600	전기에너지	18,589,126,510
9	870332	실린더용량이 1,500cc 초과 2,500cc 이하인 것	16,368,956,620

10	870840	기어박스와 그 부분품	15,701,455,539
----	--------	-------------	----------------

<자료원 : UN Comtrade>

- 상위 10개 수입품목

2019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67,029,136,214
2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40,745,646,709
3	271121	천연가스	38,897,956,145
4	300490	기타	26,761,662,835
5	870332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2,500시시 이하인 것	20,710,760,600
6	271019	기타	17,458,364,695
7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인 것	16,217,295,638
8	870322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 초과 1,500시시 이하인 것	14,046,188,172
9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11,582,851,897
10	847130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적어도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10,830,820,132

<자료원 : UN Comtrade>

2020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74,173,512,993
2	300490	기타	29,444,704,296
3	271121	천연가스	28,690,233,164
4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27,502,475,108
5	870332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2,500시시 이하인 것	16,202,319,254
6	847130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적어도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13,510,122,582
7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13,294,329,334
8	300215	면역물품(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에 한정한다)	12,132,566,872

9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cc시 초과 3,000cc시 이하인 것	11,368,278,329
10	870322	실린더용량이 1,000cc시 초과 1,500cc시 이하인 것	10,780,126,679

<자료원 : UN Comtrade>

2021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84,372,562,583
2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40,015,754,143
3	300490	기타	29,214,113,084
4	271121	천연가스	25,634,801,863
5	847130	휴대용 자동차자료처리기계(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적어도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17,081,339,705
6	300215	면역물품(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에 한정한다)	16,330,195,134
7	271019	기타	13,252,211,939
8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12,877,079,269
9	870332	실린더용량이 1,500cc시 초과 2,500cc시 이하인 것	12,219,630,976
10	300220	백신(인체의약품으로 한정한다)	10,758,618,036

<자료원 : UN Comtrade>

2022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78,615,362,463
2	271121	천연가스	64,619,343,858
3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62,367,791,935
4	300490	기타	29,546,355,603
5	293379	그 밖의 락탐	26,380,662,367
6	271019	기타	22,566,872,408
7	850760	리튬이온 축전지	16,322,401,113
8	847130	휴대용 자동차자료처리기계(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적어도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14,176,183,967

9	271600	전기에너지	13,161,008,022
10	300215	면역물품(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소매용 모양이 나 포장을 한 것에 한정한다)	12,986,782,558

<자료원 : UN Comtrade>

2. 한국과의 수출입

가. 개요 및 동향

독일은 한국의 對 EU 1위의 수출 및 수입 시장이다. 유럽 최대의 시장이자 수출 경제 중심인 독일은 국내 주재상사의 유럽 영역 거점으로 한-독 교역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3년간(2020년~2022년) 독일의 한국상품 점유율을 살펴보면 평균 점유율 약 1%로 20위권대를 차지하였다. 2023년 8월 누계 기준, 독일의 對 한국 수입규모는 전년 대비 +1.8% 성장하여 20위권대를 유지하였다.

자료원 : Global Trade Atlas

*주 : 개요 및 동향의 상세 분석은 통계 분석의 편의상 Germany(Customs) 기준으로 한 발표 자료를 토대로 했으며, 일부 세부 통계 규모 등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나. 한국의 對주재국 교역 현황

- 한국의 對주재국 교역 현황

지난 3년간(2020년~2022년) 독일은 한국의 수출 국가 중에서 9위~14위를 차지하였다. 비교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던 한국의 對 독일 수출규모는 2022년 약 100억6,8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9.4% 감소하였다. 반면 한국의 對 독일 수입규모는 전년 대비 +7.4% 증가하여 당해년도 무역수지는 -24.4% 다소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2023년 10월 누계 기준, 독일은 한국의 對 EU 1위의 수출입 국가를 유지하고 있으며, 한국의 對 독일 수출규모(86억9,300만 달러), 수입규모(196억9,5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각각 +2.0% 및 +1.2% 증가함에 따라 무역수지는 -110억2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 한국의 對주재국 교역 현황표

(금액 : 백만\$)

년도	수출액	수입액	무역수지
2019	8,686	19,937	-11,251
2020	9,576	20,681	-11,105
2021	11,110	21,996	-10,886
2022	10,068	23,615	-13,547
2023	8,693	19,695	-11,002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다. 한국의 주요 수출입 품목

- 한국의 주요 수출입 품목 현황

○ 수출 현황

2022년 한국의 對 독일 주요 수출 품목은 축전지, 집적회로반도체, 전기자동차, 의약품, 자동차부품, 기타자동차 등이다. 특히 기타자동차

차의 수출은 전년 대비 20,320% 대폭 증가세를 보였다. 그 뒤를 이어 금속절삭가공기계(+36.4%), 무선전화기(+23.3%), 전기자동차(+6.7%)의 수출 또한 성장하였다. 반면 의약품(-49.6%), 승용차(-40.8%)는 다소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2023년 10월 누계 기준, 전기자동차(+128.7%), 승용차(+55.3%)의 한국 對 독일 수출은 전년 대비 큰 성장이 두드러졌다. 반면 무선전화기(-41.4%), 의약품(-40.1%), 축전지(-33.9%), 집적회로반도체(-28.5%)는 전년 대비 비교적 큰 수출 감소세를 보였다.

○ 수입 현황

2022년 한국의 對 독일 주요 수입 품목은 승용차, 기타자동차, 의약품, 집적회로반도체, 자동차부품, 전기자동차 등이다. 특히 기타자동차(+2,418.6%), 전기자동차(+203.3%)의 수입이 대폭 성장하며 두드러진 양상을 보였다. 그 뒤를 이어 의약품(+61%), 반도체제조용장비부품(+6.7%)의 수입 또한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주요 수입 품목 중 승용차(1위), 기타정밀화학원료(8위)는 각각 전년 대비 -39.8%, -24.6% 하락하였다.

2023년 10월 누계 기준, 항공기(+587.8%)의 수입이 대폭 증가하며, 주요 수입품목 9위를 기록하였다. 전기자동차(+49.2%), 반도체제조용장비부품(+46.5%) 역시 큰 폭으로 성장한 반면, 의약품(-28.1%), 집적회로반도체(-12.6%)는 다소 수입규모가 하락하였다.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출품목(2022년)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7414	전기자동차	940	650	289
2	7411	승용차	488	3,190	-2,703
3	8352	축전지	1,038	38	999
4	8311	집적회로반도체	941	866	74
5	7461	선박	0	1	-1
6	7420	자동차부품	543	697	-154
7	2262	의약품	904	2,408	-1,504
8	8121	무선전화기	545	0	544
9	2140	합성수지	317	329	-13
10	3203	타이어	185	39	146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출품목(2023년 (10월))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7414	전기자동차	1,616	788	828
2	7411	승용차	600	2,421	-1,821
3	8352	축전지	598	40	558
4	8311	집적회로반도체	545	668	-123
5	7461	선박	492	13	479

6	7420	자동차부품	491	630	-139
7	2262	의약품	469	1,458	-989
8	8121	무선전화기	300	0	300
9	2140	합성수지	226	286	-60
10	3203	타이어	204	29	175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입품목(2022년)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7411	승용차	488	3,190	-2,703
2	7419	기타자동차	285	2,690	-2,405
3	2262	의약품	904	2,408	-1,504
4	7414	전기자동차	940	650	289
5	8311	집적회로반도체	941	866	74
6	7420	자동차부품	543	697	-154
7	7322	반도체제조용장비부품	31	508	-477
8	7112	펌프	38	370	-333
9	7471	항공기	1	61	-60
10	8151	계측기	53	401	-348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입품목(2023년 (10월))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7411	승용차	600	2,421	-1,821
2	7419	기타자동차	182	2,167	-1,985
3	2262	의약품	469	1,458	-989
4	7414	전기자동차	1,616	788	828
5	8311	집적회로반도체	545	668	-123
6	7420	자동차부품	491	630	-139
7	7322	반도체제조용장비부품	43	619	-576
8	7112	펌프	38	416	-378

9	7471	항공기	1	413	-412
10	8151	계측기	49	368	-319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3. 수출 유망품목

가. 수출유망품목(상품)

○ 전기차 충전기

HS CODE	850440	수입액 (US\$백만)	8,214
수입관세율(%)	0	대한 수입액 (US\$백만)	36
선정사유	· 독일 전기차 충전기 시장은 정책적으로 다방면에서 적극 지원되고 있으며, 내연기관 차량에서 친환경 차량으로 넘어가는 모빌리티 격변기와 맞물려 미래 성장 낙관된다.		
시장동향	· '30년, EU에서 필요한 공공 전기차 충전기는 약 360만 개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자료원 : Statista/Mckinsey&Company) · '21년 독일의 전기차 충전기 총매출은 1억 2,970만 유로로 전년 대비 116.2% 대폭 증가했으며, 해당 시장은 '22년부터 향후 5년간 연평균 39.8%로 성장하여 '27년에는 12억5,000만 유로의 시장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쟁동향	· HS 코드 850440 기준, '22년 독일의 수입규모는 총 82억1,383만 유로이며, 전년동기대비 24.5% 증가였으며, '22년 주요 수입국은 중국(1위), 네덜란드(2위), 헝가리(3위)로 독일 전체 수입시장의 약 52%를 차지하였다. · 독일에서 충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은 독일 5대 전력공급 기업인 EnBW mobility+ AG und Co. KG, Charge-ON GmbH, Allego GmbH, EWE Go 및 Westenergie Metering GmbH 이다.		
진출방안	· (협업 및 연구개발) 독일에는 규모가 큰 기업부터 스타트업까지 다양한 형태의 전기차 충전기 제조사가 있으며, 이들이 생산하는 충전기 가운데는 IT 기술이 결합된 결제 수단과 계량기, IoT 등 여러 분야의 기술이 융합된 제품도 있다. · 꼭 완성품이 아니어도 IT 기술을 강점으로 갖고 있는 한국 기업들이 독일 기업과의 협업 및 연구개발 참여로 시장진출을 노려볼 필요가 있다.		

나. 수출유망품목(서비스)

○ 관광

선정사유	· 코로나19 백신 보급 이후 안정화에 접어들면서 관광서비스 수요가 늘고 있으며, 특히 록다운으로 인해 여행을 떠나지 못했던 사람들의 '보복 소비'로 여행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동향	· 코로나19의 여파로 급감세를 보인 독일의 국내외 투숙객은 '23년 약 3,180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6.5% 증가하였다. (자료원 : 독일연방통계청)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여전히 코로나 이전의 수준까지는 아니며, 이후 EU외 국가에서의 관광객 유입이 커질 것으로 보여 관광 수요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경쟁동향	· 관광서비스로는 전통적인 패키지여행인 '출발지여행업'과 로컬 워킹 가이드 투어 및 현지화 서비스 등의 '도착지여행업'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자유여행의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로컬 서비스 제공업체가 선호되는 경향이 있다. · 독일 베를린에 위치한 티켓, 투어, 쿠킹클래스 등 여행 관련 예약앱 플랫폼 겐유어가이드 (GetYourGuide)는 '22년 총 8.86억 유로 규모의 투자유치를 성공시키며 독일 내 스타트업 중 6번째로 많은 투자액을 기록하였다.
진출방안	· 특색 있고 스토리텔링이 있는 투어(예 : 냉전과 제3세계 역사 투어 및 트랙퀸이 보여주는 베를린 등)가 인기가 편이며, 쉬운 예약 또한 중요하여 접근성이 좋은 어플리케이션 개발이 필수이다.

○ 의료

<p>선정사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헬스 부문(M-헬스, 모바일 건강의 줄임말)은 수년 동안 창업 현장에서 떠오르는 주제 중 하나로 여겨져 왔으며, 기술 부족, 도시화 및 인구변화는 의료시스템의 현대화를 필요로 하고 있다. · 코로나19는 의료 분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독일 소비자 내 모바일 의료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시켰으며, 독일 연방 보건부는 최근 몇 년 동안 의료 디지털화의 많은 이점을 사용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만들었으며, 다가올 미래의 의료혁신을 위해 준비 중이다.
<p>시장동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헬스 관련 디지털 건강 애플리케이션(DiGA)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공 및 '19년 12월 디지털 의료법을 제정한 후, 독일 창업 현장에서 유행하는 주제 중 하나이다. · 독일의 성공적인 디지털 의료 시스템에 대한 공통의 비전을 개발하기 위해 'Digital Health 2025' 혁신 포럼을 시작했으며, 20개 이상의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응용 프로그램을 활용한 환자 치료 개선 프로젝트 진행 중이다. · 독일 의료의 디지털화의 중점은 전자 건강 기록(ePA), 전자 처방전의 도입, 디지털 의료 어플리케이션 개발, 원격 의료, 연구 데이터 센터 설립, 의료 웨어러블을 통한 데이터 모니터링 등이며, VC투자자 Speedinvest는 지난 10년간 총 9억 유로를 DACH 3국(독일, 오스트리아 및 스위스) 지역의 디지털 건강 스타트업에 투자, 이와 같이 DACH는 유럽의 디지털 건강 환경에 매우 중요하다. · 의료 분야의 디지털 솔루션은 특히 팬데믹 시대에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주제이다.
<p>경쟁동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 E-health 관련 많은 스타트업들이 활약하고 있으며, 그 중 주목할 만한 기업들로 'Medloop Kamet'(환자관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Selfapy'(온라인 치료 프로그램), 'Caspar'(디지털 치료 플랫폼), 'Temedica'(동반의료 및 건강 예방 관리 디지털 솔루션) 등이 있다. · 한편, 스위스의 헬스 관련 투자자인 MTIP 등은 제2형 당뇨병 치료법을 제공하는 오비바(Oviva)에 2,100만 달러를 투자했으며, 뮌헨 E-헬스 스타트업인 테메디카(Temedica)는 의료 지원을 위한 디지털 솔루션을 개발하며, 1,700만 유로 투자유치를, 의료 시설에서의 디지털 치료 플랫폼 카스파(Caspar)는 520만 유로의 투자 유치에 성공하였다. · 이외에는 골반 운동을 위한 B2C 앱인 펠비나(pelvina), 등·허리 치료를 위한 개별 의료지원 시스템인 미네오(Mineo) 등이 있다.
<p>진출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헬스) 독일 사용자는 자신의 건강 지표에 대한 정보를 얻는 데 관심이 있지만, 혈압, 맥박수, 수면 시간, 이동 거리, 스텝 수 등을 추적하는 것에는 달가워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 앱은 정확도를 위한 최소한의 정보를 추적하고, 읽을 수 있는 형태로 데이터를 표시 및 저장하고, 사용자 지표를 통계 분석한 다음, 이를 기반으로 한 건강 지표 개선에 대한 조언 제공 필수이다. · (B2G 모델) 연방 보건부에 따르면, 인공지능은 독일 내 환자 치료의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며, 의사들의 더 빠른 진단에 도움을 줄 것이다. 요즘 암 치료처럼 인공지능 요법은 또한 개별 환자를 조정하는 데 사용될 전망이므로 B2G 모델로서 인공지능 애플리케이션과 플랫폼의 개발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 이 외, 현지 스타트업 행사 참여 및 현지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 지원 및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현지기업과의 협업 관련 전시회(Medica) 참가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 게임(SW)

<p>선정사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년 하드웨어를 제외한 독일의 컴퓨터 및 비디오 게임 시장 매출은 약 64억 유로로 전년 대비 3.5% 증가하며, '13년부터 지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자료원 : Statista) · 독일 게임산업의 안정적인 성장세에 힘입어, 전 세계 게임 관련 기업의 활발한 마케팅 활동의 타깃으로 주목받고 있다.
<p>시장동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 게임시장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플랫폼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게임이며 '21년 독일 In-App 구매 매출액은 약 27억6,000만 유로로 지속 증가 예상된다. · 독일의 eSports 관련 매출 '13년부터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25년 은 약 1억 6,300만 유로 달성할 것이 예상되며, 독일의 비디오 게임 매출 또한 꾸준한 성장에 힘입어, '25년 해당 매출은 약 65억 유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원 : Statista)
<p>경쟁동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년 기준 독일 내 게임 및 제작 판매하는 기업은 총 786개 사가 있다. · '22년 기준 독일 내 게임 제작 및 배급사 종사자 수는 11,242명이며, 게임 유통 및 서비스 관련 종사자는 17,048명으로 게임 관련 종사자는 총 28,650명이다.

진출방안

- 독일 게임시장 진입 시 보통은 게임 유통사 및 퍼블리셔를 통해 수출이 이뤄지며 합자 및 투자법인 설립을 활용할 수 있다.
- 독일 게임 트렌드를 파악, 문화 분석 등 철저한 준비를 통한 마케팅으로 진출기회를 잡을 수 있으며, 게임 산업 전문 전시회를 활용하는 방법도 효과적인 진출방안 중 하나이다.

4. 무역협정

가. 무역협정 체결현황

협정명	체결국가	체결일자	발효일자	비고
FTA(Free Trade Agreement)	대한민국	2010-10-06	2015-12-13	2011.7.1. 잠정 발효 및 2015.12.13. 정식 비준 2023.10.31. 한-EU 디지털 무역협정 협상 개시
A(Agreement)	스위스	1972-07-22	1973-01-01	
CA(Co-operation Agreement)	시리아	1977-01-01		잠정 중단
CU(Customs Union)	안도라	1990-06-28	1991-01-01	산 마리노, 모나코, 안도라 3개국과 Association Agreement 진행 중 (2014.12. 협상 개시, 직전 협상 2021.12.)
CU(Customs Union)	산 마리노	1991-12-16	2002-04-01	산 마리노, 모나코, 안도라 3개국과 Association Agreement 진행 중 (2014.12. 협상 개시, 직전 협상 2022.7.)
EAA(Economic Area Agreement)	노르웨이	1992-05-02	1994-01-01	
EAA(Economic Area Agreement)	리히텐슈타인	1992-05-02	1994-01-01	
EAA(Economic Area Agreement)	아이슬란드	1992-05-02	1994-01-01	
CU(Customs Union)	터키	1995-01-01	1995-12-31	
Co-operation agreement	스리랑카	1995-04-19	1995-04-01	
AA(Association Agreement)	튀니지	1995-11-17	1998-03-01	포괄적 FTA(Deep and Comprehensive Free Trade Area, DCFTA) 협상 추진 중(2015.10. 협상 개시, 직전 협상 2019. 5.)
AA(Association Agreement)	이스라엘	1995-11-20	2000-06-01	

AA(Association Agreement)	모로코	1996-02-26	2000-03-01	포괄적 FTA(Deep and Comprehensive Free Trade Area, DCFTA) 협상 추진 중(2013.3.1 협상 개시, 2019.6. 재추진) 협정 현대화 추진 중(2021.9 추진)
PCA(Updated 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	아르메니아	1996-04-22	2018-06-01	잠정 발효
A(Agreement)	페로 제도	1996-12-06	1997-01-01	
IAA(Interim Association Agreement)	팔레스타인	1997-02-24	1997-07-01	
PCA(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	러시아		1997-12-01	2008년 PCA 대체하는 RCA 협상 개시, 2010년 RCA 협상 중단
AA(Association Agreement)	요르단	1997-11-24	2002-05-01	
GA(Global Agreement)	멕시코	1997-12-08	2000-10-01	무역협정 현대화 추진 중(2016. 5. 협정 현대화 협상 개시, 2018.4. 협상 원칙적 합의, 2020.4.28. 협상 타결, 법률검토 작업 후 비준 추진 예정)
SAA(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마케도니아	2001-04-09	2004-04-01	
AA(Association Agreement)	이집트	2001-06-25	2004-06-01	
AA(Association Agreement)	알제리	2002-04-22	2006-04-01	
AA(Association Agreement)	레바논	2002-06-17	2006-04-01	
AAAP(Association Agreement and Additional Protocol)	칠레	2002-11-18	2005-03-01	협정 현대화 추진 중(2017.11. 협정 현대화 협상 개시, 합의완료 2021.10. EU의회, 이사회 거쳐 최종 승인 계획)
Co-operation agreement	파키스탄	2004-04-09	2004-04-09	
SAA(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알바니아	2006-06-12	2009-04-01	

SAA(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몬테네그로	2007-10-15	2010-05-01	
SAA(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세르비아	2008-04-29	2013-09-01	
SAA(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2008-06-16	2015-06-01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카리포름(CARIFORUM)	2008-10-15	2008-12-29	잠정 발효(앤티가바부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그라나다, 가이아나, 자메이카,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도미니카공화국, 수리남, 트리니다드토바고)
IEPA(Interim Partnership Agreement)	카메룬	2009-01-15	2014-01-01	잠정 발효
IPA(Interim Partnership Agreement)	피지	2009-07-13	2014-07-28	
IPA(Interim Partnership Agreement)	파푸아뉴기니	2009-07-30	2011-05-01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동남아프리카(Eastern and Southern Africa)	2009-08-29	2012-05-14	잠정 발효(마다가스카, 모리셔스, 세이셸, 짐바브웨)
PCA(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	이라크	2012-05-01	2012-08-01	잠정 발효
AA(Association Agreement with a strong trade component)	중앙아메리카(Central america)	2012-06-29		잠정 발효 온두라스, 니카과라, 파나마(2013.8.1.)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2013.10.1.)과테말라(2013.12.1.)
TA(Trade Agreement)	안데스공동체(Andean Community)	2012-07-26		잠정 발효 콜롬비아(2013.8.1.), 페루(2013.3.1.), 에콰도르(2017.1.1.)
DCFTA(Deep and Comprehensive Free Trade Agreement)	우크라이나	2014-05-29	2016-01-01	

AA(Association Agreement)	조지아	2014-06-27	2016-07-01	
AA(Association Agreement)	몰도바	2014-06-27	2016-07-01	
SAA(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코소보	2015-10-22	2016-04-01	
EPCA(Enhanced 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	카자흐스탄	2015-10-26	2016-05-01	잠정 발효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 SADC)	2016-06-10	2016-10-10	EPA는 기존의 TDCA(Trade, Development and Co-operation Agreement)협정을 대체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가나	2016-07-28	2016-12-15	잠정 발효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코트디부아르	2016-07-28	2016-09-03	잠정 발효
CETA(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	캐나다	2016-10-30	2017-09-21	잠정 발효, 회원국별 비준 진행 중
EPA(EcPDCA(Political Dialogue and Cooperation Agreement)on omic Partnership Agreement)	쿠바	2016-12-12	2017-11-01	잠정 발효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일본	2018-07-17	2019-02-01	2023.10.28. 일-EU 데이터이동 협정 체결
FTA(Free Trade Agreement)	싱가포르	2018-10-19	2019-11-21	FTA 내 투자분야는 별도로 두고 추진(현재 투자보호협정 회원국별 비준 진행중)
FTA(Free Trade Agreement)	베트남	2018-10-19	2020-08-01	2020.2. EU 비준 및 2020.6.8. 베트남 비준 완료. 2020.8.1. 부로 FTA 발효(현재 투자보호협정IPA는 회원국별 비준 진행 중)

FTA(Free Trade Agreement)	메르코수르(Mercosur)	2019-06-28		메르코수르 각 회원국별 의회 승인 후 잠정 발효 예정이며, 이후 EU 국별 비준 후 정식 발효 * 메르코수르 회원국 :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AAAP(Association Agreement and Additional Protocol)	칠레	2002-11-18	2005-03-01	협정 현대화 추진중 (2022.12. 협정 현대화 협상 완료)
TCA(Trade and Cooperation Agreement)	영국	2020-12-24	2021-05-01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솔로몬 제도(Pacific)	2011-05-01	2020-05-17	

<자료원 : EU 집행위>

나. 논의 중 협정

협정명	협정대상국가	협정진행내용	비고
TTIP(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미국	협상 중, 4차 TTC : 2023.5.	EU-미국 무역 및 기술 위원회 (TTC) 발족(2021.6.)
FTA(Free Trade Agreement)	ASEAN	2009.3. 다자간 협상 잠정 중단 합의 2009.12. EU- ASEAN 개별회원국 간 양자협정 추진계획 발표 2022.9. EU-ASEAN 경제장관회담 통해 디지털 경제, 녹색 기술, 공급망 안정화에 초점 공동실무그룹 합의 2023.6. 공동 실무그룹 미팅	EU-아세안 공동 실무 그룹 발족 (2017.3.)
FTA(Free Trade Agreement)	말레이시아	협상 잠정보류, 직전 협상 : 2012. 4.	
FTA(Free Trade Agreement)	태국	(2007 ASEAN 협상지침 기반) 2023.3.15. 협상 재개 협상 중, 직전 협상 : 2023.9.	
FTA(Free Trade Agreement)	인도네시아	(2007 ASEAN 협상지침 기반) 협상 중, 직전 협상 : 2023.7.	
FTA(Free Trade Agreement)	필리핀	협상 중, 직전 협상 : 2017. 2.	
IPA(Investment protection agreement)	미얀마	협상 중, 직전 협상 : 2017.4.	
FTA(Free Trade Agreement)	인도	2013년 협상 중단 후 2022년 재개, 협상 중, 1차 TTC : 2023.5.	EU-인도 무역 및 기술 위원회 (TTC) 발족(2023.2.6.)

FTA(Free Trade Agreement)	호주	협상 중, 직전 협상 : 2023.10.	
FTA(Free Trade Agreement)	뉴질랜드	협상 완료, EU 집행위-뉴질랜드 정부 FTA 서명 완료 2023.07.09.	유럽의회 승인(2023.11.), 이사회 채택 및 뉴질랜드 비준완료 후 협정 발효 예정
EU-China investment agreement	중국	협상 중, 직전 협상 : 2020. 7.	
Update of 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	아제르바이잔	협상 중, 직전 협상 : 2019. 4.	
FTA(Free Trade Agreement)	영국	협상 중, 직전 협상 : 2020. 6. 1.	2020.12.31. 협상완료를 목표로 두고 추진 중
CAI(EU-China investment agreement)	중국	2020.12.30. 타결 후 비준 추진중이었으나, 중국의 인권문제로 비준 추진 잠정 중단(2021.5.~)	
EPCA(Enhanced Partnership Cooperation Agreement)	키르기스스탄	협상 완료, 직전 협상 : 2019.6	EU-키르기스스탄 EPCA 협상완료, 향후 이사회 채택 이후 발효 예정 (2022년 내)
EPCA(Enhanced Partnership Cooperation Agreement)	우즈베키스탄	협상 완료, 직전 협상 : 2022.6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케냐	협상 완료 : 2023.6.19.	이사회 승인 이후 협정 발효 예정

<자료원 : EU 집행위>

5. 수입규제 및 관세

가. 대한 수입규제 현황

-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수입쿼터

No	HS코드	품목명	규제형태(진행상황)	규제대상국	최종판정결과(부과기간)	최종판정결과(관세율)
1	4809900010,4811900010,4816900010,4823908520	감열지(특정 경량지)(Thermal paper (certain lightweight))	반덤핑(규제중)	한국	○ 부과기간 : 2017.5.4 ~ 2028.6.30	○ 판정결과 : EURO103.16 / t * 2023.6.29 : 일몰재심 후 규제 5년 연장 결정
2	4809900020,4811590020,4811900020	감열지(특정 중량지)(Thermal paper (certain heavyweight))	반덤핑(규제중)	한국	○ 부과기간 : 2020.10.20 ~ 2025.10.21	○ 판정결과 : 15.8%
3	3906909017	고흡수성 수지(Super absorbent polymers)	반덤핑(규제중)	한국	○ 부과기간 : 2022.4.6 ~ 2027.4.6	○ 판정결과 : 13.4 ~ 18.8%
4	28046900	실리콘 메탈(Silicon metal)	반덤핑(규제중)	중국(한국, 대만)	○ 부과기간 : 2022.8.13 ~ 2027.8.13	○ 판정결과 : 16.8% * 중국산 우회수출 규제 * 2022.8.12 : 일몰재심후 규제 5년 연장 결정
5	7225110011,7225110015,7225110019,7226110012,7226110014,7226110016,7226110092,7226110094,7226110096	전기강판(Grain-oriented flat-rolled products of electrical steel (GOES))	반덤핑(규제중)	일본, 중국, 한국, 러시아, 미국	○ 부과기간 : 2022.1.18 ~ 2027.1.18	○ 판정결과 · 일본 : 35.9 ~ 39.0% · 중국 : 21.5 ~ 36.6% · 한국 : 22.5% · 러시아 : 21.6% · 미국 : 22% * 2022.1.14 : 일몰재심후 조치 연장 결정

6	7312108112,7312108113,7312108119,7312108312,7312108313,7312108319,7312108512,7312108513,7312108519,7312108912,7312108913,7312108919,7312109812,7312109813,7312109819	철강 로프 및 케이블 (steel ropes and cables)	반덤핑(규제중)	한국, 중국, 모로코	○ 부과기간 : 2018.4.20 ~ 2023.4.21	○ 판정결과 · 중국 : 60.4% · 모로코 : 60.4% · 한국 : 60.4% * 일 몰재심중 (2023.4.14~)
---	--	---	----------	-------------	--------------------------------------	--

7	72,73	철강제품(Steel Products)	세이프가드(규제중)	전세계	<p>○ 판정결과 : TRQ방식, 초과 수량 25% 관세 부과, 연 3% 쿼터 증량 방식 *</p> <p>2021.6.25 : 조치 연장 결정</p> <p>1) 비 합금 및 기타 합금 플레이트(Non Alloy and Other Alloy Quarto Plates) · 우크라이나/영국 외 전세계 : 575178,29(2023.7.1~2023.9.30), 575178,29(2023.10.1~2023.12.31), 568926,35(2024.1.1~2024.3.31), 568926,35(2024.4.1~2024.6.30)2) 철 또는 비합금 형강(Angles, Shapes and Sections of Iron or Non Alloy Steel) · 우크라이나/영국 외 전세계 : 67361,21(2023.7.1~2023.9.30), 67361,21(2023.10.1~2023.12.31), 66629,03(2024.1.1~2024.3.31), 66629,03(2024.4.1~2024.6.30)3) 스테인리스 냉간압연 시트 및 스트립(Stainless Cold Rolled Sheets and Strips) · 한국 : 49549,16(2023.7.1~2023.9.30),</p> <p>○ 부과기간 : 2021.7.1 ~ 2024.6.30</p>
---	-------	----------------------	------------	-----	---

						<p>9.30), 49549,16(20 23.10.1~202 3.12.31), 49010,58(20 24.1.1~2024. 3.31), 49549,16(20 24.4.1~2024. 6.30) · 대만 : 45948,59(20 23.7.1~2023. 9.30), 45948,59(20 23.10.1~202 3.12.31), 45449,15(20 24.1.1~2024. 3.31), 45449,15(20 24.4.1~2024. 6.30) · 인도 : 30710,50(20 23.7.1~2023. 9.30), 30710,50(20 23.10.1~202 3.12.31), 30376,69(20 24.1.1~2024. 3.31), 30376,69(20 24.4.1~2024. 6.30) · 미국 : 24986,11(20 23.7.1~2023. 9.30), 24986,11(20 23.10.1~202 3.12.31), 24714,52(20 24.1.1~2024. 3.31), 24714,52(20 24.4.1~2024. 6.30) · 7개국 외 전세계 : 52737,87(20 23.7.1~2023. 9.30), 52737,87(20 23.10.1~202 3.12.31), 52263,55(20 24.1.1~2024. 3.31), 52263,55(20 24.4.1~2024.</p>
--	--	--	--	--	--	---

						24.4.1~2024.6.30)
8	7307931191,7307931193,7307931194,7307931195,7307931199,7307931991,7307931993,7307931994,7307931995,7307931999,7307998092,7307998093,7307998094,7307998095,7307998098	철강제 관연결구류 (Tube and pipe fittings of iron or steel)	반덤핑(규제중)	한국, 러시아, 말레이시아	○ 부과기간 : 2019.4.9 ~ 2024.4.10	○ 판정결과 · 한국 : 32.4 ~ 44% · 러시아 : 23.8% · 말레이시아 : 49.9 ~ 75% * 2019.4.10 : 일몰재심 후 조치 연장 결정

수입금지품목

EU 수입금지 품목으로는 동물 실험 화장품, 물개 제품, 불법 벌채 목제품 등이 있다. 이 외에도 EU는 현재 홍합과 조갯살 등을 포함한 식품류에 대해서는 수입허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사전에 수입허가를 받은 업체만이 수입이 가능하고 수입업체는 통관 시 위생증명서를 비롯한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4대 분쟁광물 (2021. 1. 1 ~ 현재 적용 중)

EU는 반군·정부군 등 무장단체들이 채굴자금 유통을 장악해 군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광물채굴 과정에서 인권유린 및 노동착취 등이 발생해 수입금지 통해 유혈분쟁을 근절을 목표로 관련 광물의 수입을 금지 중이다. 이에 2017년 관련 규정(No. 2017/821)을 제정하고 2021년부터 4대 광물제품을 수입하는 수입자에 대해 공급망 실사(Due diligence)를 의무화하여 해당 제품에 분쟁지역 광물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 일회용 플라스틱 품목 (2021. 7. 3 ~ 현재 적용 중)

EU의 탈플라스틱 정책에 따라 면봉, 식기류(cutlery), 식품용기, 음료용 컵, 빨대, 풍선막대 등 10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유통 및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전 세계 플라스틱 연 생산량이 1950년 2백만 톤에서 2015년 3.8억 톤 등 190배 증가했으며, 전체 플라스틱의 60% 이상이 자연으로 흡수되는 상황을 배경 EU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보다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소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집행위는 EU 지침 2019/904를 통해 일부 플라스틱 제품의 유통 및 판매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동 지침은 2019년 7월 2일 발효 되었으며, 2년간의 회원국별 개별 입법 절차를 거쳐 2021년 7월 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 산림벌채관련 제품 수입금지 (2023.6.29.(발효), 2024.12.30.일부터 시행 예정)

EU는 산림벌채 관련 제품의 역내 소비에서 발생하는 국제적인 산림 벌채 영향을 줄이기 위해 산림벌채 역내 수입을 금지하는 산림전용규정 (EU Deforestation Regulation)을 2023년 6월 29일 발효했다. 이에 따라 소, 코코아, 커피, 팜오일, 고무, 콩, 목재등의 원자재와 파생상품*을 역내 생산, 판매, 수출하는 기업은 해당 제품이 2020년 12월 31일 이후 새로이 벌채된 지역에서 생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실사 선언서 및 관련 정보를 제출하는 의무가 부과 되었다. 시행 일정은 법안 발효 후 18개월 부터 중, 대기업에 적용될 예정이며, 소규모 기업에는 보다 가벼운 실사의무가 24개월 이후 적용될 예정이다.

* 소, 코코아, 커피, 팜오일, 고무, 콩, 목재등의 원자재와 파생상품 등 규제 세부품목별 HSCODE는 EU 관보 Annex1 참고
(참고링크 :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32023R1115&qid=1687867231461>)

○ 대러제재 관련 러시아산 제품 수입금지

EU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대러 제재 통해 러시아에 상당한 수익을 창출하는 제품의 역내 수입을 금지하는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수입이 금지된 품목은 러시아에서 생산 및 수출되는 석탄, 석유 등의 화석 연료와 일부 철강품목 등으로 자세한 관련 제품 목록은 대러제재 관련 규정 (EU)2022/576의 Annex XXI, XXII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러시아산 제품이 제3국을 우회하여 역내로 수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우회방지조치도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품목을 역내로 수출하는 기업은 대러 제재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나. 비관세장벽

인증제도

비관세 장벽(Non-tariff barriers)은 정부가 자국제품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외국제품의 수입을 억제하려는 정책을 지칭하며,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으로는 인증제도와 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을 들 수 있다. 인증의 경우, 산업 분야별로는 전기·전자 제품에 대해 요구하는 인증이 가장 많으며 기계와 자동차에 대한 인증도 지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일례로 굴착기, 휠로더, 스키드로더와 같은 건설 중장비의 경우, 기본적인 CE 인증 외에도 EU 각 회원국이 각기 다른 국내 도로 인증(Road Homologation)을 요구하고 있어 우리 기업 수출에 애로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영국 등 일부 국가의 경우, 중고장비의 수입제한을 목적으로 CE 마크와 적합성 인증서 외에 별도의 Newness Certificate를 요구하는 때도 있어 시간과 비용이 이중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기계는 한국 인증기관이 아닌 유럽의 주요 인증 기관의 인증을 받은 CE 마크를 요구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며, 현지 A/S 센터 설립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은 편이다.

EU에서 요구하는 대표적인 인증으로는 CE 마크, RoHS, REACH, CPNP, e-Mark가 있으며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1) CE 마크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ies; EC)의 프랑스어표기인 'conformite europeenne'의 머리글자를 딴 마크로 EU 시장 내 안전에 관련된 통합 인증마크이다. CE 마크는 인증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보증하지 않고 원산지를 명시하지 않으며, 다만 생산 과정이 EU의 요구 기준에 맞춰서 생산되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 마크는 1993년 7월 22일 도입된 인증으로 EU 지침 93/68/EEC을 통해 시행된 이후, 수차례 개정되었다. CE 마크는 유럽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필수 인증으로 완구류, 저전압 기기, 의료기기, 선박 용품, 승강기, 기계류, 통신단말기, 건축자재, 개인보호장비 등 매우 광범위한 공산품에 적용되고 있으며, 해당되는 세부 품목 리스트는 아래의 EU 집행위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 CE 적용 품목 리스트 링크 : https://ec.europa.eu/growth/single-market/ce-marking/manufacturers_en

o CE 마크 부착

- CE 마크는 제조업자 혹은 대리인이 부착해야 한다. - CE 마크는 확대 및 축소 시 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 CE 마크는 읽기가 쉬워야 하고 견고하게,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돼야 한다. 제품 특성상 불가능할 때는 제품의 포장 및 사용설명서에 부착할 수 있다.
- 만약, 필요 때문에 통지 기관이 검사를 시행할 경우, 통지 기관 인식 번호 역시 CE 마크에 추가로 표시돼야 한다. 이 인식 번호 표시에 관한 책임은 제조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있다.

o CE 마크 대리인 규정

2021년 7월 16일 유럽연합은 시장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규정[Regulation (EU) 2019/1020]을 채택했으며 앞으로 CE 마크가 있는 모든 제품은 상품의 규정 준수를 위한 책임자로서 유럽연합 내 거주하는 유럽연합 대리인을 필요로 한다. 유럽연합 내 상품의 규정 준수를 위한 대리인이 될 수 있는 대상은 유럽연합 내 제조업체 또는 브랜드, 유럽연합 내 수입업체, 유럽연합 내 대리인, 유럽연합 내 배송 서비스 제공 업체 등이며, 대리인의 역할은 아래와 같다.

- 상품의 유럽연합 적합성 선언 수집 후 유럽연합 관련 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기관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유럽연합 표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별도의 문서* 제공

* 유럽연합 적합성 선언(DoC), 기술문서(테스트보고서, 안전 인증서 등)

- 상품이 유발할 수 있는 모든 위험에 대해 관련 기관에 보고
-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상품의 규정 미 준수 문제 해결

2) RoHS -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 제한 지침

RoHS는 The 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equipment의 약자로, 전기·전자제품 내 환경오

염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유해물질의 사용을 제한하는 지침으로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RoHS 지침 2011/65/EU 지침에 따라, 아래의 물질에 대해 규제치 이상을 포함한 전기·전자제품은 판매가 금지된다.

- 납 : 0.1%
- 수은 : 0.1%
- 육가크롬 : 0.1%
- 폴리브롬화바이페닐 : 0.1%
-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 : 0.1%
- 카드뮴 : 0.01%
- 프탈레이트 4종(DEHP, BBP, DBP, DIBP) : 0.1% (2019년 7월 22일부터 적용 중)

3) REACH - 화학물질 등록, 평가, 허가 및 제한 규정

화학물질 관리 제도인 REACH는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 substances의 약자로 EU 내 연간 1t(톤) 이상(3년 동안의 평균값) 제조 혹은 수입되는 화학물질에 대해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①화학물질과 ②혼합물(Preparation)에 있는 화학물질 그리고 ③완제품(Article)에서 의도적(Intended) 또는 비의도적으로 배출(Unintended release)되는 화학 물질을 관리 대상으로 한다.

○ 등록 대상

- 연간 1t(톤) 이상 EU에서 생산하거나 수입되는 화학물질(substance)
- 2개 이상 화학물질로 구성된 혼합물의 경우, 각각의 화학물질이 연간 1t(톤) 이상인 경우
- 의도적으로 화학물질을 배출하는 제품의 경우(화학물질이 배출됨으로써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 연간 1t(톤) 이상인 각각의 화학물질
- 고분자의 경우 단량체가 고분자 내 2% 이상 포함되어 있고 총량이 연간 1t(톤) 이상인 경우, 또는 고분자를 함유한 조제 제품 내 각 성분 총량이 연간 1t(톤) 이상인 경우
- 연 1t(톤) 미만 제조/수입자, 대리인, 하위 사용자, 물질 정보를 보유한 제3자도 물질정보교환포럼(SIEF : substance information exchange forum) 참여를 위해 사전등록* 가능

* 사전등록: 사전 등록은 등록 절차의 하나로, 사전등록을 해야만 함량과 물질 특성에 따라 3년 6개월~11년까지 본 등록이 유예된다. 2008년 6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사전등록이 마감되었으나, 2008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연간 1t(톤) 이상 수출하는 경우, 최초 수출 후 6개월 이내에 사전등록 서류를 제출하면 사전등록을 마친 것으로 간주되어, 해당 t(톤)수 별 유예기간을 적용 받을 수 있다.

○ 신고대상

- 완제품에서 고 위험성 물질이 비의도적으로 배출되는 경우, 그 함량이 완제품 대비 0.1% 이상 및 연간 1t(톤) 이상이면 신고절차를 거쳐야 한다.
- 완제품에서 고 위험성 물질(SVHC; Substance of very high concern)이 비의도적인 배출(Unintended release)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함량이 완제품 대비 0.1% 이상이고 그 물질이 연간 1t(톤) 이상이면 신고해야 한다.
- 제품 및 공정 중심 연구개발을 위한 물질도 화학물질 청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한 날로부터 5년간 등록 의무가 면제된다.

○ 물질 등록 절차

- 신청 및 제출: 화학물질 D/B 시스템 IUCLID(The International Uniform Chemical Information Database)내 물질 등록 및 관련 서류 제출
- 등록사항 : 물질 정보(화학물질 번호, 물질명 등), 기업명 및 담당자, 수입량, 물리학적 특성, 독성 정보 등과 함께 기술 서류(Technical Dossier), 화학물질 안전 보고서(Chemical Safety Report)도 제출
- IUCLID 해당 홈페이지 : <http://iuclid.eu>
- 평가 : 서류 검증 및 질적 검사
- 물질 등록 서류 제출 후, 서류 검증 시스템을 통해 자동 검증이 시행되나 이는 모든 요구사항이 등재되었는지의 파악을 위한 단순 체크에 불과하다. 유럽물질화학청(ECHA : The European Chemicals Agency)은 등록된 물질 정보를 토대로 회원국들과 협의해 물질 별 위험성 평가를 수행하고, 질적 검사를 통해 등록신청 물질의 승인 또는 거부를 결정한다

- 질적 평가에서 거부당하는 경우 1회에 걸쳐 보완 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나, 2번 이상 거부되는 경우에는 사전등록 절차부터 다시 시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유의해야 한다. ECHA 지원센터 연락처 : +358-9-686180(헬싱키)
- 등록비용 지불 및 승인번호 부여 : 승인 결정 후 등록비를 지불하면 해당 물질의 등록 고유번호를 부여 받게 된다. 물질 등록 일은 해당 고유 등록번호를 부여 받는 날짜로 지정된다.
- 등록 물질 공표 : ECHA는 등록 완료된 물질을 유럽화학물질청 공식 웹사이트(www.echa.europa.eu)에 공표한다.

4) CPNP(화장품 인증)

화장품을 EU 시장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책임자 지정 및 유럽 화장품 인증이라 불리는 CPNP(The Cosmetic Products Notification Portal) 등록절차를 거쳐야 하며, EU 수출에 흔히 사용되는 CE 인증의 경우 화장품 제품은 해당되지 않으므로 CE 인증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CPNP 제도는 2013년 7월 11일부로 시행 중이며 유럽의회 및 EU 이사회 규정(EU Cosmetic Regulation) No.1223/2009 내에서 규제되고 있다. CPNP 등록은 크게 아래와 같이 나뉜다.

- RP 지정 및 라벨링 : 수출기업은 해당 화장품을 법적으로 책임질 RP(Responsible Person)를 지정하고 필요서류를 RP에 제출하는 한편, EU 기준에 맞는 라벨 작성
- 성분 및 라벨 검토 : RP는 수출기업에서 전달받은 서류를 토대로 제품 성분과 라벨을 검토하고 이를 승인
- 제품정보파일 작성 및 등록 : RP는 CPNP 등록에 필요한 제품 정보 파일(PIF : Product Information File)을 작성하고 CPNP 등록을 완료함. 등록번호가 부여되면 해당 제품은 EU 시장에 판매할 수 있게 됨

실질적인 CPNP 등록 과정을 살펴보면, 수출기업이 사전 지정한 RP(또는 인증 대행사)로 제품 원료별 %가 명시된 전체 성분 표를 제출하면 RP가 제품별 테스트를 거친 후 가격 견적을 제시한다. 이를 토대로 양측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RP는 CPNP 등록에 필요한 자료를 기업에 안내해준다. 이후, 수출기업이 해당 서류를 제출하면 RP는 취합한 자료를 토대로 제품 성분을 검토(Formula Review)하고 제품 안전성 보고서(CPSR; Cosmetic Product Safety Report)를 작성한다. 또한, EU 기준에 맞는 라벨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수출기업과 수정 및 보완작업을 거친 후 승인한다. 이후 RP는 제품정보파일(PIF)을 작성하고 CPNP 등록시스템 내 등록을 마친다.

RP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제품별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제품정보, 제품 시험성적서, 성분 안전성 데이터, 제조번호, 성분표, 원산국명, 제품 출시되는 EU 회원국 명, 동물실험 테스트, 방부력 테스트, 안정성 및 적합성 테스트, IFRA 증명서 등이 있다. 제출되는 서류의 언어는 영어 또는 진출하려는 EU 국가의 언어로 작성되어야 하지만, 대다수의 한국 화장품 기업들은 EU 1개국만 바라보고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여러 국가에 진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 EU 회원국 내에서 통용되는 영어로 작성하는 것이 용이하다. 다만, 제품에 부착되는 라벨의 경우에는 반드시 화장품이 유통되는 국가의 언어로 개별 표기돼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 라벨을 작성할 때 다수의 한국기업들은 마케팅 차원에서 제품 효능에 대한 사항을 조금이라도 추가하고 싶어 여러 효과(진정성, 지속성, 주름개선 등)를 제품에 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라벨에 적힌 모든 문구들은 실질적으로 증빙할 수 있어야 CPNP 등록이 가능하므로, 증빙하기 힘든 문구들은 과감히 삭제하고 처음부터 확실한 효과만을 강조하는 것이 좋다. CPNP 등록을 완료하기까지 1~2개월 정도가 소요되지만 만일 서류가 부족한 경우, 이를 보완하는 과정에서 1년까지도 걸리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필요한 서류들을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

5) e-Mark

e-Mark는 자동차 산업분야에 관련된 EU 적합성 준수 마크로 유럽시장에 자동차 및 자동차 관련 부품을 판매하기 전에 EU 회원국으로부터 반드시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강제 검사 제도이다. e-Mark는 제조자가 스스로 적합성을 선언할 수 있는(Declaration of Conformity) CE 마킹과 달리, EU 각국의 인증기관이나 그 인증기관이 인정된 시험기관에서 형식승인 시험 후 인증서를 받아야 한다. 시험 소요기간은 완성차의 경우 일반적으로 1~2개월 소요되며, 부품류의 경우 대부분 2개월 이내에 가능하다. ISO 9000을 획득한 제조기업은 생산 절차의 적합성이 인정돼 기관의 면밀한 검사 없이 형식승인 획득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의 경우, 안전한 제품 제조 여부 확인을 위한 공장시설 및 생산절차 등 현장 검사가 시행될 수 있다. 또한, 형식 승인이 완료되면 인증 마크와 번호를 부여받게 되는데, 마크에는 EU 개별국의 고유 번호가 매겨진다. 1개 회원국에서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은 다른 회원국의 별도 승인 없이도 역내 자유로운 유통 및 판매가 가능하다.

- EU 회원국 고유번호 예시 : 1=독일, 2=프랑스, 3=이탈리아, 4=네덜란드, 5=스웨덴, 6=벨기에, 9=스페인, 11=영국, 12=오스트리아, 13=룩셈부르크, 17=핀란드, 18=덴마크, 21=포르투갈, 23=그리스 등

6) 보조금

인증제도 이외에도 EU는 반덤핑 및 반 보조금에 대한 비관세 장벽을 지속 강화해나가고 있다. 2020년 6월 7일, EU 집행위는 정부보조금을 받은 역외국 기업의 역내시장 경쟁 왜곡을 차단하는 규제 백서(White Paper on Foreign Subsidies in the Single Market)를 발표했다. 역외국 기업들이 보조금 수혜를 통한 풍부한 자금력을 이용해 EU 시장에서 역내 기업들과 상품 및 서비스 판매, 기업인수, 공공조달 분야에서 불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고 밝히며, 현행 제도로는 이들 기업의 규제가 힘들어 보다 강화된 규제수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집행위는 이번 백서에서 아래와 같은 3가지 규제수단을 도입하며 해당 이해관계자 의견을 2020년 9월 23일까지 수렴했다. 집행위 차원의 내부적 평가와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2021년 중 관련 법안을 마련할 예정인 가운데 2021년 5월 집행위는 기업인수와 공공조달 입찰 시 EU 역외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 정황이 발견될 시 집행위에 이에 대한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도 추가 발의하였다.

- 일반(사후규제) : 특정 기업인수 건에 대해 인수자금 및 보조금 내역 사전 신고제.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시정방안제출 조건부 승인 혹은 기업 인수 금지 조치
- 기업인수(사전규제) : EU 내 영업 중인 기업이 과거 3년간 20만 유로 이상의 보조금 지원을 받았을 경우, 저가판매 등 경쟁 왜곡 여부를 심사하여 자산매각?투자금지 등 금전적 제재 부과. 피인수기업의 EU 지역 매출액이 5억 유로 이상이거나 EU 역외 지역 인수기업의 투자자금이 5천만 유로 이상인 기업인수건에 대해 EU 역외 정부가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한 정황이 있을 시 EU집행위가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음
- 공공조달 및 EU 펀딩(사전규제) : 특정 공공조달이나 기금마련(펀딩)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입찰 기업에 보조금 수령 관련 정보 제출 요구. 부당한 혜택이 확인될 경우 최대 3년 입찰이 불가하며 펀딩 프로젝트 참여 역시 배제. EU 역외 정부가 EU 지역 내 2억5천만 유로 이상의 공공조달 입찰 건에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한 정황이 있을 시 EU집행위가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음

7)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은 역내로 제품 수입 시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에 따라 인증서(배출권)를 구매, 관할 당국에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관할 당국에 승인 받은 수입업자가 제품별 탄소함유량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Certificate)를 구매 후 해당 수입에 대해 매년 5월 31일까지 관할 당국에 신고·제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2021년 7월 14일, EU 집행위가 탄소국경조정제(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초안을 발표한 이후, 2022년 3월 이사회의 일반적 접근 채택, 2022년 6월 의회에서의 수정안 채택을 거쳐, EU는 2023년 10월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을 발표했다. 2026년 본격적인 DBAM 시행에 앞서 제3국 기업이 내재배출량 산정 및 인증서 제출 의무를 원활히 준비할 수 있도록 2025년 말까지 보고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으며, 2023년 10월 1일부터 2025년 말까지의 전환기간에는 수입허가, 검증의무, 인증서 매입 및 제출의무가 유예되며, 수입자는 보고의무만 준수하면 된다.

법안의 적용대상 제품은 배출량이 큰 시멘트, 전기, 비료, 철강, 알루미늄, 수소의 총 6개 품목으로, 적용대상 제품 HS 코드 별 세부 품목은 아래의 표와 같다.

EU의 CBAM 적용 대상품목 (자료 : EU 집행위)

분야	HS코드	HS 세부코드
시멘트(4개)	25	252310, 252321, 252329, 252390
전력(1개)	27	271600
비료(5개)	28, 31	280800, 2814, 283421, 3102, 3105(HS 310560은 제외)
철강(38개)	72	7201, 7203, 7205, 7206, 7207, 7208, 7209, 7210, 7211, 7212, 7213, 7214, 7215, 7216, 7217, 7218, 7219, 7220, 7221, 7222, 7223, 7224, 7225, 7226, 7227, 7228, 7229 73 7301, 7302, 730300, 7304, 7305, 7306, 7307, 7308, 7309, 7310, 7311

알루미늄(8개) 76 7601, 7603, 7604, 7605, 7606, 7607, 7608, 760900
수소 28 0410

첫 보고서는 개시 후 첫 분기인 2023년 10월부터 12월까지를 대상으로 2024년 1월에 제출한다. 대상 기업은 매 분기마다 해당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CBAM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보고서는 대상 분기 이후 2개월 이내에 수정 가능하다. 전환기간 동안 수입 신고자는 인증서 구매 의무 없이 보고서 제출 의무만을 부여받게 되는데, 수입 신고자는 보고서 작성을 위해 공급자에게 자료(상품 정보 및 탄소배출량 정보)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보고서 제출에 필요한 관련 정보들을 사전에 준비해 둘 필요가 있다. 보고의무 미준수시, 보고되지 않은 내재 배출량 1t(톤)당 10~50유로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불성실 보고 지속의 경우 할증된 과태료가 적용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DBAM 보고 의무에 필요한 내재 배출량 산정 시, 보고자는 계산 기반 산정 방식 또는 측정 기반 산정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나, 2024년까지는 EU 이외의 제3국에서 시행되는 산정 방식이 허용된다. 제3국 내재 배출량 산정이 한시적으로 허용되어 업계의 부담이 일부 완화되었으나, 2025년부터는 EU 방식만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 기업 또한 EU식 내재 배출량 산정에 대비해야 한다.

전환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EU 수입 제품의 탄소배출량에 따라 인증서 구입을 통해 비용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본격적으로 운영되어, 수입 통관 시 제품의 배출량에 기반한 계산 금액에 따라 인증서를 구입하여 제출해야 한다. CBAM 본격시행으로 적용대상 상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EU 집행위가 CBAM을 향후 유기화학물, 플라스틱 등 탄소누출 가능성이 높은 품목으로 확대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에 EU 수출에 있어 CBAM 리스크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8) EU 공급망실사 지침 (Supply Chain Due Diligence Directive)

2020년 4월 법안 수립 계획을 밝힌 뒤, 2022년 2월 집행위 초안을 발표했다. 이후 이사회 입장 채택(2022년 12월), 유럽의회 본회의 통과(2023년 6월 1일), 최종합의 도출을 위한 3자 협상(trilogue)이 진행 중에 있다.

동 지침의 주요 내용은 EU 역내외 대기업 및 중견기업 중심, 인권환경 관련 공급망 내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식별하여 예방완화피해 구제 조치 시행의 의무화다. 이번 지침의 대상으로는 고용인원 및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역내외 대기업, 고위험 산업군(섬유, 광물, 농업, 임업, 수산업) 중견기업으로 협력사와 실사준수계약 체결 등을 통해 전 공급망에 걸친 부정적 영향을 식별하고 예방 및 완화하고 매년 4월 30일까지 전년도 실사업무 이행에 대한 보고서 또는 성명서를 기업 웹사이트에 공시해야 한다. EU 회원국은 감독기구를 지정하여 실사의무 이행을 감독하고, 집행위는 유럽 감독기구 연합회(European Network of Supervisory Authorities)를 설립하여 감독기구 간의 협력 및 조사, 제재 등에 대한 협의를 강화할 예정이다. 회원국 별 국내법 입법 과정에서, 위반시 제재 및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수준이 상이할 전망으로 입법 동향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9) 포장 및 포장폐기물 관리 규정 강화 계획

2021년 11월 30일 EU 집행위원회는 유럽그린딜의 한 축인 순환경제실행계획의 일환으로 1994년부터 시행해 온 포장 및 포장폐기물 지침을 규정으로 강화한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 :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을 마련했다. 동 규정에 따라 전 회원국의 포장 폐기물 감축 및 포장재의 재활용을 의무화하고 포장재의 재사용 및 리필에 대한 목표를 수립 중이다. 현재 폐기물 감축 목표, 과포장 제한, 일회용 제품 사용 금지 등의 일부 쟁점을 두고 이사회가 검토 중이며 23.11.20일 유럽의회 본회의에 상정되었다. 본회의에 상정된 포장 및 포장폐기물 관리 규정은 투표를 거쳐, 기관 간 협상을 담당하는 위원회에 다시 회부 요청되었다. 개정안이 시행되기 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EU로 수출하는 기업은 규정에 부합하는 포장 및 포장재 개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TBT

기술 장벽은 현재 EU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비관세 장벽으로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 절차 등 국가 간 교역에 불필요한 장애요인을 형성하는 것을 지칭한다. 자국민의 안전과 보건, 환경 등에 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유럽 내 기술장벽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으며 관련 규제를 지속 심화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EU의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예는 아래와 같다.

1) 장난감 내 화학성분 기준 강화

EU는 어린아이의 신체와 직접 닿는 장난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20년간 거의 개정 없이 유지되던 EU 장난감 안전 규제는

2009년 신안전지침(2009/48/EC)이 공표된 후로 지속 심화하고 있다. 특히 장난감 내 함유되는 화학성분에 관한 기준이 강화되고 있는데(2020년 11월까지 총 14건이 개정), 가장 최근 변경된 화학물질은 2019년 11월 알루미늄(Aluminium) 및 페놀(Phenol)에 관한 내용이다.

○ 장난감 안전지침 역대 개정 내용

- 2012년 3월, Cadmium 허용치(migration limits) 조정
- 2013년 7월, Barium 허용치 조정
- 2014년 6월, 36개월 미만 유아용 완구 및 구강 접촉 완구 내 TCEP, TCPP, TDCP, BPA 함량 제한
- 2014년 6월, Nickel 허용 품목 조정
- 2015년 11월, 36개월 미만 유아용 완구 및 구강 접촉 완구 내 Formamide, BIT 및 CMI, MI 함량 제한
- 2017년 3월 Lead 허용치 조정 - 2017년 5월, 36개월 미만 유아용 완구 및 구강 접촉 완구 내 Monomer, Phenol 및 BPA 함량 제한
- 2018년 5월, Chromium VI 함량 제한
- 2019년 11월, Aluminium 허용치 조정
- 2019년 11월, 36개월 미만 유아용 완구 및 구강 접촉 완구 내 Monomer, Phenol 함량 제한 등

2) 플라스틱 식품 용기 내 비스페놀 A 사용제한

강화 2018년 2월 14일, EU 집행위는 2018년 9월 6일부터 플라스틱 식품 용기 내 비스페놀 A 함유량을 제한한다는 집행위 규정 No.2018/213을 채택했다. 비스페놀 A(이하 BPA)는 플라스틱 물질 제조에 사용되는 합성화학물질로 캔 음료, 생수통, 밀폐용기, 영수증 용지 등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물질이다. 최근 유럽 내 BPA 위해성이 집중 조명되고 있으며, 유럽식품안전청 EFSA(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은 2006년부터 식품 용기에 들어가는 비스페놀A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고 위해성에 대해 지속 발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도 물질 사용을 지속 강화하고 있는데, 집행위는 소비자 안전을 위해 2011년부터 영·유아용 젖병 내 BPA 사용을 금지했으며, 플라스틱 식품 용기에는 일정 제한치(0.6mg/kg) 내에서만 허용하고 있다.

유럽물질화학청 ECHA(European Chemicals Agency)는 2017년 6월, BPA 물질이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며 REACH 고 위험성 물질 목록(SVHC; Substances of Very High Concern)에 올렸다. 집행위는 내부적 분석을 통해 플라스틱 식품 용기 내 BPA 물질 사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 기존 최대 허용기준을 0.6mg/kg에서 0.05mg/kg로 낮추기로 했다. 이 밖에도 통조림 제품의 경우, 제품 내벽의 부식방지를 위해 니스 및 코팅제가 사용되는데 여기에 BPA가 들어가므로, BPA 제한 용량(0.05mg/kg)을 니스 및 코팅제로도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한, 니스 및 코팅제가 들어간 플라스틱 식품 용기에 대해서는 적합성 선언문(declaration of conformity) 작성을 의무화한다고 전했다. 선언문에는 아래와 같은 정보들이 명시되어야 하며, 회원국 당국의 요청 시 기업은 10일 내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 제조 및 적합성 선언 기업정보(기업명 및 주소)
- 적합성 선언 작성 시기
- 제조 시, EU 규정 No.1935/2004 내 3, 15, 17 조항의 준수 여부
- 니스 및 코팅제가 사용되는 제품 정보(식품군 종류, 식품처리에 사용되는 온도, 기간 등) 및 제조품 정보

이 밖에도, 집행위는 3세 이하 영·유아의 경우 소량의 BPA 노출로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폴리카보네이트(PC) 재질의 병과 컵에 BPA 사용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2018년 9월 6일부터 플라스틱 식품 용기 내 BPA 0.05mg/kg를 초과하는 제품과 BPA가 함유된 영·유아용 물병과 컵의 역내 판매가 금지되고 있다. 한편, 유럽의회는 관련 제조기업들이 향후 BPA 대체 물질로 비스페놀 S(BPS)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BPS 물질에 대한 위해성 역시 조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CHA 산하 위험평가위원회(RAC; Risk Assessment Committee) 역시 BPS는 BPA와 유사한 위해성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제조기업의 BPS 사용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동의했다. 이 같은 추세로 향후 EU 내 BPA 물질 금지분야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사료되며 BPS 물질 제한 가능성 역시 높은 것으로 판단돼 우리 기업의 예의주치가 요구된다.

3) 화장품 원료 규제 강화

2020년 2월 27일부로 자외선차단제, 염색, 샴푸 등에 사용되는 화장품 원료의 역내 판매가 금지되고 있다. EU는 피부와 직접 닿는 화장품 물질에 대해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관련 규정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데, 2018년에는 페니페놀 물질의 최대 허용 농도 제한(11월) 및 일부 메리골드 물질 사용을 금지(7월)한 바 있다. 올해부터 제한이 강화된 물질은 아래와 같다.

- (사용금지 물질) 2-클로로-p-페닐레디아민, 황산염 및 염산염(2-Chloro-p-Phenylenediamine, its sulfate and dihydrochloride salts)

염색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2-클로로-p-페닐레디아민 물질의 경우, 지금까지 마스카라와 아이브로우 제품에서 최대 4.6%까지 허용됐다. 유럽 과학위원회(SCCS; Scientific Committee on Consumer Safety)는 상기 물질에 대한 위해성을 평가한 결과 해당 물질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었고, 지속 사용 시 잠재적 위험성이 커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황산염 및 염산염 (its sulfate and dihydrochloride salts)의 경우, 2-클로로-p-페닐레디아민과 기본적인 물질 구조가 같으므로 이들도 같이 금지해야 하며, 금지 제품에 염색약도 추가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집행위는 이 같은 과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마스카라, 아이브로우 및 헤어 염색약 내 해당 물질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 (허용량 제한) 클림바졸(Climbazole)

비듬방지제에 주로 사용되는 크림바졸의 경우, 0.5% 내에서 사용이 허용됐으나 과학위원회는 이번 평가 후, 기존 농도로는 인체에 유해하므로 제품에 따라 아래와 같이 0.2~0.5% 이내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 로션, 크림, 발 전용 제품 : 최대 0.2%까지

- 샴푸는 0.5%까지만 안전(비듬 샴푸의 경우에는 2%까지 허용)

화장품 성분에 대해 새로운 제한 기준이 마련되면 이미 제조된 제품의 EU 내 반입 자체가 불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생산 중이던 화장품들은 변경된 기준에 맞춰 재생산해야 하는 등 생산라인에도 큰 차질을 받게 된다. 최근 역내 K-뷰티 열풍에 힘입어 EU 화장품 시장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이 지속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이러한 EU의 움직임에 보다 주시해 우리 수출에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SCIP(Substances of Concern In Products) 신고제도

폐기물 기본 지침(Waste Framework Directive)에 따라 완제품에 포함된 고위험 우려 물질에 대한 데이터 제출을 의무화하는 SCIP(Substances of Concern In Products) 신고제도가 2021년 1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해당 신고제의 목적은 폐기물 처리자로 하여금 원활한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고위험 우려 물질(SVHC)이 포함된 완제품이 시장에서 점차 퇴출되도록 하는데 있다.

따라서 고위험 우려 물질을 중량 대비 0.1% 이상 함유한 완제품을 공급하는 EU 내 모든 기업은 제품 정보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SCIP 신고를 위해 유럽화학물질청(ECHA)은 2020년 10월 28일 우려 물질을 함유한 제품 정보를 공개하는 SCIP 데이터베이스를 개설했다. 따라서 신고된 물질은 다음의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https://echa.europa.eu/de/scip>)

5) 체외진단의료기기법(IVDR) 시행

체외진단의료기기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전보다 강력한 규제인 체외진단의료기기법[IVDR : Regulation(EU)2017/746]이 2022년 5월 26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현재 전환 기간을 거치고 있었다. 2023년 1월 6일 EU 집행위원회는 IVDR 규정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을 원활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전환 기간 조건부 연장안을 제안했고, 2023년 2월 16일, EU 의회에서는 시행 조건부 연장에 압도적인 표결(찬성 537명, 반대3명, 기권24명)로 제안을 채택했다. 전환 기간은 위험 등급에 따라 2025년 5월 26일부터 2028년 5월 26일까지로, 고위험 체외진단의료기기는 2025년 5월 26일까지, 저위험 체외진단의료기기는 2027년 5월 26일까지, 보건소에서 제조되고 사용되는 특정 의료기기는 2028년 5월 26일까지이다.

기존 지침(IVDD : In Vitro Diagnostic Medical Devices, 98/79/EC)대비 관리 기준이 강화되어, 유럽 인증기관의 적합성 평가 없이 자

가 적합성 선언 후 시판이 가능했던 과거와 달리 등급 분류에 따라 유럽 공인 인증기관의 적합성 평가 수행이 필요하다(체외진단기기 유형 분류 시스템을 위험 등급에 따라, 가장 낮은 Class A에서 가장 높은 Class D로 분류, Class A 등급을 제외하고는 지정 인증기관으로부터 필수 인증 취득 필요). 이와 관련해 앞으로도 EU에서 판매 예정인 체외진단기기들은 엄격한 임상적 증거를 제출하고 시판 뒤에도 사후 감독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관련업체는 이에 따른 준비가 필요하다. 다만 IVDR 규정에 명시된 기존 제품에 대한 '판매 기한(sell-off)' 조항이 삭제됐다. 판매 기한은 '인증서 유효기간 정지 이후 판매 종료일'을 말하며, 판매기한 조항 삭제는 이미 출시돼 있는 의료기기가 계속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6) 과불화합물 최대 허용 섭취량 수정 및 전면 금지조치(초안)

과불화합물(PFAS, Perfluoroalkyl substances)은 영원히 분해되지 않는다고 알려진 고분자 화학물질로 세부 유형으로는 PFOS(Perfluorooctane sulfonic acid), PFOA(perfluorooctanoic acid), PFNA(perfluorononanoic acid) 및 PFHxS(perfluorohexane sulfonic acid)가 있다. 과불화합물은 탄화수소의 기본 골격 중 수소가 불소로 치환된 형태의 화학 물질로, 물과 기름에 쉽게 오염되지 않고 열에 강해 늘어붙지 않는 프라이팬이나 식품 포장재, 섬유의 방수코팅, 의료장비 등 다양한 용도에 쓰인다. 하지만 독성이 있어 토양과 물을 오염시키며 체내에 축적되면 암과 호르몬 기능 장애, 신장 기능 장애, 면역체계 약화 등 건강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2022년 12월 7일 EU는 기존의 과불화합물 규정 (EC) No 1881/2006을 개정한 규정 (EU) 2022/2388을 마련하고, 네 가지 유형의 과불화합물의 섭취를 주당 체중량 기준 4.4ng/kg만 허용하는 '주간 섭취 한계량(TWI: Tolerable Weekly Intake)'을 설정했다. 이 과불화합물 규정 개정안은 2023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시된 식료품의 경우 과불화합물이 최대 허용치를 넘어설 경우 유통이 금지된다. 다만 2023년 1월 1일 이전 시장에 출시된 식료품은 사용 기한 날짜까지 시장에서 유통이 허용된다.

한편 EU는 현재 과불화합물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관련해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EU비회원국 노르웨이 5개국은 2023년 2월 7일 과불화합물 사용 전면 금지를 골자로 하는 과불화합물 규제안 초안을 발표했다. 다만 이 초안에는 현재 1만여 종이 넘는 과불화합물 제품의 대체 물질을 화학 기업이 개발할 수 있도록 제품에 따라 18개월에서 최대 12년까지 유예기간을 적용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규제안에 대해 유럽화학물질청(ECHA)은 2023년 3월 22일부터 9월 25일까지 진행된 EU 과불화합물 제한 제안에 대한 공개협의를 진행했으며, 4,400개 이상의 조직, 기업 및 개인으로 구성된 이해관계자들이 5,600개의 의견을 접수했다. 한국 정부도 우리 정부 및 기업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

제출된 의견은 유럽화학물질청 위해성평가위원회(RAC) 및 사회경제성분석위원회(SEAC)에서 검토할 예정이며, 과불화합물 제한 제안을 제출한 EU 5개국 또한 변경사항에 관한 의견결정에 참여할 예정이다. 유럽화학물질청은 최종의견을 EU 집행위원회에 전달하게 되며, 위원회는 EU 회원국과 함께 제한 사항을 결정할 예정이다. 해당 규제 법안의 시행 시기는 2026년이나 2027년이 될 전망이다.

기타

○ EU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2018년 7월부터 시행된 EU의 철강 세이프가드는 일부 철강 품목의 쿼터(수입제한 물량) 내 수입 물량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다. 해당 조치는 미국이 2018년 3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자 미국 수출이 어려워진 아시아의 철강이 유럽 시장으로 몰릴 것을 우려하여, 유럽 집행위원회가 유럽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26개 철강재 및 철강 제품을 대상으로 시행한 조치이다.

지난 2020년 7월 01일부터 모든 국별 쿼터를 연간에서 분기별로 변경하고, 대규모 철강 수출자의 잔여 쿼터 접근 상한을 설정하는 내용의 세이프가드 개정안이 발효되었고, 해당 개정안에 따른 3차연도 세이프가드는 2021년 6월 30일에 종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유럽철강협회(EUROFER)가 세이프가드 연장을 강력히 요구했고, 또한 EU 12개 회원국이 세이프가드 연장 검토를 요청함에 따라 유럽집행위원회는 지난 2월 26일 일부 철강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연장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역대 생산, 소비 및 고용 등, 철강 수입으로 업계 불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코로나19 이후 더욱 심각해지는 것으로 드러나, 2021년 6월 10일 EU 집행위는 WTO에 역외국 철강재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3년(2021.07.01~2024.06.30) 더 연장하겠다고 통보했으며, 2023년 6월 9일 세계무역기구(WTO) 세이프가드위원회에 따르면, EU가 일부 수입산 철강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오는 7월1일부터 2024년 6월30일까지로 1년 연장했다. EU는 현재 방식과 동일한 총 26개 품목 내 쿼터제를 시행하고 초과 물량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한다.

다. 관세제도

관세제도 개요

독일은 EU 회원국으로서 EU의 공통 관세 제도를 따르고 있다. EU-27국 내 수출입 통관, 관세평가, 화물관리 등 세관 행정에 공통으로 적용되고 있는 관세법령은 1992년 제정된 유럽 공동체 관세법(CCC; Community Customs Code)이다. 2000년대 들어 EU의 정치·경제·사회적 통합이 가속화되고 이를 둘러싼 세관 행정 환경에 변화가 일자, 2008년 6월 EU는 세관 현대화 법(MCC; Modernised Customs Code)이라는 새로운 관세법을 제정해 발효시켰다. 이후, 2013년 10월 기존 세관 현대화 법(MCC)을 보완한 신관세법(UCC; Union Customs Code)을 마련하고 2016년 6월 1일부로 적용 중이다. 새로운 관세법은 세부적 실행규정 제정권이 EU 집행위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관세법 위반에 따른 조사, 벌금 등은 회원국 세관 당국의 소관으로 정하고 있다.

○ EU의 관세제도

EU 관세는 크게 최혜국 관세, 협정 특혜관세, 개도국에 적용되는 GSP 관세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 최혜국 관세 (MFN; most-favoured-nation): WTO 협정에 따라 WTO 회원국 및 최혜국 대우 지위를 취득한 모든국가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적용된다.

- 협정 특혜관세 : FTA 등 무역협정에 따른 관세로 해당 협정 내 규정된 특정 세율이 적용된다.(예시 : 한-EU FTA로 0% 무관세 수출)

- GSP관세 : 개도국 수출업체가 유럽으로 수출할 때 관세를 덜 내거나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는 일반특혜관세제도(Generalized Scheme of Preferences)로 일반 GSP, GSP+, EBA로 나뉜다.

· 일반 GSP : 전체 상품분류 중에서 2/3에 대해 관세인하 또는 무관세가 적용되는 완만한 관세감축 혜택을 제공한다. EU Regulation No.978/2012 부속서에 대상국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 GSP+ : 일반 GSP에 해당하는 품목 카테고리에 대해서 완전 무관세라는 더 강화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인권, 노동권, 환경 및 건전한 거버넌스와 관련된 국제협약을 비준하고 이행하는 국가에 부여 중이며, 대상국 명단은 EU Regulation No.978/2012 부속서에 수록되어 있다.

· EBA(Everything but Arm) : 최빈국(least developed countries)에 대해서 무기류를 제외한 모든 상품이 유럽연합시장에 무관세 및 쿼터의 적용 없이 수출될 수 있도록 하는 특혜 공여 정도가 가장 높은 유형이다.

* GSP 개정 동향

기존 EU의 GSP 규정은 2023년 말 만료 예정으로 EU 집행위는 만료를 앞두고 2021년 9월 22일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GSP 참여국에 대한 인권·환경보호·거버넌스를 비롯하여 EU의 이민문제 해결에 대한 협력 등의 조항을 두고 유럽의회와 이사회 간 삼자협약이 지연되며 집행위는 2023년 7월 기존 GSP 규정을 2024~2027년 까지 연장하는 것을 제안했다. 유럽의회와 이사회가 해당 제안을 채택하며 GSP 개정이 지연되고, 현재의 GSP 규정이 2027년 12월 31일 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 관세율

EU 공동 관세율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제품 관세 분류방식인 HS(Harmonized-System) 체계를 기초로 EU가 마련한 복합분류(CN; Combined Nomenclature) 방식에 의해 분류된다. CN은 HS 품목 분류표와 CN 소호(sub-heading) 분류, 추가적인 부(Section) 또는 관련된 챕터(Chapter)의 주(Note) 등 보충규정이 포함되며, 이사회 규정 EEC 2658/87 부속서 내에서 명시된다. CN 분류체계는 8자리의 숫자로 구성되는데, 처음 6자리 숫자는 HS 코드와 동일하고 나머지 7,8번째 숫자는 EU에서 독자적으로 마련한 세부적 분류체계가 더해진다. 이외에도, CN에 의해 규율되지 않는 EU 차원의 세부적 분류목적을 위해, CN 8자리에 2자리를 추가한 10자리 형태의 통합관세율(TARIC; Integrated Tariff of the European Communities)이 존재한다. Taric은 특혜관세, 관세할당 등 관세율과 관련된 모든 조치를 비롯해 과일과 채소의 표준 수입가격 및 단위가격, 농산물 구성요소, 특정물품의 수량 제한, 특정물품에 대한 수출입 통제, 수출입 신고서에 사용되는 코드 등 기타적인 요소들을 통합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제품의 원산지과 HS CODE별 EU의 관세율은 집행위에서 운영하는 관세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링크 :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taric/taric_consultation.jsp?Lang=en)

○ 관세 부과 가액

EU 내 수입되는 상품의 실질거래 가격, 즉 송장 금액을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단, 인도 조건에 따라 송장에는 명시돼 있지 않지만, 송장 금액과는 별도로 관세 부과 가액 산정 시 반영되는 요소들이 있는데 운송료, 보험료, 로열티, 라이선스 수수료, 연구개발비 등이

그러하다. 통관 시 관세 이외에도 부가가치세(VAT)와 일부 특정 제품(담배, 주류, 석유 등)에 대해서는 특별세(excise)가 부과된다. 부가가치세와 특별세의 세율은 회원국마다 차이가 있다. 2023년 11월 기준, 회원국별 부가가치세(VAT) 요율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참고링크 : https://europa.eu/youreurope/business/taxation/vat/vat-rules-rates/index_en.htm)

○ EU 관세제도 개혁 동향

집행위는 2023년 5월 17일 관세제도 개혁안을 발표 했다. 이번에 발표될 개혁안은 2020년 9월부터 추진된 관세 동맹의 현대화 및 행정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액션플랜의 일환으로 기존 회원국 간 상이한 관세 행정 시스템으로 발생하는 시스템 취약점을 개선하고, 관세 행정 시스템이 취약한 회원국을 중심으로 불법 제품 유입 및 관세법 위반 사례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급증하는 전자상거래로 인한 과중한 세관 업무를 개선하고, 코로나-19, 러-우사태 등 지정학적 변화 상황에 대응해 관할 당국의 위기 대응 능력도 향상되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혁안은 기존 세관 시스템의 정보 중앙집중화 및 비용 절감을 위한 행정 효율화, 국가별 당국의 신속 대응 조치 강화, 세관의 유연하고 탄력적인 프로세스 구축에 중점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EU는 기존 관세동맹을 현대화하고, 데이터 공유 강화, EU 역내 공통 조정기관 구성, 공인 경제 운영자(Authorised Economic Operator)에 대한 혜택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개혁안은 이사회 및 유럽의회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각 기관 별 입장이 채택되면 3자합의를 통해 최종 입법이 완료 될 예정이다.

○ EU 전자상거래 부가가치세 과세 규정 개정

EU는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의 일환으로 국경 간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고, 역내 기업에게 공정경쟁 여건을 보장하는 EU 전자상거래 VAT 개정법을 2020년 2월 채택해, 2021년 7월1일부로 시행되고 있다. 동 규정을 통해 IOSS(관부가세 신고 간소화 시스템) 플랫폼 신규 도입, 역외 수입 상품의 VAT 면제 조건 폐지, 부가세 준수 책임 이전 (판매자→플랫폼 사업자) 등이 새로 도입되었다.

이로써 EU는 기존 22유로 미만 저가 제품에 적용돼왔던 VAT 면제 제도를 폐지하고 제품 가격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VAT를 부과하고 있다. 대신 소규모 전자 상거래에 대한 새로운 VAT 규칙을 도입해 역외에서 역내로 수입되는 150유로 미만의 저가 화물의 경우 IOSS (Import One Stop Shop)에 등록된 사업자, 운송 업체 및 세관 대리인이 소비자를 대신해 VAT 신고 및 비용을 납부 할 수 있다. 하지만 업체가 IOSS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경우 최종 소비자에게 VAT 및 세관 비용이 청구 될 수 있다.

(참고링크 : IOSS 웹사이트 https://vat-one-stop-shop.ec.europa.eu/index_en)

○ EU 집행위, 우크라이나 상품에 대한 수입관세 적용 중단 연장

2022년 5월 25일 EU는 우크라이나 사태이후, 우크라이나의 생산·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모든 우크라이나산 상품에 대한 수입관세를 적용 중단 조치를 채택했다. 해당 조치는 2023년 6월 5일까지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적용기간 만료에 앞서 EU는 러-우사태 장기화에 대응해 관세 중단 조치를 1년 연장하기로 합의 했다.

신규조치의 적용 대상에는 우크라이나에서 EU로 수입할때 쿼터제가 적용되는 농산물 및 농산 가공품등이 포함되었다. 하지만 육류, 유제품, 설탕, 일부 곡물 등 가장 민감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관세와 할당량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기존 적용 대상이었던 비료, 알루미늄, 자동차 등의 공산품에 대해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체결된 EU-우크라이나 간 협정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조치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폴란드를 포함한 일부 동유럽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산 곡물의 무관세 조치로 자국 곡물 가격이 하락하자 보호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EU는 2023년 9월 15일 관련 국가들에 대한 우크라이나산 곡물의 판매를 통제하는 대신 역내 다른 국가에 수출을 할 수 있도록 운송 통로를 허용하고, 이에 대한 모니터링 조치에 합의했다.

관세율 알아보는 법

아래의 EU 집행위 'Taric' 사이트 내에서 현재 적용되고 있는 유럽의 수입 관세율을 확인할 수 있다.

- 집행위 관세율 확인 관련 링크 :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taric/taric_consultation.jsp?Lang=en&Taric=&EndPub=&MeasText=&Area=&Regulation=&LangDescr=&callbackuri=CBU-0&MeasType=&SimDate=20150610&StartPub=&OrderNum=&GoodsText=&Level=&Expand=false

이 사이트를 클릭 후 상품 HS Code(Goods code)와 상품의 원산지 국명(Country of origin)을 입력하면 품목별 세율을 알아볼 수 있다.

이 밖에도, 한국 외 특정 국가를 선택하게 되면 해당국으로부터의 수입관세율 역시 확인이 가능하므로 여타국과의 EU 수입 관세를 비교해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EU는 수출입상품 품목분류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CLASS)을 2020년 5월 구축해 상품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했다. 이 플랫폼을 통해 수출입품목에 대한 EU 결정(CCC Conclusion), 분류규정(Classification Regulation), EU 사법재판소 규정(ECJ Ruling), Taric 등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 관련 사이트 링크 : <https://webgate.ec.europa.eu/class-public-ui-web/#/search>

6. 통관·물류

가. 물류정보

물류정보

1) 주요 무역항 및 물동량

○ 함부르크(Hamburg) 무역항: 북해와 발트해 사이에 위치한 함부르크 항은 유럽 내 물류 이동에 있어서 유리한 위치에 있다. 또한, 교통망이 잘 발달해 화물 하역 후에 철도와 고속도로를 이용한 도시 간의 신속한 이동이 가능하다. 함부르크 항은 주간 1,300대의 화물열차가 운행되는 유럽 최대의 철도 항으로, 총 물동량의 50%는 철도, 10%는 내륙 수로를 통해 운송하고 있다. 함부르크 항은 독일에서 가장 규모가 큰 항구이며, 유럽 제3위 세계 제18위의 무역항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곳에는 현재 4개의 컨테이너 터미널과 3개의 크루즈 터미널이 갖춰져 있다.

○ 브레멘(Bremen) 항구는 브레머하펜(Bremerhaven)과 브레멘 항구를 아울러 이르는 명칭으로 독일 제2항, 유럽 제4항으로 알려져 있다. 자동차 물동량 세계 1위 항구이기도 하다.

○ 주요 무역항별 물동량:

* 아래 TEU는 'Twenty Foot Equivalent Unit'의 약자로 20피트 컨테이너를 의미한다.

함부르크 항만의 화물 처리량은 2022년 기준 독일 함부르크 무역항의 화물 처리량은 1억1,990만 톤이다. 이는 전년 대비 6.8% 감소한 양이다. 벌크화물은 3620만 톤으로 8.9% 감소했다.

컨테이너 물동량은 2022년 기준 830만 TEU였다. 전년 대비 5.1퍼센트 감소했다. 모든 종류의 화물 처리량이 감소했지만, 특히 수출 경기의 선형 지표로 꼽히는 일반 화물의 감소세가 뚜렷하다. 2023년 1월 일반 컨테이너 물동량은 59만 TEU였는데 이는 전년 동월 대비 25% 감소한 수치이다. 항만 물동량이 14% 감소한 것은 곡물, 광석, 석유 제품 등 벌크 물량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수출입과 환적 물량은 각각 540만TEU 290만TEU로 0.9% 12.1% 후퇴했다. 전체 컨테이너 처리량 감소 비중의 90% 이상이 환적 물량이었다.

물동량의 감소 원인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터미널의 컨테이너 보관료 인상을 주된 이유로 꼽는다.

브레멘 항만 물동량: 2022년 브레멘 항만의 총 화물 처리량은 6,450만 t으로 전년 대비 7.4% 감소를 기록했다. 컨테이너 총 물동량은 460만 TEU로 전년 대비 8% 감소를 기록했다.

2) 주요 공항 및 물동량

○ 주요 공항: 독일의 주요 국제공항은 주요 대도시에 있는데 그 중 우리나라 방문객들의 이용 빈도가 높은 공항으로는 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과 뮌헨 공항을 들 수 있다.

○ 주요 공항 물동량: 독일 항공 물류 산업의 주요 허브는 프랑크푸르트암마인 공항, 라이프치히/할레 공항, 쾰른/본 공항이 대표적이다. 2022년 항공 물류 물동량은, 프랑크푸르트 공항은 전년 대비 13.2% 감소한 197만 t, 라이프치히/할레 공항은 6% 감소한 150만 t, 쾰른/본 공항은 2% 하락한 95만7천 t 등의 순이다.

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은 2022년 기준 연 31만 7,873회의 항공기를 운항하고 있으며 공항을 이용하는 승객수는 4,890만 명이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두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이다. 뮌헨 공항의 2022년 항공기 운항은 40만회이며 승객수는 3,160만 명이다.

3) 유의사항

독일 정부는 지속 가능, 친환경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2021년 7월 3일부터 단계적으로 포장재 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는 순환 경제 실행을 통해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을 늘리기 위해서이다.

2022년 7월 1일부터는 포장의 등록 범위가 대폭 확대되며 판지 상자, 배송 포장재, 완충 포장재, 라벨, 팔레트 등과 같은 모든 포장재로 확대 적용된다.

독일 포장재 법은 중앙 포장재 등재 재단(ZSVR)에서 이를 규제하고 있으며, 독일 포장재 법 개정안은 포장의 등록 범위와 책임을 확대해 포장재의 재활용·수거·폐기에 대한 책임을 강화했다.

독일 진출 국내 제조 및 물류 유통기업은 독일 포장재 법을 잘 준수해 벌금이나 수입금지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4) 기타 참고사항

독일 쉘레스비히-홀슈타인 주의 페마른(Fehmarn) 섬과 덴마크 롤란(Lolland) 섬 사이를 연결하는 페마른벨트(Fehmarnbelt) 해저 복합 터널은 2021년 1월에 건설 작업을 시작하여 2029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Fehmarnbelt 터널은 길이 18km의 도로 및 철도 교통을 위한 세계에서 가장 긴 침수 터널이 될 것이다. 향후 함부르크 항과 스칸디나비아를 잇는 철도 운송이 본격화되고 물동량 또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 함부르크 무역항 홈페이지, 브레멘 항구 홈페이지, ADAC, Statista, Handelsblatt, 물류전문지 DVZ,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자체 정보 종합

나. 통관제도

통관 유형별 절차

1) 수입 통관

□ 구비 서류

- 선하 증권(B/L, Bill of Lading, Konnossement)
- 상업 송장(Commercial Invoice, Handelsrechnung)
- 포장 명세서(Packing List, Packliste)
- 원산지 증명서(C/O(Certificate of Origin), Ursprungszeugnis) (경우에 따라 필요)
- 항공화물운송장(AWB: Air Waybill, Luftfrachtbrief): 항공편을 이용해 물품 운송 시

□ 수입 통관 절차

- 1단계: 수하인(Consignee: 화물 운송장상의 화물인수자)이 수입통관 대행업체에 세관 등록 번호(Custom Office Register)와 함께 위임장(Power of Attorney)을 송부한다.
- 2단계: 통관대행업체(Forwarding company)는 선적서류(Shipping Document)와 Consignee의 위임장을 가지고 세관 통관 시스템에 등록(HS Code, Origin, Invoice Value 등을 입력) 후 수입 승인번호(ATA No.)를 발급받는다.
- 3단계: 보세구역(항구 내 창고 등)에서 관세선을 통과한 후 수입품을 반입한다.

2) 수출 통관

○ 1단계: 통관서류 준비

- 구비 서류

· 수출 면장(수출신고필증, Ausfuhranmeldung 또는 Ausfuhrerklaerung 또는 ABD(Ausfuhrbegleitdokument))

* 독일에서는 EU 역외 수출 시 수출품이 1,000유로 또는 1,000Kg 이상의 경우 제출 의무(EX-1 양식)

· 상업 송장(Commercial Invoice, Handelsrechnung)

· 물품의 포장 명세서(Packing List, Packliste)

· 수출품

○ 2단계: 고유번호 발급

- 상기 구비 서류를 가지고 통관 시스템(Dakosy 등)에 등록 절차를 거친 후 ZAPP(B-number) 번호를 발급받는다.

- 통관시스템으로 함부르크항은 Dakosy사의 EDI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 ZAPP: Zoll Ausfuhrueberwachung im Paperless Port

* B-Nummer: Bearbeitungs-Nummer

○ 3단계: 운송

- 수출품을 해상, 항공편 등을 통해 운송

3) 전시 물품 통관

한국과 독일은 전시 통관 관련 협정을 통해, 지역별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는 ATA 까르네를 통해 통관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무관세 적용을 받는다. ATA 까르네는 한국, 미국, 중국, EU, 일본 등 ATA(Admission Temporaire) 협약을 맺은 77개국 간 이동하는 일시 수출입 물품에 대한 국제표준 무관세 임시통관증서이며, ATA 협약 가입국 간 통관 시에 ATA까르네를 이용하면 임시적 물품 수입 및 재수출 또는 보세운송을 위해 필요로 하는 복잡한 통관 서류의 작성이 불필요하며 담보금, 부가세를 세관에 납부할 필요가 없어 통관절차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다.

ATA 까르네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최장 12개월이며 연장할 수 없다. 유효기간 이내라도 수입국 세관이 ATA 까르네 증서에 재수출 기간을 명시적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동 기간 내에 재수출돼야 한다. 상품 견본(Commercial Samples), 전문장비(Professional Equipments), 전시회(Fairs/Exhibitions)의 용도로 물품을 해외에서 사용 후, 우리나라로 다시 가져올 물건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농산물, 식료품, 위험 물품, 소모품 등 부패의 우려가 있거나 1회용품 또는 수입국이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없다. 현지 박람회 기간 중 대리점이나 바이어에게 샘플로 현지 처분하는 물품은 수입 통관을 해야만 한다. 한국에서 까르네 발급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서울·부산·대구·안양상공회의소 등 4곳이며 면장에 대한 수수료 문의는 각 지역 상공회의소를 통해 진행하면 된다. ATA 까르네와 관련 아래 사이트를 통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
- <https://cert.korcham.net/base/index.htm>

- 독일 세관
- 독일 세관 홈페이지(zoll.de) - Unternehmen - Fachthemen - Zlle - Zollverfahren - Vorübergehende Verwendung
- 링크: https://www.zoll.de/DE/Fachthemen/Zoelle/Zollverfahren/Voruebergende-Verwendung/Carnet-ATA/carnet-ata_node.html

4) 기타 개인 물품 통관

독일에 거주하는 동안 한국으로부터 물건을 배편으로 받는 경우 약 50~70일이 소요되며, 대부분 함부르크 무역항으로 도착한다. 항공으로 배송되는 경우 약 5~7일이 소요되며 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으로 도착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소포에는 제품 구매 가격이 확인 가능한 영수증이 포함돼야 한다. 포함되지 않는 경우 각 배송 지역 세관에 1차적으로 보관을 하게 된다. 수신자는 세관으로부터 제품 영수증을 가지고 직접 소포를 찾으러 오라는 편지를 받게 된다. 이때 편지 발송일로부터 2주 이내에 세관으로 찾으러 가야 하며, 2주 경과 시 반송이 되므로 이점에 유의해야 한다. 세관에서 제품의 내용을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물건이 즉시 배달되지 않고 세관에서 보관하는 경우가 상당히 잦으므로, 중요 행사 등 특정 시기에 꼭 필요한 물건일 경우 3~5일 전에 보내는 것은 절대 금물이며 세관에서 지체될 것을 감안해 최소 2~3주일 전에 물건을 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5) 2025년부터 EU 내 중앙집중식 통관 시행 예정

EU는 2025년부터 중앙집중식(Centralised Clearance) 통관 시스템을 신규 도입해 수입세관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통관 비용을 절감할 예정이다. 현재까지는 EU 영토 최초 반입지에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만일 역내 타 지역에서 통관을 원하는 경우에는 최초 반입지에서 보세운송(Multi-stop)을 통해 물품을 해당 통관사무소까지 이동시킨 후 수입통관을 진행해왔다. 다만, 이 경우 보세운송을 위한 별도의 서류발급 및 비용, 시간이 추가로 발생해 수입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애로로 작용하였다. 이에, 향후 도입되는 중앙집중식 통관방식에 따라 앞으로는 수입물품이 수입신고자와 다른 장소에 있어도 신고자가 귀속되어 있는 세관에서 통관할 수 있게 돼,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통관방식은 당초 2020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여전히 회원국 간 세관 인프라 시설 수준 차이가 매우 커 EU 전체의 조화로운 시스템 운영을 위해 도입 시기를 늦추기로 결정했다.

통관 시 유의사항

- 1) 결제 조건에 따른 수출자 비용부담 범위

○ DDP(Delivered Duty Paid: 관세 지급 인도): 해상 운임(Ocean freight), THC (Terminal Handling Charge), TSC(Transshipment Charge), D/O 발급 수수료 등 이외 통관 대행 수수료(Custom's brokerage)

- DDP 조건의 경우, 통상 수출자가 통관 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지불하고 수입자의 지정창고까지 운송해주는 조건을 말하므로 부가가치세도 수출자가 부담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는 경우, 수출계약 체결 이전에 DDP 조건이라 할지라도 부가세 포함 여부를(예: 'VAT UNPAID') 명확히 규정해야 상호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 특히 2007년 19%로 인상된 부가세는 환급 대상이므로, 독일 부가세 환급 시 별도 법인이나 연락사무소가 없는 경우 수하인(Consignee)이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는 환급 관련 서류 작성이 까다롭고 환급 기간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이다.

○ DAP: DDU(Delivered Duty Unpaid: 관세 미지급 인도) 조건은 인코텀스 2010(INCOTERMS 2010)에서 DAP 조건(Delivered At Place: 지정 목적지 인도조건)으로 변경됐으며, DDP 조건과 대부분의 조건이 다 동일하나 수출자가 수입통관, 수입 관세부담 등 수입통관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 독일 베를린 상공회의소(IHK)에서 제공한 인코텀즈 무역 운송 조건 내용에는 DAP와 관련 수입자가 수입국의 수입통관을 진행하고 Import customs clearance(수입통관)와 Import taxes(수입관세, Einfuhrumsatzsteuer) 등은 수입자 부담으로 기재돼 있다.

2) 수입 제한, 감시, 관리를 요하는 품목

EU 공동의 시장조직 또는 EU 공동의 거래법규로 제한하는 농축산물 중에서 'MO' 표시 품목들은 'Gemeinsame Marktorganisation oder Handelsregelung(공동 시장 조직 또는 공동거래법규)'의 적용을 받은 품목들인데, 이들은 EU 이사회 또는 집행위원회의 법령(Rechtsakte)을 통해 그 수입이 제한될 수 있다. 감시(EU 회원국 전체가 또는 EU 집행위의 승인 하에 독일 단독으로) 'UeD' 표시 품목은 세관에서의 수입통관(Einfuhrabfertigung) 이전에 수출·입자의 성명 등 기타를 기재한 감시 서류(Ueberwachungsdocument)를 연방 경제수출관리청(BAFA, Eschborn 소재)이나 연방 농산 식품청(Frankfurt 소재)에 제출, 확인 받은 후에 이를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관리 관청의 선택 기준, 즉 BAFA인지 연방농산 식품청인지 여부는 칼럼3에 명기돼 있다). 수입목록(Einfuhrliste)에 'EKM(Einfuhrkontrollmeldung, 수입 관리 신고)'로 명기된 품목(예: 시장 관찰, 수입 할당량 감시 품목)들은 BAFA 등을 경유할 필요는 없으나 통관 시에 세관에 수입 관리 신고를 이행해야 한다. 이는 수입 자체에 대한 직접적 장벽은 아니나,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 (수입 목록에 기재된 품목 중) 수입 허가 및 기타 규제 대상 품목

- 수입 허가(Genehmigung)를 요하는 것: 수입목록의 제 4컬럼에 '-'라는 코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허가가 필요한 경우

- 수입 라이선스(Lizenz)를 요하는 것: 수입 목록의 제 4컬럼에 'L' 코드가 있을 경우이다. 이 경우는 EU의 법령에 의한 수입 라이선스(Einfuhrlizenz)가 필요하다. 단, EU의 조직이 별도 조치를 실시하지 않는 한 수량 제한은 채택되지 않는다.

- 원산지 증명(UZ: Ursprungszeugnis)을 요하는 것: 수입목록의 5컬럼에 'U'라는 코드가 있으면 원산지 증명이 필요(예: 특정 원산지 국가의 섬유제품)하다. 또 'UE' 표시 품목에는 원산지 신고서(UE: Ursprungserklaerung)가 필요하다.

○ 수입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수입 규제 품목

- 일반적 규제: 국제 조약, 협정(GATT 또는 EU의 Roma 조약 등)에 의한 것

- 공공질서 유지 차원: 무기, 탄약, 화학무기 제조를 위한 화학물질, 폭발물, 방사성 물질, 청소년 유해 및 위원 서적 또는 미디어 등

- 환경보호 차원: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오존층 파괴 물질(불소화가스 등), 살생물제(살충제), 유독 화학물질(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 수은혼합물, 폭발물, 화학 무기 제조를 위한 화학 물질 등)

- 건강보호 차원: 화장품, 담배류, 식품류, 와인, 유기농제품, 의약품, 마취제 등

- 이 외 동물, 식물, 지적재산권 보호, 문화재 보호 차원의 수입 제품

3) 2021년 7월 1일 신규 시행 전자 상거래 관련 규정

○ 22유로 이하 물품 수입/배송 시 적용되던 소액면세 규정이 2021년 7월 1일부로 폐지됨, 이에 따라 150유로 이하(배송료도 포함)의 물품 배송에도 부가세 적용

- 150유로 미만의 물품은 수입 관세는 면제이지만, 부가세와 물품세(소비세)는 적용
- 150유로 이상의 물품은 수입 관세 및 부가세와 물품세(소비세) 적용
- * 부가세는 품목에 따라 19% 또는 7% 적용/ 물품세(소비세)는 담배, 주류, 향수 등에 붙는 특별 소비세임
- o 또한 이와 관련해 소액 물품 역시 2021년 7월 1일부터 전자 세관 신고*의무화
 - 독일의 경우 www.zoll-portal.de 상 ATLAS 시스템, 특히 150 유로 이하의 소액 물품 배송 시 ATLAS-IMPOST(2022년 1월 부 오
 픈하여 운영 중)
 - 개인 이용은 자유이며, 기존과 같이 DHL 등 배송업체가 대신 신고 가능(대행 수수료는 배송업체 약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문의
 요망)

다. 주요 포워딩 업체 및 통관업체

o CJ 대한통운(주) 독일법인 CJ Logistics Europe GmbH

주소	Isarstrasse 4 , 65451 Kelsterbach
전화번호	+49-17-3308-5122
이메일	sk.park1@cj.net
홈페이지	https://www.cjlogistics.com/en/network/en-de

o 에이치앤 프렌즈 H and Friends GTL

주소	Cargo City Sued, Geb. 648F, 60549 Frankfurt am Main
전화번호	+49 (0)69 6959 2129
이메일	fra@hnfriends.com
홈페이지	http://www.hnfriends.com
비고	문의접수 : http://www.hnfriends.com/user/action/contactForm.do

o 판토스 Pantos Logistics Germany GmbH

주소	Waldecker Str. 6-12, 64546 Moerfelden-Walldorf, Germany
전화번호	+49-6105-4053-0
이메일	joel.chang@lxpantos.com(독일지사 담당)
홈페이지	https://www.lxpantos.com/kr/company/global-networks/europe.do

o IMPEX GLS GmbH

주소	Am Gruenen Weg 2a, 65451 Kelsterbach, Germany
----	---

전화번호	+49 (0)6107 7576 00
이메일	fra@impexgls.de
홈페이지	http://www.impexgls.com/Networks/Europe.aspx
비고	함부르크 지점 : Alter Fischmarkt 1, 20457 Hamburg, +49 (0)40 2483 566, ham@impexgls.de

◦ 카고킹 Cargo King GmbH

주소	Werrastr. 6, 65479 Raunheim, Germany
전화번호	+49 (0)6142 87389220
이메일	Account.de@cargoking.eu
홈페이지	http://cargoking.eu/
비고	함부르크 지점 : Chilehaus A. Fischerwiete 2, Hamburg, Germany, +49 (0)40 3200 5134, sesil.kim@cargoking.eu

◦ 퀴네앤드나겔 KUEHNE + NAGEL

주소	Cargo City Sued, Gebaeude 554, 60549 Frankfurt am Main, Germany
전화번호	+49 (0)69 40040
이메일	knham.empfang@kuehne-nagel.com
홈페이지	https://de.kuehne-nagel.com/de_de/
비고	https://de.kuehne-nagel.com/de_de/ https://kr.kuehne-nagel.com 홈페이지에서 이메일 문의 가능

◦ 유수로지스틱스 EUSU Logistics B.V. Germany

주소	Fasanenweg 10, 65451 Kelsterbach, Germany
전화번호	+49 (0)6107 989 8380
이메일	csgermany@eusu-logistics.com
홈페이지	http://www.eusu-logistics.com

◦ 월드 아시아 로지스틱 World Asia Logistics, Inc

주소	Cargo City Sued, Geb. 644, 60549 Frankfurt Flughafen, Germany
전화번호	+49 (0)69 653 0020

이메일	dong.lee@myworldasia.com(대표), jy.jung@myworldasia.
홈페이지	http://www.myworldasia.com/
비고	함부르크 지점 : Suederstrasse 63, 20097 Hamburg, Germany, +49 (0)40 2380 5870, ham@myworldasia.com

◦ Atlantic Integrated Freight GmbH(A.I.F.)

주소	Am Prime Parc 13, 64579 Raunheim, Germany
전화번호	+49 (0)6142 60370
이메일	davidcho@atlanticif.com
홈페이지	http://aifcompany.com/
비고	함부르크 지점 : Burchardstraße 19-21, 20095 Hamburg, Germany, +49 40 548 0460, seanham@atlanticif.com

◦ 리 글로벌 로지스틱 LEE Global Logistics GmbH

주소	Cargo City South Bldg 537F 1st Floor, Room 1,026 - 1,030 60549 Frankfurt am Main, Germany
전화번호	+49(0) 69 69 76 994 11
이메일	info@lee-global.com
홈페이지	https://www.lee-global.com/

◦ 센토스 CENTOS Central Logistics GmbH

주소	Karl-Ferdinand-Braun-Str. 16, 21423 Winsen(Luhe), Germany
전화번호	+49 (0)4171 59450
이메일	info@centos.com
홈페이지	https://www.centos.com

◦ DK Europe GmbH

주소	Max-Planck-Str.16, 63303 Dreieich, Germany
전화번호	+49 (0)6103 995 8887
이메일	info@dk-networks.de
홈페이지	http://www.dk-networks.de

○ 롯데 글로벌 로지스 독일법인 LOTTE Global Logistics.Germany GmbH

주소	Seinestr.2, 65479 Raunheim, Germany
전화번호	+49 (0)6142 8739 794
이메일	yhkim2@lotte.net
홈페이지	https://www.lotteglogis.com/home/business/logistics/international
비고	함부르크 지점 : Deichstrasse 48-50, 20459 Hamburg, Germany, +49-40-285-305-09-1, glen.kang@lotte.net

<자료원 :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및 각 업체 홈페이지 및 개별 유선 확인>

III. 투자

1. 투자환경

가. 투자유치제도

외국인투자법

- 독일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은 국내 기업과 동일한 대우를 받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촉진법과 같은 특별한 투자 법규는 존재하지 않는다.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별도의 등록제도를 운영하지 않으며, 이익잉여금 투자에 대한 별도의 신고제도도 없다.
- 단, 독일의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도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투자기업 유치에는 매우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 및 각 지방정부 차원에서 내외국인 투자가 구별 없이, 지역경제 구조개선을 위한 현금지원, 저리 대출 등의 인센티브는 부여하고 있다.
- 독일 정부의 투자지원 정책은 제조업 및 특정 서비스 산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현재 글로벌 경제 및 정치 상황에 맞춰, 보다 안정적인 원자재 및 에너지 공급을 구축하기 위한 산업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다.

투자인센티브

독일에서는 기본적으로 외국인 투자자와 내국인 투자자는 동등한 대우를 받으므로 국내외 기업 구분 없이 투자기업에 대한 아래와 같이 일반적인 지원사항을 적용 받을 수 있다.

1) 현금지원제도

- '지역 경제구조 개선을 위한 공동과제'(이하: GRW) 프로그램은 지역 불균형을 감소시키고 낙후된 지역경제를 전국적으로 균등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1969년 처음 도입된 연방 차원의 지원프로그램이며, 현재 프로그램은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 인센티브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독일 동부지역 소기업에 대해 지출의 최대 45%, 대기업은 25%의 보조금을 제공한다. 이에 비해 서부지역은 소기업의 경우 최대 35%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 주 관할기관은 연방 주 정부 산하 투자 지원기관 및 연방주 지원기관이며, 산하 연방주 및 도시별 투자지원기관과의 밀접한 연계 하에 각종 지원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 인센티브 신청 대상기업은 GRW프로그램이 지원하는 산업과 투자형태를 확인하고, 프로젝트 시작전에 신청해야 한다.
- GRW보조금은 공공대출이나 보증과 같은 다른 자금 조달 방법과 결합될 수 있으나, 전체 투자금액의 25% 자체(또는 외부) 자금을 활용한 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
- 보조금은 실제투자비용(부동산 또는 기계), 향후 2년간 지출 예상되는 임금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 투자프로젝트는 기본적으로 신규 또는 기존시설의 확장, 생산다각화, 공정변경 등이며, 폐업위기의 기업 인수의 경우도 조건에 따라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다.

2) 재정 지원 제도

- 연방 및 연방주 차원에서 공공 투자지원은행(KfW 은행 또는 각 연방주 Foerderbank)을 통한 저리대출 지원도 이뤄지고 있다. 유럽투자은행(EIB) 역시 독일을 포함한 유럽 내 투자자를 위한 매력적인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 독일 내 해외 투자기업도 독일기업과 동일하게 이러한 투자지원은행의 대출 신청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출 이자는 시장 내 평균 수준을 밑돈다.

- KfW는 독일연방공화국의 국가운영개발은행으로, 다양한 대출프로그램, 메자닌 투자등을 운영하고 있다,
- 주정부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개발은행의 경우에는 스타트업, 성장기업등에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
- 유럽투자은행은 민간은행과 협력하여, 경제, 기술, 환경, 금융등의 분야에 경제적으로 열악한 EU내 지역의 투자프로젝트에 대해, 저금리, 장기 대출을 시행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EIB는 총 프로젝트 비용의 최대 50% 대출까지 가능하다.

○ 공공보증 프로그램(Public Guarantees)도 상업은행뿐만 아니라 공공은행(Public Bank)이 신규로 설립되는 기업에 대출을 제공하도록 마련된 금융 제도이다.

- 동 프로그램은 필요한 자금, 기업규모 및 투자 지역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투자프로젝트 시행을 위한 자금조달 또는 기업 유동자금 대출을 위해 신청할 수 있다.
- 만기는 일반적으로 15년(자금 대출) 또는 8년(기업 유동 자금대출)이며, 대출 기간 고정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 독일 연방 공공개발은행은 중소기업에 대한 최대 125만유로의 보증을 발행하며, 개별 주정부의 공공보증은 대출금액의 최대 80%까지 가능하다.
- 은행을 통해 투자전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국가보증위원회가 심사를 진행한다.

○ 국내외 기업을 막론하고 독일 내에 진행되는 프로젝트에 대해 각종 fund와 자본금투자도 이루어지고 있다.

- KfW는 경제개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High-Tech Gründerfonds (HTGF - "High-Tech Start-up Fund")를 통해 기술주도형 스타트업등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기업당 최대 200만유로를 투자하고 있다.
- 또한 KfW의 Coparion GmbH & Co. KG를 통해서도 초기단계의 혁신기업에 최대 1천만유로의 자금을 직접 투자하고 있다.
- 연방정부 차원의 공공 VC는 ICT, 생명과학, 신소재 개발과 관련된 혁신 스타업에 기업별로 최대 5백만유로를 투자하고 있다.
- 중견기업의 추가투자를 위해서는 Mittelständische Beteiligungsgesellschaften (MBGs - "Public-Private Equity Companies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3) 투자유치지원기관을 통한 투자자 지원

○ Germany Trade and Invest(독일무역투자청, 이하 GTAI)

- GTAI는 2009년 1월 1일 설립된 독일의 무역투자진흥기관(TPO 및 IPO)이다.
- 본사를 베를린과 본에 두고 있으며, 한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 50개의 지점을 보유하고 있다. GTAI는 세계 92여 개국에 약 140개의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독일 해외 상공회의소(AHK: Auslandshandelskammer, German Chambers of Commerce and Industry)를 비롯한 정부기관 및 기타 관련 기관 등과의 밀접한 협력 속에 잠재 투자자 및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이를 초기부터 지원하는 투자유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투자유치 업무에 경우 크게 프로젝트 관리 지원(시장 및 사업 잠재력 분석, 시장진입 전략 기획 지원, 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 투자 입지 자문(투자입지 물색, 비용분석, 입지실사 지원 등) 및 정착 서비스(프로젝트 관련 법률 및 회계 이슈 설명, 자금조달 및 인센티브 상담 지원 등) 등으로 분류되는데, 산업별로 투자 기업에 대한 개별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상담을 원할 경우 아래 사이트에서 간단한 기업 정보를 작성해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신청 홈페이지: <https://www.gtai.de/gtai-en/meta/contact>

- 독일의 연방주를 비롯한 각 지자체는 개별적으로 투자유치활동을 하고 있으며, 지자체 중에는 별도 경제 개발 공사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GTAI를 통해 투자 수요가 접수될 경우, 동 기관이 가장 적합한 지자체를 선정, 연락을 취하면 지자체는 투자자의 요청에 맞는 서비스 및 지원을 제공하는 등 상호 유기적인 협력 관계 유지하고 있다.

○ Hessen Trade&Invest (헤센 연방주 무역투자청, 이하 HTAI)

- 헤센 무역투자진흥기관인 Hessen Trade&Invest(헤센 연방주 무역투자청, HTAI)는 2012년 11월 설립되었다.
- 독일 헤센 주 수도인 비스바덴(Wiesbaden)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GTAI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하여 헤센지역에 관심있는 투자자에게 맞춤형 투자입지 정보 제공, 투자입지 방문 및 각종 허가 절차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이 기관은 헤센주 경제지표 현황이나 시장 정보를 제공하며, 상업용 부지, 조세, 체류 또는 노동법 관련 자문을 하며 금융지원프로그램을 상담하는 등 다양한 법인설립 및 정착 서비스를 제공한다.
- 이 외 HTAI는 독일 또는 해외 전시회에 참여하여 공동부스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연방 정부나 기관, 기업, 협회, 경제단체 등과의 네트워크도 중개하고 있다.

제한 및 금지(업종)

독일은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해 개방적이며, 독일의 대외 경제법(Außenwirtschaftsgesetz) 및 대외 경제령(Außenwirtschaftsverordnung)에 따라서 대외 무역 및 지불 거래의 자유 원칙을 지지한다. 다만, 독일 연방 정부는 독일기업 인수 과정에서 독과점 위반 또는 EU 및 EFTA지역 이외의 외국인투자가가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를 저해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거래를 심사 및 제한할 수 있다.

1) 대외경제령(AWV) 개정을 통한 외국인 직접투자 제한

- 독일 정부는 2021년 4월27일 17번째 수정안이 연방내각에서 채택되어, 6월 23일 발효되었다.
- 코로나 초기확산 당시(2020년 4월) 보건부문을 중심으로 백신 및 항생제 제조, 의료장비, 고전염성 질병치료제 제조업체가 "안전"관련 기업목록에 추가되었으며, 이들 기업에 대한 20% 이상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인수할 경우에는 Ministry of Economic Affairs and Climate Action (BMWK)에 보고해야 한다.
- 2021년 6월에는 첨단미래기술부문의 투자에 대한 새로운 보고 의무가 포함되었는데, 인공지능, 반도체, 양자기술, 항공우주, 로봇, 자율주행 및 원자력 등 관련 기술 부문이다.
- 보안 인프라 관련 10% 이상의 주식을 취득할 경우 등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보고 의무가 확대되었다.
- 군사 장비 관련 기업 인수와 관련해서는 특히 민감하게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2) 독과점 방지를 위한 투자제한

- 독일 경쟁제한방지법(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änkungen)은 독일기업 인수 시 독과점 방지를 위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내외국인 투자자를 구분하지 않는다.
- 동 법에 따라 50% 이상의 자산 또는 25% 이상의 의결권 획득 등으로 매수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른 기업에 대해 중대한 경쟁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인수합병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경제적 규모가 아래 기준보다 높을 경우 독과점 방지를 위한 조사가 진행된다.
- 인수합병에 참여하는 기업의 인수합병 전년도 글로벌 매출이 5억 유로 이상이며, 참여하는 기업 중 한 기업이 독일에서 5,000만 유로 이상의 매출, 두번째 참여기업이 1,750만 유로의 매출을 달성했을 경우, 또는
- 상기 조건을 충족하고, 인수금액이 4억 유로 이상이며, 인수기업이 독일에서 중점적으로 사업을 진행했을 경우
- 기본적으로 인수합병에 참여하는 기업은 독과점 위반 여부에 대해 독일 연방 카르텔청(Bundeskartellamt)에 사전 신고의무가 있으며, 매각대상 기업도 50% 이상의 자산, 25% 이상의 의결권 또는 중대한 기업 자산을 매각할 시 사전 신고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 독일 연방 카르텔청은 인수합병 조사를 신청한 기업의 신청서를 접수한 후 1개월 내 독과점 조사 시행을 통보하고, 신고된 인수합병에 대하여 독일 경쟁제한방지법에 따라 인수합병을 금지할 수 있다. 심사 결과는 신청서가 접수된 후 5개월 내 신청 기업에 전달되며 5개월이 지난 경우 통보가 없으면 해당 인수합병건은 승인된 것으로 간주된다.

나. 투자입지여건

특별경제구역 및 자유무역지대

해당내역 없음

산업단지

◦ Hamburg Aviation

위치	함부르크(Hamburg)
관할기관 및 연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화 : +49 (0)40 22701928 ◦ 홈페이지 : www.hamburg-aviation.de ◦ 이메일 : info@hamburg-aviation.com

◦ Digital Hub Logistics

위치	도르트문트(Dortmund)
관할기관 및 연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화 : +49 (0)231 70096503 ◦ 홈페이지 : www.digitalhublogistics.de ◦ 이메일 : info@digitalhublogistics.de

◦ Software-Cluster

위치	다름슈타트(Darmstadt)
관할기관 및 연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화 : +49 (0)681 857755271 ◦ 홈페이지 : software-cluster.org ◦ 이메일 : Tilman.Becker@dfki.de, fabian.biegel@sap.com

◦ Ci3, Cluster for Individualized Immune Intervention (Ci3) e.V.

위치	마인츠(Mainz)
관할기관 및 연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화 : +49 (0)6131 5019322 ◦ 홈페이지 : www.ci-3.de ◦ 이메일 : mail@ci-3.de

◦ Medical Valley EMN

위치	에얼랑엔(Erlangen)
관할기관 및 연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화 : +49 (0)9131 916170 ◦ 홈페이지 : www.medical-valley-emn.de ◦ 이메일 : team@medical-valley-emn.de

◦ Muenchner Biotech Cluster

위치	뮌헨(Muenchen)
관할기관 및 연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화 : +49 (0)89 8996790 ◦ 홈페이지 : www.bio-m.org ◦ 이메일 : info@bio-m.org

◦ MAI Carbon

위치	아우크스부르크(Augsburg)
관할기관 및 연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화 : +49 (0)821 2684110 ◦ 홈페이지 : composites-united.com ◦ 이메일 : info@composites-united.com

◦ Eletromobilitaet Sued West

위치	슈투트가르트(Stuttgart)
관할기관 및 연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화: +49 (0)711 8923850 ◦ 홈페이지 : www.emobil-sw.de ◦ 이메일 : esw-cluster@e-mobilbw.de

〈자료원 : 각 산업단지 공식 홈페이지〉

주요 지역별 여건

◦ 메클렌부르크-포어폼머른(Mecklenburg-Vorpommern)

- 면적 : 23,295km²
- 인구 : 161만 명
- 주도 : 슈베린(Schwerin, www.schwerin.de)
- 공식 웹사이트 : www.mecklenburg-vorpommern.de
- 주요 산업 : 농업, 기계, 에너지 기술, 식품 및 생명공학, 의료기기, 항공 및 우주 분야 등에 우수기술 보유
- 특이사항
 - 2022년 GDP는 약 534억 유로로 독일 전체 GDP의 1.4% 차지
 - 가장 인구밀도가 적고 산업이 적은 독일 주 중 하나
 - 실업률 : 7.8% (2023년 4월 기준)

◦ 니더작센(Niedersachsen)

- 면적 : 47,710km²
- 인구 : 800만 명
- 주도 : 하노버(Hannover, www.hannover.de)
- 공식 웹사이트 : www.niedersachsen.de
- 주요 기관 : 연방 물리기술 센터
- 주요 산업 : 자동차(폴크스바겐, 콘티넨탈), 철강(잘츠기터), 화학, 식품, 기계, 전시회
- 외국 기업 : Solvay(벨기에), Tulip Food(덴마크), Baker Hughes(미국) 등
- 특이사항
 - 2022년 GDP는 약 3,394억 유로로 독일 전체 GDP의 8.8% 차지
 - 실업률 : 5.7% (2023년 4월 기준)
 - 독일에서 두 번째로 면적이 큰 연방 주이며, 세계 최대 전시장인 하노버 전시장에서 매년 20만명 이상이 참여하는 '하노버 전시회(Hannover Messe)'를 개최(2021년은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 개최)

◦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ordrhein Westfalen)

- 면적 : 34,112km²
- 인구 : 1,793만 명
- 수도 : 뒤셀도르프(Duesseldorf, www.duesseldorf.de)
- 공식 웹사이트 : www.land.nrw
- 주요 산업 : 기계, 자동차(포드, 오펠, 님러), 전자, 화학(바이어 등), 에너지(EON, 솔라월드), 철강(튀센크루프)
- 세계 100위 기업 중 4개 기업(EON, 메트로, 도이체 텔레콤, 알디)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에 본사를 두고 있음.
- 그외 주요 외국 기업: Toyota(일본), Ford(미국), UPS(미국), Vodafone(영국), 3M(미국), Citroen(프랑스) 등
- 특이사항
 - 2022년 GDP는 약 7,938억 유로로 독일 총 GDP의 20.5% 차지

- 실업률 : 7.2% (2023년 4월 기준)
- 인구 최고 밀집지역, 독일에서 최대로 인구가 많은 주로, 전통적으로 석탄, 철강산업의 중심지였으며 1960년대 후 사양길에 접어든 후 위기에 빠졌으나 기계, 자동차 산업 등의 발전으로 다시 회복 중

○ 라인란트-팔츠(Rheinland Pfalz)

- 면적 : 19,858km²
- 인구 : 410만 명
- 수도 : 마인츠(Mainz, www.mainz.de)
- 공식 웹사이트 : <https://www.rlp.de>
- 주요 산업 : 화학/제약(BASF, 뵘링어잉겔하임), 주류(포도주), 자동차(다임러, 오펔), 식품(비트부르거, 그리손)
- 외국 기업 : Novo Nordisk(덴마크), Kimberly-Clark(미국), BorgWarner Turbo Systems(미국) 등
- 특이사항
 - 2022년 GDP는 약 1,717억 유로로 독일 총 GDP의 4.4% 차지
 - 실업률 : 4.9% (2023년 4월 기준)
 - 중소/중견기업이 많고 GDP 대비 수출이 46%로 독일에서 가장 높은 편임
 - 리슬링 등 화이트 와인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함

○ 자르란트(Saarland)

- 면적 : 2,572km²
- 인구 : 98만 명
- 주도 : 자르브뤼켄(Saarbruecken, www.saarbruecken.de)
- 공식 웹사이트 : www.saarland.de
- 주요 산업 : 자동차부품, 철강, 세라믹, 컴퓨터공학
- 외국 기업 : Michelin(프랑스), 한국과학기술연구원(한국) 등
- 특이사항
 - 2022년 GDP는 385억 유로로 독일 총 GDP의 1% 차지
 - 실업률 : 6.8% (2023년 4월 기준)
 - 역사적으로 프랑스와 독일의 지배를 번갈아 받았고, 1957년 국민투표를 통해 독일에 합류할 것을 결정
 - 독일에서 가장 작은 연방 주 중에 하나

○ 작센(Sachsen)

- 면적 : 18,450km²
- 인구 : 404만 명
- 주도 : 드레스덴(Dresden, www.dresden.de)
- 공식 웹사이트 : www.sachsen.de
- 주요 산업 : 자동차(폴크스바겐), 기계, 전자, 출판(라이프치히)
- 외국 기업 : Dow Chemical(미국), Hitachi Automotive Systems(일본), Transcom (룩셈부르크), Magnetto Automotive(이탈리아)
- 특이사항
 - 2022년 GDP는 1,465억 유로로 독일 총 GDP의 3.8% 차지
 - 실업률 : 6.2% (2023년 4월 기준)
 - 구(舊) 동독지역이면서도 외국투자유치가 활발하고 산업화된 지역임
 - 독일 정부에서 라이프치히, 드레스덴 지역을 주로 개발해 인근 지역이 구 동독지역에서 가장 부유함
 - 구 동독지역 중 가장 인구밀도가 높으며, 교통 인프라가 발달해 있어 철도역에서 15km 이상 떨어진 마을이 거의 없음

○ 작센-안할트(Sachsen Anhalt)

- 면적 : 20,464km²
- 인구 : 217만 명
- 주도 : 막데부르크(Magdeburg, www.magdeburg.de)
- 공식 웹사이트 : www.sachsen-anhalt.de
- 주요 산업 : 화학, 기계, 식품, 관광, 생물공학 등
- 외국 기업 : Solvay Chemicals(벨기에), Polytec Plastics(호주), Hanwha Q Cells(한국), Coil Aluminium(벨기에)
- 특이사항
 - 2022년 GDP는 754억 유로로 독일 총 GDP의 2% 차지
 - 동독 시절, 화학기업들이 90년 이후 파산하면서 실업률이 21%까지 증가했으나, 2010년대 경제 발전을 통해 실업률 7.6% (2023년 4월 기준)까지 떨어짐
 - 그러나 아직도 독일에서 가장 가난한 주 중 하나이며, 1990년대 이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함. 작센 안할트 주의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까지 동 주의 인구가 30%까지 감소될 가능성도 있음

○ 슐레스비히-홀슈타인(Schleswig Holstein)

- 면적 : 15,804km²
- 인구 : 292만 명
- 주도 : 킬(Kiel, www.kiel.de)
- 공식 웹사이트 : www.schleswig-holstein.de
- 주요 산업 : 관광업, 농업, 해운
- 특이사항
 - 2022년 GDP는 약 1,128억 유로로 독일 총 GDP의 2.9% 차지
 - 실업률 : 5.6% (2023년 4월 기준)
 - 구 서독지역에서 가장 경제가 약한 주 중 하나로, 함부르크 인구를 제외한 분야에는 산업이 적으며 농업, 관광업이 발달되어 있음

○ 튀링엔 (Thuringen)

- 면적 : 16,202km²
- 인구 : 211만 명
- 주도 : 에어푸르트 (Erfurt, www.erfurt.de)
- 공식 웹사이트 : www.thuringen.de
- 투자입지 정보 : <http://www.invest-in-thuringia.de/en>
- 주요 산업 : 정밀기기(카를 차이스, 옌옵틱), 자동차부품(보쉬), 식품, 전기/전자, 유리
- 특이사항
 - 2022년 GDP는 약 714억 유로로 독일 총 GDP의 1.8% 차지
 - 구 동독지역 중 가장 발달한 주로 실업률은 5.9% (2023년 4월 기준)

○ 바덴-뷔르템베르크(Baden Wuerttemberg)

- 면적 : 35,748km²
- 인구 : 1,112만 명
- 주도 : 슈투트가르트(Stuttgart, www.stuttgart.de)
- 주요 기관 : 연방 대법원과 연방 헌법재판소(칼스루에 소재)
- 주요 산업 : 자동차(다임러, 포르세, 보쉬), 기계(트롬프, 페스토, 보이트 등) 정유 산업(Karlsruhe), 소프트웨어 (SAP) 등
- 특이사항
 - 2022년 GDP는 5,728억 유로로 독일 총 GDP의 14.8% 차지
 - 바이에른과 포함하여 경제 수준이 가장 높고 가장 발달
 - 실업률 : 3.8% (2023년 4월 기준)
 - 칼스루에 대학을 중심으로 다수의 자동차/자동차부품 산업 클러스터가 소재

○ 바이에른(Bayern)

- 면적 : 70,542km²
- 인구 : 1,318만 명
- 주도 : 뮌헨(Muenchen, www.muenchen.de)
- 주요 산업 : 자동차(BMW, 아우디, MAN 등), IT(지멘스, 마이크로소프트, 인피니온 등), 국방산업(EADS, 크라우스-마파이 등), 관광(알프스의 산악지대, 구릉 지대, 호수, 독일 최초의 국립공원)
- 외국기업 : 외국 기업 Adobe(미국), Microsoft(미국), Johnson Controls(미국), Faurecia(프랑스), Fujitsu(일본) 등 진출
- 특이사항
 - 2022년 GDP는 약 7,168억 유로로 독일 총 GDP의 18.5% 차지
 - 경제 수준이 가장 높고 가장 발달하였으며 실업률은 3.3% (2023년 4월 기준)로 독일 연방주 중 가장 낮은 수치 기록
 - 독일 1,000대 기업 중 200여 개가 바이에른에 소재하는 등 독일에서 경제가 가장 발달
 - 바이에른의 주도인 뮌헨 물가는 독일에서 가장 높은 수준임
 - 가장 늦게 독일 제국에 합류하는 등(1871년) 전통 문화, 음식, 의복 등에 대한 프라이드가 강함, 세계 최대의 맥주 축제인 Oktoberfest 10월 개최(뮌헨)

○ 베를린(Berlin)

- 면적 : 891km²
- 인구 : 368만 명
- 주도 : 베를린(Berlin, www.berlin.de)
- 주요 기관 : 연방의회(Bundestag 및 연방정부(Bundesregierung))
- 주요 산업 : 스타트업(잘란도, 로켓인터넷 등), 미디어(악셀슈프링어), 관광, 정보통신, 운송 시스템 발달
- 외국 기업 : Vattenfall(스웨덴), Philip Morris(미국) 등 진출
- 특이사항

- 2022년 GDP는 1,794억 유로로 독일 총 GDP의 4.6% 차지
- 실업률 : 9.2% (2023년 4월 기준)
- 유럽 스타트업의 허브 중 하나인 베를린에는 스타트업 커뮤니티가 매우 잘 형성돼 있으며, 잘란도, 로켓인터넷, 헬로프레쉬, N25, 오토 1 등 수많은 유니콘 기업이 베를린에서 창업

○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

- 면적 : 29,654km²
- 인구 : 254만 명
- 주도 : 포츠담(Potsdam, www.potsdam.de)
- 공식 웹사이트 : www.brandenburg.de
- 주요 산업 : 농업, 강철, 풍력, 바이오 등
- 특이사항
 - 2022년 GDP는 888억 유로로 독일 총 GDP의 2.3% 차지
 - 실업률 : 5.9% (2023년 4월 기준)
 - 과거 농업 및 철강 등을 주로 생산했으나, 최근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변모. 포츠담 지역에는 바이오 기업 160개가 소재하고 있어 유럽 최대 바이오클러스터 중 하나임.

○ 브레멘(Bremen)

- 면적 : 419km²
- 인구 : 68만 명
- 주도 : 브레멘(Bremen, www.bremen.de)
- 주요 산업 : 해상교통, 항공/우주, 자동차, 식품, 전기, 철강 등
- 외국 기업 : Mondelez International(미국), Arcelor Mittal(룩셈부르크), Univeg (벨기에) 등
- 특이사항
 - 2022년 GDP는 387억 유로로 독일 총 GDP의 1% 차지
 - 실업률은 10.7% (2023년 4월 기준) 로 독일에서 제일 높음
 - 유럽 2개의 도시(Bremen, Bremerhaven)가 하나의 연방주 구성, 면적과 인구면에서 독일에서 가장 작은 연방주이며 경제 규모도 가장 작음

○ 함부르크(Hamburg)

- 면적 : 755km²
- 인구 : 185만 명
- 주도 : 함부르크(Hamburg)
- 웹사이트 : www.hamburg.de
- 주요 산업 : 조선, 정유, 수입가공무역, 항공/우주, 소비재 및 관광, 재생에너지, 생명과학 등 서비스 산업
- 외국 기업 : Airbus(프랑스), BP(네덜란드/영국), AstraZeneca(영국), Cosco(중국) 등
- 특이사항
 - 2022년 GDP는 1,442억 유로로 독일 총 GDP의 3.7% 차지
 - 실업률 : 7.3% (2023년 4월 기준)
 - 유럽에서 3번째로 큰 규모를 자랑하는 함부르크 항은 세계 20위의 컨테이너 항구 보유. 독일 1,000대 부자 중 92명이 함부르크에 사는 등 중세시대부터 무역을 통해 큰 부를 축적함

○ 헤센(Hessen)

- 면적 : 21,116km²
- 인구 : 630만 명
- 주도 : 비스바덴(Wiesbaden, www.wiesbaden.de)
- 공식 웹사이트 : www.hessen.de
- 주요 기관 : 유럽중앙은행, 독일중앙은행
- 주요 산업 : 금융, 화학/제약, 항공/철도, 자동차, 전기기기, 기계 등
- 외국 기업 : Sanofi(프랑스), Procter&Gamble(미국), Goodyear(미국), Hewlett-Packard(미국), Clariant(스위스), BNP Paribas(프랑스), Samsung Electronics(한국), Hyundai Motors(한국) 등
- 특이사항
 - 2022년 GDP는 약 3,234억 유로로 독일 총 GDP의 8.4% 차지
 - 실업률 : 5.2% (2023년 4월 기준)
 - 프랑크푸르트에 유럽 중앙은행이 위치하고 있고, 독일 최대 증권시장을 보유하고 있어 런던과 함께 유럽의 금융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음
 - 유럽 중앙부에 위치한 지리적 조건으로 중요한 교통의 중심지임
 - 유럽 항공화물 1위, 여객 3위 규모의 프랑크푸르트 공항 소재

· 삼성그룹, 현대그룹을 포함한 한국의 기업들이 특히 프랑크푸르트 지역에 유럽본부를 설립해 진출해 있으며, 1만 명 이상의 한국 교민들이 프랑크푸르트 인근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음

2. 외국인직접투자

가. 개요 및 동향

□ 독일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코로나 엔데믹 이후 활발한 외국인 투자를 기대한 것과는 달리, 러-우 사태, 에너지 가격 급등, 기록적인 인플레이션 등 불안정한 거시경제 상황으로 인해 2022년 독일의 외국인직접투자는 110.3억 달러로 저조한 성적을 보였다. 또한, OECD 외국인직접투자 지표에 따르면, 독일의 외국인직접투자는 2018년 719억 달러라는 기록적인 투자금액을 달성한 이후, 지난 몇 년 간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도 불구하고 독일에서는 주목할만한 투자 프로젝트들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2022년에는 미국의 인텔사의 막데부르크 (Magdeburg) 지역 반도체 생산시설에 대한 300억 유로 투자, 테슬라사의 베를린 인근 그윈하이데 지역 전기차 제조공장 기가팩토리 투자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2023년에는 성일하이텍-삼성물산의 합작법인이 튀링엔주 게라(Gera)에 배터리 재활용 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투자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현재 게라 시의회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 독일 해외직접투자 동향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잠시 주춤했던 독일 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최근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2023년 1분기 독일의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570억 달러로, 2022년 1분기 345억 달러 대비 200억 유로 이상 증가하였다. 또한, 이는 2020년의 연간 해외직접투자 규모인 505억 달러를 훨씬 웃도는 금액이다.

이는 독일 기업들이 불안정한 공급망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대외투자를 다각화하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독일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독일 기업들이 비교적 안정적인 제조업 수주량을 확보하고 있으나, 계속되는 러-우 사태 등으로 공급망 병목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기에 독일 정부는 수입 1위 교역국인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전 세계로 산업 공급망을 넓히기 위해 EU 집행위에 글로벌 게이트웨이(Global Gateway)*를 재촉하였으며, 총 20개의 등대 투자 프로젝트를 제안하였다. 독일 외무부에 따르면 글로벌 게이트웨이 프로젝트에서는 유럽 이외에도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 지역이 전략 지역으로 고려되고 있다.

* 글로벌 게이트웨이는 2021년 12월 EU 집행위가 중국의 '신실크로드(일대일로)' 전략에 대응 목적으로 발표하였으나, 그 이후 별다른 진전이 없다. 경기 회복 불확실성에 따른 투자 결정을 유보할 가능성도 증가하고 있다.

**자료: 한델스블라트 (Handelsblatt)

□ 독일의 대한민국 투자 동향

2022년 신고된 독일 기업의 대한민국 투자는 60건이었으며, 투자금액은 약 5억 달러에 이르렀다. 2023년 1분기에는 18건의 투자 및 1.4억 달러의 투자금액이 발생하였다. 최근 몇 년 간은 바이오 사업에 대한 독일 기업의 대한민국 투자가 증가하였는데, 대표적으로 사토리우스社 및 머크社의 투자를 예로 들 수 있다. 또한, 자동차 판매에 따른 금융 서비스 분야와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장비 기업 등의 투자도 계속되었다. 한편, 한국 정부의 정책변화에 따라 풍력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는 예상보다 부진함을 보이고 있다.

나. 대내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 대내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 독일 외국인직접투자 최신 동향

UNCTAD 통계에 따르면, 2022년 독일의 FDI 유입은 약 110억 달러로 2021년 464억 달러 대비 약 76% 감소하였다. 독일무역투자청 (GTAI: Germany Trade and Investment)에 따르면, 2022년에는 총 1,783개의 대독일 FDI 프로젝트가 수행되었으며, 유럽 내 불안정한 거시경제의 상황으로 2021년 대비 23건 감소하였다.

□ 국가별 투자현황

국가별 대독일 외국인 투자 동향을 살펴 보았을 때, 미국이 전년 254건 대비 25건 증가한 278건으로 가장 많은 투자 프로젝트를 수행하였으며, 스위스가 208건의 투자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그 뒤를 이었다. EU 회원국의 투자는 전년 대비 3% 감소하였고, 네덜란드가 111건, 프랑스가 96건의 대독일 투자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아시아 국가 중 대독일 최대 투자국은 141건의 프로젝트를 진행한 중국이며, 일본은 36건의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자료: EY, Standort Deutschland 2023

□ 산업별 투자현황

2022년에는 ICT 및 SW, 금융 서비스 분야에 외국인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ICT 및 커뮤니케이션 분야에 22%, 비즈니스 및 금융 서비스 분야에 21%, 그리고 소비재 분야에 8%의 투자가 발생하였으며, 투자금액의 15%가 R&D 활동에 사용되었다. 한편, 자동차 분야 및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전년 대비 투자가 감소하였다.

*자료: 독일무역투자청 (GTAI)

□ M&A 동향

PWC의 2022년 외국인 투자자의 대독일 M&A 활동 조사에 따르면, 2022년 독일 기업을 타겟으로 한 M&A 투자는 1,140건이었으며, 총 규모는 767억 유로로 집계되었다. 건수 면에서는 전년 1,286건 대비 11.4% 감소하였으며, 규모 면에서는 전년 1,048억 유로 대비 26.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 내 전쟁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불안정한 지정학적 및 거시경제학적 상황이 이러한 감소 추세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별 대독일 M&A 투자의건수 및 규모를 보았을 때, 2022년에는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이 주요 투자 국가로 떠올랐다. 예컨대 2022년 독일 기업을 타겟으로 한 미국의 M&A 투자는 총 221건(364억 유로)으로 건수 면에서 총 시장의 22.2%를 달성하며 10년 연속 부동의 1위를 차지하였고, 이를 이어 영국(111건), 네덜란드(86건), 프랑스(69건) 등의 순으로 대독일 M&A 투자가 이루어졌다. 동아시아 국가의 경우 중국이 20건을 달성하며 2022년 독일 M&A 총 투자 시장의 2%를 기록하였다.

대다수의 M&A 거래는 TMT(기술, 미디어, 통신 / Technologie, Medien und Telekommunikation)분야 및 산업 분야에서 이루어졌으며, 에너지 분야에서의 거래도 전년도에 비해 12건이 증가한 64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예컨대, 2022년 독일의 가장 큰 M&A 투자는 TMT분야에서 이루어졌는데, 미국의 브룩필드 어셋(Brookfield Asset)과 디지털 브릿지 그룹(DigitalBridge Group)이 도이체 텔레콤(Deutsche Telekom)의 자회사로 송신탑 부문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GD Tower를 107억 유로에 인수한 것이다. 또한, 독일 산업 인프라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2022 M&A 투자는 미국의 GPI(Global Infrastructure Partners)사와 아랍에미리트의 아부다비 투자청(ADIA)이 철도 물류 회사인 VTG 주식회사를 30억 유로에 인수한 것이다.

다른 국가에 비해 2022년 한국의 대독일 M&A 투자는 소극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한국 기업들의 이러한 소극적인 M&A 투자 행보는 비단 독일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은 한국 기업 M&A 건수가 주요 5개국(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의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한국 기업인 우리 코스메틱사가 KOTRA의 협조 하에 M&A 투자를 통하여 독일 기업인 L.A. Schmitt社를 성공적으로 인수하였다. 이러한 사례를 보았을 때, 한국 기업들의 투자가 다른 국가에 비해 소극적이기는 하지만, 우리 기업의 대독일 M&A 투자 관심은 여전하다고 볼 수 있다.

*자료: PWC - 2022 외국인 투자자 대독일 M&A 활동 조사

- 대내 외국인직접투자 현황표

(금액 : 백만\$)

2018	2019	2020	2021	2022
72022	52684	56204	46468	11053

<자료원 : UNCTAD Stat>

다. 대외 직접투자 현황

- 대외국 직접투자 현황

□ 독일 해외직접투자 최신 동향

UNCTAD 통계에 따르면, 2022년 독일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는 1,420억 달러로 2021년 대비 약 200억 달러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2020년에 비하면 약 3배 정도 증가한 수치이다.

한편, 독일 기업들이 경기 회복 불확실성에 따라 투자 결정을 유보할 가능성도 증가하고 있다. 독일 상공회의소(DIHK)와 독일 해외상공회의소(AHK)가 3,100여개 회사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기업의 1/3은 내년 자본 지출을 확대할 계획이긴 하지만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23%는 투자를 줄일 계획이라고 답하였다.

□ 국가별 해외직접투자 동향

독일은 공급망 측면에서의 근접성을 이유로 여전히 유럽 지역 내 투자를 선호하고 있다.

아시아에 대한 경기 전망은 다소 회의적이나 지속적으로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독일상의 3,100여 개 회사 대상 설문 결과, 중국을 제외한 APAC 지역에 대한 경기 전망은 22%가 긍정적인데 반해 31%는 경제가 냉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공급망 다각화를 위한 중국 대체 지역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미국 투자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유럽 시장에 대한 투자는 부분적으로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반면, 북미 시장은 낮은 에너지 가격과 기존 공급망의 활용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

중국의 경우에는 정책 불확실성으로 투자 감소를 예상하고 있다. 중국의 제로 코비드 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독일기업의 중국 투자는 영향을 받았으며, 중국 내 독일 기업의 28%가 중국 내 사업을 확장을 기대하고, 23%는 사업규모를 줄일 계획이라고 답하였다. 실제로 2022년 초 중국 내 독일 기업의 1/3이 투자를 늘리겠다고 했으나, 약 1/5(22%)정도 만이 투자를 늘렸다. 2023년에도 투자예산을 늘리

는 데는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 자료: AHK World Business Outlook Herbst 2022, based on a survey of more than 3100 companies

□ 산업별 해외직접투자 동향

독일의 핵심산업인 기계공학, 자동차 산업에 대한 투자는 계속되고 있다. 독일상의 조사에 따르면, 에너지 및 원자재 비용상승으로 인해 이들 산업에 대한 해외 투자에 긍정적이며, 전기전자 분야도 해외투자에 적극적이다. 산업 전반적으로 미국 투자에 주목하고 있는데, 엔지니어링 및 플랜트 건설, 화학, 제약 업체들은 ICT 회사와 마찬가지로 미국 시장 진출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향후 경기 침체에 따른 산업 전반에 투자 감소 우려도 있는데, 독일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도 설비투자는 0.6% 증가하기는 했으나, 러·우 사태로 인한 투자 둔화는 지속될 수 있다. 실제로 기업들의 투자계획 또한 연기되거나 중단되고 있는데, 쾰른(Kln)에 소재한 화학기업 란세스(Lanxess)는 독일 공장을 확장하기 위한 투자를 포기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배터리 전문기업 바르타(Varta) 역시 투자를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으며, 플라스틱 제조기업 코베스트로(Covestro)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연기하였다.

- 대외 직접투자 현황표

(금액 : 백만\$)

2018	2019	2020	2021	2022
97117	151078	50625	165178	142980

<자료원 : UNCTAD Stat>

3. 한국기업 투자

가. 한국기업 투자 통계

- 한국기업투자 현황

○ 한국의 대독일 투자 일반 현황 및 특징

우리나라 기업의 대독일 투자는 1990년을 기점으로 활발해졌으며, 주로 연락사무소나 유한책임회사(GmbH) 등의 현지 법인 진출의 유형을 띠고 있다. 특히 한국 기업은 주로 지리적으로 유럽 시장 공략에 유리한 독일을 중심으로 판매 및 영업 거점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지리적인 이점 외에도 독일이 유럽 내에서 최대의 시장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왕래가 간편하고 현지 유학생 및 교포 수가 많은 관계로 업무처리에 필요한 고급 인력(독일어, 영어 및 한국어 구사 인력 등)을 보다 수월하게 채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독일 진출 중소기업은 주로 연락 사무소의 형태로 출발하여, 현지 정착 3~4년 후 법인으로 변경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대기업의 경우 주로 유한책임회사(GmbH)를 중심으로 한 법인 설립을 선호하고 있다. 대독일 그린 필드형 투자는 거의 전무한 실정으로, 이는 독일이 판매시장, 연구소 설립 등을 위해서는 좋은 입지조건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높은 인건비 및 세금 등으로 인해 생산시설 설립에는 불리한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다른 외국기업의 경우에도 판매 및 영업본부는 독일과 같은 서유럽에, 생산시설은 폴란드와 같은 동유럽 두는 경우가 많다.

한편, 우리 기업의 대독일 M&A 투자 진출 역시 비교적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022년에는 우리코스메틱社가 코트라 글로벌 M&A 지원 사업을 통하여 독일 기업인 L.A. Schmitt社를 성공적으로 인수한 사례가 있다.

최근 몇 년간 독일에서는 국내 소규모의 중소기업과 개인의 투자가 활발해지고 있는 추세이며, 투자진출 분야 역시 다양해지는 경향을 띠고 있다. 이제까지 우리 기업의 대독일 투자는 주로 자동차 부품, 화학, 기계, 의료기기 등 제조업 분야를 중점으로 활발히 진행되었으나, 최근에는 점차 첨단기술, 전자정보통신, 금융 분야로 투자가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예컨대 2022년에는 자율주행 기술 A사, 반도체 설계 B사, 그리고 인공지능 기반 자율 비행 기술 스타트업 C사 등이 독일에 진출하였다.

또한, 독일과 EU의 기술 개발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업 및 기관의 연구소 설립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예컨대 2023년에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이 독일에 지사를 개소하여 의료기기 CE 인증 대응과 더불어 동물대체시험법 개발을 연구하면서 우리 기업의 대독일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 우리 기업 투자 통계 현황

1980년~2023년 상반기 누계 기준 대독일 투자기업 수는 총 869개이며, 총투자 규모는 78억 달러이다. 2023년 상반기 신규 투자 신고 건수는 100건, 신규 법인은 15개사, 투자 규모는 2억 4,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독일 정부의 코로나 엔데믹 선언 이후 2023년 우리 기업의 투자신고 건수 및 신규설립 법인 수도 전년 대비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 한국기업투자 통계표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연도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2021	169	32	411,092	196	353,701
2022	218	45	518,588	222	508,548

2023	100	15	229,541	111	239,989
------	-----	----	---------	-----	---------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2023년 6월 누계)>

나. 업종별 투자 동향

- 업종별 투자 동향

○ 업종별 직접 투자 동향

한국 기업의 주요 업종별 대독일 투자 (누계) 신규 법인 수는 2023년 상반기 기준 총 869개이고, 도매 및 소매업에는 307개의 법인, 제조업에는 302개의 법인이 종사하며 두 업종이 선두를 차지하고 있다. 2023년 상반기 신규 투자 건수에 있어서는 도매 및 소매업의 비중이 총투자의 46%(7건)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이어 제조업이 20%(3건)을 차지하였다.

최근 몇 년간은 제조업과 도매 및 소매업과 같은 전통적인 업종 외에도 전자정보통신 및 첨단기술업(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으로 신규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2020~2023년 상반기 누계 기준,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21건의 신규 투자가, 첨단기술 분야에서는 9건의 신규 투자가 이루어졌다. 또한, 산업 간 컨버전스 활성화로 인하여 해당 분야에서의 신규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업종별 투자 동향표

- 2021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제조업	105	10	144,275	117	80,711
도매 및 소매업	30	12	19,076	29	18,957
운수 및 창고업	1	0	149	0	0
숙박 및 음식점업	3	0	254	0	0
정보통신업	13	6	170,926	24	168,153
금융 및 보험업	5	3	66,294	9	75,30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6	1	4,834	6	4,797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3	0	4,145	9	4,6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	0	1,139	2	1,143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2023년 6월 누계)>

- 2022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제조업	139	14	118,026	138	151,837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2	1	127,574	2	127,675
도매 및 소매업	31	11	71,741	34	41,200
운수 및 창고업	5	4	720	5	716
숙박 및 음식점업	4	3	741	7	994
정보통신업	20	5	8,215	20	5,951
금융 및 보험업	4	1	181,232	3	177,35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8	4	4,107	7	1,960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4	2	6,004	5	637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	0	228	1	228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2023년 6월 누계)>

- 2023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제조업	62	3	88,087	63	88,84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3	1	170	3	170
도매 및 소매업	18	7	9,675	19	19,045
운수 및 창고업	3	1	597	2	592
정보통신업	6	1	2,330	10	4,348
금융 및 보험업	1	0	53,600	1	52,78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	1	71,489	4	72,864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4	1	3,325	8	1,07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	0	268	1	265
---------------------	---	---	-----	---	-----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2023년 6월 누계)>

다. 한국기업 진출현황

○ 한국거래소 독일 사무소

진출연도	2022
진출형태	연락사무소
업종	금융기관
취급분야	금융
모기업명	한국거래소

○ Samsung Electronics GmbH

진출연도	1982
진출형태	현지법인
업종	제조 및 판매
취급분야	전자제품
모기업명	삼성전자

○ Hyundai Motor Europe GmbH

진출연도	2000
진출형태	현지법인
업종	제조 및 판매
취급분야	자동차 및 부품
모기업명	현대자동차그룹

○ Kia Motors Europe GmbH

진출연도	2002
진출형태	현지법인
업종	제조 및 판매
취급분야	자동차 및 부품

모기업명	기아자동차그룹
------	---------

◦ SK Hynix Deutschland GmbH

진출연도	2006
진출형태	현지법인
업종	제조 및 판매
취급분야	반도체
모기업명	SK 하이닉스

◦ Nexen Tire Europe GmbH

진출연도	2008
진출형태	현지법인
업종	제조 및 판매
취급분야	타이어
모기업명	넥센타이어

◦ Il Heung Europe GmbH

진출연도	2008
진출형태	현지법인
업종	제조 및 판매
취급분야	자동차 부품
모기업명	일흥공업

◦ Lotte Fine Chemical Europe GmbH

진출연도	2009
진출형태	현지법인
업종	제조 및 판매
취급분야	화학제품
모기업명	롯데정밀화학

◦ BIXOLON Europe GmbH

진출연도	2009
진출형태	현지법인
업종	제조 및 판매
취급분야	프린터 기기
모기업명	빅솔론

◦ Hyundai Engineering Deutschland GmbH

진출연도	2010
진출형태	현지법인
업종	건설
취급분야	시설관리, 건설
모기업명	현대엔지니어링

◦ OnNet Europe GmbH

진출연도	2010
진출형태	현지법인
업종	제조 및 판매
취급분야	컴퓨터 게임
모기업명	온네트

◦ Hotel Lotte Co., Ltd., Frankfurt Office

진출연도	2010
진출형태	지점
업종	서비스
취급분야	숙박
모기업명	롯데그룹

◦ Lock and Lock GmbH

진출연도	2010
진출형태	현지법인

업종	제조 및 판매
취급분야	주방생활용품
모기업명	락앤락

◦ Kumho Tire Co., Inc., European Technical Centre

진출연도	2011
진출형태	연구소
업종	연구개발
취급분야	타이어 연구 및 개발
모기업명	금호타이어

◦ INNO Instrument Europe GmbH

진출연도	2011
진출형태	현지법인
업종	제조 및 판매
취급분야	통신기기
모기업명	이노인스트루먼트

◦ Daewon Kang Up Frankfurt R and D Support Office

진출연도	2011
진출형태	연구소
업종	연구개발
취급분야	자동차 부품 관련 연구개발
모기업명	대원강업

◦ Nexen Tire European Technology Center

진출연도	2011
진출형태	연구소
업종	연구개발
취급분야	타이어 관련 연구개발
모기업명	넥센타이어

○ ICT Europe GmbH

진출연도	2012
진출형태	현지법인
업종	제조 및 판매
취급분야	임플란트
모기업명	덴티움

○ ATNS Europe GmbH

진출연도	2012
진출형태	현지법인
업종	서비스
취급분야	SAP컨설팅
모기업명	에이티앤에스

○ KB AutoTEch Co., Ltd. Frankfurt Representative Office

진출연도	2012
진출형태	연락사무소
업종	제조 및 판매
취급분야	자동차부품
모기업명	갑을오토텍

○ Korea Gas Safety Corporation Rep Office

진출연도	2012
진출형태	연락사무소
업종	서비스
취급분야	해외 사업장 안전진단, 해외인증지원
모기업명	한국 가스안전공사

○ Samsung SDI Europe GmbH

진출연도	2012
------	------

진출형태	현지법인
업종	제조 및 판매
취급분야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소재
모기업명	삼성 SDI

◦ Ceragem Europe GmbH

진출연도	2012
진출형태	현지법인
업종	제조 및 판매
취급분야	의료기기
모기업명	세라젬

◦ Humax Automotive Europe GmbH

진출연도	2013
진출형태	현지법인
업종	제조 및 판매
취급분야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모기업명	휴맥스오토모티브

◦ GIT Europe GmbH

진출연도	2013
진출형태	현지법인
업종	제조 및 판매
취급분야	자동차 진단기
모기업명	지아이티

◦ LOTTE GLOBAL LOGISTICS (GERMANY) GMBH

진출연도	2013
진출형태	현지법인
업종	서비스
취급분야	포워딩, 창고, 3PL 등 운송 서비스

모기업명	롯데글로벌로지스
------	----------

◦ KPF Europe Rep Office

진출연도	2013
진출형태	연락사무소
업종	제조 및 판매
취급분야	자동차부품
모기업명	케이피에프

◦ KDK Automotive GmbH

진출연도	2013
진출형태	현지법인 (인수)
업종	제조 및 판매
취급분야	자동차부품
모기업명	갑을상사그룹

◦ ACI Worldwide Express GmbH

진출연도	2013
진출형태	현지법인
업종	서비스
취급분야	물류서비스
모기업명	에이씨아이 월드와이드

◦ Doosan Heavy Industries and Construction Co. Ltd, Frankfurt Office

진출연도	2014
진출형태	연락사무소
업종	제조 및 판매
취급분야	건설 중장비
모기업명	두산중공업

◦ INZI Controls Co. Ltd. Germany Branch Office

진출연도	2014
진출형태	지사
업종	제조 및 판매
취급분야	자동차부품
모기업명	인지컨트롤스

◦ Hyundai Sungwoo Casting Co. Ltd. Frankfurt Office

진출연도	2014
진출형태	연락사무소
업종	제조 및 판매
취급분야	자동차부품
모기업명	현대자동차그룹

◦ Xiom Europe GmbH

진출연도	2014
진출형태	현지법인
업종	제조 및 판매
취급분야	탁구용품
모기업명	엑시옴

◦ InnoVision Deutschland GmbH

진출연도	2014
진출형태	현지법인
업종	제조 및 판매
취급분야	소프트 콘택트렌즈
모기업명	이노비전

◦ GigaTera EU GmbH

진출연도	2014
진출형태	현지법인
업종	제조 및 판매

취급분야	LED 조명
모기업명	케이엠더블유

◦ Iksung Europe GmbH

진출연도	2015
진출형태	현지법인
업종	제조 및 판매
취급분야	자동차부품
모기업명	익성

◦ Biodent Europa GmbH

진출연도	2015
진출형태	현지법인
업종	제조 및 판매
취급분야	치과용 의료기기
모기업명	디에스엠

◦ Introsa GmbH

진출연도	2015
진출형태	현지법인
업종	제조 및 판매
취급분야	CCTV 시스템
모기업명	(주)우택

◦ Hyundai L&C Europe GmbH

진출연도	2015
진출형태	현지법인
업종	제조 및 판매
취급분야	인조대리석 및 가구용 데코시트 등
모기업명	(주)현대엘앤씨

◦ Unitech Deutschland GmbH

진출연도	2015
진출형태	현지법인
업종	제조 및 판매
취급분야	산업용 접착제
모기업명	유니텍

◦ Sebang Batteries Europe GmbH

진출연도	2015
진출형태	현지법인
업종	제조 및 판매
취급분야	자동차용 배터리
모기업명	세방전지(주)

◦ Naver Business Platform Europe GmbH

진출연도	2015
진출형태	현지법인
업종	서비스
취급분야	IT인프라 운영 및 솔루션 개발
모기업명	네이버클라우드(주)

◦ SoluM Europe GmbH

진출연도	2015
진출형태	현지법인
업종	제조 및 판매
취급분야	전자부품
모기업명	솔루엠

◦ Vieworks EU GmbH

진출연도	2016
진출형태	현지법인

업종	제조 및 판매
취급분야	의료기기
모기업명	뷰웍스

◦ Meta Biomed Europe GmbH

진출연도	2016
진출형태	현지법인
업종	제조 및 판매
취급분야	의료기기
모기업명	메타바이오메트

◦ Blackyak Co. Ltd.

진출연도	2016
진출형태	지사
업종	제조 및 판매
취급분야	아웃도어 용품
모기업명	블랙야크

◦ All of Nature GmbH

진출연도	2016
진출형태	현지법인
업종	서비스
취급분야	생활용품 유통
모기업명	올오브네이처

◦ Hyundai, Marine and Fire Insurance Co.

진출연도	2016
진출형태	지사
업종	금융서비스
취급분야	보험
모기업명	현대해상

○ Hyundai Capital Bank Europe GmbH

진출연도	2016
진출형태	현지법인
업종	금융서비스
취급분야	자동차금융
모기업명	현대캐피탈(주)

○ TmaxSoft Deutschland GmbH

진출연도	2017
진출형태	현지법인
업종	제조 및 판매
취급분야	소프트웨어
모기업명	티맥스소프트

○ LG Electronics Deutschland GmbH

진출연도	2017
진출형태	현지법인
업종	제조 및 판매
취급분야	전기/전자제품
모기업명	LG 전자

○ Woori Bank Europe GmbH

진출연도	2017
진출형태	현지법인
업종	금융서비스
취급분야	금융
모기업명	우리은행

○ SK Innovation Frankfurt Office

진출연도	2017
------	------

진출형태	지사
업종	제조 및 판매
취급분야	전기차용 배터리
모기업명	SK 이노베이션

◦ Hanwha Total Petrochemical Co., Ltd. German Branch

진출연도	2017
진출형태	지사
업종	제조 및 판매
취급분야	에너지
모기업명	한화토탈

◦ GIIIR Germany GmbH

진출연도	2017
진출형태	현지법인
업종	서비스
취급분야	광고서비스
모기업명	HS애드

◦ Ray Europe GmbH

진출연도	2017
진출형태	현지법인
업종	제조 및 판매
취급분야	치과용 영상진단장비
모기업명	레이

◦ M3 Mobile GmbH

진출연도	2017
진출형태	현지법인
업종	제조 및 판매
취급분야	산업용 PDA, 스캐너, POS등 기기

모기업명	엠쓰리모바일
------	--------

◦ Seegene Germany GmbH

진출연도	2017
진출형태	현지법인
업종	제조 및 판매
취급분야	채외진단시약
모기업명	씨젠

◦ DRTECH EUROPE GmbH

진출연도	2017
진출형태	현지법인
업종	제조 및 판매
취급분야	디지털 엑스레이 디텍터
모기업명	(주)디알텍

◦ I-Sens GmbH

진출연도	2017
진출형태	현지법인
업종	제조 및 판매
취급분야	진단기기
모기업명	아이센스

◦ HD Hyundai Electric Co., Ltd.

진출연도	2018
진출형태	연락사무소
업종	제조 및 판매
취급분야	전기전자 제품
모기업명	HD 현대일렉트릭 (HD Hyundai Electric Co., Ltd.)

◦ NVH Germany GmbH

진출연도	2018
진출형태	현지법인
업종	제조 및 판매
취급분야	자동차부품
모기업명	엔브이에이치 코리아(주)

◦ Hexa GmbH

진출연도	2018
진출형태	현지법인
업종	제조 및 판매
취급분야	자동차부품
모기업명	(주)원시스템즈

◦ Cap Corporation Ltd. Germany

진출연도	2008
진출형태	연락사무소
업종	제조 및 판매
취급분야	자동차부품
모기업명	캐프

◦ Celltrion Healthcare Deutschland GmbH

진출연도	2019
진출형태	현지법인
업종	제조 및 판매
취급분야	의약 및 화학제품
모기업명	(주)셀트리온헬스케어

◦ GC&Q Co. Ltd. Frankfurt Office

진출연도	2019
진출형태	연락사무소
업종	서비스

취급분야	인증기관
모기업명	GC&Q Co. Ltd.

◦ LogisALL Europe GmbH

진출연도	2019
진출형태	현지법인
업종	서비스
취급분야	물류서비스
모기업명	로지스올컨설팅앤엔지니어링(주)

◦ AB Pharm Laboratories GmbH

진출연도	2019
진출형태	현지법인
업종	제조 및 판매
취급분야	화장품
모기업명	(주)에이비팜코리아

◦ Aurora World GmbH

진출연도	2019
진출형태	현지법인
업종	제조 및 판매
취급분야	캐릭터완구
모기업명	(주)오로라월드

◦ Inbody Europe B.V. Deutschland

진출연도	2019
진출형태	연락사무소
업종	제조 및 판매
취급분야	체성분분석기
모기업명	(주)인바디

◦ Kukdo Chemical Co. Ltd. Europe R&D office

진출연도	2018
진출형태	연락사무소
업종	제조 및 판매
취급분야	에폭시수지, 경화제용수지와 폴리우레탄 원료 등
모기업명	국도화학(주)

◦ Hanjin Global Logistics Europe s.r.o. Zweigniederlassung Deutschland

진출연도	2018
진출형태	지사
업종	서비스
취급분야	운송 서비스
모기업명	(주)한진

◦ CJ Mainfrost Foods GmbH

진출연도	2018
진출형태	현지법인 (인수)
업종	제조 및 판매
취급분야	식품
모기업명	CJ제일제당(주)

◦ DaeHeung Europe GmbH

진출연도	2019
진출형태	현지법인
업종	제조 및 판매
취급분야	자동차용 방진고무 등 산업용 비경화고무제품
모기업명	(주)대흥알앤티

◦ GENESIS MOTOR EUROPE GmbH

진출연도	2019
진출형태	현지법인

업종	제조 및 판매
취급분야	자동차
모기업명	현대자동차(주)

◦ LG Energy Solution Europe GmbH

진출연도	2020
진출형태	현지법인
업종	제조 및 판매
취급분야	리튬이온배터리
모기업명	(주)LG에너지솔루션

◦ EU Data Protection Support Center

진출연도	2021
진출형태	연락사무소
업종	서비스
취급분야	개인정보 보호관련 서비스
모기업명	한국인터넷진흥원

◦ KSOE Global R&D Office

진출연도	2022
진출형태	지사
업종	연구소
취급분야	조선 해양
모기업명	한국조선해양 미래기술연구원

<자료원 :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자체 정보>

4. 투자진출방식

가. 투자진출 형태

법인

○ 개요

해외 기업이 독일에 회사(Tochterunternehmen)를 설립할 경우, 자회사는 모기업으로부터 법적으로 독립된 형식이므로, 영업신고나 상업등기와 관련해 독일 규정이 적용된다. 회사 설립 주체가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회사 설립, 영업신고 및 상업등기부 등록과 관련해서는 전적으로 독일법이 적용된다. 아울러 현지 법인은 독립성을 갖기에 소재지 관할 법원 상업등기소(Handelsregister)에 등록신고를 해야 하며, 등록신고는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서면형식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모기업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자본금에 상응하는 책임한도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한다. 독일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들의 가장 보편적인 법인 형태는 유한책임회사(GmbH)이다.

○ 특징

법인은 아무런 제한 없이 영업을 포함한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법인은 독일 세법에 따라 회계장부와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고, 매년 전자 연방관보(Bundesanzeiger)에 자사의 재무제표를 공시해야 한다. 모기업과 독립된 별개의 조직체로서 모기업의 책임은 주주로서 납입한 자본금에 국한된다. 따라서 법인이 파산하는 경우 모기업은 투자한 자본금에 대한 손실은 발생하지만, 그 이상의 채무 변제 의무는 없다.

주의할 점은 본국의 모기업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자본금에 상응하는 책임한도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하지만, 일반적으로 자회사의 독일 내 영업 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모기업의 재정적 지원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또한 유한 책임회사를 설립하고 설립절차가 종결돼도 회사 상업등기가 완료되기 전에는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상업등기번호 발급 후가 되어야 대표이사 또는 직원의 개인적 책임이 면제된다. 최근 법 개정을 통해 독일 내 유한회사의 대표이사가 한국을 생활중심지로 삼는 것이 가능해져, 자회사 대표이사가 반드시 독일 내에 주소지를 둘 필요는 없다.

○ 설립절차 및 비용 (유한책임회사 기준)

현지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회사 상호 결정, 현지법인 주주결의서 및 정관 작성, 법인 대표 선임, 은행계좌 개설 및 자본금 납입증명서 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관은 매우 중요하다. 독일 세법의 경우 법인 등기 완료 전 발생한 비용은 인정이 되나, 정관 서명일 후 비용만 인정이 된다. 따라서 신설법인을 위해 구매할 물품이 많다면 정관 서명일을 앞당기는 것이 중요하다.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최저 25,000유로의 자본금이 필요한데, 회사 등록 시점에서는 그 절반인 최소 12,500유로가 은행계좌에 이체되어야 한다. 상기 사항의 서류를 구비 후, 현지 독일 공증인을 통해 상업등기부 등기를 신청하고, 마지막으로 상업거래등록소(Gewerbeamt)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법인장이 외국인일 경우 추가적으로 거주 및 노동허가를 제출해야 하며, 외국인청에 제출한 비자 신청서 사본을 제시하며 현재 외국인청의 검토 중이라고 하면 공무원 재량에 따라 등록을 인정해 줄 수도 있다(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공증인의 등록신청 후, 상업등기부 등기까지는 약 2주 정도가 소요되나, 서류 준비과정에 따라 대략 4~6주 소요될 수 있다. 이때 소요되는 등기·공증 수수료 등의 비용은 자본금 규모에 따라 상이하나, 최소 1,039.84유로가 소요된다. 자세한 비용 항목은 아래와 같다.

자본금이 3만 유로가 넘을 경우 법인 설립 금액도 증가한다.

대부분 진출기업은 독일 법인 설립 절차가 복잡하므로 대행업체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서비스 수수료가 추가로 발생하며, 수수료는 업체마다 상이하다.

영업신고가 완료되면 상업거래등록소는 정보를 세무청과 상공회의소에 전달한다. 세무청은 신설법인에게 세적 등록과 납세번호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통보를 할 것이다. 상공회의소 가입은 독일에서 필수 사항이다. 회원사 가입번호 통지서를 받고 매년 회비를 내라는 고지서를 받을 것인데, 이도 법인의 법적 의무 중 하나로서 제때 송금해야 한다.

지사

○ 개요

지사는 크게 상업등기가 요구되는 등기지사(Zweigniederlassung)와 관할 시청 내 사업자 등록만으로 설립이 가능한 비등기지사(Betriebsstaette - 이하 연락사무소에서 자세히 설명)로 나뉜다. 지사는 모기업의 일부로 간주되므로, 모기업에 적용되는 외국법에 종속되고 지사의 채무에 대한 의무는 모기업에 있다. 지사는 모기업과 동일한 회사명을 갖는 것이 원칙이며 지사명에 소재지 명칭을 추가할 수 있다. 지사설립 시 모기업의 사업자등록증 같은 필수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자체 정관(Gesellschaftsvertrag)이 없으므로 모기업의 정관을 독어로 번역하여 제출해야 한다.

독일에 설립된 등기지사는 인보이스 발행을 비롯한 상업적 계약이 가능한 반면, 비등기지사의 경우 모기업을 대신해 영업행위를 할 수 있으나 인보이스는 모기업 이름으로 발행해야 한다.

○ 특징

지사의 경우, 모든 영업 행위에 대한 책임이 모기업에 있기 때문에 설립 시 모기업이 자본을 출자할 필요가 없다. 지사는 기장 작성 및 재무제표 작성의 의무가 있으나 재무제표 공시의무는 없다. 또한 지사가 취득한 경제적 이득 및 판매 실적은 독일에서 과세(법인세, 영업세, 부가가치세) 대상이다. 그러나 한국과 독일은 이중과세협정을 체결하여 지사의 소득세 및 법인세의 기초를 모기업이 위치한 본국의 법을 기준으로 하므로 이중과세 상황을 피하도록 하였다. 다만 창출 수익에 대해 어느 부분까지를 지사의 원천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대해 독일 조세당국과 마찰이 있을 수 있다.

대부분 한국 기업들은 독일 진출 시 지사보다 법인을 선호하는 편이다. 지사 설립 및 상업등기부 등록을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는 것이 한 이유다. 예를 들면, 독일에 설립될 지사가 한국 대형기업의 지사로 등록돼야 하는 경우이면 본사와 관련된 한국 상업등기부상 내용을 모두 독일어로 번역하고 공증인의 공증을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따른다. 아울러, 법인과 달리 책임부담의 위험이 자본금에 제한되지 않다는 사정도 지사 설립 빈도가 낮은 이유이다.

○ 설립절차 및 비용

지사의 설립은 법인과 동일하게 독일 상업등기부 등기 및 등록번호 취득을 통해 완료된다. 지사의 신청서는 공증을 받기 전 모기업 이사 전원의 서명이 기재돼야 한다. 만약 외국에서 서명한 경우, 서류를 독일 법원이 인정하는 번역가를 통해 번역한 후 공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본사가 한국에 소재하므로 한국 상업등기부 등본, 본사 정관, 현지대표에 대한 위임권 등 본사의 서류를 반드시 독일어로 번역하고, 공증-아포스티유의 절차를 거친 후, 독일 공증인에 의해 등기신청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때 등기-공증 등의 수수료는 경우에 따라 비용이 소요되며, 번역료는 별도로 소요된다. 법무법인 등을 통한 절차 대행 시 소요비용은 법인설립과 비슷하나, 모기업의 규모(매출액 등)에 따라 매우 상이하여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하기 어렵다. 법인설립과 마찬가지로 지사설립 시 공증인의 상업등기부 등록 신청부터 등록까지 약 1~2주가 소요되나, 등록신청 이전 서류준비 절차기간도 별도로 소요됨을 주지해야 한다.

연락사무소

○ 개요

연락사무소(Representanzbüro)라는 개념은 독일 상업법에 사실상 존재하지 않으며 비등기지사(비독립사업장)가 그 개념에 부합한다. 연락사무소는 영업활동을 수행할 수 없으며 영업에 필요한 시장 정보 즉 산업 및 비즈니스 정보 조사 등 모기업의 사업에 필요한 사전적, 예비적 활동(Ttigkeiten vorbereitender Art oder Hilfsttigkeiten)에 국한돼 운영되는 조직이다.

○ 특징

연락사무소는 상업 등기소 등록, 자본금 납입, 회계장부 및 재무제표 작성이 필요 없다. 연락사무소는 인보이스 발급, 고객의 유치를 위한 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고객으로부터 상품주문이나 계약의 수령과 관계된 서신 혹은 서명행위 등을 수행할 수 없다. 따라서 연락사무소는 법인세와 영업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지만, 이익과 상관없이 발생하는 급여 소득세(Lohnsteuer)와 부가세(Umsatzsteuer)는 신고해야 한다. 만약 연락사무소 형태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할 경우에는 지사(Zweigniederlassung)로 파악되어 법인세, 영업세 등의 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연락사무소의 유지기간이 5~10년을 초과하고 동시에 사무소의 직원 수가 일정 규모 이상으로 증가한다면, 세무서는 서류상의 연락사무소가 실제로 지사일 수 있다는 판단하에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세무조사 결과로 법인세와 영업세가 확정될 경우 세무조사 시점부터 세금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소급으로 몇 년에 대한 과세가 한꺼번에 누적으로 확정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독일 진출 초기단계에서 연락사무소의 형태를 유지하다가 유럽 및 독일시장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매출실현 시 세무상 위험을 피하고 현지 영업의 효율성과 거래처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해 지점 혹은 법인형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설립절차 및 비용

연락사무소는 공증 및 상업등기부 등록절차 없이 상업거래등록소(Gewerbeamt) 등록만으로 설립이 가능하다. 이때 한국 모기업의 사업 자등록증, 연락사무소 대표에 대한 위임장, 체류허가증 등 서류가 요구되며 소요비용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 20~40유로 수준이다. 상업거래등록소에 등록되면 회사가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회사 등록사실이 해당지역 세무서, 상공회의소, 기타 행정기관에 자동 통보된다.

나. 투자진출시 유의사항

<p>투자진출시 유의사항</p>	<p>1) 법인설립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설립 시 최소 자본금은 25,000유로이나, 등기 신청의 경우, 자본금의 1/2, 예를 들어 25,000유로를 자본금으로 지정했다면 12,500유로만 납부한 확인서가 있으면 등기신청은 가능하다. 공증 이후, 등기신청 전에 자본금 납부를 증명해야만 등기 신청이 가능하며, 만약 법인계좌를 개설하지 않고 공탁으로 가능하다면 좋으나,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공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 즉, 설립 중인 법인명의 계좌가 있어야 하며, 그 계좌에 자본금이 납부되었다는 증빙이 필요하다 ○ 최소 25,000유로의 자본금 예치가 독일 내 법인(GmbH) 설립 요건 중 하나이기 때문에 25,000유로 이상은 문제가 안되나 25,000유로 미만의 경우는 GmbH가 아닌 UG를 설립해야 하며, UG는 1유로부터 25,000유로 미만의 자본금으로 설립이 가능하다. ○ 자본금을 현물로 대체가 가능하지만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며, 신청하는 절차 또한 복잡하기 때문에 추천하지는 않는 방법이다. <p>2) 공장 및 창고설립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장이나 창고에서 폭발물이나 화학제품을 취급할 경우에는 다루지는 물질과 이에 따른 규정에 따라 설계가 진행되어야 한다. 법에 정해진 안전수칙에 따라서 설계가 진행되어야 하며, 기계나 소음이 있는 경우는 법에 따라 방음을 해야 하며 방음은 구역에 따라 요구되는 정도가 다르다. 공장지대의 경우, 시내의 상업지구나 거주지역이 혼합된 지역에 비교하여 요구되는 방음의 기준이 다르다. ○ 기계를 사용하는 경우는 산재보험사(Berufgenossenschaft)에서 확인하고 실사를 마쳐야 사용이 가능하다. 화학물질의 경우는 환경보호법에 영향을 많이 받으며, 또한 근무조건을 제한하는 법령도 있기 때문에 이에 맞게 안전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 식품의 경우는 위생법에 따르며, 또한 생산하는 제품에 따라서는 사용하는 물도 제한하고 있다. 각각의 제품에 따라서 적용되는 규칙이 매우 상이하므로, 사전에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 대체로 영업청에서 접수하여 위생청이나 소방재청에서 실사를 하게 된다. <p>3) 법인의 청산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 법인의 청산은 해산 개시일 결의가 등기되면서 효력이 발생하며, 청산 종료까지 최소 12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 이 기간동안 법인의 청산을 알리게 되며 등기상으로 법인이 청산을 시작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법인은 법인 정리 작업에 들어가게 되고 선임한 세무사나 회계사는 청산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된다. 최종 재무제표를 회계사로부터 전달받은 공증인이 법원에 청산 신고를 하며, 이로써 법원의 등기에서 삭제된다. <p>4) 참고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 사태로 인해 그 동안 비자발급 등 행정업무가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으나, 최근에는 대부분의 행정업무가 정상화 되고 있다. 한편, 최근 국내기업들의 현지 진출이 증가하는 추세로 한국어가 가능한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한국어 가능인력 채용은 과거에 비해 상당히 어려워진 상황이다.
--------------------------	---

다. 회사 유형

주식회사

○ 특징

주식회사 설립의 경우 회사가 필요로 하는 만큼의 자본을 주식시장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 주식회사는 영업지분을 양도할 경우, 공증인이 그 과정을 문서로 작성할 필요가 없고 증권거래소를 통해 상장된 회사의 주식에 대한 양도도 비교적 쉽다. 주주의 변경과는 관계없이 주식회사의 존속이 보장된다. 따라서 주식회사는 대기업 또는 증권시장에 상장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선호되는 회사 설립 형태이다. 주식회사

는 유한책임회사에 비해 설립절차부터 비교적 복잡하고 설립 이후에도 모든 관련 법규의 규제가 엄격하다. 그러나 조직과 재정조달에 관련된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만 있다면 주식회사가 가진 신뢰성과 전문성을 통해 훨씬 더 유리한 기업운영이 가능하다. 또한, 주식회사는 증권시장을 통해 지분을 매각하거나 단기간 내에 증자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자기자본을 통한 자원조달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은 있으나 독일 증권시장에 상장한 한국 기업은 아직 없으며, 자원 조달을 대부분 모기업에서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독일에 진출한 한국기업은 유한책임회사(GmbH) 형태를 선호한다.

○ 설립요건

1인(소규모 주식회사) 또는 다수에 의해 설립될 수 있으며, 1인 이상의 이사와 최소 3인 이상의 감사위원을 필요로 한다. 주식회사 정관에는 ① 회사명 ② 소재지 ③ 자본금 규모 ④ 주식 최소 비용 ⑤ 발행 주식의 총수 ⑥ 주식 종류(보통주 또는 우선주) ⑦ 주식 발행 종류(무기명 주식 또는 기명 주식) ⑧ 이사회 감사의 수 ⑨ 공고 형식 등이 포함된다. 주식회사 설립을 위한 법정 최소자본금은 50,000유로이며, 자본금 납입은 상업등기 이전에 은행 계좌를 개설해 최소 12,500유로를 계좌로 이체해야 하고, 은행이 발행한 증명서를 공증받아 제출해야 한다.

유한책임회사

○ 특징

- 독일에서 가장 보편적인 법인의 형태이다. 유한책임회사(GmbH)의 경영은 정관에 명기되거나 출자자가 신임하는 1인이나 복수의 법인장이 담당하며 등록 시 법인장의 소재지는 반드시 독일일 필요는 없다. 원칙적으로 유한책임회사는 회사 재산에 한정해서만 책임을 부담하며, 법인장 및 직원의 개인 재산에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그러나 법인장의 경영권 남용, 불법적 횡령, 독일 관련법이 요구하는 각종 문서화 의무와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등의 의무 위반으로 손해가 생길 경우에는 법인장의 개인 자산으로 책임을 져야 하고, 추가로 형사 소송절차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추가로 주의할 사항은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고 설립절차가 종결돼도 상업등기가 완료되기 전에는 법인장 또는 직원이 개인적으로 책임을 부담해야 하며 상업등기번호 발급이 완료되면 개인적 책임이 면제된다는 점이다.

-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한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또는 정관에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원의 결의에 따라 확정된 제한적 범위 내에서 회사에 대해 업무집행에 관한 대표권을 지닌다. 그런데 이러한 대표권은 제 3자에 대해서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제 3자에 대한 대표권은 법인장에게 있다. 이사회에 대한 모든 변경사항 및 대표권의 종료는 상업등기부에登記된다.

- 유한책임회사는 책임이 제한된다는 면에서 무한책임회사에 비해 회사의 신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외부 자본을 조달하는 데 계약을 받는다. 따라서 소액의 자기자본을 가진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외부 투자가 또는 은행이 별도의 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책임의 제한으로 인해 파산의 위험도 크기 때문에 자본금의 액수가 실제 거래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미친다. 유한책임회사의 자본금은 주식회사와 달리 지분으로 표기되며, 지분의 이전과 양도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증인에 의한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 2008년 11월 1일 이후 영국의 유한책임회사(Ltd.)와 유사한 설립 자본금 1유로의 미니 유한책임회사(UG: UnternehmensGesellschaft) 설립이 가능해졌다. 단, 자본금이 25,000유로가 될 때까지 연 매출의 25%를 자본금으로 적립해야 하며, 이후 유한책임회사로서의 요건이 충족될 경우 유한책임회사(GmbH)로 법인 변경이 가능하다.

- 유한책임회사는 독일의 법인세, 영업세, 부가세 징수 대상이며, 독일의 회계원칙에 따른 장부 작성 및 재무제표 작성 의무가 있어 매년 재무제표와 세무 신고서를 독일 소재지 관할 지역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독일 상법(Handelsrecht)상 매년 전자연방관보(elektronischer Bundesanzeiger)에 재무제표를 제출해 공시해야 한다. 세무 처리상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은 이전가격(Konzernverrechnungspreis)인데, 독일 현지 법인은 대부분 모기업과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세무조사 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독일 현지 법인이 모기업에서 물품을 구매했을 경우, 구매가격이 너무 높았다고 세무조사관이 평가하게 되면 독일법인의 세전 이익이 상향 조정돼 추징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유한책임회사의 재무제표는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작성해야 한다. 단, 소자본 회사의 경우는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까지 연기가 가능하다. 종업원 500명 이하의 회사는 정관에 별도 명시되지 않은 한 감독위원회(Aufsichtsrat)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종업원 500명 이상인 유한책임회사는 감사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감독위원회의 1/3은 근로자 대표로 구성돼야 한다. 또한, 종업원 2,000명 이상의 기업(석탄, 철강제조업 제외)은 동의절차법(Mitbestimmungsgesetz)에 따라 감독위원회 위원 중 1/2이 근로자 대표여야 한다.

○ 설립요건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최소 1인 이상의 설립 발기인 등록으로 설립할 수 있다. 회사의 영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법인장을 선임해야 하고 최소 자본금은 25,000유로이며, 현금으로 예치할 경우 상업등기 전 자본금의 25%, 최저 12,500유로만 예치하면 된다. 현물출자도 인정되나 이 경우 현물출자의 대상과 그 평가액을 정관에 명시해야 한다. 정관 작성은 의무이며 공증인의 인증을 요하는데, ① 상호 ② 법

인의 소재지 ③ 영업목적 ④ 자본금 ⑤ 회사를 구성하는 각 사원의 출자액 등 5개 항목에 대해서는 필수 기재해야 한다. 정관상 회계연도의 기재는 임의 규정이지만, 기재하는 것이 보통이다. 또한 기업의 존립기간을 설정했을 경우나 혹은 출자자인 사원이 자본출자 이외에 기타의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는 그 내용을 정관에 담을 필요가 있다. 또 출자자 명단과 영업내용이 명시되어야 하며, 유한책임회사임을 반드시 상호에 명기해야 한다.

개인사업자

○ 특징

개인회사는 독일에서 가장 간단한 회사형태이다. 1인 소유이며, 법적으로 최소자본금에 관한 규정이 없다. 현재 독일에서는 대다수의 1인 소유 영업소(이발소, 과일 가게, 빵집, 정육점 등)가 개인사업자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개인회사는 설립 후 관리비용 또한 비교적 낮다. 회계의무와 관련해 법인의 경우 복식부기가 요구되는 발생주의 회계를 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개인회사는 단순한 현금주의 회계가 허용된다. 기본적으로 개인회사는 공시의무도 없다. 독일 공시법에 의거하여 개인회사는 자산 총계가 6,500만 유로 이상이고 매출액이 1억 3,000만 유로 이상인 경우에만 공시의무가 발생한다. 하지만 개인회사는 회사채무에 대해서 소유 사업자의 개인 자산까지도 무한책임을 지게 돼 있다.

○ 설립요건

개인회사는 설립절차가 간단하며 자영업 신고(Gewerbeanmeldung)를 통해 자동으로 개인 사업자 자격을 취득하게 되고 소유자의 직접적인 감독하에 운영된다. 공증인은 필요 없다. 회사명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나 소유자의 이름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예: Peter Meier 혹은 EDV-Versand Peter Meier).

개인사업자의 경우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등을 포함한 재무제표를 작성할 의무는 없으며 단순한 수입지출내역서만 제출하면 되고 이를 토대로 과세를 한다. 단, 규모가 커져서 매출이 60만 유로 또는 이익이 6만 유로를 초과할 경우에는 재무제표를 작성할 의무가 생긴다.

유럽회사(SE)

유럽회사(Societas Europaea)는 유럽연합 내의 주식회사를 통칭하는 법인 형태이다. 유럽연합(EU)은 2004년 말부터 통일된 법 형식에 의거한 법인설립을 가능하게 했다. 유럽회사는 유럽의 기업들이 유럽 전 회원국에서 동일한 법 형식을 갖추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기업은 영업을 지주회사(Holding)에 결합할 수 있다. 또 나라마다 서로 다른 법적 토대를 지닌 자회사를 설립하는 기존 방식 대신, 유럽 전역에서 효력이 있는 단일 규범을 토대로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현재 유럽회사의 경우 유럽 전역에 걸쳐 활동하는 Allianz 등 소수 대기업만이 법적으로 유럽 회사로 전환했다.

합자회사(KG)

합자회사(KG)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 복합적 조직의 인적회사로 무한책임 사원들만이 무한책임을 지며, 회사의 경영권 및 대표권은 무한책임 사원들에게만 주어진다. 대표 1명(Unlimited partner - Komplementar)이 무제한 책임을 지고(상법상 무한 책임사원) 나머지 주주(General Partner - Kommanditist)는 소유한 주식의 비율대로 책임을 지는(상법상 유한 책임사원) 형태로, 최소자본금이 정해지지 않아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다. 합자회사(KG)나 합명회사(OHG)와 같은 인적회사는 주식회사(AG) 혹은 유한책임 회사(GmbH) 등의 물적회사와 달리 공시의무가 없다. 공시의무는 거래처와 은행들이 회사의 재정상황을 파악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나, 인적회사는 주주가 회사채무에 대해 개인 자산까지도 무한책임을 져야 하므로 그 이상의 채권자 보호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자본인적회사(GmbH & Co. KG)는 합자회사의 변형된 형태로서 유한책임회사 자체가 무한책임주주이며 그 외 1인 이상의 유한책임주주가 존재한다. 따라서 자본 인적회사는 일반 합자회사와 달리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의 공시의무가 있다.

합명회사(OHG)

합명회사(OHG)는 최소한 2인 이상의 출자자로 설립 가능하며, 출자자 전원이 무한 책임을 지는 회사이다. 따라서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합명회사를 구성하는 무한책임 사원에게는 경영에 참가할 권리와 함께 의무가 부여된다. 경영의 범위는 영업활동에 따른 모든 업무를 포함하며, 법적 수속을 거쳐 회사의 경영에 해를 끼친 사원의 경영 참가권을 박탈할 수도 있다.

한편, 무한책임 사원은 각각 제3자에 대해 회사의 대표성을 부여받으며, 이 대표성은 법이 정한 절차를 통해서만 박탈될 수 있다. 합명회

사는 아래 조합 또는 개인사업자와 달리 '온전한 상인(Vollkaufmann)'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독일 상법(Handelsgesetzbuch, HGB)의 대상이 되며 이에 따른 장단점이 있다. 합명회사는 상업등기소에 등기되고 정확한 회계장부 덕분에 올바른 재정분석도 가능하며 회사채무에 대해 개인 자산까지도 무한책임을 지기 때문에 거래처와 은행의 신뢰를 받는다. 따라서 은행 같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유리하다. 합명회사는 독일 상법에 따라 반드시 발생주의 회계를 해야 한다.

조합(GbR)

조합(GbR)은 최소한 2인 이상이 공동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결합해 설립 가능하며, 특히 소액의 사업자본만을 보유한 창업자에게 알맞은 회사형태이다. 조합은 인적회사 중 가장 간단한 회사형태로 최소한의 설립 관련 구비서류만 필요하다. 이론적으로는 구두계약도 가능하지만, 전문가들은 서면상의 정관을 추천한다. 법정 의무 자본금이 없고 상업등기소(Handelsregister)의 등기 의무와 공시 의무가 없다.

조합은 상업 등기부에 등록할 필요가 없으나, 영업 활동이 있어야 하는 조합은 자발적으로 합명회사로 등록할 수 있으며, 변호사나 세무사, 공인회계사, 의사 등 자유업 종사자들이 공동으로 사무소 또는 병원을 운영할 경우 많이 이용한다. 합명회사는 상법에 따라 무조건 발생주의 회계를 해야 하나, 조합은 상법의 대상이 아니므로 현금주의 회계도 허용된다. 다만, 독일 조세법(Abgabenordnung) 제141조에 따라 1년 매출액이 500,000유로 이상이거나 1년 순이익이 50,000유로 이상일 경우 회사형태를 막론하고 발생주의 회계를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라. 회계/법무법인 안내

◦ Aon Risk Solutions

전화번호	+49 (0)69 29727 6420
주소	Platz der Einheit 2, 60327 Frankfurt am Main
홈페이지	없음
이메일	janet.hwang@aon.de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없음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운송 및 책임보험, 채권보험, 부실채권추심, 직원복지후생 및 사이버리스크 담당 ◦ 한국인 담당자 : 황덕영 / 유럽 글로벌 아시아기업부 / 한국부 이사

◦ EUKO Consulting GmbH

전화번호	+49 (0)6171 586690
주소	Karl-Hermann-Flach-Strasse 25, 61440 Oberursel
홈페이지	http://www.eukogroup.de
이메일	info@eukogroup.de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有(박정준 상무(Park, Cheong-Joon), 조은영 변호사(Cho, Eun-Young))

◦ Fidelis Accounting GmbH

전화번호	+49 (0)6196 77666 10
주소	Ludwig-Erhard Strasse 30-34, 65760 Eschborn
홈페이지	http://www.fidelisaccounting.wordpress.com/
이메일	rizzop@fidelisaccounting.de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有(김병구 대표 및 독일공인회계사(Kim, Byung Koo))

◦ Hütte Rechtsanwälte

전화번호	+49 (0)69 247 561 20
주소	Schaumainkai 69, 60596 Frankfurt am Main
홈페이지	http://www.huette-legal.com/
이메일	t.kim@huette-legal.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有(김태은(Kim, Tae Eun) Korea Desk 담당)

◦ KPMG AG

전화번호	+49 (0)69 247 561 20
주소	The Squire, am Flughafen, 60549 Frankfurt am Main
홈페이지	http://www.kpmg.de/
이메일	t.kim@huette-legal.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有
비고	문의 : https://home.kpmg.com/de/de/home/misc/kontakt.html

◦ Pricewaterhouse Coopers AG(PWC)

전화번호	+49 (0)69 9582 6282
주소	Friedrich-Ebert Anlage 35-37, Frankfurt am Main
홈페이지	http://www.pwc.de/en
이메일	webkontakt_anfragen@de.pwc.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有 (백종환 회계사(Baek, Jonghwan))
비고	추가 이메일 문의: jong-hwan.baek@kr.pwc.com

◦ FPS Rechtsanwälte und Notare

전화번호	+49 (0)69 95957 0
주소	Escherheimer Landstrasse 25-27, 60322 Frankfurt am Main
홈페이지	http://www.fps-law.de/
이메일	frankfurt@fps-law.de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有(조익제 파트너 변호사(Cho Ikze))

◦ Janolaw Chung Rechtsanwälte

전화번호	+49 (0)6196 7722 550
주소	Otto-Volger Strasse 3c, 65843 Sulzbach
홈페이지	http://www.jc-law.de/
이메일	info@jc-law.de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有(정하성 박사 및 변호사(Dr. Chung, Ha-Sung))

◦ Hanyang IPLC

전화번호	+49 (0)6196 973 8445
주소	Ludwig-Erhard-Str. 14, 65760 Eschborn
홈페이지	http://www.hanyang-law.com/
이메일	info@hanyang-law.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有(이정희 변호사(Lee, Jung Hoi))

◦ Lee•Tourbar•Von Schwech•Burghartz Rechtsanwaelte

전화번호	+49 (0)211 303 301 10
주소	Steinwayhaus Immermannstrasse 14-16, 40210 Duesseldorf
홈페이지	https://www.rechtsanwalt-lee.de
이메일	kanzlei@rechtsanwalt-lee.de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有(이동준 변호사 (Peter Lee))

◦ Lee & Partners

전화번호	+49 (0)6196 400139
------	--------------------

주소	Mergenthalerallee 10-12, 65760 Eschborn
홈페이지	http://lepts.com/corp/
이메일	blwhang@lepts.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有(황백림 변호사 (Baek-Lim Whang))

◦ Bornhausen-Consulting GmbH

전화번호	+49 (0)96 9291 050
주소	Steinlestraße 6, 60596 Frankfurt am Main
홈페이지	https://bornhausen-consulting.de/en/welcome
이메일	info@bornhausen-consulting.de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有(김윤선 한국데스크 매니저)

◦ Dentons Europe LLP

전화번호	+49 (0)89 244 408 415
주소	Jungfernturmstr. 2, 80333 München
홈페이지	https://www.dentons.com
이메일	raphael.suh@dentons.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有(서원필 변호사)

◦ LM.S.KIM Anwaltskanzlei

전화번호	+49 (0)40 6591 1680
주소	Kaiser-Wilhelm-Str. 89, 20355 Hamburg
홈페이지	http://kimlegal.de
이메일	mail@kimlegal.de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有(김무상 변호사)

◦ DTAX Trusted Advisors AG

전화번호	+49 (0)69 400 500 835
주소	Vilbelerstraße 27-29, 60313 Frankfurt am Main
홈페이지	http://dtax.ag/

이메일	s.ryu@dtax.ag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有(Samuel P. Ryu 회계사, Director Korea Desk)

○ M.S. Kim Anwaltskanzlei

전화번호	+49 (0)40 6591 1680
주소	Kaiser-Wilhelm-Strasse 89, 20355 Hamburg
홈페이지	http://kimlegal.de/koreanisch
이메일	mail@kimlegal.de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有(김무송 변호사)

○ Anwaltskanzlei Sohn

전화번호	+49 (0)6152 9560 174
주소	Klein-Gerauer Str. 10, 64521 Gross-Gerau
홈페이지	http://www.anwaltskanzlei-sohn.de/kr_Kanzlei.htm
이메일	sohn@anwaltskanzlei-sohn.de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有(손정연 변호사)

<자료원 :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자체 정보>

5. 외환

가. 외환제도

외환 제도 개요

독일에서는 누구나 제한 없이 별도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국으로 또는 외국으로부터 외환 거래가 가능하되, 통계 집계를 위한 독일 연방은행(Deutsche Bundesbank)의 관련 외환거래 신고 절차는 준수되어야 한다. 독일 연방은행이 입수한 신고 내용은 세무서 등 제3자에게 공유할 수 없으며 절대 비밀 의무가 있다.

다만, 개인이 해외 여행 시 현지에서 요금을 지불하거나 은행을 통하여 결제하는 지출에 대해서는 외환 거래 신고 의무에 해당되지 않는다(아래 링크 참조).

<https://www.bundesbank.de/resource/blob/611832/54a4090802ed33005a0f05feb73d865e/mL/awvzm-2013-data.pdf>

동 외환제도 안내는 정기적인 외환 거래를 위한 것이 아니며 외환 거래를 통상적으로 반복하지 않는 개인 또는 법인을 위한 것으로 수출입 전문업자, 중개인, 선박운행업자, 신용기관 등 통상적인 외환 거래를 취급하는 경우 아래 링크 내용을 별도로 참고해야 한다(자료: 독일 연방은행).

<https://www.bundesbank.de/resource/blob/611860/f802392b4003b2130b25af6d60f6c57c/mL/erlaueterungen-und-auslegungen-der-bbk-data.pdf>

외환 규제

신고대상

자연인과 법인은 독일에 거주등록되어 있는 경우 12,500 유로(유로 이외의 화폐 단위로 거래하는 경우 포함) 이상의 현금거래, 자동이체, 수표, 기타 금융거래 등 해외로부터 인수하거나 해외로 인출하는 외환거래를 독일 연방은행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관세청에 사전 접수된 재화의 해외 반출, 재화의 반입을 위한 외환거래, 12개월을 경과하지 않는 조건으로 체결한 신용 거래 등의 경우에 해당되는 외환거래는 신고의무를 적용 받지 않는다.

신고절차

일반 외환거래 신고양식으로는 Z4를 사용하고 기한은 거래 발생 다음 달 7일까지이다. 유상증권, 금융파생 등 그 외의 외환거래 신고 시 신고양식 Z10을 사용하고 신고기한은 매월 5일까지이다.

개인이 아닌 비은행 기관에서 취급하는 월단위 외환거래 금액이 5백만 유로 초과하거나 관련 채권 범위가 5억 유로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고양식 Z5를 사용하고 기한은 다음 달 10일까지이다.

아울러, 연단위 신고 의무로는 자본금 또는 발언권 10% 초과하거나 투자 프로젝트 규모가 3백만 유로 초과하는 경우 신고양식 K3 또는 K4 사용한다.

상기 안내된 신고양식은 독일 연방은행 사이트에서 PDF 양식으로 다운로드 가능하고

(<https://www.bundesbank.de/de/service/meldewesen/aussenwirtschaft/elektronische-einreichung>), 관련 사이트 ExtraNet에 제출하면 된다(<https://www.bundesbank.de/de/service/extranet>).

6. 노무

가. 임금 수준

기준환율 : 1EUR=1.05USD(2023년 5월 기준)

대졸-사무직 초임 (평균임금, 달러)	4,482	고졸-생산직 초임 (평균임금, 달러)	2,361	최저임금 (시간당, 달러)	12.6
비고	최저임금은 마지막으로 2022년 10월 개정되어 현재 적용되고 있다.				

<자료원 : 독일연방통계청(Destatis), 2023년 5월 기준>

나. 노무관리

고용계약

고용계약서에는 아래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한다.

- 계약당사자의 성명과 주소
- 근무 시작일
- 수습 기간 및 계약 기간
 - 대부분 직장은 6개월의 기간을 수습 기간으로 측정하며, 수습 기간 내에는 2주 전에 통보하여 직원을 해고할 수 있다.
 - 독일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2년 이내의 비정규직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계약 연장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계약 만료 1개월 전 직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 근무 장소
 - 피고용자가 특정한 장소에서만 근무하는 것이 아닌 경우 피고용자가 다양한 장소에서 근무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명시
- 직책 및 근무내용
- 급여
 - 대부분의 독일 기업은 13개월 치 보너스를 지급한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기업의 다른 직원들이 수년간 13개월 치 급여를 받고 있다면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직원도 13개월 치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다.
 - 13개월 치를 벗어난 상여금에 관한 내용은 고용계약서에 명시할 필요가 없다.
 - 한국인을 채용하고자 할 경우 독일 진출기업은 한국 일반 신입사원과 비교를 하여 월급의 적정선을 정하는 경우가 있으나, 독일 노동청의 기준은 같은 학력과 경력을 가진 독일 근로자의 월급을 기준으로 하며, 이보다 현저히 낮은 월급이 지불되는 경우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연방 주마다 평균월급에 차이가 있으므로 취업체류권 신청 전에 해당하는 주에서 어느 정도의 평균월급이 지불되는가를 알아본 후 이를 기준으로 임금협상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 근로시간
- 연차휴가기간
- 노동관계 해지를 위한 예고기간
- 노동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 단체협약, 사업장협정, 복무협정 등에 관한 일반적인 형태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

근로시간

일반적인 근무시간은 하루 8시간으로 주 40시간이다. 6개월 동안의 평균 근무시간이 8시간이 되지 않을 경우와 1년에 최대 60일은 하루 10시간으로 근무 연장이 가능하다. 6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30분 동안의 휴식은 필수이며, 다음 근무 전까지 11시간의 휴식이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휴식은 업종에 따라서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 공장에서 일하는 경우 아침 10시부터 15분의 휴식시간을 주게 돼 있다. 사무실에서 일하는 경우 휴식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으나, 약 15분은 '짧은 휴식'으로 보장돼 있다. 짧은 휴식의 경우 15분이 최소 단위이며

6시간 이상 휴식 없이 근무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노동시간법(ArbZG) 4조).

주당 근무시간은 근로계약서 작성 시 고용주와 시간에 관한 합의가 가능하다. 법적으로 초과근무란 예외적인 상황에서 고용주와 피고용인 간의 합의로 도출된 시간 내 업무가 연장될 수 있음을 말한다. 고용주와 합의가 되었거나 고용주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으로 추가적인 업무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초과근무가 가능하다. 초과근무 시간수당에 관하여는 고용주와 피고용인 간 합의된 근로계약서에 따른다. 초과근무 시간수당 금액에 대한 정확한 법적 규정은 없으나 고용주와 피고용인 간 합의된 근로계약서를 1차적으로 따른다. 초과근로에 대해 금전적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 일수의 상향 조정으로 보상하거나 특정 시간의 초과 근로 또는 모든 초과 근로에 대해 미리 임금으로 보상한다고 약정하는 경우도 있다. 초과 근로에 대해 휴가 또는 임금 지급으로 보상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정규 근로 시간의 근무에 대한 임금액을 기준으로 보상할 수 있다. 슈피겔지 보도에(2020년 7월 12일 자) 따르면, 독일 주당 초과시간은 2009년 6.5시간 이후 10여년이 지난 2020년 주 3시간으로 감소하여 경제호황과 워라밸(Work-Life-Balance) 문화가 강조된 2020년 독일 사회를 반영해준다. 그러나 많은 산업 분야에서는 주 근무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곳이 많다. 철강 산업의 경우 주 근무 시간은 서독지역은 35시간이며, 동독지역은 38시간이다. 소매업계의 경우 평균 37.5시간, 공공 업계는 38.7~42시간이다. 또한, 산업별로 탄력적인 근무시간 조절이 가능해 일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즉, 일반 직장의 평균적인 근무시간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8시에서 오후 5시까지이며, 직장이나 개인에 따라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유연 근무를 신청한 경우가 빈번하다. 금요일에는 평일보다 1~2시간 일찍 종료하는 회사가 많다. 일반 관공서는 오전 8시에서 오후 12시까지만 대민 업무를 보는 경우가 많으며, 요일에 따라 오전, 오후로 나누어 업무를 보는 경우도 있다.

휴가

독일 근로자의 최소 연차는 주 5일 근무의 경우 20일, 주 6일 근무일 경우 최소 24일이나, 대부분 기업은 25~30일의 휴가를 허용한다. 연방휴가법(BUrlG) 제7조에 따라 휴가는 해당 년도 12월 31일까지 써야 한다. 회사 또는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급한 경우(예를 들어 질병)에만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고, 이월된 휴가는 다음해 3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고 그 이후에는 사라진다. 근로자가 직업교육을 받기 원한다면 연 5일 교육휴가(Bildungsurlaub)를 가질 수 있다. 독일 대부분의 주가 현재 교육휴가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2년마다 10일씩 받을 수도 있다. 단, 바덴 뷔템베르크주, 바이에른주, 작센주, 튀링엔주는 적용되지 않는다.

출산휴가 일수는 총 14주로 출산 전 6주 및 출산 후 8주이다.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자녀 출산을 계기로 육아를 위해 임금을 계속 지급받지 않고 휴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자녀가 만 3세가 될 때까지 청구 가능하며, 사용자가 동의할 때에는 만 8세까지도 연장이 가능하다. 육아휴직의 최대 기간은 자녀 1명당 3년이다.

해고

독일에서는 해고보호법(Kündigungsschutz)과 같은 근로자의 권익을 우선시하는 노동 법규를 통해 고용인의 해고가 자유롭지 못하다.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는 세 가지 경우는 크게 근로자의 행위에 따른 해고, 근로자 본인의 개인 사유로 인한 해고 및 경영상 문제에 따른 해고로 나뉜다. 정규직 직원을 해고하면 대부분의 경우 해고 후 직원은 노동법원에 소송할 것이며, 직원이 매우 큰 잘못을 범하지 않은 경우 노동법원은 고용주와 직원의 합의를 권한다. 통상적으로 고용주가 1년 근무에 0.5~1개월 급여를 합의금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부분 기업은 소송을 피하고 직원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해고하고 싶은 직원에게 보상금, 휴가 등을 제시하며 노동계약을 종결하는 종결계약(Aufhebungsvertrag)을 서명하도록 유도한다. 통상적으로 고용주는 직원이 소송을 통해서 받아 낼 수 있는 보상보다 높은 수준의 보상을 제공하기 때문에 직원은 어느 정도의 협상 후 종결계약에 표기된 내용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퇴직금

독일의 경우 직원이 자발적으로 퇴직할 경우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는다. 고용주가 직원을 해고할 경우에는 직원의 노동소송을 방지하기 위해 합의금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다. 사회보장제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의료비용을 지불해주는 보험이다. 독일의 경우 2021년 연 수입이 64,350유로 이하(월 5,362.5유로)이면 의무적으로 공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수입이 더 높으면 공보험 또는 사보험 가입을 선택할 수 있다. 주로 사보험 수입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소득자, 연금생활자 및 실업자 수당 수령자들이 공보험을 사용하며, 고소득 근로소득자, 공무원 및 자영업자들이 주로 사보험을 사용한다. 2023년 공보험 건강보험 지불액은 세전 소득의 14.6%이며, 이 중 50%는 고용주, 50%는 직원(각각 7.3%)이 부담한다. 사보험의 경우 보험사별로 혜택 및 보험료가 상이하다.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실업자가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생활비를 제공하는 보험이다. 독일에는 모든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실업이 되면 1년간 마지막 급여의 70% 정도를 지불한다. 고용보험 지불액은 2023년 1월부터 세전 소득의 2.6%이며, 이 중 50%는 고용주, 50%는 직원(각각 1.3%)이 부담한다.

산재보험

근로자가 부상당할 경우를 대비하여 고용주가 가입하는 보험이다. 산재보험 지불액은 2023년 기준 세전 소득의 최대 1.6%이며, 고용주가 100% 부담한다. 산업별로 지불액이 다르다.

국민연금

독일에는 한국처럼 국민연금과 유사한 연금 기금이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들은 연금보험에 급여의 일부를 납부하며, 이 금액은 곧바로 연금 수령자에게 전달된다. 연금보험 지불액은 2023년 기준 세전 소득의 18.6%이며, 이 중 50%는 고용주, 50%는 직원(각각 9.3%)이 부담한다.

요양보험

한국과 달리 독일 근로자는 4대 보험 외 요양보험에도 의무 가입해야 하는데, 근로자가 질병이 생겨서 장기요양을 받아야 할 경우를 대비한 보험이다. 요양보험 지불액은 2023년 세전 소득의 3.05%이며(2023년 7월 1일부터 0.35%로 인상 예정), 이 중 50%는 고용주 50%는 직원이 (각각 1.525%) 부담한다.

7. 세무

가. 조세제도

법인세

독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납세 의무는 납세 의무자의 법적 형태에 따라 달라진다. 법인(주식회사, 유한회사 등)은 법인격을 가진 독립된 납세 의무자로 간주되며, 법인이 창출한 이익에 대해 법인세(Krperschaftssteuer), 영업세(Gewerbesteuer), 및 통독세(Solidarittzuschlag)가 부과된다.

법인이 정관에 의해 법적 소재지를 독일 내에 두거나 경영의 중심지를 독일에 유지하는 경우, 독일에 소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독일 소재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법인은 비소재지로 간주된다. 독일 소재 여부에 따라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할지 독일 원천 소득만 과세할지가 결정되므로 매우 중요하다. 독일을 소재지로 하는 법인은 전 세계 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가 있으며, 비소재 법인은 독일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가 있다.

독일 원천소득에는 독일 고정사업장으로부터 창출된 소득, 독일 회사 주식의 양도소득, 농업 및 산림소득, 임대소득 및 원천징수 대상인 특정소득이 포함된다. 회사의 상장 여부에 의한 차이는 없으며, 독일에 위치한 부동산 매각에 따른 양도차익도 독일 법인세 과세 대상이다.

독일의 세금계산 목적의 세무 회계는 기업회계에 근간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의 세법규정에 따른 세무조정을 반영한 후 결정하고 있다. 회계 장부가 적절하게 작성되지 않을 경우 세무당국은 과세표준을 추정할 권리를 가진다.

회사 설립 또는 증자로 인해 발생한 창업비 등은 자본화하지 않으며, 이들 비용은 발생연도에 손금으로 처리된다. 창업비는 회계사와 변호사 수수료 및 등록비를 포함한 것이다. 독일의 법인세율을 과세 대상 수입의 15%이며, 영업세는 지자체마다 상이하다.

통독세(Solidarittzuschlag)의 경우, 2021년부터 특정 소득기준 미만 개인 납세자(연 소득 62,121 유로)는 그 납부 의무가 해지되었으나, 법인 등 기업체는 기존과 변동없이 납부 의무가 유지 및 적용되고 있다.

개인소득세

현재 독일의 소득세율은 누진세 개념으로 0%에서 최고 45%까지 차등 구분돼 있다.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독일 거주자 법인의 국외 원천소득은 독일에서 과세소득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동 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한 소득세는 독일 세액 계산 시 공제된다. 이런 목적에 따른 국외 원천소득에는 농업 및 산림소득, 다른 상업적 소득, 특정 자산 및 주식양도소득, 특정투자소득 그리고 부동산 임대소득과 같은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항목이 포함된다.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외국에서 납부한 세목이 독일 법인세/소득세와 동등한 성격의 세금이어야 하며, 납세의무자는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에 관해 세액 공제 또는 손금산입 중 선택해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발생한 기간에 세액공제 혹은 손금산입이 적용되지 않은 외국 납부 세금은 이월이 불가능하다. 개인 납세자 중 세전 연 소득이 62,121 유로 미만인 경우는 2021년부터 연대세(Solidaritaetszuschlag)가 부과되지 않는다. 소득신고 기한은 기준연도 다음해 7월 31일까지로, 예를 들면 2022년 소득신고는 2023년 7월 31일까지 마치면 된다.

부가가치세

부가세 납세의무는 거주자 여부, 주요 관리장소, 청구/지불의 장소 등과 관계없이 사업자가 독일 내에서 과세대상 거래를 하는 경우 발생한다. 독일의 사업자에게는 일반적으로 부가세를 포함한 모든 세무 행정과 관련해 하나의 세무등록 번호가 주어지며, 신청 시 추가로 부가세 번호가 각 등록 사업자에게 주어진다.

2007년 1월 이후 독일의 부가가치세율은 19%이나, 서적, 신문 및 식료품(음료수 제외) 등의 특정재화 및 서비스에는 기존의 7%의 세율을 적용한다. 아울러 부가세가 면제되는 항목으로는 의료, 교육, 자선, 금융 및 부동산 관련 서비스 등이 있다. 또한, 2010년 1월 1일부터 호텔 및 숙박업계에는 기존의 19%에서 인하된 7%의 부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최초 1968년 10%로 적용된 부가가치세는 꾸준히 상승해왔으며, 독일 전체 세금 징수액의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20년 기준 독일 연방정부의 세수 중 이 중 부가가치세 수입이 944억 유로(30.4%)를 기록했다. 2020년 독일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부가세를 하반기에 한시적으로 16%(인하된 부가세는 5%)로 인하하였으나 2021년 1월 1일부 다시 19%로 인상하였고, 이는 2022년에도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

○ EU 개정 부가가치세법(2021년 7월 1일부 적용)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2020년 2월 디지털 단일 시장 전략의 일환으로 국경 간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고 역내 기업에게 공정경쟁 여건을 보장할 목적으로 'EU 전자상거래 부가가치세 규정(VAT e-commerce package)'을 채택하였다. 동 규정 개정은 소액 역외 수입 상품에 대한 부가세 면제와 온라인 거래에 대한 느슨한 부가세 징수 관리가 역외국 대비 역내 기업이 불공정 경쟁 상황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여 시장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는 주요 회원국의 문제 제기가 EU 차원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결과로 이해된다. 동 개정 규정은 올해 7월 1일부로 적용되기 시작하여 EU 온라인 시장을 공략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에게 새로운 제도적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 첫째, 종전에는 EU 역외에서 수입되는 상품의 실질 가치가 22유로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면제되었으나 규정 개정으로 EU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모든 EU 역외 상품이 부가세 납부 대상이 되었다. 즉, 종전에는 제품 가격 22유로 이하인 경우 부가세가 원칙적으로 면제되고 주류, 담배, 향수 등 대하여 특별소비세가 부과되었으며, 제품가격 22유로 초과 150유로 미만인 경우에는 품목에 따라 7-19%에 이르는 수입부가세 부과, 제품가격 150유로 이상인 경우에 한해 수입부가세와 특별소비세가 모두 부과되었으나 규정 개정 이후에는 부가세 면제 금액 한도가 사라지게 되었다.

둘째, 온라인 거래의 경우 EU 부가가치세 규정 준수 책임이 개별 판매자에서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자로 이전되었다. 이는 플랫폼에 입점한 개별 판매자의 부가세 미신고 등 탈세 행위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부가세 납부 추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EU 집행위원회에서는 역외 상품 판매자의 부가세 미신고 및 서류 조작 등 부정행위에 따른 탈세 규모를 연간 500억 유로로 추산하고 있다. 규정 준수 책임이 플랫폼 사업자로 이관되었으나, 실행에서는 아마존 등 EU 역내에서 활동하는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 판매자의 규정 준수를 사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온라인 셀러 등록 시 세금번호 및 부가세 번호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셋째, 온라인으로 거래되는 배송비 포함 150유로 이하의 B2C 역외 수입품에 대하여 EU 통합 부가세 신고 플랫폼(IOSS)을 신규 도입, 효율적인 징수 체계 마련을 통해 통관 지연 방지와 부가세 신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온라인 플랫폼 거래 시 부가세 신고 : IOSS(EU 온라인 거래 부가세 신고 시스템))

현지 세무법인 관계자 인터뷰에 따르면, 아마존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EU 소재 최종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기업은 기본적으로 세금번호(Tax Number)와 부가세 번호(VAT Number)를 신청하여 발급받고, 이후 IOSS 포털을 통해 IOSS 번호를 발급받아야 한다. 온라인 플랫폼 거래의 부가세 관리 의무가 플랫폼 사업자로 이전됨에 따라 아마존 등 플랫폼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거래의 부가세 관리 의무가 플랫폼 사업자로 이전됨에 따라 아마존 등의 마켓플레이스에서 직접 IOSS 툴을 제공하거나, 아마존 판매자가 IOSS 등록을 증빙할 경우 셀러 등록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국내기업과 같은 EU 역외 기업의 경우, EU내 세무 대리인(회계 법인 등)을 지정하여 IOSS를 통해 부가세 납부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IOSS에 등록된 판매자는 판매된 상품이 EU 회원국 소재 구매자에게(B2C 거래) 배송되는 시점에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며, 부가세율은 상품 도착 예정 국가의 부가세법에 따라 상이하다. IOSS 시스템으로 부가세 신고를 수행하기 위한 기본 요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EU 소재 최종 소비자가 상품주문을 완료하기 전까지 상품 구매에 따른 부가세를 최종 소비자가 인지하도록 상품 판매 시 온라인에 별도 표시해 주어야 한다.
- ② 판매자는 모든 적격상품 공급에 따른 부가세 징수를 상품 배송 목적지의 EU 회원국에 보증해야 한다.
- ③ 수화물의 형태로 발송된 적격 상품의 가치가 배송비 포함 150유로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④ 판매자는 등록된 EU 회원국의 IOSS 포털을 통해 최초 2년간은 매월, 이후에는 분기별 누적 거래액이 7,500유로 미만인 경우 분기별로

부가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를 월별로 진행했을 경우 납부도 월별로 진행하고, 분기별로 신고한 경우 납부도 분기별로 진행한다.

⑤ 신고 이후 10년간 IOSS를 통한 신고 건 증빙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온라인 플랫폼 외 B2C 직접 거래 시 부가세 신고: 독일의 경우 전자세관시스템 이용)

상기 IOSS 이용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B2C 거래를 전제하는 바, 경우에 따라서는 샘플 직접 발송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지 않는 B2C 직접 거래도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독일에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전자 세관 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배송비 포함 150유로 이하 소액 물품에 대해서는 전자세관신고사이트(www.zoll-portal.de)에 신고해야 하며, 개인의 경우 전자신분증명서(안드로이드 또는 iPhone용 AusweisApp2에서 다운로드 가능)가 필요하다. 독일 정부는 동 신고를 위한 전용 사이트인 ATLAS-IMPOST를 2022년 1월 15일부로 오픈하여 운영중이다.

* 관련 세부정보 : https://www.zoll.de/DE/Fachthemen/Zoelle/ATLAS/ATLAS-Allgemein/atlas-allgemein_node.html;jsessionid=74B4491EE913E23C3BEA00DAFC425AE6.internet651

신고 주체는 물품 수취인(개인), 우체국 등 배송 주체, DHL등 국제 특 기업으로 되어 있어 B2C 직거래시 국제 특송 운송기업에 상기 절차를 위탁할 수 있다. 단, 대행 수수료는 특송 기업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개별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 독일전자세관시스템 이용 관련 문의는 독일 세관 서비스 안내 데스크(Service Desk Zoll)에 접수할 수 있는바, 연락처는 이하와 같다.

○ 독일 세관 서비스 안내 데스크(Service Desk Zoll) 문의

- 전화: +49-(0)800-8007-5452(월-금 07:00~18:00, 공휴일 제외/현지시간 기준)

- 이메일: servicedesk@zoll.bund.de

특별소비세

독일에서 부과되는 특별 소비세는 담배, 커피, 전기, 에너지(구 석유세)와 맥주, 중간제품(와인과 증류주 사이 단계), 스파클링 와인 등을 비롯한 알코올 및 알코올 포함 음료수 등에 적용된다. 2022년 특별 소비세 부과에 따른 세수 규모는 620억 유로로 연방정부의 총 세수의 7%에 해당한다. 이 중 에너지세가 총 371억 유로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전기세는 1991년부터 부과되기 시작하였으며 2022년 연세수 규모가 67억 유로에 달하며, 일반적으로 전력공급 기업으로부터 징수되는데, 이는 전기가격을 통해 소비자로부터 청구된다.

영업세

독일의 영업세(Gewerbesteuer) 세율은 2022년 기준 평균 5~15%이며,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의 영업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제도다. 한국 기업들은 프랑크푸르트에 인근 지역에 주로 소재하는데, 프랑크푸르트보다 영업세율이 저렴한(11.55%) 이유로 15분 거리인 에쉬본(Eschborn)에 소재지를 두는 경우가 많다. 영업세는 법인세와 달리 법인뿐만 아니라 과세소득 규모가 일정 한계를 넘는 개인 사업자에도 부과된다. 단, 수익이 24,500유로 이하인 경우 영업세 대상이 아니다.

기타/외국기업에 대한 과세

외국 법인은 독일에서 유한 납세자로 간주되며, 오로지 독일 원천소득에 근거해 과세된다. 원천소득에 근거한 납세로 인해, 배당금이나 로열티와 같은 수동적인 소득에 근거한 조세는 독일 세무 당국에 납부해야 하는 이자 소득세로 정산된다. 조세협약(이중과세 방지협약)이 적용되는 곳에는 세무부담 없이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경우에 동 사무소의 피고용인은 연락이나 부수적인 업무의 영역을 엄격히 제한해야 하고, 잠재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판매로 간주될 만한 영업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독일 소재 대한민국 법인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세계 96개국과 체결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 의해 세금 감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형적으로 조세 조약에는 소득 원천 국가나 소재 국가 중 한 국가가 과세권을 갖고 상대국은 동 소득에 대해 과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외국 납부 세액공제를 허용해 이중과세를 방지한다. 사회보장협정에 의거, 사회보장세에 대한 협정을 체결해 파견되는 근로자는 양국의 연금제도에 이중으로 가입해야 할 의무가 없게 됐다.

8.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독일은 미국 상공회의소 글로벌혁신정책센터(GIPC)에서 발표한 '2023 국제지식재산지수'에서 92.46점을 획득하여 4위에 랭크되었다.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1980년 12월 16일에 특허법을 공포하였고, 1876년부터 상표 및 디자인과 관련한 권리를 보호하며 1988년 7월 1일부터는 독일 국내 및 국외 거주자가 독일 특허청(DPMA)에 등록할 수 있게 하였고, 1896년에는 기만적 광고 등을 비롯한 특별한 유형의 불법경쟁행위를 금지시키는 부정경쟁방지법을 제정하였다.

특허법에 의하면 특허는 기술의 모든 분야에서의 발명에 대하여, 그것이 신규이고, 발명 행위에 근거하고 산업상 이용 가능한 경우에 부여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발견이나 과학적 이론 및 수학적 방법, 심미적인 창작물, 정신적 활동, 유희, 영업 활동을 위한 계획, 규칙, 절차 또는 데이터처리장치를 위한 프로그램, 정보의 제공은 발명으로 간주하지 않는다(특허법 제1조). 특허권은 출원일로부터 20년간 보호된다. 이에 반해 실용신안은 출원일로부터 최장 10년까지 보호될 수 있다.

디자인은 디자인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며(디자인보호법 제2조), 신규성이 있고 독창성이 인정된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평면적 또는 입체적인 외관에 대해 인정된다. 등록된 디자인권은 5년간 보호가 가능하며, 5년 단위로 갱신하여 최대 보호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5년까지 가능하다.

상표법에 따라 상표, 영업상의 표지, 원산지 표시 등이 보호되며(상표법 제1조), 식별력이 인정되고 부등록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출원일로부터 10년간 보호되며, 제한 없이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 더불어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하여 경쟁자, 소비자 및 기타 시장참여자를 기만적 광고행위 등 부정한 거래행위로부터 보호하고 있다(부정경쟁방지법 제1조).

독일은 EU 회원국으로 개별국 등록출원 이외에도 EPO(유럽특허청)를 통한 특허출원 및 EUIPO(유럽지식재산청)를 통한 상표 및 디자인 출원이 가능하다. 해당 권리는 EU 가입국(특허의 경우 EPC 회원국)내에서 보호 받도록 할 수 있다.

추가로,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로 유럽상표 및 유럽공동체디자인의 출원은 영국을 제외한 EU27개국을 그 대상으로 하게 되었다. 만약, 국내기업이 영국에 자사의 상표 또는 디자인을 등록하고 싶다면, 영국지식재산청(UKIPO)으로 해당 지재권을 직접 출원하여야 한다.

한편, 2023년 2월 17일 독일이 통합특허법원에 관한 협약(UPC Agreement) 비준서를 가입국 중 17번째로 유럽연합 의회에 공식 기탁하였다. 이로써 예정된 대로 2023년 6월 1일 단일특허 시행 및 통합특허법원의 출범일이 드디어 최종 확정되었으며, 권리자들에게 미리 옵트아웃(Opt-out)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여명기도 3월 1일에 시작하는 것으로 공식화되었다.

9. 청산 및 철수

가. 청산 및 철수

관련 법 및 절차

독일에 설립된 회사의 청산(Liquidation)은 파산(Insolvenz)과 엄격히 구별된다. 회사 청산은 회사가 채무를 이행할 충분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영업을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한다. 회사를 청산하고자 결정한 때에는 반드시 일련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상사등기법원이 동 요건의 준수 여부를 심사한다. 기본적으로 독일 법인 철수 및 청산은 해산(Auflösung), 청산(Liquidation), 종결(Löschung)의 3단계로 구분된다. 해산은 기업의 청산과 법인격 소멸을 목적으로 하며, 주주총회 시 주주 75% 이상이 해산에 찬성하면 해산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아울러 파산을 통해 강제로 해산 절차가 개시될 경우도 있다. 해산절차 개시 일시를 명시하지 않으면 즉시 유효하다. 청산은 회사가 상업등기부에서 말소되는 것을 뜻하며, 해산이 전제되어야 한다. 청산은 법인의 모든 법률관계를 종료시키고, 재산관계를 정리하여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종결은 법인의 자산을 현금화해 주주에게 배분한 후 상업등기부 등기부에서 법인 등록을 말소하는 행위이다. 청산소요기간은 채권자보고기간을 감안하여 최소 1년 이상이 필요하며 비용은 청산절차 및 법적 서비스업체 선임 등에 따라 상이하다.

○ 청산 절차

해산은 법인격 소멸의 원인은 되나 청산절차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법인격은 소멸되지 않고, 기업은 영업능력은 잃게 되나 청산목적 범위 내에서는 권리를 행사할 능력이 있다. 회사의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주주총회에서 투표 참가 자본 75% 이상이 해산에 동의하면 해산절차를 개시한다. 해산 결의는 형식을 갖추지 않더라도 유효하나, 해산 결의가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회사의 해산과 함께 법인의 대리권도 소멸한다. (관련법령: 유한책임회사법(GmbHG) 60조 1항, 주식회사법(AktG) 262조 1항)

법인이 해산을 결정하면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후 주주총회의 결의로 선임된 청산인을 통해 상업등기소에 등기할 의무가 있다. 즉 독일 공증인의 입회하에 청산인이 관련된 신고서에 서명해야 한다. (관련법령: 유한책임회사법(GmbHG) 65조 1항, 주식회사법(AktG) 263조) 해산 개시 후 법인은 기업명 뒤 ‘i.L(in Liquidation - 청산 중)’이라는 단어를 표기하여 법인이 해산 중이라는 사실을 이해 관계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통지는 연방관보(Bundesanzeiger)에 1번 공시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법인의 목적을 경제적 영업에서 법인 자산의 청산으로 변환한다. (관련법령: 유한책임회사법(GmbHG) 65조 2항, 주식회사법(AktG) 267조)

동 통지 내용을 개시해야 하는 기간은 없으나, 공고가 이루어진 기점으로 1년 동안은 회사 재산의 분배가 정지되는 채권자 보호기간이 있어 적합한 시기에 공고를 내야 한다.

(관련법령: 유한책임회사법(GmbHG) 73조 1항, 주식회사법(AktG) 272조)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청산인을 임명하고, 청산인은 대외적으로 청산기업을 대표한다. 통상 법인장이 청산인 역할을 부여받지만 제3자를 임명하는 것도 가능하다. (관련법령: 유한책임회사법(GmbHG) 66조, 주식회사법(AktG) 265조)

청산인은 공증형식을 거치면서 상업등기소 신고를 통해 등기법원에 자신이 청산인으로 선임된 사실과 관련하여 형법, 영업법 또는 직업법에 비추어 어떠한 하자도 없다는 점을 선언해야 한다. 이는 법인장이 청산인으로 선임된 경우도 동일하다. (관련법령: 유한책임회사법(GmbHG) 67조 3항, 주식회사법(AktG) 266조 3항)

청산인은 아래 사무활동을 통해 기업 자산을 현금화해야 하며 청산 법정 규정을 어기면 청산인이 개인 자산으로 손해 금액을 충당해야 한다. (관련법령: 유한책임회사법(GmbHG) 70조, 주식회사법(AktG) 268조 1항)

- 현존 사무의 종결
- 채권 추심 및 채무 변제
- 재산의 환가처분

공증인은 채권신고 요청을 연방관보(Bundesanzeiger)에 공고해야 하며 채권자에게 법인의 청산 개시를 공시해야 하고, 1년 내 채권자의 채권을 변제해야 한다. (관련법령: 유한책임회사법(GmbHG) 71조 1항, 73조 1항, 주식회사법(AktG) 272조 1항)

- 공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회사를 상업등기부에서 말소할 수 없다. 공고 사이에 어느 정도의 기간이 존재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문의 법규정은 없다.

- 1회 채권신고 공고가 이루어진 기일을 기점으로 1년 동안은 회사 재산의 분배가 정지되는 채권자 보호기간이 된다.
- 보호기간이 경과한 이후 청산인은 청산종결 대차대조표를 작성한다.

청산인은 모든 채권을 변제한 후 현금화한 잔여재산을 주주들에게 분배한다. 분배 후 법인의 기타 자산이 존재할 경우 추가청산이 필요하며, 새로운 추가청산 청산인을 임명해야 한다. 청산 후 발견되는 세금 상황, 매출채권 등이 추가청산의 대상이다. (관련법령: 유한책임회

사법(GmbHG) 72조, 주식회사법(AktG) 271조)

○ 종결

법인 채권 변제 및 잔여재산 분배가 완료되면 청산인은 상업등기소에 기업의 종결을 공증하여 신청한다. (관련법령: 유한책임회사법(GmbHG) 74조 1항, 주식회사법(AktG) 273조 1항)

청산이 종결된 이후에도 회사의 장부와 문서는 10년간 보관해야 한다. (관련법령: 유한책임회사법(GmbHG) 74조 2항, 주식회사법(AktG) 273조 2항)

해산된 회사에 대해서는 상업등기부 사본에 삭제 표시가 이루어지는데, 이로써 법인은 법적으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

○ 청산 소득에 대한 과세

법인 청산 시 과세 문제는 세법의 규정을 따른다. 청산 소득은 청산 종료 시 주주에게 배분될 자산의 시장 가치에서 청산개시 시 순 장부 가치를 차감한 금액으로 정의된다. 세무 목적으로 청산 기간은 통상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주주의 입장에서 청산 소득은 본질적 청산 소득과 순자기자본, 즉 세법상의 자본금 계정(tax-specific capital contribution account) 상황에 속하는 부분으로 나뉜다.

이익 준비금이나 은닉 적립금에서 주주에게 지불되는 형태의 청산 배당은 일반 규정에 의해 자본 투자 수익으로 과세되며 95% 면세 적용을 받는다.

자본금 계정으로부터의 상환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일반 법인세 규정에 의거하여 과세되며 실질적으로 95%가 면세된다.

○ 파산 절차

부득이하게 독일에서 파산하는 경우에는 매우 유의해야 한다. 유한책임회사(GmbH) 등 법인일 경우에도 파산 절차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대표이사도 책임을 피할 수 없으며 벌금형 또는 징역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파산이 임박할 경우 전문 변호사 등을 고용하여 절차를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

파산 신청의 경우, 법원에 의해 일방적으로 선임된 파산관재인(Insolvenzverwalter)이 주주의 유한책임회사에 대한 책임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므로 경우에 따라 적지 않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점 이외에도 주주의 유한책임회사에 대한 영향력 상실, 향후 유럽 내 영업제한에 따른 불이익, 한국계 기업 및 국가에 대한 이미지 상실, 파산신청 및 절차에 대한 복잡성, 파산관재인에 대한 높은 수임료 등을 고려하면 파산을 통한 회사정리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독일 진출 국내기업 대부분은 주주의 임의청산 방법을 통해 독일 내 사업을 정리한다.

유한책임회사(GmbH)가 파산위기에 처하면 유한책임회사의 법적 대표자인 법인장은 지켜야 할 의무가 많아진다. 독일 관련법상 이행해야 할 법정 의무를 위반하면 개인 책임은 물론 형사 소송절차의 대상까지 될 수 있다. 법인장이 독일 파산법 내용을 지키지 않을 경우 회사의 채무를 법인장의 개인 자산으로 책임져야 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 유한책임회사의 자본금 50% 가 손실되었을 경우 법인장은 독일 유한책임회사법(GmbHG) 제49조 3항에 의거 즉시 주주총회를 소집할 의무가 있다. 자본금의 손실을 연말 재무제표에 의하면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연중에도 월말결산을 통하여 자본금 50%의 손실이 확인되면 주주총회 소집 의무가 발생한다. 주주총회 소집은 향후 법원의 조사 시 증명으로 제출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서면상으로 통보할 것을 권장한다. 임시 주주총회의 목적은 추가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 영업정책을 검토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는 데에 있다.

- 주주총회 이후에도 회사의 재정상황이 계속 악화한다면 법인장의 신고 의무는 더 확장된다. 독일 파산법(Insolvenzordnung) 제15 a조 1항에 의거 법인장은 지급불능(Zahlungsunfähigkeit) 또는 채무초과(Umlaufverschuldung)의 인지 후 즉시(늦어도 3주 이내에) 파산 신청(Insolvenzantrag)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middot; 지급불능은 채무자(파산 위기의 유한책임회사)가 만기의 채무를 이행할 능력을 상실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채무초과는 완전자본잠식을 뜻한다.

- 채권자(예: 은행, 의료보험회사)가 파산을 신청하더라도 법인장의 파산신청 의무는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존재한다. 따라서 법인장은 파산신청을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파산신청 시 파산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하고 이에 관한 서술은 파산 관련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작성하는 것을 권장한다.

- 파산신청이 법원에 제출되면 법원은 임시 파산관리인(Vorläufiger Insolvenzverwalter)을 지명하여 파산절차의 개시 여부를 검토한다. 파산절차 비용이 자산 부족으로 충당이 안되면 파산신청은 거부당한다. 이러면 검찰청에 통보되어 형사소송 절차를 검토하게 된다. 파산절차를 개시하게 되어도 파산관리인은 파산신청 시점을 먼저 조사한다. 파산신청을 너무 늦게 제출했다고 판단되면 파산지연이라는 범행으로 법인장이 형법의 대상이 된다.

파산관리자는 파산절차 개시 전에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의 채권만을 만족하게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법적 행위를 취소하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독일 파산법 제129조). 특히 파산법 제133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의도로 재산을 양도하고, 그 상대방이 채무자의 가해의사를 알고 취득했을 경우, 파산관리자는 채무자의 파산절차 개시 10년 전 법적 행위까지도 취소할 수 있다. 더불어 파산

신청과 관련된 법원 결정이 나기 전까지 채무자의 재정 상태와 관련하여 채권자에게 불리한 변경을 방지하기 위해 독일 파산법 제21조에 따라 관할 법원은 다음과 같은 보안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 임시 관리자 임명
- 채무자에게 처분할 경우 임시 관리자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는 처분금지를 지시
-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금지하거나 일시적으로 중단 지시 가능 등

만약에 도산재단 (insolvency assets)이 충분히 존재하고 파산 이유 (지급불능, 지급불능 위협 또는 채무초과)가 있는 경우, 관할 법원은 파산 절차를 개시한다는 결의를 가지며 동시에 파산관리자를 임명하게 된다. 관할 법원은 파산관리자 임명 관련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제의를 따를 필요가 없으며, 법원에 재량에 따라 정해질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임시 파산관리자가 파산 절차가 개시될 경우 파산관리자로 지명된다.

파산 절차의 개시는 홈페이지(www.insolvenzbekanntmachungen.de)에 공표되며, 등기 및 상업 장부에 등록된다. 동시에 파산 절차 개시 결의에는 채권자 회의 일자가 정해지며, 파산관리자 보고서 기반으로 파산 절차 진행에 관한 내용이 결정된다. 동 일정은 파산 개시 후 최대 3개월 안에 개최되어야 한다. 또한, 청구 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토일정도 결정된다.

IV. 참고정보

1. 시장특성

가. 시장특성

□ (시장) 세계 4위의 경제 대국으로 유럽 최대 시장

2022년 기준 독일의 연간 GDP는 약 3조 8,671억 유로를 기록했다. 독일은 유럽 내에서 가장 높은 GDP를 자랑하며, 전 세계 기준으로는 미국·중국·일본에 이어 4위 경제 대국에 해당한다.

□ (대외 무역 실적) 독일 2022년 대외 무역 수치, 2000년 이후 최저치

2022년 독일의 수출 규모는 전년 대비 14.2% 증가한 1조 5,757억 유로이며, 수입 규모는 전년 대비 24.1% 증가한 1조 4,948억 유로를 기록했다. 2022년 대외 무역수지는 809억 유로 흑자를 기록, 이는 2000년 이후 최저치이다.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2019년과 2021년 사이에 독일의 대외 무역 수지는 2,240억 유로에서 1,750억 유로로 21.7% 감소했다. 그리고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독일의 대외 무역 수지는 1,752억 유로에서 809억 유로로 급감하여 통독 이후 가장 큰 폭인 53.8% 감소했다. 이러한 감소의 주원인은 에너지 수입 가격이 크게 상승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2022년 독일은 1950년 독일 연방 통계청이 시계열을 시작한 이래 대중국 무역에서 최대 무역 적자를 기록했다. 2022년 기준, 독일은 중국과 미국에 이어 세계 무역 시장에서 세 번째로 큰 수출국이다. 또한 독일은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수입국이기도 하다.

□ (제조 강국)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자랑하는 제조기업 다수 소재

독일 기업들은 경쟁사와 차별화되는 독보적인 산업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독일 산업을 주도하는 4대 분야는 자동차, 기계설비, 화학, 전기 전자 산업이다. 폭스바겐, 다임러, BMW와 같은 글로벌 기업이 자동차 산업을 이끌고 있으며, 바스프는 화학 산업의 선두 주자이고 지멘스는 전기 전자 분야의 주요 기업이다. 반면 기계설비 산업은 주로 중소기업이 주도하고 있다.

2020년 독일에는 약 247만 개의 중소기업이 존재하며, 이는 전체 독일 기업 중 무려 99.4%를 차지한다. 높은 비중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종사자의 비율은 전체 근로자의 55%에 불과하다. 나머지 45%는 대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다.

□ (연구 및 개발) 2021년 1,126억 유로 투자, 2025년까지 GDP의 3.5% 확대 목표

2021년 독일의 연구 및 개발 투자는 전년 대비 5.6% 증가한 1,126억 유로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3.1%에 해당한다. 독일 정부는 2025년까지 GDP에서 연구 및 개발 투자 비중을 3.5%로 확대할 계획이다.

독일의 2022년 유럽 특허청 특허 출원 수는 총 24,684건으로 전년 대비 4.7% 감소했으며, 전 세계 국가 중 미국(48,088건)에 이어 2위, EU 국가 중 1위를 차지했다.

□ (지속 가능 경영) 탄소 감축, 재생 에너지, 재활용 및 공급망 실사법

독일의 많은 기업들은 탄소 배출 감소, 재생 에너지 사용, 리사이클링 프로그램 구현 등의 지속 가능한 실천 방안을 채택하고 있다. 일부 기업들은 지속 가능성 보고서를 발행하여 목표와 진행 상황을 알린다.

독일은 정책적으로 기후 중립과 지속가능성을 강조해 왔으며,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강력한 목표를 설정했다. 독일은 2030년까지 1990년 수준 대비 탄소 배출량을 65% 감축하고 2045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3년부터 시행되는 독일 공급망 실사법은 기업이 공급망 전반에 걸쳐 인권 및 환경 기준을 준수하도록 요구한다. 즉, 기업은 공급망 내에서 인권 침해 및 환경 피해의 위험을 식별 및 해결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예방 및 완화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이 법은 독일에서 3,000명

이상의 직원을 둔 기업에 적용되며, 위반 시 벌금 및 기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나. 소비자 특성

소비인구

독일 인구는 8,430만 명(2022년 기준)이며, 독일의 연간 GDP는 2022년 기준 3조 8,671억 유로에 달한다. 독일은 유럽 내 최대 시장이다.

<자료원 : 독일 통계청>

소비 성향

(소비성향 일반) 독일인은 무엇보다 가격 대비 성능 등 제품 구매 시 합리적 구매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선진국 제품이나 인지도가 낮거나 비 유명상표 제품이라 할지라도 품질과 가격 경쟁에서 앞선다면 시장 진입의 가능성 있다. 시장 진출 시 기술 혁신과 디자인에 초점을 맞춘 고품질 제품으로 독일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가장 성공적인 전략이며, 온라인 유통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 확대 및 시장확대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2022년 러시아 전쟁 이후 천연가스 공급 부족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급등 및 주요 원자재 부족으로 인한 물가 상승의 장기화로 소비심리가 악화되고 있다.

(시장특성) 일반적으로 독일 시장은 대체로 자유시장원리가 지배하지만, 사회보장제도 및 자국 산업보호 측면에서 상당한 정부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독일인들은 'Made in Germany'의 제품 품질에 대한 자부심이 매우 강하며, 이를 바탕으로 제조업이 발달해 내수시장이 활발하다. 또한 독일은 Hannover 산업 박람회, 자동차박람회(IAA), Automechanika 등의 대형 전시회를 개최하는 국가로, 국제 교역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지리적으로도 EU의 중심부에 위치한 독일은 유럽 경제의 요충지라고 할 수 있다. 독일 경제의 구조적인 약점으로 지적되던 노동시장의 비유연성과 세금 및 신규 사업 확립에 있어 과도한 규제, 높은 사회보장비용 등은 정부 차원의 다방면 제도개혁을 통해 점차 개선되고 있다. 독일 산업의 주된 분야는 자동차, 기계, 화학, 첨단 기술 분야이다. 지난 몇십 년 간 주요 제조기업은 생산기지를 외국으로 옮겨 비용 절감을 꾀하고 있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중국 부품 조달이 일시 중단된 이후 독일, EU 내에서 부품 조달을 하려는 노력이 강해지고 있다.

(러시아 전쟁과 독일 경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분쟁이 시작된 이후 세계 경제는 큰 영향을 받았다. 에너지, 식량, 소비재 가격의 상승은 산업계와 개인 가정 모두에 부담을 주고 있다.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국가 중 하나는 러시아로부터의 에너지 수입에 크게 의존하는 독일이다. 전쟁의 여파와 그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은 독일의 소비와 투자 감소로 이어져 국내총생산(GDP)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 결과 많은 독일인이 지출을 줄였고, 기업도 투자를 주저하면서 경제 활동이 위축되었다.

2022년 독일의 연평균 인플레이션율은 6.9%였다. 독일 연방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인플레이션율은 3월 7.4%에서 4월 7.2%로 소폭 감소했다. 독일 경제 전문가들은 2023년 인플레이션율이 전년보다 하락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 상품 이미지

한국 상품에 대한 인지도는 한국 대기업들의 해외 진출 성과에 힘입어 IT, 가전제품, 자동차, 자동차 부품 품목에서 높은 인지도를 형성하고 있다. 삼성 스마트폰의 경우, 2023년 1분기 판매량 기준 삼성 갤럭시 핸드폰이 시장점유율 22.5%로 전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다. Statista가 실시한 '2022년 독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TV 브랜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TV 가전의 경우, 삼성이 응답자의 38%를 차지하며 가장 인기 있는 브랜드로 부상했다. LG는 응답자의 15%로 2위를 차지했고, 필립스가 9%로 그 뒤를 이었다. 독일 소비자들은 삼성과 LG를 다른 TV 브랜드보다 훨씬 더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독일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제품의 브랜드 가치와 인지도가 지속 상승하면서 한국 제품의 전반적인 위상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독일에서는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등 케이팝 밴드와 기생충, 미나리, 오징어 게임 등 한국 영화와 드라마의 인기로 'K-콘텐츠 열풍', 한국 문화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제품 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 콘텐츠 전반에 대한 인지도도 크게 상승하고 있다.

2. 비즈니스 에티켓

가. 상거래 유의사항

상거래 시 유의사항

1) 사전 연락 및 늦은 회신 가능성

휴가 중(7~8월 여름과 부활절 및 방학 시즌, 크리스마스 연휴 동안 2~3주) 또는 퇴근 후(탄력근무는 오후 4시 이후) 개인 연락처로는 연락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출장 계획 시 또는 독일 바이어와의 교신 시 반드시 연계 휴일 여부를 체크할 필요가 있다. 약속은 반드시 최소 6주에서 2개월 전에 서면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담시간 관련 이메일 송부 시 반드시 전화로 수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독일 기업과 미팅을 잡는 것은 어려우나 일단 잡히면 중도 취소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미팅 당일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 미팅에 임하는 편이다.

2) 신용상태 등 거래 전 점검 강화

KOTRA를 통해 신규 잠재 바이어를 소개받았을 경우, 제품 상세정보가 있는 자료와 거래조건(가격, 결제조건, 최소수량)에 대해 궁금해한다. 관련 제품 판매업체들의 웹사이트를 방문해 어떤 방식으로 정보가 구성돼 있는지 미리 공부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온라인 상업등기소(www.handelsregister.de)에서 이 기업이 실제로 존재하는 기업인지 확인하고, 온라인 공시 사이트(www.bundesanzeiger.de)에서 기업의 재정상태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소개자료 준비 시 글꼴은 Arial, Times New Roman 등 독일에서 널리 사용되는 글꼴을 사용하고, 글꼴색은 검정, 파란색만을 사용하며, 원어민의 감수를 받아, 전문적인 첫인상을 주는 것이 필수다. 이메일 송부 후 회신 검토기간은 2~3주 이상 소요되는 것이 보통이다. 제품과 관련해 세부 기술 데이터나 품질을 증명할 수 있는 인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필요한 인증이 없는 경우는 취득 후 다시 거래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바이어가 알만한 국제 인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유리하며, 현재까지의 파트너 업체 및 공급업체 정보 및 수출 경험 등을 간략하게 공개하는 방법도 추천한다. 독일 시장 진입을 위해서는 높은 품질과 함께 경쟁력 있는 가격 제시가 가장 중요하다. 독일 바이어들의 경우 물량이 많거나 중량이 높은 제품일 경우, 독일 내 물류창고를 보유한 기업을 선호한다. 제품 A/S를 어떻게 처리할지 고려해두는 것이 독일 시장 공략에 중요한 점 중 하나이며, 일부 대형 바이어는 독일 연락사무소 또는 지사 설립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3) 현지 비즈니스 관행 이해 필요

Sales, Marketing, Purchasing 등의 담당자가 나뉘어 있고, 담당자 부재 시 업무 대행은 불가능하며, 규모가 작은 경우는 대표를 직접 만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접촉 시 대표 이메일로 정식 문의 후 반드시 유선 접촉을 통해 메일 수신 여부와 정확한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해야 한다. 담당자가 모르면 대표 메일로 연락해야 하는데, 이 경우 담당자에게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꼭 유선으로 확인작업을 거쳐야 한다. 독일 업체들은 거래선을 쉽게 바꾸지 않고 한 번 신뢰가 형성된 업체와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해 신규 거래선 발굴이 어려우나, 일단 거래가 성사되면 장기적으로 거래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4) 결제조건 제시

거래를 문서 위주로 진행하며, 계약서를 잘 보관해야 한다. 대금 결제방법 및 환율 변동에 대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수출대금 결제조건이 DDP(Delivery Duty Paid)인 경우 수출자는 수입자가 지정하는 장소까지 인도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수출자가 관세, 현지 운송비, 통관 수수료 등을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부가세(2007년부터 19%로 인상)는 수입자가 선납 후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수출 계약서(Sales agreement)상에 부가세는 하주(consignee)가 부담하는 것으로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분쟁 예방을 위해 좋다. 한국무역보험공사(<https://www.ksure.or.kr/index.do>)가 운영하는 '환변동 보험 제도' 등을 활용해 급격한 환율 변동으로부터 올 수 있는 결제위험에 적절히 대비하는 것이 좋다. 분쟁 발생을 대비해 중재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중요하고, 중재지역에 자국을 선호하나, 제3국을 중재지로 지정할 수 있다(참조: www.kcab.or.kr). 불만이 있으면 즉각 불만을 제기해야 한다.

5) 계약 내용 점검

독일은 구두 약속보다는 문서를 더 신뢰하는 편이다. 독일 기업과 거래를 할 경우에는 계약내용을 꼼꼼히 점검하고 계약서를 잘 보관해야 한다. 계약서 세부조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서명할 경우 문제 발생 시 매우 불리한 조건에 처할 수 있으며, 독일인들은 계약을 매뉴얼처럼 지키려 하고 계약 조건이 이행되지 않으면 곧바로 클레임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 기업이 계약조건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 계약조항과 다른 선적으로 이해 클레임을 당하거나 수출 대금을 제대로 못 받는 사례는 종종 발생한다.

6) 영문 카탈로그와 홈페이지는 필수

독일 바이어들은 상세한 제품 카탈로그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서, 첫 미팅에서 즉시 전달하는 것이 좋고, 불가능할 경우에는 미팅 후 곧바로 메일로 카탈로그를 보내는 것이 좋다. 이 경우 카탈로그 디자인을 물론이고 완벽한 영문으로 작성된 카탈로그를 송부하는 것이 상거래 시 유리하다. 카탈로그가 조잡해 보이거나 오타자가 많을 경우 문서를 중요시 여기는 독일 바이어에게 신뢰를 잃을 가능성이 높다.

나. 상담 유의사항

상담 및 문화적 유의사항

독일 비즈니스 관행은 다른 유럽 국가나 미국보다 보수적인 편이다.

1) 복장과 선물

공식적인 미팅에서 정장은 특히 초면이나 계약서 작성 시에 필수적이다. 안면이 있으면 평상복 차림도 무난하며, 공장 방문일정이 있거나 공장 관련 실무에 투입되는 사람들과 상담을 하는 경우에는 완벽한 정장차림보다는 노타이 등 세미 정장이 더 적합하다. 스타트업에서는 캐주얼한 복장을 선호되는 편이다.

선물의 경우 부담이 없는 선물을 사전에 준비해 전달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 독일 대부분 기업의 경우 20유로 이상의 선물을 받거나 식사 대접을 받을 경우, 상사나 내부 감사실에 보고해야 하며,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선물을 받을 수 없게 되어있다. 만약 20유로 이상의 선물을 받게 되면 경고를 받게 된다. 한국 전통제품 중 10유로 이내의 한국차, 전통 무늬 기념품, 태극무늬 부채, 열쇠고리, 장식품 등은 부담이 없으면서도, 특색 있는 좋은 선물이 될 수 있다. 현지에서 20유로 이하인 와인 한 병 정도가 적당하다. 향수, 의류 등 50유로 이상의 선물, 특히 양주 등 고급 선물은 뇌물의 성격으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다. 꽃 선물은 포장하지 않고 홀수로 하되, 13송이를 선물하는 것은 불길한 징조로 여긴다. 아울러 선물을 포장할 때 흰색, 검정색, 갈색 포장지는 장례식을, 장미는 구애의 뜻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 선물은 가급적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푸는 것이 예의인데, 선물을 주는 사람이 선물 받는 이가 자신의 선물에 만족하는지 확인하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선물이 설사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기쁜 표정으로 고마움의 인사를 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선물을 주는 시기도 중요하다. 협상이나 방문의 마지막 단계에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인사와 호칭

공식적인 만남에서 인사는 남녀불문 악수하며 손을 힘차게 잡고 눈을 맞추며 한다. 악수를 할 때, 다른 손을 호주머니에 넣고 있어서는 안되며 등 뒤로 가게 하면 예의에 어긋날 수 있다. 악수 순서는 여성과(Ladies first) 먼저하고, 상급자와는 그 다음으로 한다. 단, 여성이 악수를 청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관행이다. 대부분 독일 비즈니스맨들은 영어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편이나, 독일어를 사용할 경우 호칭할 때 이름이 아닌 성을 부르며, 성 앞에 Herr(Mr.) 또는 Frau(Ms./Mrs.)를 붙이고, 직함이 있는 경우에는 Herr/Frau Dr. Meier 또는 Herr/Frau Prof. Dr. Meier 등으로 직함을 꼭 넣어주도록 한다. 중간 간부 이상이면 대부분 석사, 박사학위 소위자이며, 직함을 사용하지 않거나, 잘못 호칭하는 것은 큰 실례이다. 미팅을 진행할 경우에는 경어인 '당신(Sie)'을 사용하고, 친한 동료 사이에서도 회의 석상 혹은 외부인이나 상관 앞에서는 성이나 공식직함을 다시 사용해야 한다. 최근에는 젊은이들은 처음 만나는 관계에서도 Du(너)를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하나 비즈니스 관계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3) 대화와 제스처

첫 대면에서 스몰토크(Small Talk)보다는, 본론으로 빨리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나치'나 '히틀러' 시대에 대한 언급이나 정치/종교에 대한 대화는 피하는 것이 좋으며, 나이, 연봉, 결혼 여부, 자녀 여부 등 개인적인 질문은 본인이 먼저 언급하지 않는 이상 삼가해야 한다. 독일인들과 대화할 때는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좋고, 우회해서 말하는 것은 그 뜻이 잘 통하지 않는다. 독일 문화는 직설적이고 직설적인 편이라 파트너의 주장을 말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고 숨은 의도 등을 고민할 필요는 없다. 주로 미팅 시간 내에 협의를 마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다.

악수 외 어깨를 가볍게 치는 등 신체적 접촉은 자제해야 한다. 특히 한국 여성들이 대화 도중 상대에게 손을 대거나 살짝 치는 행동은 상대를 당황하게 하고 불쾌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행동이다. 중지 위로 세우기, 검지로 이마 옆쪽을 톡톡 치기, 손바닥을 얼굴 앞에 두고

흔들기 등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주는 행위는 금기이다. 코가 막히 들이마시거나, 과도한 감정 표현, 대화 중에 수시로 머리카락을 만진다거나 코나 턱수염을 만지작거리기, 웃을 때 손으로 입을 가리는 행위 등은 불쾌감을 주는 제스처들로 삼가야 한다. 만취한 모습을 상대방에게 보이는 것 또한 큰 실례이다.

4) 식사예절

업무상 식사는 점심시간을 이용하는 편이 좋다. 독일인들은 식사예절을 상당히 중시한다. 식사 매너는 기본이라고 생각하며, 음식을 찹찹 거린다거나, 후루룩거리며 마시는 식습관은 상대방에게 크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 입에 음식을 넣고는 이야기하지 않고, 또한 술이나 물을 따를 때 잔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상대방 잔을 묻지 않고 채워주는 행위는 예의에 어긋나며, 음식이나 술 등을 권할 때에도 한 번 권해서 'No'라는 대답을 들었다면 더 이상 강요해서는 안 된다. 한국사람 입장에서 특이한 문화라면, 밥 먹을 때나 공공장소에서 코를 푸는 행위는 예절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성과 동행했다면 오른쪽 좌석에 그녀가 앉을 수 있도록 의자를 뒤로 빼주고, 함께한 모든 여자 손님이 앉은 후 착석한다. 식사 도중 손목 정도는 무방하지만, 팔꿈치를 올리지 말고, 팔짱 끼기나, 머리카락을 만지작거리는 행동 등은 금물이다. 또한 식사하면서 핸드폰을 계속 만지는 행위도 매우 무례한 행동으로 여겨지며, 부득이하게 전화하거나 문자에 답을 해야 할 경우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업무 관련 대화는 자제하고 식사 전후에 하는 것이 좋다. 주최자에게 모든 결정권을, 예를 들어 와인에서부터 식사메뉴, 대화 주제 등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좋다. 건배 시에는 '프로스트(Prost)' 또는 'zum Wohl(Zum Wohl)'이라고 함게 외치고, 주최자가 건배할 때까지 술을 마시지 않는다. 건배 시 잔을 맞닿을 때는 상대방 눈을 응시하도록 한다.

3. 주요 전자 상거래 플랫폼

주요 전자 상거래 플랫폼

○ Amazon

사이트 주소	www.amazon.de
개요	독일 아마존(Amazon)은 미국 Amazon에 이어 높은 매출을 창출하고 있으며,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으로 손꼽힌다. 아마존은 현재 독일에 100개 이상의 입지와 20개의 물류 센터를 보유하고 있다. 아마존은 2010년~2021년까지 약 11년간 독일 내 인프라 확충 및 일자리 창출에 485억 유로 이상을 투자하였으며, E-Commerce 시장 내 부동의 1위를 기록하고 있다. 2023년 3월 아마존은 독일 튀빙엔(Tuebingen)에 신규 R&D 센터를 오픈해 인공 지능과 머신 러닝 분야 연구를 수행 중이다.
설립연도 및 매출규모, 고용인원	1995년 미국에서 설립된 아마존은 1998년 독일 시장에 진출하였다. 2022년 아마존은 전 세계 총 약 5,140억 달러의 매출을 달성하였고, 독일 매출규모는 약336억 달러(전년 대비 -10%), 고용인원은 약 36,000명이다. 2022년 4월 독일 아마존은 6,000명의 신규 채용 계획을 발표해 연말까지 고용인원을 확충하였다. 독일 비즈니스 컨설팅 키스톤(Keystone)은 독일에서 아마존 공급망과 관련해 14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추산하며, 물류 파트너 외에도 독일 아마존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수는 45,000개 이상이라고 한다.
주요 판매 품목	서적, 음반, IT 및 잡화 등 생활소비재를 주로 판매하고 있다.
특징	회원들에게 신속한 무료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아마존의 회원제도인 아마존 프라임(Amazon Prime) 외에도 베를린, 함부르크, 뮌헨, 포츠담 등에서는 식료품의 빠른 배송을 위한 아마존 프레쉬(Amazon Fresh) 등의 고객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계산대와 계산원이 없는 매장인 아마존 고(Amazon Go)는 아직 독일에서는 운영되고 있지 않다.

○ Douglas

사이트 주소	www.douglas.de
개요	두글라스(Douglas)는 유럽 화장품 유통 분야의 선도 기업으로 온라인 상점, 뷰티 마켓 플레이스 및 2,000개 이상의 지점에서 16만개에 이르는 뷰티, 라이프스타일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동사는 2021/2022년(동사의 회계연도는 전년 10월~익년 9월) 유럽 내 총 매출 36억 유로로 +17%의 높은 증가세를 기록했다. 동사는 특히 전자 상거래 비즈니스의 성장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E-Commerce 영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설립연도 및 매출규모, 고용인원	1821년 함부르크의 한 비누 공장에서 출발하였으며, 現 두글라스의 근간이 되는 최초의 향수점 'Parfümerie Douglas(두글라스 향수점)'은 1910년 설립되었다. 동사는 현재 뒤셀도르프(Düsseldorf)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2021/2022년 기준 매출규모는 36억 유로를 기록하며,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매출(34.5억 유로)을 뛰어넘는 성과를 달성했다. 총 고용인원 수는 독일을 포함해 18,083명이다. * 동사는 2020/2021년 회계연도 이래 독일 고용인원 수 및 매출 실적을 별도로 발표하고 있지 않다.
주요 판매 품목	화장품과 향수를 주로 판매하고 있으며, 스킨케어, 헤어 케어를 포함한 각종 바디케어 제품 및 액세서리를 제공하고 있다.
특징	유럽 화장품, 향수 분야 선두기업으로 온라인 상점, 뷰티 마켓플레이스 및 약 1,800개의 지점을 통해 주요 글로벌 브랜드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총 13만 개의 제품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온라인으로 총 6개 한국 화장품 브랜드의 12개 제품을 판매 중이다. 2020년 동사는 '#FORWARDBEAUTY' 전략 프로그램과 더불어 'DIGITAL FIRST'를 전제로 온라인 상점, 마켓플레이스 및 지점을 디지털 네트워크로 연결된 데이터 기반 뷰티 플랫폼으로 통합하고 있으며, 2023년 고객 중심의 옴니채널 포지셔닝을 위한 'Let it Bloom - DOUGLAS 2026' 전략 프로그램을 통해 동사의 성장을 가속화해 나갈 예정이다.

○ LH Brands Gmbh

사이트 주소	lhbg.de
개요	유럽과 독일 전역에 한국 화장품을 전문으로 유통하는 업체로, 유럽 시장에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 뷰티 브랜드를 꾸준히 유치하고 있다. 또한, LH Brands GmbH는 유럽 전역에 장기적으로 거래하는 B2B 도매 고객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5년 이래 효과적인 전자 상거래를 위한 'FairCommerce'의 회원이다.
설립연도 및 매출규모, 고용인원	2009년에 설립된 LH Brands GmbH는 독일 잉골슈타트(Ingolstadt)에 본사를 두었으며, 2020년 기준 약 81만 유로의 매출(전년 대비 +58.3%)을 달성했다.
주요 판매 품목	주로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화장품, 브러쉬 등 각종 메이크업 제품을 비롯하여 액세서리 제품 등을 제공하고 있다.
특징	유럽의 한국 제품 전문 유통업체로 한국산 뷰티 제품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온라인 전문 홈페이지 bbcream24.de, kbeautyhouse.de 및 독일 잉골슈타트, 프랑크푸르트, 함부르크, 잘츠부르크, 빈 등 5개 지역에 K-뷰티숍을 운영 중이다. 유럽 전역에 장기적으로 거래하는 B2B 도매 고객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Missha, It's Skin, Benton, Apieu, Fascy, Holika Holika, Pureheals 등 45개 한국 브랜드의 주요 온라인 공급 플랫폼이다.

○ Conrad Electronic SE

사이트 주소	www.conrad.de
개요	유럽 전자제품 전문 유통 분야의 선도 기업인 콘라트(Conrad)는 거의 100년에 이르는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 가족기업으로 유럽 17개국에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고, 약 700만 개의 제품을 제공하고 있다.
설립연도 및 매출규모, 고용인원	1923년 독일 베를린에 설립되었으며, 현 본사 소재지는 히르샤우(Hirschau)이다. 동사의 연 매출은 약 10억유로에 이르나, 2021년의 경우 지난 5년에 걸친 동사의 구조조정의 영향 속 9억6,890만 유로로 감소세를 나타냈으며, 고용 인원은 1,738명이다. (2022년 12월 발표 기준)
주요 판매 품목	주로 컴퓨터, IT 및 각종 전자전기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특징	동사는 전 세계 150여 개국에 1일 평균 약 50,000개, 최대 75,000개의 배송 패키지를 배송하며, Voltcraft(측정 및 충전기술), Conrad Energy(배터리 및 전지), Toolcraft(공구) 등 다수의 자체 브랜드(PL)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유럽 전역에서 고객에게 안정적인 24/48시간 배송을 보장하고 있다.

○ QVC

사이트 주소	www.qvc.de
개요	QVC는 비디오 상거래(V-Commerce) 분야 글로벌 선두기업으로, 독일 홈쇼핑 업계에서 약 50%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홈쇼핑 업계의 선두 기업이다. 동사의 기업명 Q(Quality, 품질), V(Value, 가치), C(Convenience, 편의성)는 기업 경영 이념을 상징한다.
설립연도 및 매출규모, 고용인원	1986년 미국에서 설립된 텔레쇼핑 기업으로,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및 이탈리아에 지사를 두고 있으며, 1996년 1월 독일에 진출하였다. 수년 간 독일 내 홈쇼핑 업계 부동의 매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QVC는 2022년 8억 1,30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20.8%의 감소세를 나타냈다.
주요 판매 품목	의류, 화장품, 보석 및 전자제품 등 다양한 품목을 판매하고 있다.

특징

QVC 그룹 산하 QVC International(QI)은 영국, 독일, 일본, 이탈리아, 폴란드 및 중국에 7,000명 이상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고, 총 9개의 TV 채널을 통해 독일, 오스트리아, 일본, 영국, 아일랜드, 이탈리아의 1억 2,400만 가구에 제품을 공급하며, 2021년에는 약 470만 명의 고객에게 제품을 공급하였다. 독일에서는 QVC, QVC Zwei, QVC Style 등 3개의 TV 채널을 비롯하여 온라인 상점, QVC 앱 및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고, 2020년 총 보유 고객수는 980만 명이며, 180만 명에 제품을 공급하였다. (2022년 7월 발표 기준) 특히 동사의 매출에 큰 영향을 주는 Best Top 10 제품의 경우 벤더를 통하지 않고 직접 구매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 외에도 동사는 QVC 이탈리아에서 출발한 스타트업 이니셔티브인 'QVC NEXT'를 통해 2017년 9월 이래 독일에서도 가정, 주방, 패션, 액세서리, 뷰티, 식품 및 기술 분야에서 동사의 노하우로 지원할 수 있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창업자를 찾는 이니셔티브를 진행하고 있다.

* 자료: 각 기업 홈페이지, 통계기업 Statista 및 주요 독일 언론

4. 현지 진출 성공사례

가. 성공사례

1) 변속기 부품 수출 성공사례

H사는 전기차 변속기에 들어가는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기어류, 치절부분 가공을 위해 전폭적인 기술적 투자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독일, 일본제품에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제품을 생산하는 데 성공했다. 또한, 현지에서 문제 발생 시 신속 대응할 수 있는 독일어 가능한 엔지니어를 배치하여 독일 바이어들의 신뢰를 받은 것이 큰 몫을 했다.

그뿐만 아니라 KOTRA의 글로벌 파트너링사업(GP)도 적극 참여하였는데 GP 사업은 글로벌 기업들의 부품 수요를 파악한 후 적합한 한국 중소기업을 찾아 매칭시킨다는 점이 기존 KOTRA 지원프로그램과 다른 점으로 성사율이 높다. 따라서 시장진출을 위해 GP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추천한다.

2) 마스크팩 수출 성공사례

유독 독일인들은 유기농 제품을 선호한다. A사는 이런 점을 살려 쌀, 콩, 동백, 자스민, 여성초 등 식물성 추출물 등 유기농 성분만을 사용하여 친환경적이고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출시했다. 또한, 화장품 관련 제품은 EU 화장품 등록 포털(CPNP)상 등록과 인증획득이 유럽 및 독일 시장 진출에 필수요소이기 때문에 A사는 시장 진출 전 관련 인증을 모두 획득하였다. 적극적인 마케팅을 위해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주최로 개최된 유통망 사업을 통해 홈쇼핑채널 담당자와 미팅을 하고 현장에서 제품을 체험해보도록 했는데 이 점이 시장진출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3) 벽지 수출 성공사례

A사는 기존 벽지와 다르게 벽지 뒷면에 물을 적시면 발포된 풀이 녹아 개인이 직접 작업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A사의 제품은 당분간 중국에서도 기술 복제가 어려운 제품으로 알려졌다. A사는 2018년도 초 관련 독일 소비재전시회 참가와 프랑크푸르트 무역관을 통해 제품을 바이어들에게 소개하고, 같은 해 6월에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주최로 개최된 수출상담회를 통해 사전에 연락을 취했던 담당자와의 1:1 미팅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유럽 취향에 맞게 디자인을 변형해 독일 바이어에게 좋은 평을 받았다. 2018년 계약이 성사되었으며 수출을 개시했다. 뛰어난 품질로 중국 유사기업의 가격경쟁력을 뛰어넘은 사례이다.

4) 녹차 수출 성공사례

독일 소비자들은 가격을 더 지불해도 친환경/무공해 식품을 선호한다. B사는 까다롭고 엄격한 품질관리 체계를 바탕으로 생산된 고품질 녹차를 생산하는 기업이며, 일본 녹차 제품보다 가격경쟁력이 높다. 한국의 고급 녹차 제품을 시음한 바이어 및 전문가들은 한국의 녹차 제품은 경쟁국(중국, 일본)의 고급 녹차와 비교했을 때 품질 차이가 나지 않으며, 가격경쟁력이 우수하다고 평가했으며, B사는 이를 성공적으로 마케팅하여 독일 바이어와의 계약에 성공했다. B사 관계자는 독일 내 한국산 녹차 제품의 인지도가 아직 낮아 바이어 접촉 시, 충분한 제품 설명 및 샘플 시음 등 적극적인 마케팅이 필요하며, 대중적인 중저가의 제품을 취급하는 대형유통업체보다는 녹차 애호가들의 주요 구매처인 차 전문 판매점 등 전문매장을 공략하여 고급 차로 이미지 메이킹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5) 차량용 난연소재 수출 성공사례

글로벌 자동차 완성차 산업 위축에도 차량용 난연 소재는 지속적인 수요가 예상되는 유망 품목이다. KOTRA 지사화 사업에 참여하는 A사는 난연섬유제품을 특화하고 독일 내 주요 바이어와의 꾸준한 교류를 진행하면서 독일 수출에 필요한 각종 인증을 갖추었다. 독일 자동차 업계에서 원가절약 압박을 받음에 따라, 비교적 저렴한 중국산 제품의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A사는 제품의 우수성뿐만 아니라 독일 바이어와 장기간 형성한 신뢰를 바탕으로 독일 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있다.

6) 공작기계용 정밀부품 수출 성공사례

공작기계용 정밀부품을 생산하는 S사는 공격적인 마케팅을 바탕으로 독일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KOTRA 월드챔프사업에 장기간 참여하면서 독일 주요 전시회를 집중하여 출품하였다. 특히, 세계 최대 금속가공 및 공작기계 전시회인 2019년 하노버 공작기계 전시회(EMO)에 참가하여 바이어 풀을 확보하였다. 그 결과, 글로벌 경기 둔화 속 독일 기계산업도 침체 우려가 지속하고 있지만, S사는 독일 수출액과 바이어 저변을 모두 확대하고 있다.

7) 치과 의료기기 수출 성공사례

의료기기 기업 M사의 간편한 실용성 디자인을 보유한 치과용 3D 스캐너의 독일 수출이 증가 중이다. M사는 현지 현장 애로사항(업무 효율성 및 시간 절약)을 해결해줄 수 있는 3D 스캐너(Scanner) 기술 보유하고 있다.

수출에 중요한 유의사항 - 1. (인증)기기에 해당되는 제품은 무조건 최소 CE인증은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2. (마케팅) 지속적인 바이어와의 네트워킹이 필요하며, 현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품 개발도 중요하고, 언어 장벽이 있다면 통역/번역을 통해 수월하게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현지 전문가 및 의사들이 자주 보는 잡지와 전시회 관련 잡지에 광고를 게재하여 관심을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다. 3. (전시회) 전시회 기간 동안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제품관련 광고를 보고 찾아오는 바이어도 많다. B2B의 핵심인 전시회 기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8) 3D 프린터용 신소재 수출 사례

3D 프린터 전문기업 K사는 3D 프린터 신소재(광경화성수지) 수출에 성공했다. 동 제품은 덴탈 투명교정장치를 제작을 위한 3D프린터용 신소재이다. K사는 소비자들의 투명 교정장치에 대한 미적 선호도 증가로 샘플 6,000 달러를 수출했다. 이 제품은 일반적인 강경화 수지와 비교하여 고내열성, 고내마모성, 고강도, 고경도의 특성을 가진신소재로 인체에 유해한 독성과 냄새가 없어 덴탈 투명 교정 장치에 최적화된 소재이다.

수출에 중요한 유의사항 - 필라멘트 공법이 일반적인 유럽 3D프린터 시장에서 관련 주요특성을 어필하여 바이어를 공략할 필요가 있으며, 3D프린터 장비기업과 협업을 잘하는 것이 주요 포인트인 이유로 전시회를 통한 협업 포인트 및 네트워크 구축이 중요하다. 또한 광경화성의 신소재로 이물감이나 투명한 견본에 대한 바이어의 의구심에 대하여 시연을 통하여 해소할 필요가 있다.

9) 공기청정기 수출 성공사례

실내 공기청정기 전문기업 B사는 KOTRA 지사화 사업으로 독일 수출에 성공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독일에서도 호흡기 질병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다. 특히, 야외활동 제약과 재택근무 등으로 자택 체류시간이 늘어난 독일 소비자들이 공기청정기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동사 제품은 디자인 측면에서는 경쟁관계에 있는 중국산 제품과 큰 차이가 없으나, 공기청정기 내부의 전기장치에 대해서는 확실한 품질 격차를 시현하여 바이어와 고객의 신뢰를 확보하였다. 또한 바이어의 샘플 테스트에 빠르게 응대함 점도 주효하였다. 독일 등 유럽국가로 전자제품 수출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CE, RoHS 등 관련 인증을 필수 취득해야 하며, 바이어가 샘플 테스트를 요구할 시 가능한 빨리 응대할 수 있는 역량이 중요하다.

10) 밀키트 배달서비스 스타트업 현지진출 성공사례

아시아 밀키트 배달서비스 전문 스타트업 E사는 코로나19 위기를 딛고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2020년 1월 밀키트 배달서비스를 런칭한 E사는 사업 초기인 2020년 1월 중국의 춘절 박스를 판매했으나, 아시아 지역에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중국 음식 등 아시아 음식에 대한 선호도가 하락하였다. 하지만 2020년 3월부터 독일에서도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사람들이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나자 상황이 반전되기 시작하였고, 일상적으로 먹는 빵이나 파스타를 제외한 색다른 음식을 체험해보고 싶은 독일인들의 온라인 밀키트 주문율이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동사가 코로나19로 사람들의 활동반경이 제약되는 점을 파악하고 'Explore Asia in your kitchen and travel later'라는 컨셉을 도입해 단순히 음식을 판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음식을 통한 여행'에 주목했던 것도 현지 시장공략에 효과적이었다. 동시에 2020년 베를린 IFA 가전전시회 스타트업 한국관에 참여하여 잠재 고객과 투자가를 만나는 등 동사는 코로나19로 사업 홍보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상황에서도 네트워크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 결과, 2021년 초 Pre Seed 투자유치에 성공하였다.

11) 김밥용 김 현지수출 성공사례

G사는 김밥용 김 제조 전문업체로 일본, 태국 등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수출을 진행하였고 對독일 첫 수출을 이뤄내었다. 독일 코로나 봉쇄기간 집에서 요리를 즐기는 김밥 트렌드 확산과 함께 K-드라마, 영화 등을 통해 독일 10-20대 층에서 초밥이 아닌 김밥, 삼각김밥 등을 간접적으로 접하며 K-푸드에 대한 관심도 자연스럽게 증가했다고 파악하고, '19년 무역관의 지원으로 바이어 매칭이 된 후 '20년 첫 성약이 발생했고 이후 '21년 상반기에만 총 5회 성약(230,620USD) 창출했다. G사의 김 같은 경우는 품종을 혼합하지 않고 적기에 채취한 재료만 활용하며 원재료 보관 및 염분제거, 이물질 제거, 탈수 절단, 건조 등 제조 전 과정을 자동화 원격시스템을 통해 제어. 경쟁사 대비 위생 R&D에 더 많은 시간 할애 및 비용 투자하기도했다. 무엇보다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무역관을 통해 교신한 바이어와 지속적으로 연락하면서 제품정보 및 가격 정보 업데이트를 진행한 것도 시장진출 성공에 크게 기여했다.

12) 폐배터리 처리기업 현지진출 성공사례

독일은 세계 1위의 전기차 수출국가로(2021년 기준 글로벌전기차 수출액의 25% 점유), 2030년까지 배터리셀 생산을 현재의 10배 규

모인 400GWh로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독일 전기차산업 급부상에 따른 전기차용 배터리소재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 국내기업 A사는 독일 내 폐배터리 재활용 처리를 위한 생산법인을 설립하였다.

나. 실패사례

해당사항 없음.

5. 출입국 안내

가. 비자

종류 및 발급절차

대한민국 거주자의 독일 여행은 여행목적과 무관하게 허용되고, 3개월 동안 독일 내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다. 독일 체류기간이 3개월을 넘어 장기체류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입국 후 3개월 이내에 아래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1) 일반체류허가(Aufenthaltserlaubnis)

이는 가장 일반적인 체류허가로서 체류 목적과 연관성을 두지 않는 허가이다. 처음 입국하는 경우에는 1개월~2년 기간인 기간형 일반체류허가(Befristete Aufenthaltserlaubnis)를 받게 된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계속 연장이 가능하다.

2) 유학생 비자

유학생 비자의 최초 교부 체류허가는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학업을 진행하고 적절한 기간 내에 졸업하지 않았을 경우 2년씩 연장 교부된다. 이 체류허가는 연중 120일 취업이나 학생 아르바이트를 허가하고(240일의 반일 취업도 가능), 학업 종료 후 학업과 연계된 분야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18개월 체류허가 연장이 가능하다.

3) 워킹홀리데이 비자

독일에서 얼마 동안 합법적으로 고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논란이 있는 비자이다. 각 주의 해당 외국인관청 또는 노동청에 문의를 통하여 당국의 방침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독일에서 직접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무비자로 독일에 들어와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할 경우 기각될 확률은 아주 높다. 워킹홀리데이 신청 자격 만 18~30세의 대한민국 국민이며, 가족 동반은 신청 불가능하다. 구비 서류는 비자신청서, 여권, 여권 사진(3.5 x 4.5cm), 최소 2,000유로 이상이 입금된 본인 명의의 잔고 증명 또는 통장, 책임보험(최소 30,000유로 보장) 및 의료보험(사고와 질병 시 각각 최소 30,000유로 보장)이다. 비자 발급은 1회만 가능하여 기간 연장이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없다.

4) 취업준비비자

독일에 6개월 동안 거주하며 구직 활동 동안에 발급 받는 비자이다. 만약 취업에 성공하면 노동비자를 받을 수 있다. 취업준비 비자 발급 받은 상태에서는 고용되어 근무할 수 없다. 주한 독일대사관에서 취업준비 비자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기타 필요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인터뷰를 진행 후 비자 발급 여부가 결정된다.

*자격조건

- 독일대학 학사 또는 석사학위 또는 이에 준하는 외국대학 학위
- 최소 5년의 전공 관련 직무 경험
- 재정증명서 (독일에서 구직 기간 어려움 없이 살 수 있는 정도의 재정상태)
- 독일에서 인정되는 건강/여행 보험

*증빙서류

여권, 여권 사진, 구직계획서(어떻게 구직활동을 할 것인지, 또 직업을 구하지 못할 경우 대체 계획), 학위, 경력증명서, 이력서, 예상거주

지 정보, 건강보험서, 재정증명서

5) 노동비자

호주, 이스라엘, 일본, 캐나다, 한국, 뉴질랜드, 미국 국적자는 무비자로 독일에 입국하여 거주 및 노동허가를 취득할 수 있다. 단, 입국 후 빠른 시일 내에 해당 관청에 거주 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독일에서 노동을 위한 장기거주 비자 타입은 아래와 같다.

- 노동비자(Employment): 독일에서 고용된 경우
- 자영업비자(Self-Employment): 독일에서 자영업 또는 프리랜서로 일 할 경우
- 취업준비비자(Job Seeker): 6개월간 독일에 머물면서 일자리를 찾는 경우
- 오페어(Au Pair): 독일 문화와 언어를 배우기 위한 청년 대상
- 워킹홀리데이(Working Holiday): 워킹홀리데이 비자 협약을 맺은 국가의 청년 대상

노동비자의 경우 독일에서의 고용이 확정되면 각국 소재 독일대사관/영사관/비자신청센터에 신청서와 함께 기타 필요서류 제출 후 인터뷰가 진행되며 인터뷰 후 비자 발급 여부가 결정된다.

*제출서류

비자신청서 2매, 여권 사진 2매, 여권, 거주증명서, 건강보험증, 고용계약서(연봉과 직무 상세히), 이력서, 증빙서류(학위, 경력, 자격증 등), 범죄경력회보서 (그 외 추가서류 요청 가능함)

6) EU 블루카드 제도

EU는 역외에서 IT, 엔지니어 등의(컴퓨터 프로그래머, 웹디자이너, 물리학, 생물학, 수학 또는 자연과학 분야 연구자) 고급인재 유치를 위해 고급 전문 인력 이주인 정책에 대한 법(EU 고급인력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였다. 대한민국 국적자는 무비자로 독일에 입국해 거주지 등록이 되어있는 관할 외국인 관청에 블루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연봉이 43,800 유로 이상(수학, 정보학, 자연과학,인지니어, 의사 등 전문인력 수요가 높은 '부족 직업군'의 경우 39,682.80 유로)이면 블루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자료: 독일연방해외전문인력유치포털 (자료: Das Portal der Bundesregierung für Fachkräfte aus dem Ausland, Make it in Germany).

나. 휴대품 통관

휴대품 면세

우리나라에서 해외여행경비로 미화 1만불(USD)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 반출할 경우 관할세관장에게 신고한 후 출국할 수 있으나, 독일로의 반입의 경우 또한 규제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1만 유로(EUR)이상에 상응하는 현금, 유가증권, 보석 (금 등)을 휴대 반입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에서 1만 유로 미만을 반출하여 신고의무가 없는 경우라도, 해당 금액이 1만 유로 이상일 경우 신고의무가 있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신고위반 시 최대 100만 유로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주류 : 우선 주류 소유자는 만 17세 이상이어야 하며, 알코올 도수가 22%를 초과할 경우 1리터, 22% 이하인 경우는 2리터가 통관기준이다. 또한 와인(스파클링 와인 제외)은 4리터, 맥주는 16리터까지 허용된다.

- 담배 : 소유자가 만 17세 이상이어야 하며 담배(cigarette)는 200개비, 시가(cigar)는 50개비, 시가릴로(cigarillo)는 100개비, 기타 담배류는 250g까지 면세된다.
- 여행 중 사용할 물품도 보석, 전자제품 등 고가 물품의 경우 영수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상업적 목적이 아니어야 한다. 이 경우 물품은 항공 및 선박을 통한 입국의 경우 총액 430유로, 육로 입국의 경우 300유로까지 면세대상이고, 소유자가 만 15세 미만의 경우는 175유로 까지만 인정된다.
- 의약품의 경우, 여행 중 개인적으로 필요한 적당량의 의약품(권장 복용량을 고려하여 의약품 당 최대 3개월 치)가 허용된다. 또한 마약류(예 : 모르핀)를 포함하는 의약품일 경우, 의사의 진단서 및 처방전과 같은 서류 등이 요구된다.
- 일부 식품(야생버섯, 감자, 캐비어, 육류, 육가공류 및 유제품 등)은 반입불허 품목이다. 불법 마약류, 허가가 필요한 무기류, 탄약 및 폭발, 필요 분량 이상의 식품과 약품, 헌정 질서에 위배되는 도서 출판물, 미성년자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출판물, 불법 복제품 경우에도 같다. 애완동물의 경우 개체인식시스템을 요구하고 예방접종 증명서 및 수의검역문서가 필요하다.
- 면세한도 초과인 경우, 3유로 미만의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으며 현장에서 정해진 요금을 납부해야 한다. 또한 직접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하고 납부 완료 시까지 반출은 제한된다.

6. 유관기관

가. 대사관 및 한국기관

○ 주독일 대한민국 대사관

전화번호	+49 (0)30 260650
주소	Stuelerstrasse 10, 10787 Berlin, Germany
홈페이지	overseas.mofa.go.kr/de-ko/index.do
비고	이메일 : koremb-ge@mofa.go.kr, 영사부 이메일 : cons-ge@mofa.go.kr

○ 주프랑크푸르트 대한민국 총영사관

전화번호	+49 (0)69 9567520
주소	Lyoner Strasse 34, 60528 Frankfurt am Main, Germany
홈페이지	overseas.mofa.go.kr/de-frankfurt-ko/index.do
비고	이메일 : gk-frankfurt@mofa.go.kr

○ 주독일 연방공화국 대한민국 대사관 본분관

전화번호	+49 (0)228 943790
주소	Godesberger Allee 142-148, 3. OG, 53175 Bonn, Germany
홈페이지	overseas.mofa.go.kr/de-bonn-ko/index.do
비고	이메일 : admin-bn@mofa.go.kr

○ 주함부르크 대한민국 총영사관

전화번호	+49 (0)40 650677600
주소	Kaiser-Wilhelm-Strasse 9, 3. OG, 20355 Hamburg, Germany
홈페이지	overseas.mofa.go.kr/de-hamburg-ko/index.do
비고	이메일 : gkhamburg@mofa.go.kr

○ 한국관광공사 프랑크푸르트 사무소

전화번호	+49 (0)69 233226
주소	Stiftstrasse 2, 5. OG 60313, Frankfurt am Main, Germany

홈페이지	german.visitkorea.or.kr/ger/index.kto
비고	이메일 : kto@euko.de

○ 한국은행 프랑크푸르트 사무소

전화번호	+49 (0)69 7434870
주소	Messturm 29. OG, Friedrich-Ebert-Anlage 49, 60308 Frankfurt am Main, Germany
홈페이지	www.bok.or.kr/portal/main/main.do
비고	이메일 : bokffm@bok.or.kr

○ KDB산업은행 프랑크푸르트 사무소

전화번호	+49 (0)69 92071300
주소	Bockenheimer Landstrasse 51-53, 60325 Frankfurt am Main, Germany
비고	이메일 : frankfurt@kdb.co.kr

○ 금융감독원 프랑크푸르트 사무소

전화번호	+49 (0)69 27245893
주소	Feuerbachstrasse 31, 60325 Frankfurt am Main, Germany

○ 사단법인 재독한인총연합회

전화번호	+49 (0)151 26689936
주소	Kreuzbergstrasse 56, 53127 Bonn, Germany
홈페이지	germany.korean.net
비고	이메일 : vosschung1953@gmail.com

○ 글로벌혁신센터(KIC) 유럽 사무소

전화번호	+49 (0)30 35512840
주소	Friedrichstrasse 200, 10117 Berlin, Germany
홈페이지	kiceurope.eu
비고	이메일 : info@kiceurope.eu

<자료원 : 각 기관 홈페이지>

나. 현지정부 및 언론기관

○ 독일 연방의회

전화번호	+49 (0)30 2270
주소	Platz der Republik 1, 11011 Berlin, Germany
홈페이지	www.bundestag.de
비고	이메일 : mail@bundestag.de

○ 독일 연방정부

전화번호	+49 (0)30 182720
주소	Dorotheenstrasse 84, 10117 Berlin, Germany
홈페이지	www.bundesregierung.de
비고	이메일 : internetpost@bundesregierung.de

○ 헤센 방송국(Hessischer Rundfunk)

전화번호	+49 (0)69 1551
주소	Bertramstrasse 8, 60320 Frankfurt, Germany
홈페이지	www.hr.de
비고	이메일 : hzs@hr.de

○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짜이퉁(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GmbH)

전화번호	+49 (0) 69 7591 0
주소	Pariser Strasse 1, 60486 Frankfurt am Main, Germany
홈페이지	www.faz.net
비고	신문사/이메일 : Info@faz.net

○ 유럽중앙은행(ECB)

전화번호	+49 (0)69 13440
주소	Sonnemannstrasse 20, 60314 Frankfurt am Main, Germany
홈페이지	www.ecb.europa.eu

비고	유럽 중앙은행으로 유로존 통화정책 및 유로화 발행을 담당 /이메일 : info@ecb.europa.eu
----	---

○ 독일 연방은행(Deutsche Bundesbank)

전화번호	+49 (0)69 95663512
주소	Wilhelm-Epstein-Strasse 14, 60431 Frankfurt am Main, Germany
홈페이지	www.bundesbank.de
비고	독일 중앙은행으로 독일 대부분 경제 및 금융 통계 업무를 총괄하고 있음/이메일 : info@bundesbank.de

○ 독일상공회의소(DIHK)

전화번호	+49 (0)30 203080
주소	Breite Strasse 29, 10178 Berlin, Germany
홈페이지	www.dihk.de
비고	이메일 : info@dihk.de

○ 쥐드도이체 짜이퉁(Sueddeutsche Zeitung GmbH)

전화번호	+49 (0)89 2183 0
주소	Hultschiner Strasse 8, 81677 Muenchen, Germany
홈페이지	www.sueddeutsche.de
비고	신문사/ 이메일 : redaktion@sueddeutsche.de

○ 슈피겔(SPIEGEL-Verlag Rudolf Augstein GmbH &Co. KG)

전화번호	+49 (0)40 30070
주소	Ericusspitze 1, 20457 Hamburg, Germany
홈페이지	www.spiegelgruppe.de
비고	신문사/ 이메일 : spiegel@spiegel.de

<자료원 : 각 정부 및 언론기관 홈페이지>

7. 물가정보

가. 물가정보 표

1 USD : 0.93유로

No	구분	품목	단위	금액(USD)
1	식품	햄버거(맥도날드 빅맥)	단품	5.870
2	식품	돌솥비빔밥	1인분	19.260
3	식품	김치찌개	1인분	19.260
4	식품	신라면	1봉지	1.440
5	음료	커피(스타벅스-아메리카노)	Tall 사이즈	3.630
6	음료	생수(마트, 최저가)	1.5L	0.290
7	음료	코카콜라(마트, 최저가)	1.5L	1.910
8	의료	아스피린	20정	8.760
9	교통	시내버스요금	기본요금 (성인, 프랑크푸르트 기준)	3.640
10	교통	지하철요금	기본요금 (성인, 프랑크푸르트 기준)	3.640
11	교통	택시요금	기본요금	4.280
12	서비스	헤어컷 (시내중심가, 남여평균)	1회	39.590
13	서비스	휘발유 1L	1L	1.900
14	서비스	전기요금	1Kwh	0.310
15	서비스	영화입장권 (3D)	일반	17.010
16	여가	담배	1갑	8.770
17	여가	소주 (한식당)	350ml	16.050
18	임금	최저임금	1시간	12.840
19	학비	국제/사립학교(고등학교 3학년) 수업료	연간	31255.000
20	금리	유럽중앙은행 기준금리	0	4.500
21	식품	쌀	1kg	2.550
22	식품	식빵	한묶음	1.590
23	식품	돼지고기	1kg	11.750
24	식품	계란	10개	2.130

25	식품	우유	1L	1.060
26	식품	식용유(해바라기유)	1L	1.920
27	주거	전기요금	1kWh	0.310
28	주거	수도세	m ³	2.140
29	주거	가스비	1kWh	0.090
30	주거	월세 (프랑크푸르트)	1m ²	20.400
31	의료	진료비(일반내과)	초진, 보험X	124.120
32	차량	자동차등록비	2000cc 이상	32.100
33	차량	전기차 충전 요금	1kW	0.650
34	통신	국제전화 요금	분(EU)	0.200
35	통신	휴대전화 요금	분(EU)	0.200
36	통신	인터넷 사용료	1개월	25.750
37	서비스	TV 수신료	1개월	19.650
38	서비스	OTT 구독료(Youtube, Netflix, HBO 등)	1개월	13.900
39	서비스	세탁소(드라이클리닝)	셔츠1벌	4.820
40	기타	국경일수(헤센주)	연간	10.000

〈자료원 :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8. 출장정보

가. 환전

통화체계

화폐단위는 유로(Euro)로 통화기호는 €, 약칭은 EUR이다. 1 유로는 100센트(Cent)이며 주화로는 1, 2, 5, 10, 50 센트(Cent) 및 1, 2유로가 있다. 지폐로는 5, 10, 20, 50, 100, 200, 500액권이 사용되고 있다. 200유로 및 500유로 지폐는 대부분 상점에서 잘 받지 않는다. 2002년 1월 1일부터 유로화가 공용 화폐로 전면 도입, 사용되고 있으며, 독일 마르크화는 2002년 2월 28일까지 지불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환전방법

독일은 미국 달러가 통용되지 않으며 한화와의 환전은 어렵다. 환전 수수료도 비싼 편이라 입국 전 유로화를 준비하는 것을 추천한다. 한국 은행 또는 공항에서 원화를 환전 해 오는 것이 유리하며, 달러화는 공항, 기차역, 호텔, 은행 등의 공식적인 환전소(Wechselstube)에서 수시 가능하다. 신용카드 ATM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것이 수수료 면에서는 가장 저렴하다. 2023년 4월 25일 기준 1유로 당 원화 평균 환율은 약 1,472.92원이고, 1유로 당 달러 환율은 약 1.11달러이다. 유럽의 다른 국가 통화로 유로화를 바꿀 경우에도 독일보다는 해당 국가에서 환전 하는 편이 더 유리하다.

신용카드 이용

독일의 신용카드 사용은 보편화되지 못한 상태이나 점점 더 많아지는 편으로, 인터넷 결제의 경우에는 많이 이용된다. 고급 호텔, 고급 식당, 쇼핑센터나 주유소 등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일반 상점, 슈퍼마켓, 시장, 일반식당 등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많다. 특히 도시 지역을 떠나면 그럴 확률이 높아진다. 독일인들은 대부분 현금이나 체크카드(EC-Card) 사용을 선호한다.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하다면, 환전한 현지화가 부족할 경우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환율 면에서 유리하다.

나. 교통

교통상황

독일과 같이 인구의 분포가 고르게 퍼져 있어 어느 한 도시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지 않고, 교통정체 또한 그다지 심하지 않은 곳에서는 대중교통 이용이 더 편리할 때가 많다. 독일에는 전차(Straßenbahn/Tram), 지하철(S-Bahn/U-Bahn), 기차, 버스, 택시 등이 주요 교통수단이며, 간혹 뤼퍼탈(Wuppertal)처럼 모노레일(Schwebebahn) 기차를 활용하거나 함부르크처럼 배(Fahre)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독일의 대중교통은 모두 정거장(Haltestelle)에 시간이 명시되어 있고, 대도시의 경우 디지털 안내기로 잔여대기시간이 표시된다. 지하철, 버스 주요 노선의 경우에는 출퇴근 시간에는 많게는 5분에 한 대씩, 적게는 10분에 한 대씩 운행하고, 평상시에는 10분에 한 대 정도, 오후 10시 이후에는 30분~60분 간격으로 1대를 운행하는 것이 보통이다. 1일 승차권을 구입하는 경우 승차권 한 장으로 목적지까지 몇 번 이든 갈아탈 수 있으며, 이때 여러 가지 교통수단을 연결해 이용할 수 있다(예: 지하철에서 내려서 버스로 갈아타기).

1) 자가운전

고속도로는 승용차의 경우 통행료가 없고, 원칙적으로 속도 제한이 없으나, 공사 구간(60~100km/h), 커브구간이나 시내 부근(100~130km/h)의 경우 속도제한이 있다. 추월할 경우 반드시 좌측으로 추월해야 하며, 1차선을 달릴 경우 뒤 차가 빠른 속도로 접근할 경우 2차선으로 피해야 한다. 시내 최고 속도는 통상 50km/h이며, 골목길의 경우는 30km/h이다. 국도에서는 100km/h가 최고 속도인데, 마을이나 도시 안내판이 나오면 그 순간부터 최고속도가 50km/h로 제한된다. 프랑크푸르트 시는 중심지에서는 2021년부터 최고 속도를 40km/h로 제한하는 등 일부 도시는 속도 제한 규정이 상이할 수 있다. 교차로 등에서는 별다른 표지판이 없으면 우측에서 오는 차가

우선권을 가진다(국내처럼 직선 차량 우선이 아님). 대부분 독일 대도시의 경우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으나 구간별 정비공사가 자주 있는 편이고, 특히 차선을 좁힐 경우 도심진입구간에서 출퇴근 시간의 교통체증이 발생할 수 있다.

2) 지하철

독일의 전차는 지상철과 지하철이 있다. 지하철은 도시의 중심부를 지나는 U-Bahn과, 도시의 외곽지역까지(경우에 따라 다른 도시까지) 다니는 S-Bahn이 있다. 독일 지하철 문은 자동으로 열리지 않는다. 버튼을 터치하거나 손잡이를 옆으로 잡아당겨야 한다. 아울러 티켓은 자동판매기에서만 판매하고, 최근에는 각 도시 교통공사가 만든 앱을 통해 구매할 수도 있다. 정기권은 역 앞에 있는 가판대에서 살 수 있다. 독일 지하철은 대부분 표 검사를 하지 않는데, 검표원이 불시로 지하철에 들어와서 표를 보자고 한다. 표를 보여줄 수 없을 경우 약 60유로 정도의 벌금을 물게 된다. 지상에 다니는 전차를 슈트라센반(Strassenbahn) 또는 트램(Tram)이라고 한다. 가격은 지하철과 같다. 지하철과 지상철 모두 한 정거장에서도 여러 노선의 지하철이 정차하기도 하기에 버스처럼 번호를 확인하고 승차를 해야 한다. 프랑크푸르트의 경우 상세 요금과 이용은 버스와 동일하게 www.rmv.de/c/de/start/를 이용하여 검색할 수 있다. (베를린: <https://www.vbb.de/> 함부르크: <https://www.hvv.de/de>, 뮌헨: <https://www.mvv-muenchen.de/>)

정기권을 활용하면 저렴하게 운행을 할 수 있는데, 가장 통상적으로 쓰이는 정기권은 한 달 정기권(Monatskarte)이며, 프랑크푸르트 한 달 정기권의 경우 2023년 4월 기준 가격이 약 97.90유로다. 1일권(Tageskarte)의 경우, 1일 24시간 내 여러 번 대중교통수단을 사용할 수 있고 가격은 지역마다 다른데 보통 교통수단의 2~3회 정도의 가격으로 프랑크푸르트 시내의 경우 단거리 (3정거장 이내) 6.65유로, 그 외는 11.30유로이다. 학생, 견습생(Azubi), 65세 이상 노인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오페라나 콘서트 등의 문화행사티켓에는 행사장과 집의 왕복 요금 등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중결제야 안 되게 주의를 요한다.

독일 연방 정부는 인플레이션 위기 대처 방안, 구호 패키지 일환으로 2023년 5월 1일부터 월 49유로 교통 티켓을 도입, 한 장의 티켓으로 독일 전역에 걸쳐 버스, 트램, 지하철(U Bahn), 기차(S Bahn)를 이용할 수 있다. (EC, IC, ICE 등 장거리 고속 열차와 고속버스는 불포함)

3) 기차

독일 각 도시는 독일 철도청(Deutsche Bahn AG)에서 운영하는 기차를 통해 연결돼 있으며, 철도 요금은 우리나라보다 비싼 편이다. 좌석 예약 가격은 편도 2등석은 4.50유로, 1등석은 5.90유로이다. 또한, 기차 안에서의 기차표 구매도 가능하다. 기차표는 몇일~몇주 미리 구매할 경우 독일 철도청 인터넷 사이트(www.bahn.de)구매를 통해 할인된 가격으로 구할 수 있다. 정규 가격이 100유로가 넘는 노선을 19.90유로에 다닐 수 있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단, 구입한 날짜에 모든 기차를 사용할 수 있는 정규 티켓과 달리 할인 티켓은 지정된 기차를 사용해야 하며, 환급 시 일부 요금을 돌려받지 못한다.

독일의 고속 열차는 이체에(ICE)라 불리는데 독일 및 인접 국가를 기차로 여행할 때 가장 빠른 방법이다. 더욱 신속한 여행을 원하는 경우에는 매일 출퇴근 시간에 운행되는 이체에 스프린터(ICE Sprinter)도 좋다.

독일의 경우 기차 연착이 잦은 이유로 직행인 경우 예상보다 훨씬 늦게 도착하거나, 환승할 경우 갈아타야 하는 열차를 놓치는 경우가 자주 있다. 중요한 약속이 있는 경우 약속 시각보다 훨씬 일찍 도착하는 열차를 이용하거나 다른 교통수단을 사용할 것을 추천한다.

독일 정부는 2050년 기후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기차 사용 장려를 위해 2021.1.1부로 장거리 열차의 부가가치세를 19%에서 7%로 인하했다.

4) 자동차 렌트 등

자동차도 1일 기준 약 50~120유로(자동기어 기준)로 소형과 준중형급 차량 임대 가능하다. 이를 위해 한국 면허증, 신용카드, 여권을 제시해야 한다. 렌터카를 임차할 경우, 주로 이용하는 회사로는 헤르츠(Hertz), 아비스(Avis), 식스트(Sixt), 유로카(Europcar) 등이며, www.billiger-mietwagen.de에서 모든 렌터카 회사의 가격을 비교할 수 있다. 그 외 최대 규모 카셰어링 플랫폼은 Car2go(www.car2go.com), 최대 규모 카풀 플랫폼은 블라블라카(www.blablacar.de) 이다.

버스

시내버스는 쾌적함과 안전함이 가장 큰 장점이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버스가 벤츠(Benz)의 고급차종을 사용하고 있으며 정확한 시간에 발착함은 물론이고 버스 운전사도 한국보다 매우 안전하게 운전하는 편이다. 인구가 많은 대도시는 두 대의 차량이 연결된 버스를 운행할

때도 있다. 요금은 구간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프랑크푸르트는 시내버스의 경우 구역에 따라 기본 도심구역이면 요금은 3.40유로이다. 약 세 정거장 미만의 단거리면 2.10유로로 이용할 수 있다.(한 정거장의 거리는 대체로 우리나라 버스 정거장의 1/2~2/3 정도의 거리이다.) 상세한 요금은 www.rmv.de/c/de/start/를 참조하면 알 수 있다.

교통수단별 요금뿐 아니라 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 적정 교통편을 찾아주는 길 안내 기능도 있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 독일 내 고속 버스(Fernbus)의 경우는 플릭스버스(Flixbus), 유로라인(Eurolines) 등이 있고 저렴하게 도시 간 이동을 할 수 있으나 자주 운행하는 편은 아니다. www.busliniensuche.de 또는 관련 앱을 이용하여 찾을 수 있다. 독일 버스의 최고 속도는 100km이다.

버스를 임차하는 경우 독일 버스 운전사는 1일 9시간 이상 운전을 할 수 없으며, 1주 2일은 1일 10시간 운전할 수 있다. 아울러 1주일 56시간 이상 운전을 할 수 없으며, 2주일간 90시간 이상 운전을 할 수 없다. 버스 운전사는 4시간 반 운전을 할 경우 45분 휴식을 취해야 한다. 버스 이동이 끝나면 버스 운전사는 하루에 최소한 11시간 동안 휴식을 취해야 하며, 이 중 버스에 시동을 걸 수 없다. 2주 3번은 휴식시간을 9시간으로 줄일 수 있다. 이 모든 시간 규정은 버스 내 전자기기가 기록하며, 법정시간을 초과할 경우 자동으로 시동이 꺼져버리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택시

택시는 도시 번화가, 중앙역, 공항, 주요 호텔, 대학가 등에 택시 대기 구역을 제외하고는 예약방식이나 호출방식으로 운행된다. 최근에는 한국의 카카오 택시와 유사한 My taxi라는 앱을 쓰는 경우가 가장 많다. 대부분 호출 후 4~15분 이내로 택시가 온다. 길가에서 지나가는 택시를 불러도 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이 한국과의 차이이다. 호출은 많은 짐이 미리 알리면, 패밀리밴 등 큰 차를 불러줄 것이다.

탑승할 어린이 승객은 유아용 카시트는 승객이 준비해야 하고 12살 미만이거나 신장이 150cm가 안되면 카시트가 없는 경우 택시는 승차를 거부한다. 현재 베를린, 뮌헨, 뒤셀도르프, 프랑크푸르트, 쾰른 5개 도시에서 우버(Uber)를 사용할 수 있다. 요금은 시간 거리 병산제가 적용되며 기본 요금은 도시마다 편차가 있으나 약 4유로이다. 이동 거리에 따라 킬로미터 당 2.40유로가 가산 된다. 공항에서 프랑크푸르트 중앙역까지 2023년 5월 기준 약 40유로가 나온다.

음주 했을 경우 프랑크푸르트 인근 지역에서는 대리 기사를 부를 수 있으며, 이 경우 택시 2대가 오고 가격은 택시 가격의 2배를 받는다. 대리 기사들은 대부분 중동 계 외국인이나 '대리'라는 단어를 알아듣는다.

다. 통신

핸드폰

독일의 주요 이동통신회사는 도이체 텔레콤(Deutsche Telekom), O2, 보다폰(Vodafone) 등이 있으며, 통신업체에 가입 후 정기 사용료(후불)를 지불하거나 선불 충전카드(USIM)를 사서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선불 충전카드는 2017년 이후 통신사 상점에서 구입할 경우에는 신분증 제시, 슈퍼나 기타 상점에서 구입할 경우 영상 채팅 방법을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통신업체를 통한 장기 가입 신청은 시내 곳곳에 통신회사 지점들이 위치해 있으므로 가까운 지점을 방문해 원하는 서비스(전화, 인터넷, 케이블TV)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을 위한 구비서류로는 여권(Pass), 거주지등록증(aktuelle Meldebescheinigung), 은행 현금카드(Bankkarte), 이메일 주소(E-Mail Adresse)가 필요하다. 핸드폰 신청 후 반나절쯤 지나면(대략 3시간)에 개통된다.

인터넷(와이파이)

대부분의 통신업체가 인터넷과 유선전화를 하나로 묶은 패키지 상품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고, 인터넷 개설의 경우 유선전화번호는 필수로 주어진다. 패키지 가격은 통신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대략 월 20~80유로 정도이다. 인터넷 및 유선 번호 설치하는 한국과 달리 통신사에 따라 최소 1주일, 길면 한 달이 소유됨으로 거주지가 정해진 직후 인터넷 신청을 할 것을 추천한다.

일반적으로 최소 계약기간은 2년이며, 기존에는 대부분의 계약이 3개월 전에 해지 통보를 하지 않으면 1년 연장됐으나, 앞으로 기한 종료

1개월 전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만약 독일에서의 체류를 말소하고 출국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해지할 수 있으나 체류 2주 전에만 해지할 수 있다.

독일의 모든 공항과 고속전철(ICE), 대부분 호텔, 식당, 카페 및 일부 공공장소에서는 무료 와이파이 사용이 가능하다.

라. 관광명소

○ 잘부르크 로마요새(Saalburg Roman Fort)

도시명	Bad Homburg
주소	Am Roemerkastell 1, 61350 Bad Homburg
운영시간	3월~10월: 월~일요일 9~18시 11월~2월: 화~일요일 9~16시
휴무일	11월~2월(월요일 휴관) 12월 24일 12월 31일
명소소개	세계문화유산에 선정된 고대 로마의 요새이다. 번잡함을 떠나 고대 로마의 성곽 등이 발굴되어 보존돼 있어 고대유적 공원을 볼 수 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입장료는 7유로이다. 계절에 따라 요일별, 개방시간이 달라짐에 주의를 요한다.
비고	전화: +49 (0) 61 75 9374 0 홈페이지: www.saalburgmuseum.de

○ 괴테 생가(Goethe Haus)

도시명	Frankfurt am Main
주소	Grosser Hirschgraben 23-25, 60311 Frankfurt am Main
운영시간	월, 화, 수, 금, 토, 일, 공휴일: 10~18시 목: 10시~21시
휴무일	1월 1일, 7월 4일, 12월 24-25일, 12월 31일
명소소개	괴테의 유년기, 소년기를 보낸 곳으로 4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중앙역에서 도보로 1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짧은 시간에 큰 울림을 주는 시내명소이다. 입장료는 10유로이고 아이 동반 가족은 15유로이다.
비고	전화: +49 (0) 69 138 800 홈페이지: www.goethehaus-frankfurt.de

○ 파울 교회 및 구시가지(St. Paul Church)

도시명	Frankfurt am Main
-----	-------------------

주소	Paulsplatz 11, 60311 Frankfurt am Main
운영시간	월~금: 10~17시 주말: 10~17시
명소소개	1848년에 독일의 첫 의회가 소집된 독일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괴테 하우스에서 300m 거리에 있으며 입장은 무료이다. 인근에 100m 범위안에 신성로마제국 대관식이 열리던 13세기 건축물인 카이저돔(Frankfurt Cathedral)과 축구 우승 등 시민행사가 열리는 뢰머광장(Roemer)이 있고 바로 옆 라인 강에는 사랑의 자물쇠가 걸려있는 아이제너 다리(Eiserner Steg)가 있다.
비고	전화: +49 (0) 69 212 34920

○ 슈테델 미술관(Staedelsches Kunstinstitut)

도시명	Frankfurt am Main
주소	Schaumainkai 63, 60596 Frankfurt am Main
운영시간	화, 수, 금, 토, 일요일: 10~18시 목요일: 10시~21시
휴무일	(월요일 휴관)
명소소개	아이제너 다리를 건너 오른쪽으로 800m 강가에 위치해 있다. 얀반에이크, 모네, 드가, 르누와르, 렘브란트 등부터 피카소, 샤갈, 몽크에 이르기까지 14세기부터 현대에 이르는 작가의 작품들을 소장한 유럽에서 손꼽히는 미술관으로 티슈바인의 괴테 그림으로도 유명하다. 입장료는 16유로이다.
비고	전화: +49 (0) 69-605098-200 홈페이지: www.staedelmuseum.de/de

○ 쟈켄베르크 자연사박물관(Naturmuseum Senckenberg)

도시명	Frankfurt am Main
주소	Senckenberganlage 25, 60325 Frankfurt am Main
운영시간	월, 화, 목, 금: 9~17시 수: 9~20시 주말: 9~18시
명소소개	프랑크푸르트 메세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위치한 박물관에는 30m 크기의 공룡 뼈 화석 및 복제품이 전시되어 있다. 입장료는 12유로, 가족티켓은 30유로이다.
비고	전화: +49 (0) 69 75 420 홈페이지: https://museumfrankfurt.senckenberg.de/de/

○ 로렐라이 언덕(The Lorelei)

도시명	Goarshausen
주소	Auf der Loreley, 56346 Strasse Goarshausen

운영시간	연중 무휴
명소소개	로렐라이가 속한 지역인 라인 강 중상류지역은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에 지정되었다. 로렐라이까지는 프랑크푸르트 중앙역에서 차량 이동으로 1시간 20분 거리이다. 매년 2백만 명이 중간에 위치한 뤼데스하임(Rudesheim)을 방문하여 그 경치를 누린다.
비고	전화: +49(0) 6771 599093 홈페이지: www.loreley-besucherzentrum.de/home/

○ 함부르크 엘브필하모니(Elbphilharmonie Hamburg)

도시명	Hamburg
주소	Platz der Deutschen Einheit 1, 20457 Hamburg
운영시간	10시~23시 45분
휴무일	연중무휴
명소소개	독일의 대형 건설 프로젝트 중 하나로 17년 1월 개장하였으며, 건물 내에는 2,100석의 그랜드 콘서트홀, 호텔, 아파트 그리고 시민의 광장 등을 갖추고 있음. 근처 Landungsbrücken역에서 출발하는 수상버스 탑승 시 필하모니 전경을 전체적으로 감상할 수 있다.
비고	홈페이지(https://www.elbphilharmonie.de)에서 공연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현지 사정에 따라 운영시간이 변동될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 함부르크 미니어처 박물관 (Miniatur Wunderland)

도시명	Hamburg
주소	Kehrwieder 2-4/Block D, 20457 Hamburg
운영시간	매월 요일 별 운영 시간이 상이. 운영 시간 관련해서는 하기의 사이트 참고 https://www.miniatur-wunderland.com/visiting/plan-your-visit/opening-hours/
휴무일	연중무휴
명소소개	2000년 설립된 이 박물관은 세계에서 가장 긴 미니어처 철도를 가지고 있으며, 총 9개의 구획으로 나누어져 아기자기한 미니어처 모델로 함부르크, 이탈리아, 미국, 스칸디나비아 및 가상 세계를 시현하고 있다. 낮과 밤을 구별하는 등 실제 생활과 근접하게 구성함으로써 방문객의 만족도가 대체적으로 높은 명소이다.
비고	홈페이지(http://www.miniatur-wunderland.de/besuch/tickets/)에서 입장권 예약이 가능하며 입장권 가격은 20유로이다.

○ 성 미카엘 교회(Hauptkirche St. Michaelis)

도시명	Hamburg
주소	Englische Planke 1, 20459 Hamburg

운영시간	11월~3월: 10시~18시(입장 마감 17시 30분) 4월과 10월: 9시~19시(입장 마감 18시 30분) 5월~9월: 9시~20시(입장 마감 19시 30분)
휴무일	연중무휴(특정 행사일 제외)
명소소개	1750년 첫 완공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수리된 교회로 제 2차 세계대전 당시에도 피해 없이 그대로 남아있다. 타워에 걸린 시계는 독일에서 가장 큰 첨탑시계이며, 타워에 올라 함부르크시 및 항구를 조망할 수 있다.
비고	홈페이지(https://www.st-michaelis.de/)에서 운영시간 등 각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입장권은 현장에서 구입 가능하며 가격은 6유로이다. 현지 사정에 따라 운영시간이 변동될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 하이델베르크 성(Heidelberg Castle)

도시명	Heidelberg
주소	Schlosshof 1, 69117 Heidelberg
운영시간	월~일요일, 공휴일 : 10~18시 (입장 마감 17시 30분)
명소소개	독일에서 제일 방문객이 많은 명소중에 한곳으로 차나 고속철(ICE)로 1시간거리이다. 거대한 포도주 통은 세상에서 제일 큰 규모를 자랑하고, 17세기에 완성된 정원에서 내려다 보는 전경 또한 유명하다. 입장료는 9유로(내부)이며 성을 오르고 내릴 수 있는 모노레일 왕복 이용이 포함된 가격이다., 성의 정상과 정원은 무료이다. 정상까지는 개인차량으로 이동, 또는 아래 주차장에서부터 모노레일을 이용하여 갈 수 있다.
비고	전화: +49 (0) 62 2153 84 72 홈페이지: www.schloss-heidelberg.de/

○ 백조의 성(Schloss Neuschwanstein)

도시명	Füssen
주소	Neuschwansteinstraße 20, 87645 Schwangau
운영시간	9~18시(4월~10월15일), 10~16시(10월 16일~3월)
휴무일	1월 1일, 12월 24~25일, 12월 31일
명소소개	바이에른의 왕 루트비히 2세(1845-1886)가 로맨틱 가도 남부 끝인 바이에른 주 뤼센(Füssen)근교의 호헨슈반가우(Hohenschwangau)에 지은 로마네스크 양식의 성. 현재 바이에른 주가 소유권을 갖고 있으며, 디즈니랜드 성의 모티브가 된 성으로 유명함. 매년 15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바이에른의 유명 관광지임.
비고	홈페이지 : http://www.neuschwanstein.de * 2023년 현재 침실, 탈의실 등 성 안의 몇 군데가 복원 공사 중이며 공사 중인 곳들은 소개 영상 관람으로 대체된다. 2024년 봄에 완공될 예정.

○ 바이에른 왕국 궁전(레지덴츠)(Munich Residence)

도시명	München
-----	---------

주소	Residenzstraße 1, 80333 München
운영시간	9~18시 (하절기/4월 1일~10월 15일), 10~17시 (동절기/10월 16일~3월 31일)
휴무일	1월 1일, 사육제 화요일(2023년 2월 21일), 12월 24~25일, 12월 31일
명소소개	1385년에 뮌헨 외곽에 Neuveste라는 성(城)을 쌓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이후 수 세기에 걸쳐 현재의 모습으로 변화. 1508년부터 1918년까지 바이에른 공작, 선제후, 왕들의 집무실 및 거처로 사용되었으며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함. 르네상스, 바로크, 로코코, 신고전주의 등 다양한 양식으로 장식된 100여개의 방 중 가장 유명한 것이 바이에른 왕실의 왕관이 전시되어 있는 보물의 방(Schatzkammer)인데, 이 밖에도 비텔스바흐(Wittelsbach) 가문의 초상화 등 많은 예술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음.
비고	홈페이지 : https://www.residenz-muenchen.de

○ 뮌헨 신시청(Munich New Townhall)

도시명	München
주소	Marienplatz 8, 80331 München
운영시간	10~20시(월~일)
휴무일	1월 1일, 1월 6일, 사육제 화요일(2023년 2월 21일), 5월 1일, 11월 1일, 12월 25~26일
명소소개	뮌헨 마리엔 광장(Marienplatz)에 위치하며 신 고딕 양식으로 건축되었음. 매일 오전 11시 및 낮 12시, 그리고 3월부터 10월까지의 추가적으로 오후 5시에 시간을 알리는 글로켄슈필(사람 크기의 인형)이 유명함. 1867~1908년 신시청사 개축 시 43개의 종과 32개의 실물사이즈 인형으로 만들어졌음. 처음에는 1568년에 있었던 바이에른 공작 빌헬름 5세(Hofbräuhaus 건립자)와 레나타의 결혼식이 재현되고 이어서 무용수들이 나와 즐겁게 춤을 추는데 이는 1515년부터 1517년까지 유행했던 페스트가 사라짐을 알리고 이를 기념하는 의식임.
비고	홈페이지 : https://www.muenchen.de/sehenswuerdigkeiten/neues-rathaus 전화번호 : +49 (0)89 23300

○ 독일 과학박물관(Deutsches Museum)

도시명	München
주소	Museumsinsel 1, 80538 München
운영시간	9~17시
휴무일	1월 1일, 사육제 화요일 (2023년 2월 21일), 3월 8일 (12시 15분 ~ 17시), 성금요일(2023년 4월 7일), 5월 1일, 11월 1일, 11월 8일 (13시 30분 ~ 17시), 12월 24~25일, 12월 31일
명소소개	1903년에 개관한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규모를 자랑하는 독일 과학박물관. 독일 및 세계의 과학 기술 발전사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으며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시설도 마련되어 있음. 지하 1층에는 박물관 소장 전시품 중 최대(42m)인 잠수함(U1, 1906년 진수)이 전시됨
비고	홈페이지 : http://www.deutsches-museum.de

○ 마인 타우누스 쇼핑몰(Saalburg Roman Fort)

도시명	Sulzbach
주소	Am Main-Taunus-Zentrum 1, 65843 Sulzbach
운영시간	월~목요일: 10시~20시 금~토요일: 10시~22시
휴무일	일요일 휴관
명소소개	시내에서의 쇼핑몰인 갤러리아(Galeria kaufhof)나 자일(Zeil)과는 다른 북적거리는 쇼핑 거리를 방문하려 할 때 가보면 유용한 곳이다. 중앙역에서 20분 거리에 있어, 가족 단위나 연인 단위 방문객들이 많다. 늘어서 있는 쇼핑의 거리와 식당들 사이를 오고 가는 모습도 이채롭다. 3시간까지 어린이를 맡길 수 있는 놀이방(kidsclub 오후 1-7시)도 유료(홈페이지참조)로 운영된다.
비고	전화: +49(0) 69 300 90 169 홈페이지: www.main-taunus-zentrum.de

<자료원 : KOTRA 프랑크푸르트, 뮌헨, 함부르크 무역관 자체정보 및 각 관광 명소 홈페이지>

마. 식당

- 현지식당

○ 린덴브로이 (Lindenbräl;u)

도시명	Berlin
전화번호	+49 (0) 30 2575 1280
주소	Bellevuestrasse 3-5, 10785 Berlin
가격	12~25유로
영업시간	매주 11시 30분~1시
휴무일	연중무휴(코로나19로 인한 록다운으로 운영시간 등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사전 확인 필요)
소개	베를린 포츠담 광장 근처에 위치한 식당으로 자체 양조장을 보유하고 있어,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에 맥주와 독일식을 즐길 수 있다.
비고	https://www.bier-genuss.berlin/lindenbraeu-am-potsdamer-platz/

○ 와인하우스 브뤼켄켈러(Weinhaus Brueckenkeller)

도시명	Frankfurt am Main
전화번호	+49 (0) 69 2980070

주소	Schuetzenstrasse 6, Frankfurt am Main
가격	50~60유로
영업시간	문의 요망
소개	10명~250명의 단체가 식사와 이벤트를 할 수 있게 준비된 곳이다. 방문전 미리 예약과 문의가 필요하다.
비고	http://brueckenkeller.blogspot.com/

○ 모제바흐(Mosebach)

도시명	Frankfurt am Main
전화번호	+49 (0) 69 4930396
주소	Sandweg 29, Frankfurt am Main
가격	10~20유로
영업시간	화요일~일요일 17~24시 (음식 주문 22시 30분 마감)
휴무일	월요일~화요일
소개	Zeil에서 400미터 떨어진 식당, 외진곳에 위치하나 주문 배달 서비스를 한다.
비고	https://www.mosebach-frankfurt.de/ www.lieferheld.de/ 라는 배달앱을 통해 배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아돌프 바그너(Adolf Wagner)

도시명	Frankfurt am Main
전화번호	+49 (0) 69 6125 65
주소	Schweizer Strasse 71, Frankfurt am Main
가격	15~30유로
영업시간	11시~24시
소개	전통식당으로 저렴한 식사도 가능하다. 예약없이 기다리며 분위기를 미리 즐기는 것도 좋은 식당이다. 슈테 델 미술관에서 12분 거리에 있다.
비고	http://www.apfelwein-wagner.com/ (해외에서 링크가 정상 작동하는 경우, 국내에서는 열리지 않을 수 있음)

○ 리스토란트 콜로세오(Ristorante Collosseo)

도시명	Frankfurt am Main
-----	-------------------

전화번호	+49 (0) 69 614386
주소	Moerfelder Landstr. 122, Frankfurt am Main
가격	10~30유로
영업시간	화-금요일, 일요일 12시-14:30시, 18시-22시, 토요일 18시-22시
휴무일	월요일 휴무
소개	피자부터 해산물요리까지 즐길 수 있는 이태리식당이다. 프랑크푸르트 남부역(Frankfurt Sued)에서 5분 거리이다.
비고	http://colosseo-frankfurt.de/

○ 빌라 레온하르디(Villa Leonhardi)

도시명	Frankfurt am Main
전화번호	+49 (0) 69 7898847
주소	Zepplinallee 18, Frankfurt am Main
가격	점심메뉴 24.5유로, 13~36유로
영업시간	화~토: 12~15시 목: 18시 30분 일: 12~17시
소개	시내공원에 위치해서 외곽의 식당같은 분위기에 적당한 가격과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이태리식당이다.
비고	http://www.villa-leonhardi.de

○ 카페 하웁트바헤(Cafe Hauptwache)

도시명	Frankfurt am Main
전화번호	+49 (0)69 21998627
주소	An der Hauptwache 15, 60313 Frankfurt am Main, Germany
가격	15~30유로
영업시간	월요일~일요일 10~23시
소개	프랑크푸르트 시내 중심인 Hauptwache에 소재한 식당으로, 10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독일 전통 식당
비고	https://www.cafe-hauptwache.de

○ 파울라너 암 돔(Paulaner am Dom)

도시명	Frankfurt am Main
전화번호	+49 (0)69 20976890
주소	Domplatz 6, 60311 Frankfurt am Main, Germany
가격	15~25유로
영업시간	11~24시
소개	전통 독일 음식인 학세(Haxe), 슈니첼(Schnitzel) 등을 바이에른 주 스타일로 조리를 했으며, 프랑크푸르트 유명 관광지인 뢰머광경 인근지에 소재한다.
비고	https://www.paulaner-am-dom.de/

○ 블록 하우스(Block House)

도시명	Frankfurt am Main
전화번호	+49 (0)69-78079474
주소	Europa-Allee 12-22, 60327 Frankfurt am Main
가격	16~40유로
영업시간	일~목요일: 12시~22시, 금~토요일 12시-23시
소개	스테이크 전문점
비고	홈페이지: https://www.block-house.de/restaurants/frankfurt-main/europa-allee/

○ 블록 브로이(Block Bräu)

도시명	Hamburg
전화번호	+49 40 - 44 40 500 - 0
주소	St. Pauli Landungsbrücken 3, 20359 Hamburg
가격	10~25유로
영업시간	월요일~일요일: 11시~24시
휴무일	연중무휴
소개	독일 정통 레스토랑으로 맛있는 요리, 수제 맥주와 정감가는 분위기의 3박자가 고루 갖춰져 현지 단골고객과 많은 관광객이 찾는 음식점이다. 함부르크 랜드마크인 란동스브뤼케 선착장에 위치해 엘베 강을 바라보며 수제 맥주와 독일 음식을 즐길 수 있다.
비고	https://www.block-braeu.de/

○ 라 세피아(La Sepia)

도시명	Hamburg
전화번호	+49 (0) 40 4322 484
주소	Neuer Pferdemarkt 16, 20359 Hamburg
가격	15~50유로(단품부터 세트메뉴까지 가격대 다양)
영업시간	일요일~목요일: 12시~23시 금요일~토요일: 12시~23시 30
휴무일	연중무휴
소개	함부르크 대표 번화가 Sternschanze에 위치한 포르투갈 해산물 요리 전문점
비고	https://la-sepia.de/

○ 라츠크엘러(Ratskeller)

도시명	München
전화번호	+49 (0)89 21 99 89 0
주소	Marienplatz 8, 80331 München
가격	10~45유로
영업시간	11~23시(월~일)
소개	뮌헨 신시청사 지하에 위치한 식당으로 가격은 저렴하지 않지만 정통 독일 요리를 맛볼 수 있음
비고	홈페이지 : https://www.ratskeller.com

○ 호프브로이하우스(Hofbraeuhaus)

도시명	München
전화번호	+49 (0) 89 290 136 - 10
주소	Platzl 9, 80331 München
가격	6.5~22.90유로
영업시간	11~24시
휴무일	연중 무휴
소개	1589년 개관한 뮌헨의 대표적인 맥주 홀. 뮌헨 옥토버 페스트의 분위기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연중 관광객으로 붐벼 빈 자리를 찾기 어려움. 히틀러가 나치당 정강정책을 발표했던 곳임
비고	홈페이지 : http://www.hofbraeuhaus.de

- 한국식당

o 바첸하우스(Batzenhaus)

도시명	Bad Soden (Taunus)
전화번호	+49 (0) 6196 23430
주소	Knoenigsteiner Strasse 157, Bad Soden (Taunus)
가격	20~40유로
영업시간	월~토: 18시~21시, 일 18시~20:30시
소개	인근 타우누스 지역에 위치하여 중앙역에서 차량 25분, 대중교통 40분이상 걸리는 거리이며 단체행사를 치를 수 있는 규모의 호텔겸 한식당이고 주말점심은 부페가 제공된다.
비고	http://www.batzenhaus.com/

o 스시마루(Sushimaru)

도시명	Eschborn
전화번호	+49 (0) 6196 6546045
주소	Hauptstrasse 82, Eschborn
가격	12~35유로
영업시간	월~금: 11시 30분~14시, 17:30~21시, 토요일 17:30-21시
휴무일	일요일, 공휴일 휴무
소개	인근 에쉬본에 위치하여 중앙역에서 차량 16분, 대중교통(S-Bahn 4) 16분의 거리이고 일식을 겸한 한국식 식당이다.
비고	https://www.sushimaru.de/

o 단골(Dangol)

도시명	Frankfurt a.M
전화번호	+49 (0)157 3334 7233
주소	Dreikönigsstraße 4, 60594 Frankfurt am Main
가격	저녁 20 유로
영업시간	월~토: 17시 30분~23시
휴무일	일요일 휴무

소개	프랑크푸르트 작센하우젠 지역에 2020년 9월에 새로 생긴 한식당
비고	https://www.facebook.com/dangolffm-110904430733318/

○ 서울포차(Seoul Pocha)

도시명	Frankfurt a.M
전화번호	+49 (0)69 9498 5508
주소	Hausener Obergasse 49, 60488 Frankfurt am Main
가격	17~30유로
영업시간	화~목: 18시~22시, 금~토: 18시~24시, 일: 18시~20시
휴무일	월요일
소개	포차 스타일 한식당
비고	https://www.seoulpocha-frankfurt.com/

○ 미소(Misho)

도시명	Frankfurt am Main
전화번호	+49 (0) 69 977 89647
주소	Adalbert Strasse 13, 60487 Frankfurt am Main
가격	점심 9~14 유로, 저녁 20~30유로 / 식사류 15~30유로
영업시간	월~목: 11:30-15시, 18-22시 금: 11:30-15시, 18-23시, 토: 12-15시, 18-23시
휴무일	일요일
소개	메세인근 한식당으로 전시장(Messe)에서 도보 15분 거리(1km), 중앙역에서 차량, 대중교통 14분 거리 (2km)에 위치하였고 특히 점심을 저렴한 가격으로 즐길 수 있는 한식당이다.
비고	www.facebook.com/pg/FrankfurtMisho/about/?ref=page_internal

○ 서울푸드(Seoulfood)

도시명	Frankfurt am Main
전화번호	+49 (0) 69 20168645
주소	Weserstrasse 17, 60320 Frankfurt am Main

가격	10~20유로
영업시간	월~일: 11시~22시
소개	중앙역에서 도보 6분 거리(400m)에 위치한 한국식 분식집 메뉴가 있는 저렴한 한식당이며 점심식사에 특화되어 있다.
비고	https://www.seoulfood.eu/

○ 미스터 리(Mr. Lee)

도시명	Frankfurt am Main
전화번호	+49 (0) 69 251198
주소	Gutleutstrasse 153, Frankfurt am Main
가격	점심 12~20유로, 저녁 20~30유로 / 식사류 15~30유로
영업시간	화~일요일: 11시 30분~14시, 17시 30분~21시 30분, 화요일 17시 30분~21시 30분
휴무일	월요일 휴무
소개	중앙역에서 도보 9분 거리(750m)에 위치한 전통 한식의 맛을 추구한다.

○ 코코(Coco)

도시명	Frankfurt am Main
전화번호	+49 (0) 69 92034786
주소	Grosse Eschenheimer Strasse 41, Frankfurt am Main
가격	10~20유로
영업시간	월~금: 오후 12~15시, 18~22시 토: 12~22시
휴무일	일요일, 공휴일
소개	중앙역에서 도보로 16분(1,5km) 떨어져 있으나 쿠테하우스에서 8분 거리(650m)로 구시가지관광시 접근성이 좋은 편이다. 가격도 저렴하다.
비고	http://www.coco-restaurant.com/

○ 강남(Restaurant KangNam)

도시명	Frankfurt am Main
전화번호	+49 (0)69 6611 3939
주소	Lyoner Strasse 44-48, 60528 Frankfurt am Main

가격	20유로 선
영업시간	월~금: 오전 11시 30분~14시 30분, 17시 30분~22시 토: 17시 30분~22시
휴무일	일요일 휴무
소개	프랑크푸르트 대한민국 총영사관 인근(400m)에 위치한 한식부페 음식점으로, 중앙역에서 차량, 대중교통 15분 거리(5km)로 단체식사가 가능하다.
비고	홈페이지 운영 안 함

○ 산마루(Sanmaru)

도시명	Frankfurt am Main
전화번호	+49 (0) 69 95112750
주소	Ginnheimer Landstrasse 183, 60431 Frankfurt am Main
가격	점심 11~12유로, 저녁 20~30유로 / 식사류 15~30유로
영업시간	화~일: 12~15시, 18~22시30분
휴무일	월요일 휴무
소개	중앙역에서 차량 16분, 대중교통(Tram 16) 22분의 위치에 떨어진 산마루 호텔안에 위치한 한식당이다.
비고	https://sanmaru.metro.rest/?lang=de

○ 소나무(Sonamu)

도시명	Frankfurt am Main
전화번호	+49 (0) 69 90437250
주소	Berger Strasse 184, 60385 Frankfurt am Main
가격	15~30유로
영업시간	월~일: 12~23시
휴무일	월요일 휴무
소개	중앙역에서 차량으로 19분, 대중교통으로 30분 거리이고 주차장은 외부 유료주차장을 이용해야 한다.
비고	https://sonamu-frankfurt.de/

○ 치킹(Chicking)

도시명	Frankfurt am Main
전화번호	+49 (0) 69 49085133
주소	Hortensienring 13, 65929 Frankfurt am Main
가격	14~26유로
영업시간	화~목요일: 12시~21시 금~토요일: 12시~22시
휴무일	일, 월요일 휴무
소개	양념치킨 전문점
비고	https://chicking-chicken-shop.business.site/?utm_source=gmb&utm_medium=referral

○ 한국(Hankook)

도시명	Frankfurt am Main
전화번호	+49 (0) 69 6500 7185
주소	Hainer Weg 100, 60599 Frankfurt am Main
가격	20~30유로
영업시간	월~토요일 17시 30분~22시, 토요일 12시~14시, 17시 30분~22시
휴무일	일요일
소개	한식 고기 부페를 전문으로 하는 식당.

○ 강나루(Gang Na Ru)

도시명	Frankfurt am Main
전화번호	+49 (0)69 629090
주소	Mainzerlandstr.791, 65934 Frankfurt am Main
가격	15~40유로
영업시간	일~금요일: 11시 30분~14시 30분, 17시 30분~22시
휴무일	토요일 휴무
소개	메뉴와 밑반찬이 다양, 점심과 저녁 가격 동일, 중앙역에서 차량 20분 정도, 주차 가능

○ 한미(Hanmi)

도시명	Hamburg
전화번호	+49 (0) 40 7801 0777
주소	Kleine Seilerstr. 1, 20359 Hamburg
가격	점심식사 : 9~12유로 저녁식사 : 18~25유로
영업시간	화~일요일: 11시 30분~15시/17시 30분~23시(15~17시는 재료준비 시간)
휴무일	월요일
소개	함부르크 지역 매거진 `Szene Hamburg`가 선정한 함부르크 지역 최고의 아시아 음식점('19년 4월)으로, 점심메뉴와 저녁메뉴를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점심메뉴의 경우 10유로 이하로 식사 가능하다.
비고	http://www.hanmi.de/

◦ 김치가이스(Kimchi Guys)

도시명	Hamburg
전화번호	+49 (0) 40 3496 0088
주소	Groß Bleichen 35, 20354 Hamburg
가격	11~17유로
영업시간	월~금요일 12시~20시 토요일: 14시~20시
휴무일	일요일
소개	함부르크 시내 중심인 Jungfernstieg 근처에 위치한 비빔밥 및 김밥 전문점
비고	https://kimchiguys.de/

◦ 레스토랑 산(San Restaurant)

도시명	Hamburg
전화번호	+49 (0)40 3085 8885
주소	Koppel 76, Hamburg
가격	8~12유로
영업시간	화요일~토요일: 12시~15시/17시 30분~21시 30분(15시~17시 재료 준비 시간) 일요일: 16시~21시 30분
휴무일	월요일
소개	함부르크 중앙역 10분 거리에 위치한 비빔밥 및 불고기 전문점

비고	https://www.facebook.com/sanrestauranthh/
----	---

○ 서울 1988 Innenstadt(본점)(Seoul 1988 Innenstadt)

도시명	Hamburg
전화번호	+49 (0) 40 1800 9190
주소	Mohlenhofstraße 7, 20095 Hamburg
가격	8~20유로
영업시간	월~목요일: 12시~15시 30분, 17시~21시 30분 금~토요일: 12시~21시 30분
휴무일	월요일
소개	떡볶이 등 분식류부터 비빔밥, 중식(짜장면 및 짬뽕), 불고기, 치킨 등 다양한 한식 취급
비고	<p>서울 1988은 함부르크에 본점 외에 2개의 체인점이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eoul 1988 Eimsbütte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소: MüggenkampstraBe 86, 20257 Hamburg - 운영시간: 화~금요일 &일요일-17시~22시, 토요일: 12시~22시 - 휴무일: 월요일 ○ Soeul 1988 Karolinenvierte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소: KarolinenstraBe 1, 20357 Hamburg - 운영시간: 월요일 &수~금요일: 12시~15시 30분, 17시~21시 30분, 토요일: 12시~2시, 일요일: 12시~24시 - 휴무일: 화요일

○ 양지 레스토랑(Restaurant Yang-Zi)

도시명	Hamburg
전화번호	+49 (0) 40 / 528 83 82-0
주소	Europaallee 21, 22850 Norderstedt
가격	15~25유로
영업시간	수~일요일: 12시~14시 30분, 17시~21시
휴무일	월~화요일
소개	다양한 한식 요리와 더불어 오리 요리와 같은 중식 요리도 제공함
비고	http://www.yang-zi.de/ 시내에서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으나, 함부르크 공항에서 차로 15분 정도 거리에 있음.

○ 요리사(Yorisa Restaurant)

도시명	Hamburg
전화번호	+49 (0) 15224866413
주소	Hudtwalckerstr.28, 22299 Hamburg
가격	화~금요일: 12시~15시 30분, 17시~20시 30분 토요일: 13시 30분~16시, 17시~20시 30분
영업시간	월요일
휴무일	비빔밥 전문점으로 소형 음식점이나 방문자 리뷰가 좋은 식당.
소개	www.yorisa.de

○ 레스토랑 김치(Restaurant Kimchi)

도시명	함부르크
전화번호	+49 (0) 40 493 871
주소	Heussweg 10, 20257 Hamburg
가격	10~35유로
영업시간	월 : 17시~23시 화~금 : 12시~15시, 17시~23시(점심시간 후 중간 휴식) 토~일 : 11시~23시
휴무일	연중무휴
소개	비빔밥, 불고기, 김치찌개, 부대찌개, 파전 등 다양한 한식 메뉴 구비
비고	https://www.kimchi-hamburg.de/

○ 도모(Domo)

도시명	Kronberg im Tanus
전화번호	+49 (0) 61 7378898
주소	Westerbachstrasse 23, Kronberg im Tanus
가격	점심 12유로, 저녁 20~30유로 / 식사료 15~30유로
영업시간	월~토요일: 오전 11시~15시, 18~23시
휴무일	일요일

소개	인근 타우누스 지역에 위치하여 중앙역에서 차량 21분, 대중교통 25분 거리이고 주차장은 무료이다. 점심 식사가 저렴하고 중국식을 겸한 한식당이다.
비고	홈페이지 운영 안함

○ 아리수(ARiSu)

도시명	München
전화번호	+49 (0)89 2424 3594
주소	Triftstraße 1, 80538 München
가격	점심 7.5~11유로, 저녁 13.8~15.8유로
영업시간	월~금요일 : 11시~20시 - 11시~14시 (점심), 14시~20시 (저녁)
휴무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소개	뮌헨 중심가 마리엔광장에서 도보로 15분 거리에 위치
비고	https://www.a-ri-su.de/

○ 서울식당(Restaurant Seoul)

도시명	München
전화번호	+49 (0)89 348 104
주소	Leopoldstrasse 120, 80802 München
가격	식사류 16.5~31유로
영업시간	화~토요일 : 18시~23시 (저녁)
휴무일	일요일, 월요일
소개	뮌헨에서 가장 오래된 한식당
비고	https://www.seoulrestaurantmunich.com/

○ 유유미(YUYUMI)

도시명	München
전화번호	+49 (0)89 242 076 24
주소	Fraunhoferstraße 7, 80469 München
가격	식사류 12~22 유로

영업시간	일~목요일 : 12시~22시 30분 금~토요일 : 12시~23시
휴무일	연중무휴
소개	뮌헨 시내 중심에 위치한 캐주얼한 스타일의 한식 전문점
비고	https://www.yuyumi.de/

○ 뮌헨 한식(HANSIK)

도시명	뮌헨
전화번호	+49 (0)179 1423 207
주소	Thomas-Wimmer-Ring 9, 80539 München
가격	7.9 유로 ~ 9.7 유로
영업시간	평일 (월~금) : 10시 ~ 15시 (아침 일찍 식사를 하려는 경우 이메일 또는 전화로 미리 연락 필요) 토요일 : 11시 ~ 20시
휴무일	일요일
소개	뮌헨 중심가에 위치한 한식당으로 비빔밥, 불고기, 짬뽕 등 다양한 한식 메뉴 구비
비고	홈페이지 : http://muenchen-hansik.de/

○ 맛(M.A.T)

도시명	München
전화번호	+49 (0) 89 9256 3772
주소	Schießstättstraße 25, 80339 München
가격	10~14유로 (점심), 16~18유로 (저녁)
영업시간	화~토요일 : 11시 30분~14시 (점심), 18시~21시 (저녁) 일요일 : 18시~21시
휴무일	월요일
소개	뮌헨 시내 (중앙역 도보 20분)에 위치한 캐주얼한 분위기의 한식당

○ 하이데크룩(Heidekrug)

도시명	Oberursel (Taunus)
전화번호	+49 (0) 6171 971 600
주소	Koenigsteiner Strasse 30, 61440 Oberursel (Taunus)
가격	점심 12,50유로, 저녁 20~30유로 / 식사류 17~30유로

영업시간	화~일요일: 11시 30분~14시 30분, 17시 30분~22시
휴무일	월요일 휴무
소개	인근 타우누스 지역에 위치하여 중앙역에서 차량 26분, 대중교통 35분 이상 걸리는 거리이며 점심식사가 저렴하고 저녁식사에는 숯불구이나 전골식사가 제공되고 주차장이 넓다.
비고	http://www.heidekrug.com/

○ 파더스(Fathers)

도시명	Schwalbach
전화번호	+49 (0) 6196 9216826
주소	Feldstrasse 10, 65824 Schwalbach
가격	점심 10~13유로, 저녁 20~30유로 / 식사류 15~30유로
영업시간	월~토: 12~15시, 18~21시
휴무일	일요일
소개	중앙역에서 차량 20분, 대중교통 28분 거리
비고	https://www.facebook.com/pg/fathersfrankfurt/posts/?ref=page_internal

○ 고궁(Gogung)

도시명	Steinbach/Ts.
전화번호	+49 (0) 6171 70370/79451
주소	Bahnstrasse 28, Steinbach/Ts.
가격	저녁 20~30유로 / 식사류 15~30유로
영업시간	문의요망 점심 휴무
소개	중앙역에서 차량 20분, 대중교통 27분 거리
비고	http://www.hotel-steinbach.de/de/

○ 이도(IDO)

도시명	Sulzbach T/s
전화번호	+49 (0)6196 7672250
주소	Cretzmarstr.6a ,65843 Sulzbach (Taunus)

가격	점심 14 유로 저녁 15-30 유로
영업시간	월-토요일 12시-14:30, 18시-22시30분
휴무일	일요일 휴무
소개	호텔 가야에서 오픈한 레스토랑, 한식과 일식 따로 구성, 중앙역에서 차량 25분 정도, 주차 가능
비고	https://www.idosulzbach.de/

<자료원 :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함부르크무역관, 뮌헨무역관 자체 정보 및 각 식당 홈페이지>

바. 호텔

- 비즈니스 호텔

o 매리어트 호텔(Marriott Hotel)

도시명	Frankfurt am Main
주소	Hamburger Allee 2-10, 60486 Frankfurt am Main
홈페이지	https://www.maritim.de/de/hotels/deutschland/hotel-frankfurt/unser-hotel
숙박료	전시 기간 Booking.com 예약 기준으로 1인 1박 450~650유로
소개	프랑크푸르트 전시장(Messe) 도보 4분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비고	5성급 호텔

o 마리팀 호텔(Maritim Hotel Frankfurt)

도시명	Frankfurt am Main
주소	Theodor-Heuss-Allee 3, 60486 Frankfurt am Main
전화번호	+49 (0) 69 7578 0
홈페이지	https://www.maritim.de/de/hotels/deutschland/hotel-frankfurt/unser-hotel
숙박료	전시 기간 Booking.com 예약기준으로 1인 1박 450~650 유로
소개	프랑크푸르트 전시장(Messe) 도보 4분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비고	5성급 호텔

o 뫼벤흐픽 호텔(Moevenpick Hotel Frankfurt City)

도시명	Frankfurt am Main
주소	Den Haager Strasse 5, 60327 Frankfurt am Main

전화번호	+49 (0) 69 788 0750
홈페이지	https://movenpick.accor.com/en/europe/germany/frankfurt/hotel-frankfurt-city.html
숙박료	전시 기간 Booking.com 예약기준으로 1인 1박 290~400 유로
소개	프랑크푸르트 전시장(Messe) 도보 7분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비고	4성급 호텔

○ 카프리 바이 프레이저 프랑크푸르트(Capri by Fraser Frankfurt)

도시명	Frankfurt am Main
주소	Europa-Allee 42, 60327 Frankfurt am Main
전화번호	+49 (0) 69 1338877888
홈페이지	https://www.frasershospitality.com/de/germany/frankfurt/capri-by-fraser-frankfurt/
숙박료	전시 기간 Booking.com 예약 기준으로 1인 1박 300~450 유로
소개	프랑크푸르트 전시장(Messe) 도보 13분, 대중교통 20분 거리이다.
비고	4성급 호텔

○ 플레밍스 익스프레스 호텔(Flemings Express Hotel Frankfurt)

도시명	Frankfurt am Main
주소	Poststrasse 8, 60329 Frankfurt am Main
전화번호	+49 (0) 69 273910
홈페이지	https://www.flemings-hotels.com/frankfurt-express-hotel
숙박료	전시 기간 Booking.com 예약기준으로 1인 1박 170~450 유로
소개	중앙역 바로 옆으로 프랑크푸르트 전시장(Messe)까지 도보 13분, 대중교통 11분 거리이다.
비고	3성급 호텔

○ 호텔 모노폴(Hotel Monopol)

도시명	Frankfurt am Main
주소	Mannheimer Strasse. 11, 60329 Frankfurt am Main
전화번호	+49 (0) 69 227370
홈페이지	https://hotelmonopol-frankfurt.com/
숙박료	전시 기간 Booking.com 예약기준으로 1인 1박 300~500 유로

소개	중앙역 바로 옆으로 프랑크푸르트 전시장(Messe)까지 도보 16분, 대중교통 12분 거리이다.
비고	3성급 호텔

○ 익셀시어(Excelsior)

도시명	Frankfurt am Main
주소	Mannheimer Strasse. 7, 60329 Frankfurt am Main
전화번호	+49 (0) 69 256080
홈페이지	https://hotelexcelsior-frankfurt.de/
숙박료	전시 기간 Booking.com 예약기준으로 1인 1박 300~500 유로
소개	중앙역 바로 옆으로 프랑크푸르트 전시장(Messe)까지 도보 16분, 대중교통 12분 거리이다.
비고	3성급 호텔

○ 비엔비 호텔(B and B Hotel Frankfurt-Hbf)

도시명	Frankfurt am Main
주소	Mainzer Landstrasse 80-84, 60327 Frankfurt am Main
전화번호	+49 (0) 69 7140190
홈페이지	https://www.hotel-bb.com/en/hotel/frankfurt-hbf
숙박료	전시 기간 Booking.com 예약기준으로 1인 1박 200~250 유로
소개	프랑크푸르트전시장(Messe) 도보 8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비고	2성급 호텔

○ 호텔 어테치(Hotel Attache)

도시명	Frankfurt am Main
주소	KoelnerStrasse 10, 60327 Frankfurt am Main
전화번호	+49 (0) 69 759001 0
홈페이지	http://www.hotelattache.de/
숙박료	전시 기간 Booking.com 예약기준으로 1인 1박 300~350 유로
소개	중앙역 바로 옆으로 프랑크푸르트 전시장(Messe)까지 도보 13분 거리이다. 대중교통 접근성은 떨어지는 편이다.
비고	3성급 호텔

○ 그랜드 엘리제 호텔(Grand Elysee Hamburg)

도시명	Hamburg
주소	Rothenbaumchaussee 10, Hamburg
전화번호	+49 (0) 40 414120
홈페이지	https://www.grand-elysee.com/
숙박료	200~270 EUR
소개	테라스, 무료 WiFi, 실내수영장, 스파, 약 400m 거리에 함부르크의 CCH 의회 센터(CCH Congress Center Hamburg)와 담토어 기차역(Dammtor Train Station) 있음
비고	5성급 호텔

○ 슈타이겐 베르거 호텔 함부르크(Steigenberger Hotel Hamburg)

도시명	Hamburg
주소	Heiligengeistbrücke 4
전화번호	+49 (0) 40 368 060
홈페이지	https://www.steigenberger.com/en/hotels/all-hotels/germany/hamburg/steigenberger-hotel-hamburg
숙박료	250~350 EUR
소개	무료WiFi, 스파, 사우나, 피트니스, 함부르크 시청과 300m 거리, 무역관과 200m 거리로 함부르크 항구로 부터 걸어서 10분 거리
비고	4성급 호텔

○ 노보텔 함부르크 알스터 (Novotel Hamburg City Alster)

도시명	Hamburg
주소	Luebecker Strasse 3, Hamburg
전화번호	+49 (0) 40-271-40-0
홈페이지	https://all.accor.com/hotel/3737/index.de.shtml?utm_campaign=seo+maps&utm_medium=seo+maps&utm_source=google+Maps
숙박료	230~400 EUR
소개	엘베 강과 알스터 강 사이 함부르크 중심가에 위치해 있으며, 호텔 앞에 지하철 역(Lübeckerstr.)이 있어 함부르크 중앙역(지하철 5분) 이동에 용이하며, 사우나, 무료 Wifi, 회의실 등을 제공. 무역관에서는 차로 15분, 지하철 20분 거리
비고	4성급 호텔

○ 호텔 이비스 함부르크 시티 (Hotel Ibis Hamburg City)

도시명	Hamburg
주소	Amsinckstraße 3, 20097 Hamburg
전화번호	+49 (0) 40-3099860
홈페이지	https://all.accor.com/hotel/8740/index.ko.shtml?utm_campaign=seo+maps&utm_medium=seo+maps&utm_source=google+Maps
숙박료	100~200 EUR
소개	스낵바 및 레스토랑 보유, 함부르크 중앙역에서 500m 거리 위치, 쇼핑 중심지인 뮙커버그(Mnckeberg) 거리로부터 700m 위치
비고	3성급 호텔, 코로나19로 인한 록다운으로 운영시간 등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사전 확인 필요

○ 햄튼 바이 힐튼 함부르크 시티 센터 (Hampton by Hilton Hamburg City Centre)

도시명	Hamburg
주소	Nordkanalstraße 18, 20097 Hamburg
전화번호	+49 (0) 40-3023720
홈페이지	https://www.hiltonhotels.de/deutschland/hampton-by-hilton-hamburg-city-centre/
숙박료	15~300 EUR
소개	함부르크 중앙역 및 버스터미널 근처에 위치한 호텔
비고	3성급 호텔

○ 호텔 더 웨스틴 그랜드 뮙헨(The Westin Grand Munich)

도시명	München
주소	Arabellastraße 6, 81925 München
전화번호	+49 (0) 89 92640
홈페이지	https://www.marriott.com/hotels/travel/mucwi-the-westin-grand-munich/?scid=bb1a189a-fec3-4d19-a255-54ba596febe2
숙박료	140 ~ 180유로 (전시기간 400 ~ 500유로)
소개	뮙헨 도심에서 10분정도 떨어져 있으며, 주변이 주택가라 조용하고 한적함
비고	5성급 호텔 *전시회 및 특정 기간동안에는 제시한 가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호텔의 사정으로 인하여 가격이 변경될 수 있음

○ 호텔 홀리데이 인 뮌헨 시티 센터(Holiday Inn Munich - City Centre)

도시명	München
주소	Hochstraße 3, 81669 München
전화번호	+49 (0) 89 48030
홈페이지	https://www.ihg.com/holidayinn/hotels/de/
숙박료	110 ~ 170유로 (전시기간 300 ~ 450유로)
소개	뮌헨 시내까지 도보로 20분, 지하철 세 정거장 거리에 위치한 비즈니스 호텔
비고	4성급 호텔 *전시회 및 특정 기간동안에는 제시한 가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호텔의 사정으로 인하여 가격이 변경될 수 있음

○ 호텔 포시즌 캠프스키 뮌헨(HOTEL VIER JAHRESZEITEN KEMPINSKI MUNICH)

도시명	München
주소	Maximilianstrasse 7, 80539 München
전화번호	+49 (0)89 21250
홈페이지	https://www.kempinski.com/en/munich/hotel-vier-jahreszeiten/
숙박료	390 ~ 450유로 (전시기간 700 ~ 840유로)
소개	뮌헨 시내 명품거리인 막시밀리안스트리트에 위치한 최고급 호텔
비고	5성급 호텔 *전시회 및 특정 기간동안에는 제시한 가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호텔의 사정으로 인하여 가격이 변경될 수 있음

○ 힐튼 뮌헨 파크(Hilton Munich Park)

도시명	München
주소	Am Tucherpark 7, 80538 München
전화번호	+49 (0)89 38450
홈페이지	https://www.hilton.com/en/hotels/muchitw-hilton-munich-park/?WT.mc_id=zELWAKN0EMEA1HI2DMH3LocalSearch4DGGenericx6MUCHITW
숙박료	150 ~ 200유로 (전시기간 400 ~ 500유로)
소개	뮌헨 영국정원 근처에 위치한 호텔로 대중교통 접근성은 떨어지는 편임
비고	4성급 호텔 *전시회 및 특정 기간동안에는 제시한 가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호텔의 사정으로 인하여 가격이 변경될 수 있음

○ 어드미랄 호텔(Hotel Admiral)

도시명	München
주소	Kohlstraße 9, 80469 München
전화번호	+49 (0)89 216350
홈페이지	https://hotel-admiral.de/?lang=en
숙박료	180 ~ 250유로 (전시기간 400 ~ 490유로)
소개	뮌헨 중앙역 인근에 위치한 호텔
비고	4성급 호텔 *전시회 및 특정 기간동안에는 제시한 가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호텔의 사정으로 인하여 가격이 변경될 수 있음

○ H4 호텔 (뮌헨 전시장)(H4 Hotel München Messe)

도시명	München
주소	Konrad-Zuse-Platz 14, 81829 München
전화번호	+49 (0) 89 9400830
홈페이지	https://www.h-hotels.com/de/h4/hotels/h4-hotel-muenchen-messe
숙박료	95 ~ 150유로 (전시기간 350 ~ 450유로)
소개	뮌헨 전시장 인근에 위치한 호텔 (전시장까지 350m, 도보로 4분 거리)
비고	4성급 호텔 *전시회 및 특정 기간동안에는 제시한 가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호텔의 사정으로 인하여 가격이 변경될 수 있음

<자료원 :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함부르크무역관, 뮌헨무역관 자체 정보 및 각 호텔 홈페이지>

- 게스트하우스

○ 제이시앤블루 게스트하우스(JC and BLUE)

도시명	Frankfurt am Main
주소	Kaiser Strasse 35, 60329 Frankfurt am Main
홈페이지	http://cafe.naver.com/jcnblue
숙박료	메세기간 기준으로 2인1실 1박기준 149,4USD (130유로), 도미토리는 1인1박에 51,7USD(40-50유로), 조식 포함
소개	중앙역 도보 6분, 전시장(Messe)까지 도보 17분, 대중교통 15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비고	2인실이나 도미토리는 화장실을 공동으로 사용해야 한다. 박람회 기간 있을 경우 조정된 금액을 주의해야 한다.

○ 벤치 민박(Bench)

도시명	Frankfurt am Main
주소	Hufnagel Strarsse 32, 60326 Frankfurt am Main
홈페이지	https://www.theminda.com/main/view.php?goodsno=8153
숙박료	개인실 (1~2인) (59유로), 조식 불포함
소개	중앙역에서 S-Bahn으로 한 정거장 떨어져 있는 Galluswarte역에서 5분거리고 전시장(Messe)까지는 대중교통으로 15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비고	숙소 전체에 총 수용인원이 2인이라는 점에 주의를 요하고, 식사제공이나 취사가 되지 않는다.(홈페이지 운영안함 예약사이트에서 확인가능)

○ 유로맘 하우스(Euromamhaus)

도시명	Frankfurt am Main
주소	Marxheimer Strasse 5, 60326 Frankfurt am Main
홈페이지	http://www.euromamhaus.com/
숙박료	1인 1박 65유로, 2인 실 110유로, 3인 실 150유로(조식, 석식 제공)
소개	중앙역에서 Tram(11번,21번)으로 8 정거장 떨어져 있는 Wickerer Strasse 역에서 5분거리고 메세까지는 대중교통으로 25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비고	1인실과 2인실 및 도미토리가 제공되어 있으나 개인실도 욕실 등은 공용이다. 유료로 공항픽업을 해준다.

○ 민들레 민박 (Guest House Mindlle)

도시명	Hamburg
주소	Haakestraße 91, 21075 Hamburg
전화번호	+49 (0) 40 7914 0072
홈페이지	http://www.mindlle.de/
숙박료	시기별로 가격 차이가 나므로 투숙희망 시기에 연락하여 가격 문의 필요
소개	함부르크 중앙역에서 S-Bahn으로 약 20분 거리
비고	아침 한식 제공, 점심식사와 저녁식사는 라면, 계란, 김치, 밥, 음료수를 제공(셀프)하며, 저녁식사는 투숙자가 원할 경우 유료로 가능

<자료원 :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자체정보 및 각 게스트하우스 홈페이지>

치안상황

여행경보 단계: 독일은 발령된 여행경보는 없는 국가이다. 독일은 경제적으로 안정성이 높고 사회가 안정돼 도난 등 범죄 발생률이 낮고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테러의 위험도 낮아 치안은 양호하다. 최근 대도시 등의 공항이나 역 주변은 소매치기 피해가 많은 편이며, 단체 여행객이 많이 이용하는 호텔 및 식당에서의 소지품 분실 사고가 가끔 발생하기도 한다. 더불어 전체 거주자 중 자국민 대비 외국인 거주자의 비율은 지속해서 증가 중인데 외국인유입자의 경우 사회적 적응과정에서 문화적 차이로 인한 오해가 생길 수 있음은 주의해야 한다. (특히 시리아내전 이후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에리트리아 등 아랍계의 난민유입은 계속되고 있고, 터키계 등 서남아시아 거주자가 지난 50년간 많이 늘어난 상태이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 이후 코로나19를 옮긴다는 등의 모욕 등을 통한 동양인에 인종차별 범죄가 신고되고 있다.

프랑크푸르트의 경우 금융가와 중앙역(Hauptbahnhof) 사이(Mainzer Landstrasse와 Kaiserstrasse 사이 거리)에 유흥가가 있으며, 마약 중독자들의 치료를 위한 무료 주사기와 마약을 배급하는 국영치료소도 위치하고 있다. 또한 동유럽, 터키 등에서 온 노동자들이 유흥을 위해 많이 찾는 곳이다. 코로나 19 사태 이후 더 많은 마약 중독자가 몰리는 상황으로 해가 진 이후에는 가급적 이 근처를 출입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응급상황 대처요령

1) 교통사고

인명피해 발생 시, 우선 경찰이나 소방서에 연락하여 사고상황을 알리면 구급차, 소방차, 경찰이 출동하여 처리한다. 소방대원이 부상자를 응급 구조한 후, 구급대원이 인근 병원으로 이송한다. 경찰은 현장에서 그리고 구급대원이 이송 중에 현장보고서를 작성한다. 차량 보험은 의무가입이고 인명피해에도 형사책임은 면책이나 고의 중과실인 경우만 문제 된다. 충돌사고 및 접촉사고 시에는 도로 옆 안전한 곳에 비켜 세운 후 상대방 차의 색깔, 번호, 운전자 이름, 신분증 주소 등을 확인한 후 주위에 있는 증인을 확보하여 현장조서작성에 이용할 수 있으면 좋다. 자동차가 움직일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장담당이 차량을 견인케 하는데 이때 운전자에게 견인될 정비공장을 문의하고 운전자가 추천하는 곳이 없으면 인근 견인장소로 견인되어 추후 처리하게 된다. 민사책임이 다르나, 보험회사에서 처리하고, 사고유발운전자가 쌍방이 아닌 경우, 피해운전자는 개인변호사를 선임하여 처리하는 방식이 추천된다.

사고를 대비해 항상 운전 시에는 신분증, 운전면허증, 보험가입증서, 차량정비 등록증을 지참하는 것이 좋으며, 평소 단골로 이용하는 정비공장 전화번호를 기억해 두는 것이 좋다. 사고 후 경찰의 현장보고서가 집으로 우편으로 배달되고 이를 작성하여 사고유발운전자를 형사 고소할 지를 정할 수 있으나 제안된 기간 내에 답신을 보내야 한다. 쌍방과실은 보험사를 불러 처리하는 것이 추천된다.

2) 여권/지갑 분실

여권이 분실될 경우를 대비해 복사본 및 휴대폰에 사본을 사진 형태로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 여권을 분실할 경우, 반드시 현지 경찰과 대사로관으로 연락해야 한다. 경찰은 현장보고서를 작성해주며 이 현장보고서가 없이 여권분실을 2회 이상 신고하게 되면 여권을 불법거래한 의심을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특정국가(예를 들면 미국)는 비자 재발급에 있어서 제한을 두기도 한다. 한국 대사관에 신고하면 단수여권 또는 여행증명서(여권의 발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 발급되는 여권대용증명서)나 여권 재발급이 가능하며, 여행증명서 만으로도 한국이나 체류 국으로의 이동이 가능하다. 여권 분실 시 재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다.

- 대사관 방문 및 발급 신청: 여권 발급 신청서, 여권 분실 신고서 작성
- 구비 서류: 분실한 구 여권의 정보 혹은 사본, 여권 사진 1매, (독일 혹은 거주 국) 체류 비자
수수료 : € 49.82 / 약 \$ 55, 독일 EC카드(계좌 직불 카드), 계좌 이체 및 현금으로 결제 가능
(단수 여권이 인정되지 않는 소수 국가 경우 혹은 방문 시 예외적으로 여행 증명서 발급. 수수료 23.50 EUR/ 약 \$ 26)

3) 응급 전화번호

- 화재 신고: 112
- 범죄 신고: 110

○ 의료지원 : 112 (앰블런스 서비스 포함)

9. 생활정보

가. 주택

주택 임차 방법 및 유의사항

독일 부동산 중개 사이트 중에서는 Immobilienscout24(www.immobilienscout24.de)가 가장 많이 쓰이며, 주재원들은 한인이 운영하는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하는 경우도 있다.

중개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월 임대료의 2.38배인데, 2015년 전에는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했으나 2015년부터는 임대인 책임이 되었다. 임차인은 임차료와 보증금을 부담하는데, 임대료는 순수임대료(Kaltmiete)와 이에 부대경비를 합한 총임대료(Warmmiete)가 있다. 프랑크푸르트의 순수임대료는 60m² 거주 공간 기준으로 1m²당 평균 월 16.17유로(www.wohnungsboerse.net, 2023년 4월 기준)이다.

임차료는 계약 체결 1년 후부터, 해당 지역 '평균 임차료' 수준까지 인상될 수 있으나, 임차료 인상의 상한선은 3년 내 20%이다. 집주인이 임차료 인상을 요구할 경우 임차인은 3개월 내로 인상을 승낙하거나 집을 비울 수 있다. 보증금(Gesetzliche Mietkaution)은 대부분 임대료 3개월 수준으로 현금으로 주인에게 지불하거나 임차보증금 통장을 주인에게 맡기는 식으로 한다. 주거은행에 임차계약을 제출하면 보증금 통장을 발급해준다. 임대기간 동안 발생한 손상에 대한 비용은 보증금에서 공제된다.

부대경비는 전년도에 비용을 평균으로 환산하고, 해당연도의 비용을 예측해 미리 자동이체(Dauerauftrag)로 지급하고, 다음 해에 실질 사용 금액을 근거로 정산한다.

임차계약 체결에 요청되는 서류는 일반적으로 여권, 재직증명서(또는 재학증명서), 지난 3개월간의 소득증명서 등이다. 임대 계약서상 불공평한 점은 집주인과 세부사항을 조율하고 수정해야 한다. 더불어 합의내용을 추가로 기록해 놓는 데, 이를 프로토콜(Protokoll)이라고 하고, 작은 문제점, 작은 손상도 명확히 쓰고 집주인의 서명을 받아두어야 한다. 사진(열쇠 개수, 온수 사용 가능 여부, 곰팡이 존재 여부, 바닥 카펫 상태 등)을 찍어두면 더욱 좋다. 특히 계약서에 원상복구 의무가 명기돼 있을 경우, Protokoll에 기재 안된 입주 전부터 존재하던 사항을 집주인이 원상회복을 요구하거나 이를 빌미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임차인 공제 단체인 Deutscher Mieterbund e.V. (mieterbund.de)에 가입해두면 권익 보호에 좋다.

임차인 보호를 위해 집주인이 변해도 이미 세입자가 입주한 경우에는 최소 3년 동안 계약해지를 할 수 없으나, 임대인의 거주 목적인 경우 임대차 계약의 갱신이 제한될 수 있다. 또한 임차인이 출산이나 중병 혹은 고령으로 인해 이사를 할 수 없을 경우는 임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집을 잘못 관리한 것에 관한 배상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다. 일반적으로 휴식 시간(오후 1시~3시, 밤 10시~아침 7시)에는 소음 유발을 피해야 한다. 난방기간(약 10월 1일부터 4월 1일) 중, 임대인은 낮 시간 동안의 실내온도를 20~22도로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난방기기를 지원할 의무가 있다.

전화

대부분 전화와 인터넷, 때로는 케이블 TV를 같이 신청하는 경우가 보편적이다. 독일에 유선망을 제공하는 업체는 도이치 텔레콤(Telekom), 보다폰(Vodafone), 오투(O2)가 있으며, 독일에서 활동하는 나머지 통신사는 상기 3개 업체가 제공하는 통신망을 사용한다. 각 통신사에서 웹사이트 또는 매점 방문을 통해 전화/인터넷을 신청할 수 있다. 전화 및 인터넷 설치가 당일 또는 다음날 이루어지는 한국과 다르게 독일 전화/인터넷 개설은 빨라도 1주일, 길면 한 달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으므로 가급적 거주지가 확정되는 즉시 신청해 놓는 것이 유리하다.

전압/플러그

전압은 230V, 주파수는 50Hz이며, 한국과 콘센트 플러그는 모양이 같고 전압이 비슷하다. 그러나 한국 전기 주파수는 60Hz이므로 50Hz/60Hz 겸용이 아닌 경우, 제품의 수명이 단축되거나 고장이 발생할 수도 있다.

식수

물은 생수를 구입해서 마시거나 정수기를 이용한다. 가정용 정수기는 필터식인 브리타(Brita)를 슈퍼, 드럭스코어, 온라인 등에서 구입할 수 있다. 수돗물은 석회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현지인들은 수돗물을 식수로 마시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생수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문화이다. 다양한 브랜드의 생수를 슈퍼마켓 등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다.

나. 차량 구입 및 운전면허

구매방법

독일에서 신규/중고 차량을 구매할 경우 온라인과 오프라인 시스템을 모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장 규모가 큰 온라인사이트는 Autoscout24(www.autoscout24.de)이며, 이 사이트에서 매수 희망하는 차량의 가격을 파악한 후 대리점 또는 중고차 딜러를 방문하여 시승해볼 것을 추천한다.

신차의 경우 대리점을 통해서만 유통되므로 대리점을 접촉해 보고 가격 및 옵션을 잘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중고차는 또는 중고차 전문 매장이거나 개인 간 직거래를 통해 구입할 수 있다. 직거래의 경우 가격은 저렴하나, 향후 고장이나 문제 발생 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개인 직거래 시 소비제품 판매법규(Vorschriften des Verbrauchsgüterkaufs)가 적용되지 않고 일반 거래법(Kaufrecht)이 적용되기 때문에 2년간의 법정 개런티 적용을 받지 못하며, 또한 매매계약서에 <Das Kraftfahrzeug wird unter Ausschluss der Sachmangelhaftung verkauft>라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 구입 후 고장이 나도 법률상의 청구권한이 없으나, 위와 같은 문구가 없을 경우 마모로 인한 손상(Verschleiss-), 일반 사용(Abnutzung-), 차량의 노화로 인한 손상(Alterungsschaeden)을 제외한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차량 판매자가 책임을 지도록 돼 있다. 중고차량 판매자는 사고차량의 경우 반드시 구매자에게 이를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데 판매자가 이를 숨기거나 속였을 경우 증명하면 차량을 반환할 수 있다. 사고차량인 것 같다는 의심이 생길 경우 차량상태의 검사를 요구할 수 있고, 일반독일자동차클럽(ADAC)이나 일반 정비소에 의뢰할 수 있다.

중고차 전문 매장을 이용할 경우 1년 개런티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중고차 유통업체에서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소비제품 판매법규(Vorschriften des Verbrauchsgüterkaufs)가 적용되기 때문에 판매인은 '중고차량의 매매에 있어서의 물적 하자에 관한 책임(Sachmangelhaftung beim Gebrauchtwagenkauf)'을 회피할 수 없다.

1년이나 2년의 개런티를 보장받는 경우에도 차량 구입자가 원하는 대로 수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수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를 두고 다툼이 일어나기도 한다.

최근에는 차량 보험, 세금 수리비가 포함된 상품을 월정 사용료를 내고 장기로 이용하고 이용 후 차량을 반납하는 장기 렌트인 아우토 아보(Auto Abo)도 제공되고 있다.

차량가격

독일은 자동차 가격이 비싼 편이라 통상적으로 일정 기간 근무 후 귀국하는 주재원들은 대부분 신차를 구입하지 않고 4~5년 된 중고 차량을 구입하며, 이 경우에도 차량에 따라 약 15,000~30,000유로 정도가 소요된다. Autoscout24(www.autoscout24.de)에서 각 브랜드의 신규차, 중고차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운전면허 취득

독일 체류 기간 중 운전면허는 독일에서 취득하는 방법, 한국에서 취득한 운전면허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독일 내에 거주지가 없는 무비자 여행객의 경우 한국 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다. 단, i) 유효한 한국 운전면허증, ii) 동 면허증에 대한 재외

공관 발행의 번역공증서, iii) 여권을 함께 지참하여야 한다.

독일에 장기간 체류를 위하여 거주등록(Anmeldung)을 한 이후에는 이 시점부터 6개월간만 한국 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다.

국제운전면허증은 독일 내에서 독자적 의미가 없고, 우리 면허증에 대한 재외공관 발행의 번역공증서를 대신하는 영문번역서 정도의 기능을 수행할 뿐이다. 보통 렌터카 회사나 경찰도 국제운전면허증을 보여주면 한국 면허증을 제출하라고 한다.

독일 체류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 한국 운전면허를 독일면허증으로 교환해야 한다.

담당 독일 면허증발급기관(Führerscheinstelle)을 방문하여, 여권 및 유효한 독일체류허가,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거주등록증(Anmeldung), 한국운전면허증 원본과 사본, 한국운전면허증의 독일어 번역공증(총영사관 민원실 발급), 여권용 사진, 수수료를 제출하면 된다.

한국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은 독일 국내 운전면허 학원 수강을 통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운전면허 취득 비용은 한국보다 비싼 편(약 1,500~3,500유로)이고, 필기 및 주행시험도 한국보다 까다로운 편이며, 운전학원에 직접 가서 의무적으로 이론 수업에도 참석해야 한다.

다. 은행 계좌 개설

주요은행

독일의 주요 은행으로는 도이치뱅크(Deutsche Bank), 코메르츠뱅크(Commerzbank)와 각 도시마다 있는 슈파카세(Sparkasse)등이 있다. 최근에는 N24, ING-Diba, DKB, Comdirect, Consorsbank, Advanzia Bank 등 수수료가 저렴한 온라인은행 사용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독일에 진출한 한국계 은행으로 외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이 있다.

계좌 개설방법

계좌를 개설할 때 경우 여권 및 거주지 등록증(Anmeldung)을 제출해야 한다. 계좌를 곧바로 개설할 수 없고 따로 은행 직원과 약속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계좌 개설 후 우편으로 한국의 체크카드 같은 EC 카드, EC 카드 비밀번호,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 모바일 뱅킹 비밀번호가 각각 2주 정도에 걸쳐서 개별 송부된다.

인터넷뱅킹 및 계좌이체 시 스마트폰으로 은행 전용 앱을 다운받아야 하며, 앱으로 고유 QR Code를 읽으면 이체번호가 뜨는 Photo-TAN 방식을 주로 이용한다.

계좌 개설 시 소득수준에 따라 한국과 같이 마이너스 통장의 개설도 가능하다. 독일에는 계좌 유지비가 있어서 월 5~15유로를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계좌로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 이상이 입금되거나 학생 신분 및 나이 등 조건에 따라 계좌 유지비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다.

인터넷은행의 경우 계좌 개설 시 쿠폰이나 현금일정액(50~100유로)을 주기도 한다.

라. 교육

- 주요 국제학교

- FIS Frankfurt International School

도시명	Oberursel
커리큘럼	초등(3살 이상부터), 중등 및 고등 교육 과정과 더불어 다양한 방과후 활동 등을 제공한다.
학비	약 11,590~29,210유로
홈페이지	fis.edu
비고	1961년에 설립되었으며, FIS는 약 60여개국에서 온 학생이 모인 국제학교이다. FIS의 캠퍼스는 오버우어 젤과 비스바덴에 있으며, 비스바덴은 한국의 초등학교 연령에 대해서만 지원을 한다.

◦ ISF International School Frankfurt-Rhein-Main

도시명	Frankfurt am Main
커리큘럼	유치원부터 고등 교육 과정까지 있으며, 다양한 액티비티/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학비	약 13,770~22,350유로
홈페이지	isf.sabis.net
비고	1995년에 설립되었으며, 주요 과목뿐만 아니라 Art, IT, 한국어 등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 Strothoff International School

도시명	Dreieich
커리큘럼	유치원(3세 이상)부터 고등 교육(12학년)까지 교육 과정을 제공한다.
학비	약 13,188~21,720유로
홈페이지	www.strothoff-international-school.com
비고	프랑크푸르트와 다름슈타트 사이에 있는 Dreieich에 있으며, 2009년에 개설된 학교로 교복을 착용한다.

◦ Metropolitan School Frankfurt

도시명	Frankfurt am Main
커리큘럼	유치원(3세 이상)부터 고등 교육(12학년)까지 교육 과정을 제공한다.
학비	약 13,716~19,068유로
홈페이지	m-school.de
비고	2007년에 설립되었고, 약 55개국에서 온 학생이 모인 국제학교이다. 프랑크푸르트 중서부에 위치한 뢰델 하임에 캠퍼스를 두고 있다.

◦ Hamburg International School(ISH)

도시명	Hamburg
-----	---------

커리큘럼	유치원(3세 이상)부터 고등 교육(12학년)까지 교육 과정을 제공한다.
학비	약 11,830~23,290유로
홈페이지	www.ishamburg.org
비고	1957년에 설립되었고, 약 50개국에서 온 학생이 모인 국제학교이다.

◦ BIS(Bavarian International School)

도시명	Muenchen
커리큘럼	유치원(3세 이상)부터 고등 교육(12학년)까지 교육 과정을 제공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ternational Baccalaureate Primary Years Programme (IBPYP) : 3세-12세 ◦ International Baccalaureate Middle Years Programme (IBMYP) : 13세-16세 ◦ International Baccalaureate Diploma (IBDP) and Career-related (IBCP) Programmes : 16세-19세
학비	약 16,340~22,090유로
홈페이지	www.bis-school.com
비고	1991년에 설립되었고, 60여개국에서 온 학생(약 1,200명)이 모인 국제학교이다. 뮌헨 시내와 뮌헨 북부 하임하우젠에 2개의 캠퍼스가 있다.

◦ ESRM(European School RheinMain)

도시명	Bad Vilbel
커리큘럼	유치원(4세 이상)부터 고등 교육(12학년)까지 교육 과정을 제공한다.
학비	약 5,400~13,200유로
홈페이지	www.es-rm.eu
비고	2012년에 설립되었고, 75여개국에 온 학생(약 1,655명)이 모인 국제학교이다. 또한 헤센 주의 재정 지원을 받는 대안학교(Ersatzschule)로, 법적 보호자의 소득세에 따라 학비가 다르게 측정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MIS(Munich International School)

도시명	Starnberg
커리큘럼	유치원(4세 이상)부터 고등 교육(12학년)까지 교육 과정을 제공한다.
학비	약 12,400~25,164유로
홈페이지	www.mis-munich.de
비고	1966년에 설립되었고, 65여개국에 온 학생(약 1,250명)이 모인 국제학교이다. 뮌헨 시내에서 차로 35분정도 걸리는 뮌헨 남서부 슈타른베르크에 위치하고 있다.

- 현지학교

o Mendelssohn-Bartholdy-Schule

도시명	Sulzbach
커리큘럼	협력적 종합학교(kooperative Gesamtschule)로, 세 가지의 학교 종류(Hauptschule/직업교육, Realschule/직업교육, Gymnasium/인문계중등학교)를 통합하고 있다.
학비	학비는 없으나, 식비 등은 부담해야 한다.
홈페이지	www.mbs-mtk.de
비고	프랑크푸르트 인근 Sulzbach에 위치하고 있다.

o Bettinaschule

도시명	Frankfurt am Main
커리큘럼	9학년제 인문계 중고등학교(Gymnasium)다.
학비	학비는 없으나, 식비 등은 부담해야 한다.
홈페이지	www.bettinaschule-frankfurt.de
비고	프랑크푸르트 시내 Westend에 위치하고 있다.

o Goethe-Gymnasium

도시명	Frankfurt am Main
커리큘럼	9학년제 인문계 중고등학교(Gymnasium)다.
학비	학비는 없으나, 식비 등은 부담해야 한다.
홈페이지	gg-ffm.de
비고	프랑크푸르트 시내에 위치해 있고 인근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김나지움 중에 하나이며,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있다.

o Freie Waldorfschule

도시명	Frankfurt am Main
커리큘럼	각 연방주의 가이드라인이나 커리큘럼을 채택하지 않고, 발달심리학에 기반을 두고 있다.
학비	월 335유로, 둘째랑 같이 다니면 월 560유로(학생당 280유로)이다.
홈페이지	waldorfschule-frankfurt.de

비고	오스트리아 인지학자 슈타이너의 발도르프 교육 이념을 따르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과정의 사립학교이다 . 독일에 약 250개의 발도르프 학교가 있다.
----	--

○ Gymnasium Christianeum

도시명	Hamburg
커리큘럼	김나지움 과정으로, 라틴어, 중국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등의 외국어 교육 과정도 제공한다.
학비	학비 없다.
홈페이지	www.christianeum.de
비고	1738년 당시 덴마크 왕인 크리스티안 6세(Christian VI.)가 설립한 김나지움(인문계 중고등학교)이다. 함부르크 지역에서 요하네움(Johanneum)과 더불어서 가장 명문 김나지움으로 알려져 있다.

<자료원 :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뮌헨 무역관 자체정보 및 각 기관 홈페이지>

마. 병원

○ Dr.김지현(Chi-Hyun Kim)소아과

도시명	Liederbach am Taunus
주소	Eichkopfaller 55A, 65835 Liederbach am Taunus
전화번호	+49 (0)6196 5255600
진료과목	소아과
비고	이메일 : kinderarztpraxis.kim@gmail.com

○ Dr.송지은 피부과 (Privatpraxis Dr. med. S. Song)

도시명	Kronberg im Taunus
주소	Westerbachstrasse 23b, 61476 Kronberg im Taunus
전화번호	+49 (0)6173 7834740
진료과목	피부과
비고	예약시 Dr. Song과 치료를 원한다면 미리 알려야 함/ 이메일 : info@dermasong.de

○ Charité – Universitätsmedizin Berlin

도시명	Berlin
주소	Charitéplatz 1, 10117 Berlin
전화번호	+49 (0)30 45050

진료과목	종합병원
------	------

○ Dr. 문영혜(Young-Hea MOON) 내과 (PRAXIS AM GRUENEBURGWEG)

도시명	Frankfurt am Main
주소	Grueneburgweg 12, 60322 Frankfurt am Main
전화번호	+49 (0) 69 95908410
진료과목	내과
비고	-홈페이지 : www.praxis-am-grueneburgweg.de -이메일 : info@praxis-am-grueneburgweg.de

○ Dr. 이강훈(Kang-Hun Lee) 내과 – (Gemeinschaftspraxis Lee • Mieke • Lee)

도시명	Frankfurt am Main
주소	Nidacorso 1, 60439 Frankfurt am Main
전화번호	+49 (0)69 571005
진료과목	내과
비고	-홈페이지 : www.praxis-lml.de -이메일 : anmeldung@praxis-lml.de

○ 프랑크푸르트 대학병원(Universitaetsklinikum Frankfurt)

도시명	Frankfurt am Main
주소	Theodor-Stern-Kai 7, 60590 Frankfurt am Main
전화번호	+49 (0)69 63010
진료과목	종합병원
비고	-홈페이지 : www.kgu.de -이메일 : info@kgu.de

○ St. Elisabethen Krankenhaus Frankfurt

도시명	Frankfurt am Main
주소	Ginnheimer Strasse 3, 60487 Frankfurt am Main
전화번호	+49 (0)69 79390
진료과목	종합병원

비고	-홈페이지 : www.elisabethen-krankenhaus-frankfurt.de -이메일 : st-elisabethen@artemed.de
----	---

◦ Asklepios Klinik St. Georg

도시명	Hamburg
주소	Lohmuehlenstrasse 5, 20099 Hamburg
전화번호	+49 (0)40 1818850
진료과목	종합병원
비고	-홈페이지 : www.asklepios.com/hamburg/sankt-georg/ -이메일 : info.stgeorg@asklepios.com

◦ Marien Krankenhaus

도시명	Hamburg
주소	Alfredstrasse 9, 22087 Hamburg
전화번호	+49 (0)40 25460
진료과목	종합병원
비고	-홈페이지 : www.marienkrankenhaus.org -이메일 : info@marienkrankenhaus.org

◦ Dr.김민성 치과 (Zahnarztpraxis KIM)

도시명	Hochheim am Main
주소	Mainzer Strasse 7, 65239 Hochheim am Main
전화번호	+49 (0)6146 8160999
진료과목	치과
비고	홈페이지 : zahnarztpraxis-kim.business.site

◦ 뮌헨 루드비히 막시밀리안 대학 부속 병원 (Klinikum der Universitaet Muenchen)

도시명	Muenchen
주소	Marchioninstrasse 15, 81377 Muenchen
전화번호	+49 (0)89 44000
진료과목	종합병원

비고	-홈페이지 : www.lmu-klinikum.de -이메일 : info@klinikum.uni-muenchen.de
----	---

○ 뮌헨공대 부속병원 (Klinikum rechts der Isar der Technischen Universitaet Muenchen)

도시명	Muenchen
주소	Ismaninger Strasse 22, 81675 Muenchen
전화번호	+49 (0)8941400
진료과목	종합병원
비고	-홈페이지 : www.mri.tum.de -Contact 링크 : www.mri.tum.de/kontakt

○ Dr. 이현경(Hyun Kyung Lee)

도시명	Muenchen
주소	Friedrichshafener Strasse 7, 81243 Muenchen
전화번호	+49 (0)89 82040555
진료과목	일반의학(Allgemeinmedizin)
비고	참고 홈페이지 : www.jameda.de/hyun-kyung-lee/allgemeinmediziner-akupunkteur/muenchen

○ 도손 한의원(Naturheilpraxis Doson), KMD 윤국현 원장(Kukhyun Yun)

도시명	Oberursel
주소	Holzweg-Passage 2A, 61440 Oberursel
전화번호	+49 (0)6171 9784412
진료과목	한의원
비고	-홈페이지 : www.praxis-doson.de -이메일 : info@praxis-doson.de

<자료원 :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함부르크 무역관 자체정보 및 각 병원 홈페이지 >

바. 쇼핑 및 여가생활

- 쇼핑센터/몰/백화점

○ Alsterhaus 백화점

도시명	Hamburg
주소	Jungfernstieg 16-20, 20354 Hamburg
홈페이지	alsterhaus.de
비고	함부르크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백화점

○ Fuenf Hoefe 쇼핑물

도시명	Muenchen
주소	Theatinerstrasse 15, 80333 Muenchen
홈페이지	fuenfhoefe.de
비고	뮌헨 중심가에 있는 쇼핑물

○ MyZeil 쇼핑물

도시명	Frankfurt am Main
주소	Zeil 106, 60313 Frankfurt am Main
홈페이지	www.myzeil.de
비고	프랑크푸르트 중심가에 있는 쇼핑물

○ Skyline Plaza 쇼핑물

도시명	Frankfurt am Main
주소	Europa-Allee 6, 60327 Frankfurt am Main
홈페이지	www.skylineplaza.de
비고	프랑크푸르트에 위치한 쇼핑물

○ GALERIA Frankfurt an der Hauptwache 백화점 (프랑크푸르트 지점)

도시명	Frankfurt am Main
주소	Zeil 116-126, 60313 Frankfurt am Main
홈페이지	www.galeria.de
비고	독일에 대도시마다 있는 백화점

<자료원 : KOTRA 프랑크푸르트, 함부르크, 뮌헨 무역관 자체정보 및 각 쇼핑물 홈페이지>

◦ Kim's Laden 김씨 상회

도시명	Eschborn
주소	Bremer Strasse 2-6, 65760 Eschborn, Germany
취급 식료품	한국 식료품
비고	-홈페이지 : kims-laden.business.site

◦ Green Mart 그린마트

도시명	Eschborn
주소	Rudolf-Diesel-Strasse 7, 65760 Eschborn, Germany
취급 식료품	한국 식료품

◦ Asia Markt(신세계 한국 식품점)

도시명	Frankfurt am Main
주소	Hohenstaufenstrasse 11, 60327 Frankfurt am Main
취급 식료품	한국 식료품
비고	-중앙역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는 중간규모의 한국 식품점

◦ Hanuri Mart Asiatisch-Koreanischer Lebensmittelladen (한우리 한국 식품점)

도시명	Wiesbaden
주소	Ludwigsplatz 2, 55252 Wiesbaden
취급 식료품	한국 식료품

◦ TAISAN Asia Supermarkt (태산)

도시명	Frankfurt am Main
주소	Fahrgasse 95, 60311 Frankfurt am Main
취급 식료품	한국 식료품
비고	구시가지 인근에 있는 중간규모의 식품점

◦ 한독마트 2호점

도시명	Frankfurt am Main
-----	-------------------

주소	Leonardo-da-Vinci-Allee 4-8, 60486 Frankfurt am Main
취급 식료품	한국 식료품
비고	-독일마트 Tegut 안에 위치하는 중간규모의 식료품점 -홈페이지 : handokmall.kr

○ Y-Mart 와이마트

도시명	Frankfurt am Main
주소	Koenigsteiner Strasse 95, 65929 Frankfurt am Main
취급 식료품	한국 식료품
비고	-규모가 큰 편인 한인마트 -홈페이지 : www.y-mart.de/ko

○ Go Asia Supermarkt(고 아시아 - 프랑크푸르트 지점)

도시명	Frankfurt am Main
주소	Zeil 90, 60313 Frankfurt am Main
취급 식료품	아시아 식료품
비고	-독일에 여러 지점을 보유하고 있는 대형 아시아 식품점 -홈페이지 : goasia.net/de

○ Asiamarkt Mipoong(미풍 아시아마켓)

도시명	Hamburg
주소	Rosenstrasse 6, 20095 Hamburg
취급 식료품	한국/아시아 식료품
비고	-전화번호 : +49 (0)40 324431

○ Koreanischer Asia Shop

도시명	Muenchen
주소	Mozartstrasse 3, 80336 Muenchen
취급 식료품	한국/아시아 식료품
비고	-전화번호 : +49 (0)89 531906

○ Handok Mart 한독마트(본점)

도시명	Oberursel
주소	Im Rosengaertchen 37-43, 61440 Oberursel
취급 식료품	한국 식료품
비고	-홈페이지 : handokmall.kr

<자료원 :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함부르크 무역관 자체정보>

- 기타 편의시설

o Louise.26 루이제 26

도시명	Bad homburg vor der Hoehe
주소	Louisenstrsse 26, 61348 Bad homburg vor der Hoehe
홈페이지	www.louise26.de
소개	한국식 베이커리 및 카페

o Sportschule Seoul

도시명	Frankfurt am Main
주소	In der Schildwacht 11, 65933 Frankfurt am Main
홈페이지	taekwondo-seoul-frankfurt.de
소개	태권도장

o Schwimmschule Wasserfloehe & Wasserfroesche

도시명	Frankfurt am Main
주소	Wilhelmshoeher Strasse 34, 60389 Frankfurt am Main
홈페이지	wasserfloehe.de
소개	수영강습 시설
비고	현지시설

o Schwimmschule Frankfurt

도시명	Frankfurt am Main
주소	Rhoenstrasse 117, 60385 Frankfurt am Main
홈페이지	schwimmschule-frankfurt.de

소개	수영강습 시설
비고	현지시설

◦ Golf-Club Golf Range Frankfurt

도시명	Frankfurt am Main
주소	Am Martinszehnten 6, 60437 Frankfurt am Main
홈페이지	www.golfrange-ffm.de
소개	골프클럽
비고	현지시설

◦ Frankfurter Golf Club e.V.

도시명	Frankfurt am Main
주소	Golfstrasse 41, 60528 Frankfurt am Main
홈페이지	www.fgc.de
소개	골프클럽
비고	현지시설

◦ Beyond Style (비욘드 스타일)

도시명	Frankfurt am Main
주소	Pariser Strasse 4, 60486 Frankfurt am Main
홈페이지	www.beyondstyling.org
소개	헤어샵
비고	한인 미용실

◦ Beauty Park (뷰티 박)

도시명	Kronberg im Taunus
주소	Sodener Strasse 70, 61476 Kronberg im Taunus
홈페이지	beautyparkhair.blogspot.com
소개	헤어샵

비고	-한인 미용실 -전화번호 : +49 (0)6173 9988680
----	--

○ Charly Kwon Hair (찰리 권)

도시명	Oberursel
주소	hohemark Strasse 12, 61440 Oberursel
홈페이지	www.charlykwonhair.de
소개	헤어샵
비고	-한인 미용실 -전화번호 : +49 (0)6171 9609892

<자료원 :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자체정보>

사. 현지 공휴일

없음.

10. KOTRA 무역관 안내

○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무역관 주소 및 우편배송지

- 주소: Messeturm, 33. OG, Friedrich-Ebert Anlage 49, 60308 Frankfurt am Main
- 전화번호: +49 (0)69 242 9920
- 이메일: frankfurt@kotra.or.kr
- 홈페이지: www.kotra.or.kr/frankfurt

공항-무역관 이동

- (지하철) 공항에서 5분 거리인 Regionalbahnhof 역에서 중앙역(Hauptbahnhof) 방향 S8 또는 S9 승차- Frankfurt 중앙역 (Frankfurt Hauptbahnhof)에서 하차-복켄하이머 바르테(Bockenheimer Warte) 행 U4 탑승
 - 중앙역에서 하차한 후 중앙역 입구 앞 큰길 건너편에서 지상전철(Tram: 메세(Messe) 방면 16번 또는 17번 로 갈아타-페스트할레/메쎄역(Festhalle/Messe) 역에서 하차하는 방법도 있음. 역에서 북쪽 출구로 나와 도보로는 약 10~15분 정도 소요된다.
 - 요금은 성인요금 기준 (만 15세 이상 적용) 공항에서 메세까지 5.80유로. 어린이(만6-14세) 3.40유로, 6세 미만은 무료이다.
- (버스) 시내까지 한 번에 오는 버스노선은 없다.
- (택시) 공항에서 무역관까지 약 40유로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 (건물 도착 후) 로비 Security Desk에서 방문처를 밝히고 신분증을 제시하면 무역관에 유선으로 확인 후 출입하게 해 주며, 무역관 방문 전 이메일 또는 유선으로 방문 일정을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좋다. 무역관 사무실은 33층에 소재한다.

○ 함부르크 무역관

무역관 주소 및 우편배송지

- 주소: Axel-Springer-Platz 3, Haus B, 20355 Hamburg, Germany
- 전화번호: +49 (0)40 3405-740
- 이메일: info@kotra.de
- 홈페이지: www.kotra.or.kr/hamburg

공항-무역관 이동

- (지하철) S1 Stadthausbrücke 역 혹은 U3 Rdingsmarkt 역 하차, 도보 5분 거리 위치
- (버스) 중앙역 HBF/MnckebergstraBe 역에서 버스 3번 탑승, Axel-Springer-Platz 역에서 하차
- (택시) 무역관 주소(Axel-Springer-Platz 3)를 택시 기사에게 보여주면 도착 가능 (약 25분 소요)
- 참고사항
 - KOTRA 독일 함부르크 무역관은 Hanse Forum 빌딩 B동, 2층에 입주해 있음.

○ 뮌헨 무역관

무역관 주소 및 우편배송지

- 주소: 5th floor Bürkleinhaus, Bürkleinstraße 10, 80538 München, Germany
- 전화번호: +49 (0)89 2424-2630
- 이메일: munich@kotra.or.kr
- 홈페이지: www.kotra.or.kr/KBC/munich/KTMIUI010M.html

공항-무역관 이동

- (지하철) 뮌헨공항 역에서 전철(S 1번 혹은 S 8번)을 타고 Isartor역에서 하차 후 Thierschstrasse 방향의 출구로 이동
 - 출구로 나와 바로 좌측의 길을 따라 Thomas-Wimmer-Ring 도로를 따라 350m 정도를 걸어오시면 Maximilianstrasse 사거리가 나오며, 사거리에서 걸어온 방향으로 신호등을 건너서 Karl-Scharnagl-Ring 도로를 따라 150m 정도 직진 후 우측의 OBJECT CARPET 소름이 위치한 빌딩 5층에 뮌헨 무역관(Korea Business Center Muenchen)이 위치하고 있음
- (공항버스) 공항 터미널 1 또는 2에 있는 공항버스 승강장에서 15분 간격으로 출발하는 루프트한자 공항버스(Lufthansa Air Bus)를 타고 중앙역(München Hauptbahnhof)까지 온 후 전철(U-Bahn 4호선 및 5호선 탑승 후 Lehel역 하차) 또는 택시 이용을 추천(공항버스 요금: 11.50유로, 버스 내 구입 시: 12.50유로)
- (택시) 공항, 중앙역(Hauptbahnhof) 등 택시 승강장이 있는 경우는 바로 탑승하면 되고, 일반적으로는 전화를 걸어 택시를 불러야 함(Call Taxi 전화번호: 21610).
 - 택시 탑승 후 뮌헨무역관 주소(Bürkleinstraße 10, 80538 München)를 택시운전사에게 제시하면 바로 뮌헨무역관 앞까지 올 수 있으며, 공항에서 무역관까지는 약 95유로, 중앙역에서 뮌헨무역관까지는 약 20유로 소요

11. 전시회 정보

전시회명	기회기간(잠정)	장소	주최
2024 독일 뒤셀도르프 미용 전시회 [BEAUTY DUSSELDORF]	2024-03-22 ~ 2024-03-24	Düsseldorf	Messe Düsseldorf GmbH
2024 독일 하노버 산업 전시회 [Hannover Messe]	2024-04-22 ~ 2024-04-26	Hannover	Deutsche Messe AG
2024 독일 쾰른 게임 전시회 [Gamescom]	2024-08-21 ~ 2024-08-25	Köln	Koelnmesse GmbH
2024 독일 베를린 가전 및 멀티미디어 전 시회 [IFA Berlin]	2024-09-06 ~ 2024-09-10	Berlin	Messe Berlin GmbH
2024 독일 프랑크푸르트 자동차 부품 전시 회[Automechanika Frankfurt]	2024-09-10 ~ 2024-09-14	Frankfurt	Messe Frankfurt Exhibition GmbH
2024 독일 뒤셀도르프 의료기기 전시회 [MEDICA]	2024-11-11 ~ 2024-11-14	Düsseldorf	Messe Düsseldorf GmbH
2025 독일 뮌헨 생산 공학, 자동화 전시회 [Automatic]	2025-06-24 ~ 2025-06-27	München	Messe München GmbH
2025 독일 하노버 공작기계 전시회 [EMO]	2025-09-22 ~ 2025-09-27	Hannover	Verein Deutscher Werkzeugmaschi nenfabriken e.V. (VDW)
2025 독일 쾰른 식품 전시회 [Anuga]	2025-10-04 ~ 2025-10-08	Köln	Koelnmesse GmbH
국가정보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